

For 2022 피램의 기출마무리
6주차 해설지

6주차 DAY 1 [1~4]

2022.06 [14~17] 과학 'PCR' ☆☆☆☆☆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라는 개념이 등장하네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다고 합니다. PCR라는 기술의 '목적'이 되겠네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LFIA 키트' 지문에서 어떻게 '검사'하는지 궁금했던 것처럼, 이 지문 역시 'PCR를 통해 어떻게 DNA를 증폭시킬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네요.

이후 PCR의 사용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는데, 정보량이 많아서 부담스럽더라도 최대한 기억하려고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2, 3문단에서 이 구성요소들을 사용할 때 엮어가며 이해해줄 수 있어요. 아췌든 각 구성요소를 하나씩 체크해봅시다.

주형 DNA는 말 그대로 '주형/DNA'입니다.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DNA이니깐 '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중' 가닥이라고 합니다. 가닥을 두 개 가지나 보네요. 여기서 우리가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즉, 증폭을 목표로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합니다. 이 역시 어휘를 살려서 이해해줍시다. 증폭의 '표적'이 되는 'DNA'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네요. 한편, '표적 DNA'는 '단일' 가닥이네요? 차이점을 인지해줍시다.

그리고 '프라이머'의 정의가 나오네요. 특이한 점은 '프라이머'와 '표적 DNA'의 일부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표적 DNA'와 일부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합니다. '프라이머'의 활용이 '표적 DNA'의 증폭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의를 챙겨놔야 나중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표적 DNA'의 '증폭'에 대해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DNA를 복제한다는 것은 '증폭'한다는 말의 재진술입니다. 즉, 기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DNA 중합 효소에 대한 설명을 독해할 때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 효소는 '단일' 가닥 DNA의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구성요소 중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사용한다는 점은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 '단일' 가닥에 '결합'시키니까 '이중' 가닥 DNA가 되나 봅니다.

문단에 정보량이 엄청 많지만, 기술 지문이 흔히 그랬듯 이 정보들을 챙기지 않으면 뒤에 가서 힘들어집니다. 실전에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각 구성요소의 어휘를 살려서 이해하는 것, '단일' 가닥과 '이중' 가닥의 미묘한 차이 체크를 해놔야 하고, '표적 DNA'를 '증폭'하는 것이 이 기술의 목적, 즉 우리의 독해 목표라는 점을 생각해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각 정보를 완전히 외우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새끼 문제 해설

Q1. PCR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답 : DNA 중합 효소

- 기술 지문 독해의 핵심은 '목적'의 파악입니다. PCR라는 기술의 목적이 'DNA 증폭'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어떤 요소가 DNA를 증폭시키는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읽으셨어야 합니다. LFIA 키트에서 '반응막'의 '검사선'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라는 화제를 제시하며 기술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지문 초반에 나오는 '기술의 목적(화제겠죠?)'을 중심으로 지문을 독해해줘야 합니다.

#구성요소 제시 ☆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네 가지 구성요소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지문의 1, 2문단에는 수많은 구성요소가 나오곤 합니다. 정보량에 대한 압박이 있겠지만, 기술 지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속도를 늦춰서 이 정보들의 정의를 최대한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독해 태도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정의 제시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앞 문장에 제시된 구성요소들의 정의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표적 DNA의 증폭'이라는 '화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요소를 체크해주는 것과 어휘를 중심으로 각 구성요소의 정의를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주'가 되는 'DNA', 증폭의 '표적'이 되는 'DNA',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어휘를 살려서 이해하기 힘들죠?), '단일 DNA' 두 가지를 '중합'해주는 '효소' 즉, '복제'해주는 '효소'라고 정의를 이해해주는 거죠. 여기서 DNA를 '복제'해준다는 부분에 집중해줘야겠죠?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앞 문단에서 나온 구성요소들의 정의를 최대한 엮어주며 독해해주도록 합시다. PCR 과정의 첫 시작은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분리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네요. 이때 분리된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다고 합니다. '프라이머'의 정의를 다시 확인합시다. '표적' 가닥의 시작과 끝에 결합하는 '단일' 가닥 DNA네요. 이렇게 정의를 살려서 지문을 독해해줍니다.

처음에 열을 가해서 '이중' 가닥을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했죠? 여기서 '이중 가닥 DNA'는 맥락상 '주형 DNA'여야 합니다. 앞 문단에 등장한 '이중 가닥 DNA'는 '주형 DNA'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1문단의 정보를 끌고 오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눠진 각각의 단일 가닥은 '주형 DNA'가 나눠진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단일 가닥의 일부에 '표적 DNA'가 존재하겠죠? '표적 DNA'는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이중 가닥 DNA의 일부(= 표적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프라이머'의 정의가 '표적 DNA'와 결합하는 DNA니까요. 정의를 계속 끌어오는 것을 잊지 마시다.

이렇게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된다고 합니다. 'DNA 중합 효소'의 정의를 살려야겠죠? '단일' 가닥에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서 '이중 가닥 DNA'를 만드는 구성요소가 'DNA 중합 효소'였습니다. 지금 현재 각각의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된 상태입니다. '단일 가닥'의 시작과 끝에 프라이머가 결합되어 있으니 아직은 '단일 가닥' 상태죠? 이 두 개의 '단일 가닥'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각각 복제되어 '이중 가닥 DNA'가 되는 겁니다. 정의를 붙여서 이해해보면 어렵지 않죠?

이렇게 결국 '이중 가닥 DNA'가 두 개 생겼네요. 여기서 저 '이중 가닥 DNA'는 둘 다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겠죠? 애초에 '주형 DNA'에 '표적 DNA'가 포함되어 있고, 그 '표적 DNA'에 '프라이머'가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를 'DNA 중합 효소'가 '복제'했으니 '표적 DNA'를 포함한 '이중 가닥 DNA'가 두 개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표적 DNA'가 '증폭'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 끝나면 '표적 DNA'의 양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앞에서 이미 이해한 정보입니다. '재진술'에 해당하네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진행하다 보면 '표적 DNA'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DNA가 '증폭'된 것입니다. 이제 이 '증폭 여부'를 '형광 물질의 발색'을 통해 확인한다고 합니다. 기술 공부가 잘 됐다면 바로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LFIA 키트'의 '표지 물질'을 떠올렸어야 합니다. 표지 물질도 '형광 물질'이나 '금 나노 입자'를 사용하니까요 ㅎㅎ 그런데 이때 '전통적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뭔가 '전통적인 PCR'과 '현대적인 PCR'을 비교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건, 무언가 오래된 것이라는 뜻이니까요!

새끼 문제 해설

Q2. PCR 과정에서 한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이 2배씩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간단합니다. 원래 이중 가닥 DNA였던 '주형 DNA'는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고, 이 단일 가닥 하나가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매 사이클마다 하나의 단일 가닥이 이중 가닥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등비수열처럼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PCR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새끼 문제였습니다.

2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과정 제시 ☆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PCR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 문단에서 읽었던 구성요소의 정의를 끌어와야 합니다. 구성요소의 정의를 하나하나 끌어오고, '단일 가닥 DNA'와 '이중 가닥 DNA'의 차이를 인지하며 독해해줬으면 각각의 문장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지문 해설처럼 하나하나의 정의를 모두 사용해서 최대한 이해해주도록 합시다.

#재진술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앞 문장 마지막 부분의 재진술입니다.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는 것이 결국 '표적 DNA'가 '복제'되었다는 것이므로, 2배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의 이중 가닥 DNA가 2개로 변했으니 표적 DNA의 양이 2배가 된 거죠? 조금만 천천히, 꼼꼼히 읽어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진술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증폭이 완료됐다'는 것의 재진술입니다.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하며 '표적 DNA'의 양을 2배씩 늘려온 거니까요. '표적 DNA의 증폭'이라는 지문의 '화제'를 계속해서 끌고오도록 합시다.

#비교/대조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전통적인’이라는 워딩을 통해 ‘비교/대조’를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에 따르면 전통적인 것에는 항상 ‘현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한편, ‘발색을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기껏 증폭해놨더니 확인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증폭했으면 얼마나 증폭했는지 확인해야죠! 발색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처음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증폭됐는지) 확인할 수 없을 거니까요.

3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역시 ‘실시간 PCR’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PCR’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PCR’는 ‘시료’의 표적 DNA의 양을 알 수 없나 보네요. 앞 문단이란 이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PCR’는 PCR에 사용되는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 양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PCR의 ‘최종 산물’에 존재하는 ‘표적 DNA’를 알아내는 거니까요.

다음 문장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PCR 과정 자체는 ‘동일’하지만, ‘실시간 PCR’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이클이 일어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PCR 과정(= 증폭)’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동일하다는 점은 ‘공통점’,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실시간 감지를 위해 ‘실시간 PCR’에는 추가적인 발색 물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종 단계에서만 발색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무언가 추가로 발색 물질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상식적으로 납득해 주도록 합시다. 이때 사용되는 발색 물질은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 표식 탐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인 발색 물질’이라는 상위개념에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 표식 탐침’이라는 하위개념이 존재하니, 이 둘 간의 차이점을 정확히 체크해야겠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발색 물질’, ‘실시

간 PCR에 사용하는 발색 물질’이라는 ‘공통점’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부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 그대로 ‘이중 가닥 DNA’에 ‘특이’하게 반응해서 ‘결합’하는 염료네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중 가닥’이니까 ‘결합’할 수 있겠다는 판단과, 이 ‘이중 가닥’이 한 사이클 후 ‘증폭’된 DNA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 문단에서 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이중 가닥’이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에 의해 발색되면 ‘새로운 이중 가닥’이 생겨났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네요.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말 그대로 ‘이중 가닥’에 결합하는 염료라서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 가닥에도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라이머의 정의가 기억나지 않으면 올라가서 확인하고 와야겠죠?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 DNA’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이중 가닥 DNA’가 되겠죠. ‘이중 가닥 DNA 염료’가 이 이중 가닥에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생긴 ‘이중 가닥 DNA’는 증폭되어 생성된 DNA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의도치 않은 발색’이라고 서술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3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비교/대조 ☆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 문단에서 예측했던 대로 ‘전통적인 PCR’와 ‘실시간 PCR’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실시간’이라는 어휘를 살려서 두 PCR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 체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과정’이 같다는 것, ‘차이점’은 ‘발색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되겠네요.

#카테고리 제시 #비교/대조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실시간 PCR에 사용되는 발색 물질’이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 표식 탐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나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비교/대조’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 개념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정의 제시 #재진술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의 ‘정의’가 제시됩니다. 어휘를 살려서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중 가닥’에 결합하니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또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

는 서술을 통해 '그러니까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겠구나!'하고 재진술해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됐다는 게 결국 '증폭'되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재진술 #문제점 제시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우선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의 정의를 살려서 이 염료가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한다는 서술을 재진술로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프라이머'의 정의를 살려서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면 '이중 가닥'이 된다는 사실 역시 재진술로 이해할 수 있네요. 그런데 프라이머끼리의 결합이 '증폭'되어 생겨난 '이중 가닥 DNA'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정의를 활용한 '재진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지문의 내용을 납득하고, '이게 문제점 이구나!'하고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를 엮어서 이해하고, 재진술을 최대한 잡아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4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이제 '형광 표식 탐침'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뭐 해야 하는지 아시죠? '비교/대조' 바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집중하며 읽어봅시다. 우선 '형광 표식 탐침'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이는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라고 하네요. 우선, '형광 표식 탐침'이니까 당연히 '형광 물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광 물질'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광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하며 계속 독해해봅시다. 한편, 어찌됐든 '형광 표식 탐침'이 '단일 가닥 DNA'라는 점은 잊지 맙시다.

이 탐침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가 어디인지 아셔야 합니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하죠?' 그러면 '형광 표식 탐침'은 시작과 끝의 중간 부분에 붙겠네요. 이 정도는 쉽게 상상해줄 수 있죠? 앞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정보량이 많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이해한 후에는 '결합 부위'에 대해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비교/대조'해야 합니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고,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가 결합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하지 않는 '표적 DNA'에 결합하네요. 결국 둘 다 '표적 DNA'에 결합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자는 '이중 가닥'에 결합하고, 후자는 '표적 DNA'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후 다시 PCR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문단에 설명된 PCR 과정의 내용을 엮어서 이해해줘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이중 가닥 DNA'를 '단일 가닥'으로 쪼갭니다. 이후에 '형광 표식 탐침'이 '표적 DNA'에 결합하네요. '표적 DNA'에 결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 결합 시점에 대한 정보만 체크하면 됩니다. 단일 가닥으로 쪼갠 '후' 결합한다는 시점 말이죠.

여기서 조금 잘 읽는 학생은 전자는 한 사이클이 끝난 후 '새로 생성된' 표적 DNA에 결합하는 반면, 후자는 아직 '증폭'이 이루어지기 전의 '표적 DNA'에 결합한다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겠네요. 둘 다 '표적 DNA'에 결합하긴 하지만, 다른 시점에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이상적으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독해력' 자체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후 'DNA 중합 효소'가 '이중 가닥 DNA'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탐침이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DNA 중합 효소가 이중 가닥 DNA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는 2문단에서 이미 이해한 상태여야 합니다. 'DNA 중합 효소가 DNA를 복제하는 개념'이라는 것, 두 개의 단일 가닥에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 두 개를 만들어 증폭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탐침은 자신이 결합하고 있던 '표적 DNA'와의 결합을 유지하지 못하네요. 이렇게 탐침이 분해되면서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소광 물질'이 더 이상 형광 물질의 발색을 억제하지 못하니 '발색'이 일어나게 되겠죠? '복제'가 발생할 때 표적 DNA와 분리되고, 형광 표식 탐침의 '분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분리가 되어 발색 반응이 나타나면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부가적인 정보로 '형광 표식 탐침'의 장점과 문제점이 나오네요. 우리는 여기서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비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 DNA'에 결합하니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처럼 증폭되지도 않은 이중 가닥에 결합되어 발색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네요. 순수하게 '증폭'된 상황에만 발색하는 발색 물질이라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네요. 역시 좋은 건 가격이 비싼가 봅니다.

4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비교/대조 #재진술 ☆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형광 표식 탐침'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이해해주는 동시에,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비교/대조'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독해 과정에서 해야 할 '태도'를 생각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프라이머'의 정의를 끌고 와서 형광 표식 탐침이 어디에 결합하는지 생각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일정의 '정의를 통한 재진술'입니다.

#재진술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형광 표식 탐침이 PCR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표적 DNA'와 결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PCR 과정은 2문단에서 읽었던 정보를 통해 납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진술 ☆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형광 표식 탐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광 표식 탐침'의 '분리' 후 '발색'이 왜 표적 DNA의 '증폭'을 나타내는지 재진술을 통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을 '증폭되는 과정'으로 재진술할 수 있으면, 그 시점에 '분리되어 발색'되는 게 왜 '증폭' 여부를 알려주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비교/대조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에 결합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형광 표식 탐침'은 증폭되는 '표적 DNA'에 결합하기 때문에 '이합체' 같은 증폭과 상관없는 요소에 결합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비싸다는 단점은 간단히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5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_t 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_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_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발색도'라는 새로운 정의가 등장했네요. '발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인가 봅니다. 이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발색'이 결국 '증폭'을 확인하기 위한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증폭된 DNA가 많을수록 발색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례 관계로 치부해서 화살표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나타났을 때, 즉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이 진행될 때까지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이클'이 진행되면 표적 DNA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사실과, '초기 표적 DNA의 양'을 엮어서 이 문장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초기 표적 DNA의 양이 적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을 때는 두 배가 되더라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표적 DNA의 개수가 1개일 때는 사이클마다 2개, 4개, 8개... 로 늘어나겠지만, 초기 표적 DNA의 개수가 100개라면 200개, 400개, 800개... 로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증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더욱 빠르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초기 표적 DNA의 양이 많으면 '조금의 사이클'만으로도 원하는 만큼의 표적 DNA의 양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발색도는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는 '실시간 PCR'의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PCR'은 증폭이 일어날 때마다 발색 정도가 커집니다. '연속적'으로 바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색도가 연속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때 증폭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한 시점의 '사이클 소요 횟수'를 C_t 값이라고 하며, C_t 값을 정의해줍니다. 항상 새롭게 등장한 정의는 유심히 체크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는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니까 '미지' 시료라고 어휘의 의미를 살려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휘 의미 살리는 독해는 정보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습관화하세요. 어쨌든, '미지 시료'와 '표준 시료'를 비교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시료'는 초기 농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C_t 값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시료 증폭의 시작 시점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개수를 알고 있으므로, 몇 사이클이 지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증폭이 이루어지는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지 시료도 C_t 값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이클을 진행하고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표적 DNA'가 생겨날 거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이 많으면 C_t 값이 작고, 양이 적으면 C_t 값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표준 시료의 C_t 값에 비해 미지 시료의 C_t 값이 얼마나 크냐 혹은 작냐를 비교하여, 표준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개수를 기준으로 미지 시료에 표적 DNA가 얼마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 DNA의 개수가 20개라고 해봅시다. 표준 시료에 10개가 있으면, 표준 시료의 C_t 값은 1이 됩니다. 사이클이 한 번만 돌아도 표적 DNA 개수가 '10 → 20'개가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미지 시료의 C_t 값이 2이라면, 표준 시료에 비해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지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개수가 5개여야 사이클을 두 번 거친 후에 '5 → 10 → 20'개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미지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개수가 5개라는 사실을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예시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최소한 C_t 값을 비교해서 초기 표적 DNA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이는 문단의 앞 부분에 등장하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문장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실전에서 자신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엮어서 독해했는지 성찰해봅시다.

5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비례 관계 #재진술 ☆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발색도’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이를 재진술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발색’은 ‘증폭’을 확인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니까요. 이를 통해 비례 관계도 아주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폭이 많이 될수록 발색도 많이 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문을 잘 읽어왔다면 당연한 정보니까요. 또한 사이클 한 번에 표적 DNA가 2배가 된다는 정보를 이끌어와서 DNA 초기 양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과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이 진행’이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정의 제시 #재진술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우선 Ct값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 문장에 등장한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입니다. 새로 등장한 정의이긴 하지만, 재진술일 뿐이죠. ‘연속적인 선’이라는 말은 문단 해설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시간 PCR’의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정의를 이끌어와야 합니다. 절대 정보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정의 제시 #재진술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우선 ‘표적 DNA의 농도’가 ‘표적 DNA의 개수’를 뜻한다는 점을 재진술해야 합니다. 농도라고 했지만, 결국 표적 DNA가 얼마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 후 Ct값의 정의와 앞 문장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왜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의 초기 표적 DNA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한 이해는 앞에 ‘문단 독해 사고과정’을 참고합니다!

6문단

11 문단 독해 사고과정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PCR의 장점을 나열하며 지문을 마무리하네요. 정말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지문에 등장하는 여러 정의들을 완벽하게 재진술하고, 엮어가며 독해해야 지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들의 ‘비교/대조’, ‘정의 체크’만 잘 했으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지문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런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실력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실력이 성장해야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읽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제 풀 정도’까지라도 독해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할 수 없다고, 공부할 때도 하지 않는 것은 실력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꼭! 공부할 때는 A to Z 까지 이해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3 문제풀이

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선택률	37%
명시적 근거	1문단 네 번째 문장, 1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똑같은지까 주형 DNA와도 똑같은 부분이 있지.
해설	‘프라이머’의 정의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죠. 즉, ‘표적 DNA’가 갖고 있는 염기 서열의 일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 DNA’는 ‘주형 DNA’ 중 우리가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에 해당합니다. 즉, 이 역시 ‘주형 DNA’의 일부인 것이죠. 순서대로 하면, ‘표적 DNA’는 ‘주형 DNA’의 일부이고,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와 같으므로, ‘프라이머’가 ‘주형 DNA’에 존재하는 염기 서열의 일부와 같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선지에서 묻는 것으로부터 알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사고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 선지 판단의 기본입니다. 항상 이런 ‘필연적 문제풀이’를 신경 쓰며 풀어주세요.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선택률	12%
명시적 근거	2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처음의 2배가 되나, 4배에서 8배가 되나 둘 다 2배가 되는 거네? 한 사이클이면 되겠다.
해설	우선 선지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습니다. ‘처음의 2배’와 ‘4배에서 8배’ 모두 2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후 2배라는 정보를 통해 ‘사이클’을 이끌어내야겠죠. 한 사이클이 지날 때 ‘표적 DNA 양’이 2배가 되므로, 선지의 두 경우 모두 ‘한 사이클’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선택률	20%
명시적 근거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3문단 두 번째 문장, 5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알려면, C _t 값을 알아야 하는데, 전통적인 PCR는 과정 중간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해설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미지 시료의 C _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 _t 값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의 경우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만 조건을 충족했을 뿐, 미지 시료와 표준 시료의 C _t 값을 알 수 없죠. 또한 '전통적인 PCR'는 애초에 과정 중에는 증폭과 관련되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C _t 값은 기대할 수도 없겠네요.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선택률	23%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3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이나 '실시간'이나 PCR 과정은 같다면?
해설	PCR는 DNA의 양을 증폭시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PCR를 사용하면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시간 PCR'도 '전통적인 PCR'와 같이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판단해야겠네요. 그런데 '전통적인 PCR'와 '실시간 PCR'는 PCR 과정이 같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PCR' 역시 이중 가닥 DNA에 열을 가하는 PCR의 첫 번째 과정을 거쳐야 하겠네요.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선택률	23%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3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이나 '실시간'이나 PCR 과정은 같다면?
해설	4번 선지와 같은 것을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PCR 과정에는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PCR'와 '실시간 PCR'의 과정이 같으므로 당연히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도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하겠네요.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

- ㉠과 ㉡은 '실시간 PCR'에서 '표적 DNA'가 증폭되는 것을 알려 주는 '발색 물질'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차이점은 완벽하게 정리해두었죠?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선택률	20%
명시적 근거	3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합체는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건데? ㉠은 프라이머가 아니잖아?
해설	이합체의 정의는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 발색 물질이지 '프라이머'가 아니라서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도 마찬가지죠?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선택률	35%
명시적 근거	3문단 네 번째 문장, 4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고 ㉡은 결합이 끊어진 뒤에 발색하네.
해설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과 ㉡으로 돌아가서 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선지가 묻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돌아가야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지만, ㉡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 후에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난 후에 '발색'됩니다. 즉, ㉡은 표적 DNA와 떨어진 상태로 발색하는 것이죠.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선택률	14%
명시적 근거	4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형광 물질은 ㉠의 구성요소일 뿐인데? 결합을 왜 해.
해설	㉠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한다고 하네요. 애초에 형광 물질은 'DNA'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 가닥 DNA의 단편인 ㉠과 형광 물질이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이합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역시 그냥 형광 물질일 뿐이기에,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합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죠.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났다.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2문단 첫 번째 문장, 3문단 네 번째 문장, 4문단 세 번째 문장, 4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될 때 발색하니까 사이클의 끝 부분이네.
해설	사이클의 '시작 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지점'은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지점'이네요. 그런데 ㉠은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 발색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증폭' 과정에서 발색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시작 지점'이 아니라 '끝 지점'에서 발색이 나타난다고 판단해야겠네요. ㉡도 마찬가지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끝 지점'에서 발색이 나타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선택률	16%
명시적 근거	3문단 네 번째 문장, 4문단 첫 번째 문장, 4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와 결합하는 게 맞는데, ㉡은 단일 가닥에 있는 표적 DNA에 결합하네.
해설	㉠은 이름 그대로 '이중 가닥 표적 DNA'랑 결합하지만, ㉡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하니, 가운데 부분에 ㉡이 결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의 '표적 DNA'는 이중 가닥일 때가 아니라,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이 되었을 때의 '표적 DNA'입니다. 따라서 ㉡은 '단일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3.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 지문에 나온 두 가지 PCR에 대해 물어보겠죠. 우리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잡아놓고 있으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선택률	16%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6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적은 양을 감지하려고 '증폭'했던거 아닌가?
해설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더라도, PCR 기술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양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면 감염 초기일지라도,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겠네요.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선택률	17%
명시적 근거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 PCR도 발색 물질 사용하는데?
해설	전통적인 PCR도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색 물질'이 필요하죠? 애초에 '발색 물질'이라는 정보의 역할은 '증폭 여부 확인'이었고, 이는 전통이든 실시간이든 꼭 필요한 과정이니깐요.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6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진단이 빠르겠지.
해설	'실시간 PCR'의 장점이 '실시간'으로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에서는 '전통적인 PCR'이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진단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 인과가 맞지 않네요. 또한 애초에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선택률	31%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4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표적 DNA를 증폭해야 하는데, 표적 DNA가 뭔지 알아야 증폭하지.
해설	PCR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여러 구성요소가 필요하죠? 그 중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입니다. 만약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모르면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도 없겠네요. 그리고 애초에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알아야 ‘주형 DNA’에서 ‘표적 DNA’에 해당하는 부위를 특정할 수 있겠죠?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선택률	21%
명시적 근거	3문단 두 번째 문장, 6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감염 여부를 PCR 중간에 확인하려고 ‘실시간 PCR’를 이용하겠지. PCR이 끝나고 알 수 있으면 ‘전통적인 PCR’를 사용하지 굳이 ‘실시간’을 왜 써?
해설	PCR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표적 DNA’를 증폭해서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실시간 PCR’는 증폭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니까 PCR가 끝나기 전에 시료에 ‘표적 DNA’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감염 여부도 PCR 중간에 알 수 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4.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㉗~㉙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1%	16%	30%	14%	19%

— <보기 1> —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㉗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㉙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 지문에서도 등장한 내용입니다. ‘미지 시료’와 ‘표준 시료’ 둘 다 ‘동일한 표적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애초에 동일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동일한 표적 DNA가 아닐 때 무언가를 구해내는 방법을 읽은 적은 없으니까요. [A] 부분에 대한 문제이므로 C_t값과 엮어서 문제가 나오겠다는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기 2> —

만약 ㉗가 ㉙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㉗가 (㉗).

↓

실시간 PCR의 C_t값에서의 발색도는 ㉗가 (㉘).

↓

따라서 실시간 PCR의 C_t값은 ㉗가 (㉙).

먼저 <보기 2>의 전제를 보니, ㉗가 ㉙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지문에서는 미지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_t값과 미지 시료의 C_t값을 통해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농도’를 알고 있는 상태네요. 자연스럽게 C_t값을 물어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네요.

그리고 지문 독해를 잘 했다면, ㉗가 ㉙보다 우리가 원하는 증폭 수준에 빠르게 도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초기 값이 많으므로, 2배씩 증가할 때 더 빠르게 증폭될 거니까요.

- ㉗ -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을 물어보고 있네요. ㉗가 ㉙보다 초기 농도가 높으므로, 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증가하는 표적 DNA의 양도 많겠죠? 1에서 2, 4로 늘어나는 것보다 2에서 4, 8로 늘어날 때 증가량이 훨씬 많으니까요.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니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을 ‘한 사이클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이라고 해석해서 풀면 더 엄밀하게 풀 수 있네요.
- ㉘ - ‘C_t값에서의 발색도’를 묻고 있습니다. C_t값의 정의를 정확히 체크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었어요. C_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입니다. 즉, C_t값에서의 발색도는 증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일종의 ‘기준’인 거죠. 따라서 ㉗와 ㉙의 C_t값은 서로 다르겠지만, C_t값에서의 ‘발색도’는 같습니다.

㉔ - 이번엔 C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보기 2>의 전제를 보고 미리 해석했듯이, ㉔가 ㉒보다 초기 농도가 높으므로 원하는 증폭 정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을 거예요. 증가량이 크니까요. 자연스럽게 C값도 ㉔가 ㉒보다 작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사 이클을 덜 돌아도 우리가 원하는 발색도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았지만, 결국 '선지에서 묻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할 생각을 차분히 전개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최근 평가원의 <보기> 문제는 결코 과하지 않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겁 먹지 말고 덤비시기 바랍니다!

- | | | |
|------------|----------|----------|
| ㉒ | ㉔ | ㉕ |
| ① ㉒보다 많겠군. | ㉒보다 높겠군. | ㉒보다 크겠군. |
| ② ㉒보다 많겠군. | ㉒와 같겠군. | ㉒보다 작겠군. |
| ③ ㉒와 같겠군. | ㉒보다 높겠군. | ㉒보다 작겠군. |
| ④ ㉒와 같겠군. | ㉒와 같겠군. | ㉒보다 작겠군. |
| ⑤ ㉒와 같겠군. | ㉒보다 높겠군. | ㉒보다 크겠군.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지식 정리

1. 주제

- 우선 PCR 기술의 목적은 '표적 DNA'를 '증폭'해서 '검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용 키트'와 그 용도가 비슷합니다. 또한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 '실시간 PCR'을 사용하는 것처럼, 키트도 더 높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기출을 통해 살펴봅시다.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35~38]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더 높은 효율성 추구)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이 지문은 PCR을 주제로 '전통적인 PCR'과 '실시간 PCR'을 비교합니다. 최근 기술 지문에서는 이렇게 두 핵심 개념을 비교하는 지문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25~28] - 영상 안정화 기술

OIS 기술이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21학년도 수능 [34~37] - 모델링과 렌더링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2. 발색 물질

지문에 등장한 두 종류의 발색 물질이 각각 이중 가닥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사실 '항원-항체 반응'과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항체가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결합하는 것처럼, 발색 물질이 '이중 가닥'이나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결합하는 것이죠. 기출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35~38]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 B형 [25~26]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베바시주맵이 개발되었다.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베바시주맵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비문화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정보량 줄이기 :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은 말은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정보량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 ④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⑤ 비교/대조 : 두 대상 이상이 나오는 경우 의식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며 비교/대조 해줘야 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정보량이 아주 많아 보이는 지문입니다. 하지만 표적 DNA의 ‘증폭’이라는 화제를 중심으로 지문을 읽어나갔다면 정보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문은 지문 앞 부분에 등장하는 여러 개념들의 정의를 끝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앞에서 읽은 개념으로 설명 가능한지 항상 생각하며 독해해야 하는 것이죠. 개념의 정의를 엮어서 이해한다는 기본적인 태도만 잘 갖춰져 있으면, 정보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설을 보고 공부한 후에 다시 스스로 독해하며 정보량을 줄여봅시다.

6주차 DAY 1 [5~10]

2018.11 [27~32] 사회(정치+경제) ‘정책 수단의 선택’

☆☆☆☆☆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부가 ‘정책의 목표’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정책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수식되어 제시되는 사소한 개념의 정의 하나하나도 체크해주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 정책 수단의 특성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해요.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각 특성들의 정의를 체크하고,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첫 문단을 읽고 난 뒤에는 항상 ‘화제가 뭘까?’라고 생각해주시고 했습니다. 이 지문은 일단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특성을 적용하는 방법? 혹은 특성들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읽어 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수식된 정의’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문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나왔어도, 이런 사소한 정의를 놓치는 순간 지문의 흐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지문도 굉장히 많아요.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

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율로 나타나면,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 장기 : 국내 통화량 ↑ 및 유지 → 장기 자국 물가 ↑ → 장기 환율 ↑ / 실질 통화량 변화x

화제인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를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환율'과 관련된 경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만 같습니다. 긴장하고 읽어봅시다.

이 문단에서 멘붕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뭘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용어도 어렵고.. 실제로 이 문단부터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이 지문, 나아가 2018학년도 수능의 점수를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천히 풀어봅시다.

이 '환율'이란 놈의 정의를 보니까,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자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기도 한다고 해요. 최소한으로 하실 일은 환율에 대해 '단기vs장기'로 비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겠죠? 여기에 또 미세한 틈을 드리면 평가원은 항상 '특수한' 상황을 묻는다는 겁니다. 단기에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예상보다 변동 폭이 크면 경제 주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 항상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혹시나 지문을 읽다가 예외 같은 특수한 상황이 나오면 주목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읽게 될 거예요!

이전 문단에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에 의해 촉발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문단에서는 그래서 '물가 경직성'이 어떻게 오버슈팅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말해주려나 봐요. 이를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본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읽어보니,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면 '조정 과정'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조정'이 물가의 경우에는 '단기'에는 경직적으로 진행되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반면 환율은 '단기'부터 신속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라는 물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 환율이 단기부터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한지는 지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또는 여러분이 미리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가는 단기 경직, 장기 신속, but 환율은 단기부터 신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비교의 포인트만 인지하면서 읽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나 주가 등의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변동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답니다. 이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원인은 '물가 경직성' 또는 '불안 심리'라고 해요. '물가 경직성'의 정의는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구요.

아무튼 이렇게 물가와 환율 간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답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어도, 이 문장에서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합니다. 물가와 환율 간의 '조정 속도 차이'가 '단기'에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말이죠! 앞에서 만든 카테고리인 '단기, 괴리'와 관련된 정보였던 거예요. '물가는 '단기'에 '환율'과 달리 '경직적'이기에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물가 경직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사실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던 거예요. '단기에는 물가 경직성 때문에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는 것까지는 좋은데,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제'! 오버슈팅이나 물가 경직성 같은 멋진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화제인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에 집중해 주세요. 결국 2문단 첫 문장을 보면 이 지문에서 오버슈팅이란 것이 등장한 이유도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를 말해주기 위해서였잖아요. 이걸 항상 품은 채로 지문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이 정보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버슈팅 이 놈이 정책 수단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 상태로 계속 읽어보는데,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단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이기 때문에, 화제와 직결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조금 힘을 빼도 괜찮을 것 같죠?

하이라이트 문장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꼽으라면 이 문장을 뽑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환율' 관련 예외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문장이예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정보는 이 문장으로 모일 겁니다. '단기, 괴리'라는 카테고리 속으로 정보를 모아 봅시다.

'장기'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뵈더니 장기의 환율은 ' $\frac{\text{자국 물가 수준}}{\text{외국 물가 수준}}$ '이라고 합니다. 애가 곧 '균형 환율'이구요. 높은 수준으로 독해를 하는 학생들은, 아까 2문단에서 환율이 '물가와 같은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떠올리며 '결국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이 물가에 수렴한다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개념은, '장기'의 환율, 즉 균형 환율을 $\frac{\text{자국 물가 수준}}{\text{외국 물가 수준}}$ 이라고 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

출제자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까봐 '예시'까지 들어주네요. 비례/증감 관계이니 그냥 메모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장기'에서의 환율 변화에 대해 읽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 엄청난 정보들을 처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멈춰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나아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에서의 환율 변화이기 때문에, '단기'와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지요! '정책 수단의 선택'이라는 화제까지 짚 쥐고 있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요?

생각 심화

이 비례/증감 관계 역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진짜 독서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높아지고,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뜻이겠지요?) 결국 '장기의 환율'을 나타내는 '자국 물가수준'의 분자가 커지면서 '장기의 환율'도 커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식으로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완벽하겠네요. '통화량'과 '물가'가 동시에 올랐으니, '실질 통화량'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구요.

하이라이트 문장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나는 때는 바로 '단기'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문단이 너무 기네요.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윗 문단에서는 환율과 물가가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차이점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으로 조정된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일종의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외이자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단기'에서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되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시장 금리가 낮아진답니다. 이로 인해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줄며,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이 적어진다네요. 이는 결국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 환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는답니다. 엄청난 관계들이네요. 실전에서는 그냥 제가 한 것처럼 메모를 쭉 하고 넘어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 심화

하지만 경제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금리 조절' 기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기에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분자만 커지게 되므로

증가합니다. 시장에 물가에 비해 더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태이므로, 돈의 가치는 떨어져서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해당 국가의 은행에 돈을 맡겨 두는 건 매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시장 전체적인 이자율도 낮아져서 투자를 해봤자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이는 바로 해외 투자의 위축을 불러오고, 자국 통화를 이용한 거래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 자국 통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거죠.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걸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이 출제된지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정도 분석까지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 > 단기 : 국내 통화량 ↑ 및 유지 → 실질 통화량 ↑ → 시장 금리 ↓ → 투자의 기대 수익률 ↓ →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 ↓,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 ↓ → 자국 통화 가치 ↓, 환율 상승 ↑
- > 물가 경직성 ↑ → 오버슈팅 정도, 지속성 ↑
- > 물가 ↑ → 실질 통화량 ↑ → 해외 유출 자금 ↑ → 환율 :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

이렇게 상승한 환율이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 위에서 제시한 '통화량 증가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결국 이번에도 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 '오버슈팅'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더 강해진다는 비례/증감 관계는 아무렇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앞에서부터 몇 번이고 했던 이야기니까요.

아무튼 '단기'에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가 (물가의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해지는 '장기'에는) 다시 물가가 상승하며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낮아진다는 이야기겠지요?) 해외 자금도 국내로 복귀하면서 환율이 결국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예상'에 기초한 환율로 돌아온답니다. 이 이야기는 3문단 마지막에 제시했던 '장기'에서의 환율 변화와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지문의 정보량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단이지만,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즉 '물가 경직성'이 나타나는 '단기'에서의 비례/증감 관계를 소개하고, 이후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예상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에서의 비례/증감 관계로 이어가고 있다는 식으로 흐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끊어 놓은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단기’에서의 환율 변화에 대해 소개할 것을 이야기하는 문장입니다. 긴장하고 읽을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 지문의 전부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라는 말을 통해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것과는 달리 ‘장기’에서의 환율 변동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고 알려 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이 없더라도,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내용을 보고 ‘장기’에서의 환율 변동이라는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우리가 찾아둔 ‘화제가 나오네요! 그동안 ‘오버슈팅’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보에 놀려 깜빡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지문은 ‘정책 수단의 선택’이라는 화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율’ 이야기는 모두 예시였을 뿐이에요!

정부는 이렇게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답니다. 강제성이 낮은 사례, 직접성이 높은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결국 정부는 이런 정책 수단들을 이용해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어요. 이 얘기 하나 하고 싶어서 위에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쏟아낸 것이네요. 여기 나온 해결책들, ‘정보 공개’, ‘가격 규제 축소’, ‘세금 조절’, ‘환율 변동 보험’, ‘지급 보증’ 같은 개념들의 정의 딱딱 잡아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정보들이 모두 ‘환율의 오버슈팅의 해결책’이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생각한 채로요!

생각 심화

이 지문은 일종의 문제해결형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what은 ‘환율의 오버슈팅’, why는 ‘물가 경직성’, 이 물가 경직성을 제거하는 how는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이렇게 보면 정말 잘 쓴 문제해결형 지문으로 보이지만, 시험장에서 이를 인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다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 이니까, 이 지문이 문제해결형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어 봅시다. 문제해결형 지문에 대한 연습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독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선택’이라는 화제를 다시금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5.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4%	12%	12%	11%	11%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한 비례/증감 관계가 두 개 있었죠? 하나는 ‘장기’에 대한 것, 하나는 ‘단기’에 대한 것. 그런데 이 선지에서는 ‘장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상함을 느끼고 메모해둔 ‘장기에서의 비례/증감 관계를 보세요. 환율 ↑이라고 딱하니 적혀있죠? 답은 바로 1번이네요. 비례/증감 관계를 잡았다면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생각 심화

3문단의 ‘생각 심화’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기’에는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납득하고 있었다면 1초만에 답을 고를 수 있었겠네요. 나아가 ‘환율의 변동’ 자체가 이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 지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답으로 고를 수도 있겠네요.

② 선지에서 물어보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는 ‘장기’이고, 경직적인 경우는 ‘단기’입니다. 이 생각은 ‘장기’와 ‘단기’가 비교되고 있다는 생각을 통해 할 수 있었죠? 여기에 ‘금리 하락’에 대해 묻고 있으니, 장기 및 단

기의 '금리 하락'에 대한 비례/증감 관계를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단기'인 경우에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통화량이 늘어나 금리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러다 '장기'로 가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해외 유출 자금이 국내로 복귀한다고 했죠.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장기의 경우가 단기보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금리 하락 폭이 작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단기에 딱 줄어든 금리가 장기로 갈수록 슬슬 오르는 것이니까요.

생각 심화

정확히는 지문의 마지막 문단 '생각 심화'에서도 언급했던 'why'를 묻는 선지예요. 단기의 '물가 경직성'이 곧 오버슈팅을 발생시킨다고 했고, 메모해둔 비례/증감 관계를 보면 오버슈팅을 일으키는 건 '금리 하락'입니다. 즉 금리 하락폭이 클수록 오버슈팅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오버슈팅을 발생시키는 단기에 장기보다 금리 하락폭이 더 크겠네요.

혹은 우리가 '단기'에서의 비례/증감 관계를 납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지워낼 수도 있습니다. '금리 하락'이 오버슈팅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으니까요.

어떻게 해결하셨든 간에, 선지에서 물어보는 '물가의 신축vs경직'과 '금리 하락'의 관계를 찾으러 가는 사고과정이 더 중요하겠어요.

③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로 발생한다고 했어요. 물가와 환율이 비교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면 돌아가서라도 환율의 조정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정말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버슈팅을 발생시키는 것이 '물가 경직성'이니, 환율은 단기에 '경직'적인 물가보다는 조정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내용을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겠죠. 어쨌든 환율이 더 빠르다는 조정 속도의 '차이' 때문에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있으니 맞는 선지입니다.

④ 선지에서 외국인 투자, 금리 등을 물어보고 있으니 우리가 메모해둔 비례/증감 관계를 또 봐야겠네요. 금리가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금리 하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반응이 환율의 오버슈팅을 유발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당연히 커지겠네요.

생각 심화

역시 우리가 납득한 내용을 이용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배경지식처럼 알아두도록 합시다!

⑤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것'은 '장기'에서의 환율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선지에서 묻는 '물가 경직성'은 '단기'에 발생하는 '환율의 오버슈팅'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크다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즉 '장기에서의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애초에 '환율의 오버슈팅' 상태가 마무리되어야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비례/증감 관계만 잘 잡아줬으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히 정답 선지인 1번 선지를 고르는 것은 정말 쉬웠어요. 시험장에서는 모든 선지를 지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답은 골라주셔야 합니다.

6.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8%	8%	10%	65%

- 화제를 묻는 문제네요. 동시에 '네 가지 측면'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체크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일단 강제성은 정부가 제한하는 것이고, 직접성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 자동성은 별도의 조치를 만들지 않는 것, 가시성은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이 잘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 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부의 제한이니까 강제성이 더 높겠네요.
- ② 정부 예산에 편성하면 급식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테니 가시성이 더 높겠죠.
- ③ 개발 행위 금지가 강제성에 해당하네요.
- ④ 직접성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예요. 당연히 후자가 직접성이 높겠죠.
- ⑤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원래 하던 곳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게 자동성이 높겠죠. 쉽네요. 개념의 정의의 체크가 핵심이었어요.

7.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8%	9%	20%	19%	24%

- 일단 <보기>부터 분석해봅시다.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이로 인해 B국에서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어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B국의 '금리'가 '변동'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찾은 비례/증감 관계에 의하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금리 변화는? '하락'이죠. 이렇게 평가원이 제시해주지 않은 방향성은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꼭 결정하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내는 것이 <보기>정리니까요.

그럼 B국의 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 즉 '오버슈팅' 정도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자' 같은 정부에게 내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기>의 상황을 이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보기> 문제에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선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흐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주는 태도. 꼭 갖추도록 합시다.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현재 <보기>의 상황이죠? 이러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진정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정답이네요. 비례/증감 관계를 <보기>에 적용하여 정리해두기만 했으면 쉽게 답이 나오네요. 정답을 28%짜리 문제치고는 참 허무하죠? 대단한 추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보기> 정리를 잘 했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② 2문단에서 오버슈팅의 정의를 말해줄 때,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된다고 했습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쉽게 지을 수 있었어요.

③ 우리가 체크해둔 비례/증감 관계에 따르면 환율은 결국 구매력 평가 설에 기초한 환율 수준, 즉 균형 환율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맞는 선지네요.

④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네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기> 정리를 미리 하시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⑤ <보기>에서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입품이 비싸지면 내수, 즉 국내 수요는 당연히 위축되었죠? 맞는 선지입니다.

FAQ

Q : 수입품이 비싸지면 내수가 위축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첫 번째론 어휘의 측면이죠. '국내의 수요'를 의미하는 '내수'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어휘로 알아두시는 걸 추천해요. 추가적으로 지문에서 근거를 찾자면,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세금 조절'이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8.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20%	16%	46%	10%

- 이 문제도 어려워한 분들이 많은데, 진짜 별거 없어요. 일단 ㉠, ㉡, ㉢은 각각 '실질 통화량', '시장 금리', '환율'이네요. 그리고 문제가 y축에 들어갈 말을 ㉠~㉢에서 고르라고 했으니, 일단 각 그래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차이점은 a는 t시점에서 감소하고, b와 c는 t시점에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t시점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체크해둔 비례/증감 관계를 통해 실질 통화량과 환율은 증가하고, 시장 금리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t시점에서 증가한 b와 c는 각각 실질 통화량과 환율 중 하나겠네요. a는 자연스레 금리가 되겠구요. 그럼 ㉡이 a인 2번과 4번 중에 답이 있네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합니다.

이제 b와 c 중에 뭐가 실질 통화량이고, 뭐가 환율인지가 핵심이네요. b와 c 그래프의 차이점을 보니, b는 t시점을 지나고 나서는 t시점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고, c는 t시점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메모해둔 비례/증감 관계에서, 시간이 흐르면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c가 실질 통화량이고, b가 자연스레 환율이 되어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역시 메모해둔 비례/증감 관계를 글자 그대로 물어보면서, 그래프의 x축, y축을 확인하는 태도와 선지에서 묻는 내용(a, b, c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생각 심화

실전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환율은 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비례/증감 관계를 보면,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환율이 결국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환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자국 물가 수준 / 외국 물가 수준'이었어요. 자국의 물가, 즉

분자가 상승했으니 환율도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결국 오버슈팅된 환율은 떨어지지만, 통화량이 증가되기 이전의 환율보다는 더 크다는 겁니다!

위의 내용을 생각해내지는 못해도, 최소한 설명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 어떤 배경지식도 개입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지문'에 근거해서 찾은 내용이잖아요!

또 다른 뒷북 해설을 드리자면, 7번, 8번 문제를 해결할 때 5번 문제가 큰 힌트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를 풀면서 '오버슈팅'의 발생에 대해 끊임없이 찾아보고 읽었으니, 7번, 8번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읽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제대로 오버슈팅을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보기>를 해석하고, 선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앞 문제를 풀면서 얻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다는 것. 이런 '문제의 연계성'까지 잡도록 합시다.

9.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9%	52%	16%	13%

-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네요. 사실 해설할 것도 없는 게, 마지막 문단 보시면 '미세 조정 정책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번 선지의 '환율 변동 보험', 2번 선지의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 조절', 4번 선지의 '지급 보증', 5번 선지의 '환율 변동 영향 정보 제공'이 모두 예시로 제공되고 있어요.

하지만 3번 선지의 '해외 자금 유출 및 유입 통제를 통한 환율의 추세 변경'은 지문에 나온 적도 없고,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정의가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환율 급등락 위험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을 봤을 때 환율의 추세를 바꾸는 것도 틀렸네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선지 선택률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는 단순히 어렵다기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풀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야 해요. 정답률 표를 보면서 당시 시험장의 분위기를 상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수능날 겪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생각 심화

이 문제 역시 문제해결형 지문으로 봤을 때는 how를 묻는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1, 2, 4, 5번 선지의 내용이 모두 how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0.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75%	3%	3%	13%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재진술 인식 : 이 지문의 '물가 경직성=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단기에 발생=환율의 오버슈팅'처럼,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식으로 정보량을 늘리는 것이 평가원의 출제 방식입니다. 각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결국 다 같은 말임을 계속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비례/증감 관계 : 단순히 메모만 해 두고 선지에서 물어볼 때 눈알 굴리는 방식도 실전에선 훌륭하지만,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납득'하는 연습도 해 봅시다.
- ⑤ 금리 조절 기제 : 알아두기!
- ⑥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⑦ 그래프 문제 : x축, y축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서 변화가 있는 등 '특이한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6주차 DAY 1 [11~16]

2017.11 [21~26] **고전소설+현대소설 '박씨전 / 시장과 전장' ☆☆**

(가)가 긴 비평문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단독 문제가 없으니 바로 읽어 봅시다! 물론 <보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다른 작품이니 (나)와 (다)를 독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비평문은 늘 하던 대로 대충 읽는 겁니다.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씨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은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첫 문단에서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룬 소설들이 있다고 하며 (나)와 (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나)인 '박씨전'과 (다)인 '시장과 전장'에 대한 설명을 '대~충' 읽어주며 넘어가면 되겠어요. 둘 다 전쟁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네요.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이 죽은 것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하고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전쟁을 다룬 소설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전쟁의 성격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고,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게 하는 폭력성', '전쟁터라는 혼돈의 현장', '전쟁의 비극성' 등을 말이죠. 그럼 (나)와 (다)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확인하며 읽어봅시다.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대가 **대토하여** 꾸짖어 왈, “너는 어떠한 계집이완데 장부의 마음을 돋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 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아라.”

계화가 들은 채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왈,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네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 거행 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여 왈, “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리라.”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졸연히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피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며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나무들 사이에서 ‘계화’라는 여인이 나와 ‘용골대’와 한판 붙고 있습니다. 계화라는 여인은 용골대의 아우를 죽였을 정도로 싸움을 잘하나 봐요. 용골대는 뻑쳐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통하지 않고, 조선의 도원수인 ‘김자점’에게 조선 사람 계화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라는 서술자의 개입은 체크하셨죠? 아무튼 용골대가 계화와 박 부인이 있는 피화당을 에워싸고 그곳에 불을 지르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이 드러나는 장면이네요. 상황은 이해되시죠?

박씨가 주렴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혹 욕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

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되서 갈 것이니, 박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왈,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썬도 없이 멸하리라.”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백배 사례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박씨’의 활약으로 오랑캐를 쫓아내는 내용이네요. 실제와는 다르게 오랑캐를 쫓아낸 것으로 묘사하여 조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작풍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전반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죠? 길이에 압도되지만 않으면 돼요. 다음 지문 봅시다.

(다)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격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덕 아주머니의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러구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그래도 덕은…… 우린 애아범이 그래 와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 먹었는데.”

“이 마당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 와서 이젠 그렇게들 안 할 거예요.”

독질을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랑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어 있었던지 용케 죽지도 않고, 스무 명가량의 사람들이 떼 지어 간다. 김씨 덕 아주머니는,

“어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덕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남은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씨 덕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함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윤씨’는 걱정이 많아 보여요. ‘김씨 덕 아주머니’와 쌀 배급을 받으러 가나 봅니다. 그렇게 ‘인도교’ 근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노랑진’ 쪽에서 막 뛰어오고 있네요. 물어봐도 대답도 없는 사람들을 따라 달려가 보니 거긴 ‘한강 모래밭’입니다. 그곳에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두고 간 식량들

이 남아 있었네요. 그걸 미친 듯이 줌고 있는데, 갑자기 윤씨가 총을 맞고 쌀자루 위에 쓰러집니다. 정말 너무 잔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처럼 전쟁의 참상이 눈앞에 그려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엿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김씨 부인’이 아까 나온 그 ‘김씨 덕 아주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영’이라는 새로운 인물도 등장했으니 뉴페이스로 체크해줍니다. 지영은 독길을 넘어가 아무도 없는 강변을 바라보고, 총에 맞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르다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알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무시무시한 전쟁통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네요.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1.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4%	6%	84%	3%

- ① (나)는 병자호란이라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오랑캐를 무찔렀다는 ‘허구화’가 이루어졌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② ‘박씨’, ‘계화’ 같은 여성 인물 나왔고, 그들과 대립하는 ‘용골대’, ‘김자점’ 등의 세력이 나타났으니 허용할 수 있겠어요.
- ③ (다)는 한국전쟁이라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고 있고, 버려진 쌀을 주으러 갔다가 총에 맞는 죽는 주인공을 보여주는 등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도 보이니 애도 허용이 가능하겠어요.
- ④ 윤씨나 지영 중에 가해자가 있나요? 둘 다 전쟁의 피해자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는 도저히 허용이 힘들고, 답은 쉽게 4번이네요. (가)를 바탕으로 하라고는 하지만, 결국 답은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지문 내용의 이해로부터 고를 수 있게끔 출제되었네요. (가)를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게 이해되지요?

⑤ (가)에서 ‘용골대’가 실존 인물이라고 했고, ‘중공군’은 당연히 실존했던 인물들이니 실재했던 전쟁이 환기된다고 할 수 있죠.

12.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5%	6%	78%	7%

상께서 왈,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결연**이 어찌 알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 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다시 말 말라.” 하시고,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향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용골대가 송파장에 결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러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일단 <학습 활동>의 ‘임장군전’의 내용을 주요 포인트 위주로 스무스하게 이해해주고, 1번 선지부터 평가해 봅시다.

- ① ‘임장군전’에서는 계화나 박씨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왕이 항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에서는 계화나 박씨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오랑캐를 혼쭐내주고 있죠. 오랑캐를 혼쭐내는 것은 백성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②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라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허용할 수 있겠네요. 서술자의 개입 미리 찾고 계시죠?
- ③ 역시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나쁜 놈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 허용할 수 있겠고요.
- ④ 박씨의 용서가 추모 의식인지 아닌지는 애매하지만, 용골대가 조선을 정복하고 기뻐하며 승전비를 울리고 있는데 그걸 ‘추모 의식’으로 보면 좀 그렇죠...? 지문을 똑바로 읽었다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네요.
- 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구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문학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허용 가능성 평가’입니다. 저 ‘허용’의 기준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가다듬어 주세요.

13.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10%	5%	6%	70%

①~④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는 쉽게 허용이 가능하죠? 설명을 하자니 그냥 선지 그대로가 해설 그 자체라 조금 곤란해요. 그냥 4개의 선지 전부 딱히 틀린 것이 없는 선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나름대로 허용의 ‘근거’만 잡아보세요.

⑤ 용골대가 괜히 욕심 부리다가 장졸들이 죽었다고 탄식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박씨에게 죽음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있죠. 심지어 폭력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감도 안 오네요. 거기다 용골대는 박씨에게 폭력을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레벨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여러 면에서 봐도 5번 선지는 도저히 허용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14.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0%	69%	7%	8%

- ① 식량을 얻는 것은 분명 전쟁터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윤씨가 총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이는 결국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② 보통 때 같으면 길거리에 쌀과 수수가 흩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거나 조심스레 접근했을 텐데, 전쟁 때문에 그런 존엄성도 상실하고 '갈가마귀떼'처럼 달려드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허용이 가능하겠어요.
- ③ '꿇주린 이리떼'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건 허용하기 힘들네요. 역시 내용일치 수준에서 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 ④ 쉽게 허용이 가능하죠? '피'를 전쟁의 상흔이라고 봐서 딱히 틀린 건 없잖아요.
- ⑤ 지영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윤씨를 업고 벼랑을 오르는 점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다고 허용할 수 있겠네요.

15.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7%	63%	9%	13%

- ① (나)에서 용골대는 먼저 화살로 계획을 공격했다가 통하지 않자 피화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일종의 '상세한 내용일치'네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체크하고 넘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면 돼요!
- ② 박씨가 오랑개에게 '은혜지국을 침범하였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오랑개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허용하기 힘들어요.
- ③ (다)의 중략 이후 부분에서 김씨 부인은 얘기를 어찌려고 그러냐며 지영을 말립니다. 하지만 지영은 기어코 강변으로 나가서 윤씨를 업고 돌아오죠.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이런 문제가 무려 수능 3점 문제인 걸 보면 결국 평가원이 묻고 싶은 건 '소설 내용의 이해'라는 게 확실해지네요. 포인트들을 위주로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소설의 핵심입니다.
- ④ 공간 체크를 집요하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윤씨가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닌 '한강 모래밭'이었습니다. 다들 체크하셨죠?
- ⑤ 윤씨가 걱정하는 것은 피란을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완전 헛소리네요.

16.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4%	4%	3%	80%

- ① 회상은 나온 적 없으니 틀렸네요. 나왔다면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겠죠? 거기에 갈등의 원인도 찾기 어렵구요.
- ② 성격 변화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 소설은 정말 흔치 않으니 성격 변화가 나오는 선지는 먼저 지우고 시작해서 도 무방해요. 물론 도저히 답이 없으면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 ③ 역시 사건의 원인 분석 같은 건 나오지 않았으니 허용하기 힘들어요.
- ④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의 심리도 나온 적이 없으니 4번 선지도 틀렸고요.
- ⑤ 지영이라는 인물이 강변으로 가고,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르고, 독길까지 걷고... '연속적인 행위' 허용해주기에 충분하죠? 윤씨처럼 당장 총을 맞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기엔 긴박한 상황 역시 허용이 가능하구요. 답은 5번이네요.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허용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 ② 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외양 묘사, 배경 묘사'와 같은 묘사는 '인물의 심리' 혹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이용하도록 합니다.
- ③ 비평문 융합 : 비평문은 일종의 <보기>처럼 활용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6주차 DAY 1 [17~19]

2017.09 [16~18] 고전시가 '방옹시어' ☆☆

19번 문제의 <보기>는 단순히 다른 지문이니, 18번 문제의 <보기>를 확인해봅시다.

— <보 기> —

「방옹시어」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혼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군,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전형적인 고전시가의 모습을 다 모아둔 내용이네요. 자연이 좋다는 내용과 임금님을 보고 싶어 하는 내용 기대하면서 지문 읽어봅시다.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 산촌에 눈이 오니까 돌길이 묻혔다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스리
→ 시비(사립문)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사람 누가 있나
밤달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호노라
→ 밤중에 뜨는 달이 그 벗인가 한다

<1수>

(나)

섯꺄래 기나 즈르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 서까래 기나 자르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옷지 마라
→ 초가집 작다고 옷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님 거신가 호노라
→ 산, 달이 다 내 것 같다

<8수>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피졌다
→ 한식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새를 아라 피엿거든
→ 무정한 꽃도 때를 알아서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논고
→ 어찌자고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17수>

(라)

어지밭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긋지 다 피엿다
→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 연못가에 수정렴을 걸어 두고
눌 향한 깊흔 시름을 못내 푸러 호노라
→ 누굴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어낼까

<18수>

(마)

창(窓)밭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창밖에 바스락바스락 님인가 이렇게 보니까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 혜란 혜경에 낙엽이 무슨 일이나
어즈버 유한흔 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호노라
→ 유한한 간장(창자)이 다 끊어질까 한다.

<19수>

- 신희, 「방옹시어(放翁詩餘)」-

실전 독해

‘산촌’에서 자연을 벗삼아 있는데 임금님도 그리운, <보기>에서 예상한 내용 그대로네요. 실전에서 제가 읽은 만큼만 가볍게 읽어 주시고, 시간의 변화 (눈→봄빛) 정도만 잡아주시면 충분합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7.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	76%	11%	4%

① 문답이요? 중장에서 물어보고는 있는데,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아요. 허용할 수 없죠.

② 과거가 대체 어디있나요? 근거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어요.

③ 앞에서는 비 온 봄의 밤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엔 우리 님 어딴냐며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④ 심리적 변화요? ‘시름’이라는 반응 말고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났나요? 역시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심리, 태도의 변화는 정말 엄밀한 근거없이 허용하기 어려워요.

⑤ 딱히 의인화한 모습도 없고, ‘점층적’이라는 말도 허용하기 어렵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8.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5%	10%	75%	6%

① 엿? <보기>에서 분명 정계에서 밀려났다고 했어요. 은거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② @는 ‘자족감’, ‘자긍심’이라고 해놓고 답답한 심정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③ ‘만산 나월’은 그냥 자연이 좋다는 이야기죠. ⑥와 관련된 시어라고 볼 수 없죠.

④ ‘봄빛’이 피졌는데 이 상황 속에서 ‘님’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으니, ‘님에 대한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⑤ '부용 당반'이 ⑥와 관련된 시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낸다구요? 이건 지문의 상황을 싹 무시한 선지네요.

19.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	6%	75%	10%

〈보기〉

벽사창(碧紗窓)이 어른어른커늘 **님만 너저 풀쩍 니러나 똑딱 나셔 보니**

→ 벽사창이 어른어른해서 님이라고 여겨 풀쩍 일어나 똑딱 나셔 보니

님은 아니오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헌디 벽오동(碧梧桐)저즌 님히 봉황(鳳凰)이 느려안자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느래에 너허 두고 슬금슬쩍 깃 다듬는 그림자 } 로다

→ 님은 아니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내려앉아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날개에 넣어 두고 슬금슬쩍 깃 다듬는 그림자였다

모처럼 밤일시만정 행여 낮이런들 님 우일 번혀여라

→ 모처럼 밤이라서 님행이지 행어나 낮이었으면 님 웃길 뻔했다

- 작자 미상 -

- (마) 부분과 유사한 '착각 모티프'가 사용된 작품이네요. 자주 사용되니 알아두도록 합시다. 님이 오는 것 같아서 혈레벌떡 나갔는데, 님이 아니라 봉황의 그림자였다는 내용이네요. (마)는 님인 줄 알았던 대상이 낙엽이었죠? 이 정도 잡아주고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마)에서는 '위석벽석'이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보기>에서는 '어른어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위석벽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소리라는 느낌 정도는 왔으면 좋겠어요. 뒤에 나오는 '낙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구요.

② 창밖에 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있죠? 허용할 수 있네요.

③ 네 그렇죠. (마)는 낙엽, <보기>는 봉황!

④ (마)의 중장에서 낙엽을 묘사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데, <보기>의 중장에 대상에 대한 '비판'이 있따구요? 그냥 봉황이라고 했지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허용하면 안 되겠죠.

⑤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고 했으니 내면적 고통을 허용할 수 있겠고, <보기>에서는 '남 웃길 뻔했다'고 했으니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시가를 공부했다면 말이죠!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고전시가 독해 : 일단 겁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겁먹지 않고, 그 내용이 틀려도 괜찮으니 '현대어'처럼 읽은 뒤 '독해'하면 됩니다. 물론, 주요 작품들에 대한 공부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전 문학은 결국 '경험'이 답입니다.

6주차 DAY 1 [20~22]

2021.06 [22~24] 현대시 '산상의 노래 / 나무의 수사학 1'

☆☆☆

문학 문제는 항상 <보기>를 먼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 <보 기> —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에 대한 <보기>입니다.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작품인데, 도시라는 삭막한 환경에서도 억지로 적응하는 모습에서 동질감을 느끼는다고 해요. 그리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바로 지문 읽어봅시다.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실전 독해

화자는 '홀로' '긴 밤'을 무언가를 '간구하면서' '울어' 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언가 부정적인 상황과 반응을 내뱉고 있어요. '이 아침'에도 가슴은 '사늘'하고 그런데, 시상이 전개될수록 '꽃다운 하늘', '떠오르는 햇살', '피가 도는 입술', '즐거이 노래', '향기로운 싸릿순', '맑은 바람' 등의 긍정적인 상황과 반응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특이하게 '상황과 반응의 변화'라는 요소가 녹아 있는 지문이었습시다.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후적 독해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산마루에 못 박힌 듯 기대어서, 즉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화자는 '긴 밤'을 무엇인가 간구하며 울어 왔다고 합니다. 화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나봐요.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긴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생겼어요. 화자의 '반응'이 변할 수도 있겠죠? 보아하니, 화자의 핏줄, 가슴의 한복판 등으로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화자가 기다리던 게 온 것일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생각 심화

시에서 '종소리'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의 종소리, 제야의 종소리 등은 모두 '수업시간/쉬는시간', '연도'의 '변화'를 나타내듯이 말이죠. 여기서도 '종소리'가 들려오면서 화자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아침이 되고 나니, 눈감아도 '꽃다운 하늘'이 보입니다. '긴 밤'이라는 어둠 속에서 나래를 떨던 샛별은 이제 숨어야겠죠? '어둠'은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으니까요.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이마 우’도 환히 트이고, ‘햇살’도 떠오르고, ‘입술’에 피도 돕니다. 모든 것에 생명력이 부여되고 있어요. 이제 ‘밤’을 지냈으니, 화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새’들도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의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고 합니다. ‘싸릿순’은 채소의 일종인데, 그동안 ‘사슴’, ‘토끼’가 많이 먹었으니 양보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화자는 그냥 좋은 건 다 가지고 싶나봐요.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다시 높으디높은 산마루입니다. ‘긴 밤’ 때와는 달리, ‘맑은 바람’ 속에 홀로 선 화자는 다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조가 훨씬 희망적입니다. ‘시간’이라는 상황이 변하면서 화자의 반응도 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작품이네요. 이 정도로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실전 독해

‘도시’ 속에 있는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치욕으로 푸르다’와 같은 표현에서 ‘반어법’도 드러나고 있죠? 자세한 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는 딱 이 정도만 읽도록 합시다.

사후적 독해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도시가 가르쳐 준 ‘반어법’으로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모습을 ‘반어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삭막한 도시 속에서 꽃을 피운 나무처럼, 화자도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도시에서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며 살아 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화자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무’의 이야기를 빌린 거예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사실상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해 주고 있죠? 나무를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동일시하는 모습입니다.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피워 낸 꽃이기에 나비나 벌들이 뜯어 먹기에 알맞지 않음에도, 벌레들은 변함없이 나무의 이파를 뜯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화자는 ‘치욕’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나무’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치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읽을 수 있겠죠?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20.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0%	68%	12%	6%

① (가)에서 '계절의 변화'가 있었다구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나) 역시 '공간 이동' 같은 엄청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구요.

② (가)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나온 것은 당연한데, '자연의 위대함'이요? 이를 허용할 만한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절대 허용할 수 없어요. 또, (나)의 경우 '봉봉', '아삭아삭'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죠? '두려움'과 같은 반응을 허용하려면 정말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③ (가)에 '명령형 어조'가 나타나지는를 묻고 있으니 어미 부분만 꼭 잘 피면 되겠습니다. '숨으라', '사양하라'라는 엄청난 명령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숨는 행동, 사양하라는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경우, '것이다, 푸르다'와 같은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고 있네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FAQ

Q : '단정적 진술'은 어느 정도일 때 허용되나요?

A : '의문형' 혹은 '추측성 표현'이 쓰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허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이 지문에선 '것이다'라는 식으로 아주 단정적인 느낌이 들죠? 이렇게 확실한 것만 물어 봅니다. 애매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④ (가)에서는 '나래 떨던 새별'이라는 사물에게 '숨으라'라는 말을 건네고 있죠? '숨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니,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한다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숨으라는 건 화자의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요. 하지만 (나)에선 인격화된 '나무'라는 사물은 있지만, 이 나무에게 말을 걸거나 소망을 전하는 모습은 없죠? (나) 때문에 허용할 수 없네요.

⑤ (가)에서는 아예 도치된 표현이 없고, (나)에서는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에서 도치된 표현은 나타나지만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라는 무시무시한 반응을 허용할 만한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어요!

둘의 공통점을 묻지 않고 각각의 특징을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시간 오래 쓰라고!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천천히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제 의식'이라는, 거시적인 내용이 정답으로 제시된 모습이기도 하네요.

21.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1%	8%	6%	46%	9%

① (가) 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선지입니다. 어려운 해석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건 없어요. 맥락을 바탕으로 '독해'해보고, 허용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허용해주면 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A]에서 화자를 옮겨 한 '문제는 무엇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아직 오지 않아서 이를 간구(바라고 구함)하고 있으니 '무언가가 아직 오지 않음'을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B]에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역시 '무엇'입니다.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화자는 '무엇'이 오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에 울었고, 그 '무엇'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기다림의 대상인 '무엇'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무엇이 오지 못한 상황'이니, 둘은 다르다는 내용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학 문제가 아니라 독서 내용일치 문제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선지를 '허용'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 선지를 답으로 고른 31%의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선지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체크하고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는 갖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올어 왔는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것은 '무엇'이 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③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상황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죠? 미리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이 선지를 읽고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④ '나래 떨던 새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각각 화자가 '숨으라', '사양하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일단 '나래 떨던 새별'부터! '숨으라'고 하는데, '지향점'이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근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허용하나요. 바로 정답이네요.

한편 우리가 독해한 바에 따르면 '향기로운 싸릿순'은 사실 화자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슴'과 '토끼'에게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선지가 답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네요.

⑤ 역시 전형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석'할 수는 없지만 '허용'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늘한 가슴'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니 이를 근거로 저 '간구'가 곧 '사늘한 가슴'과 같은 상황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B]의 '노래'의 경우,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도는 식으로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상황이니 그때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무엇'이 오지는 않았으니까요.

1번 선지와 5번 선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한편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문학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 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는 이런 '허용 범위'의 파악이에요. 평가원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내용까지 허용을 해 주는가! 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2.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3%	6%	4%	82%

① 나무의 '들뜬 뿌리'는 도시에 억지로 적응하고자 하는 나무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근거해서 말이죠! 화자는 여기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내성’이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적응’을 허용할 수 있겠고, ‘이파리’가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③④ ‘시끄러운 가로등 곁’이라는 도시 속에서 ‘신경증과 불면증’이라는 고통을 견뎌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나무가 적응하지 못한다구요? <보기>에서 분명 ‘나무’는 도시에 억지로나마 적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치욕으로 푸르다’인데, 적응하지 못한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죠.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되지만, 실전에서 이러한 독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후적 독해’를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③ 문학의 독서화 :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독서 문제를 풀 때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독해해서 의미 추출하기’ 등의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최근 더욱 강화되는 경향 중 하나예요!

6주차 DAY 2 [1~5]

2022예시 [30~34] 기술 '충전지' ☆☆☆☆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는 충전기를 통해 충전하는데, 충전기는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 충전지는 양극에 사용되는 **금속 산화 물질**에 따라 납 충전지, 니켈 충전지, 리튬 충전지로 나눌 수 있다. 충전지가 방전될 때 양극 단자와 음극 단자 간에 전위차, 즉 전압이 발생하는데, 방전이 진행되면서 전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단자 전압의 평균을 **공칭 전압**이라 한다. <충전지를 크게 만들면 충전 용량과 방전 전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전극의 물질을 바꾸지 않는 한 공칭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납 충전지의 공칭 전압은 2V, 니켈 충전지는 1.2V, 리튬 충전지는 3.6V이다.

- > 방전 진행 → 단자 전압 ↓
- > 충전지 크기 ↑ → 충전 용량, 방전 전류 세기 ↑

'충전기'를 통해 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충전지'에 대한 지문입니다. '충전기'는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기술 지문에서는 항상 그 기술의 '목적'을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충전기'라는 기술의 목적은 '전류 및 전압 제어'인 거예요. 모든 정보를 이 목적에 맞춰서 정리해야 합니다! '충전지'는 양극에 사용되는 '금속 산화 물질'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고 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전류 및 전압 제어'라는 목적에 맞춰서 읽어봅시다.

충전지가 '방전'될 때는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는 방전이 진행되면서 감소한다고 해요. 이렇게 감소하는 '전압'을 제어하는 게 포인트겠죠? 아무튼 이런 '단자 전압'의 평균을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데, 전극의 물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공칭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정값'이네요! 확실하게 인식해야겠죠? 그런데 이 '고정값'은 특이하게도 '예외'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전극의 물질'이 바뀌는 경우는 더 이상 '고정값'이 아니라고 해요. 이것도 '예외'로 인식해 주셔야겠죠? 이 생각을 했더니 바로 다음 문장의 '납 충전지', '니켈 충전지', '리튬 충전지'의 예시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충전지'의 전극, 즉 '양극'에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공칭 전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죠! '고정값, 예외, 사례'라는 중요 포인트를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고정값'을 제시하기 위해 나온 '충전지 크기'와 관련된 비례/증감 관계는 이쁘게 메모하면 되겠죠? 첫 문단에선 어느 정도 정보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전류 및 전압 제어'라는 포인트는 잊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는 충전기를 통해 충전하는데, 충전기는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면 이게 왜 하이라이트 문장인지 아시겠죠? '충전기'라는 화제가 등장할뿐더러 기술의 목적인 '충전과 방전을 통한 충전지 충전'과 '전류와 전압의 제어'에 대해 제시해주고 있으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기술의 목적에 주의하면서 다음 문단을 읽어봅시다.

충전지는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상태를 **만충전**이라 한다. 최대 용량을 넘어서 충전하는 **과충전**이나 방전 하한 전압 이하까지 방전시키는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전 양을 측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충전 시에는 발열로 인해 누액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니켈 충전지의 일종인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다른 충전지와 달리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

이런 '충전지'는 '만충전' 상태까지 충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과충전', '과방전' 상태는 충전지의 수명을 갉아 먹고 있고 해요. 그래서 '충전 양'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전 양의 관리'라는 말이 곧 '전류 및 전압의 제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을 잡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충전기'라는 기술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이유는 '과충전 및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니켈카드뮴 충전지의 경우에는 '메모리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볍게 체크해주고, 이 역시 '니켈카드뮴 충전지'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즉 일종의 '예외'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외'와 '고정값'은 '특수한 부분'에 해당하기에 거의 무조건 선지로 출제되는 내용이니깐요.

계속해서 '전류 및 전압 제어'라는 '충전기'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나오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최대 용량을 넘어서 충전하는 과충전이나 방전 하한 전압 이하까지 방전시키는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전 양을 측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전 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충전 양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충전 양을 측정·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는 것의 재진술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술의 목적 그 자체니까요.

최근의 평가원은 지문에서도 그렇고, 선지에서도 그렇고 재진술을 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수반되어야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재진술 말이지요. 그러니 항상 조금 더 깊게,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충전지의 공칭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충전지로 유입되는 전류를 저항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이 상승하여 유입되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 충전기에는 충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도록 하는 정전류 회로가 사용된다. 또한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로에 입력되는 전압이 변해도 출력되는 전압이 일정하도록 해 준다. 리튬 충전지를 충전할 경우, ①정전류 회로를 사용하여 충전하다가 ②만충전 전압에 이르면 정전압 회로로 전환하여 ③정해진 시간 동안 충전지에 공급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충전지 내부에 리튬 이온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 한다.

-> 충전 진행 → 충전지 단자 전압 ↑ → 유입 전류 세기 ↓

본격적으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충전지'의 '공칭 전압'보다 높아야 하고, '충전지'로 유입되는 '전류'는 저항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만, '전압'과 '전류'라는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정리하면 좋겠죠?

아무튼 충전을 진행하면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은 높아지고, 이에 유입되는 '전류'의 세기는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류'를 제어하는 게 핵심인데, '전류'의 세기가 줄어든다면 이걸 막아 줄 필요가 있겠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정전류 회로'네요. 여기에 '입력 전압'이 변해도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 주는 '정전압 회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정보들이 모두 '전류 및 전압 제어'라는, '충전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 준다는 건 확실하게 잡아야겠죠?

그 뒤엔 '리튬 충전지'를 일종의 예시로 제시하여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화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니까요! '리튬 충전지'는 '정전류 회로'를 사용하여 충전하다가, '단자 전압'이 점점 상승하게 되어(앞에 나온 비례/증감 관계 활용!) '만충전 전압'에 이르면 '정전압 회로'로 전환하여 '충전지'에 공급하는, 즉 '출력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전류 및 전압의 제어'라는 목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정보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느껴셔야 합니다.

생각 심화

충전기의 전원 전압을 저항으로 제한하다가 정전류 회로와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문 내 근거로만 이해해 봅시다. 두 번째 문장에서, 충전이 이루어지면 충전지의 전압이 상승하여 전류의 세기가 줄어든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충전이 될수록 충전지의 전압이 상승하는 것이죠. 따라서 충전이 되어있지 않은 충전지의 단자 전압은 충전기의 전원 전압보다 작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첫 문장에 충전지의 공칭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깐요.

정리하자면, 충전지의 단자 전압보다 충전기의 전원 전압이 크기 때문에 유입되는 전류의 세기가 클 것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충전지의 전압이 커지면 유입되는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니까요. 따라서 전압과 전류를 제어해야 하는 충전기의 특성상, 충전 초기에는 충전기의 전원 전압이 충전지의 공칭 전압보다 너무 높으면 저항으로 전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충전기가 충전되면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이 커져서 유입되는 전류가 너무 줄어들 것 같으면 정전류 회로로 유입되는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고요. 또한 충전지와 충전기의 전압 차이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전압 회로를 사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나 지문에 근거한 논리적인 추론이므로, 이해가 안 된다면 충전지의 단자 전압에 따른 유입 전류의 비례 관계와 충전기의 전원 전압, 정전류 회로, 정전압 회로의 사용 이유를 바탕으로 스스로 고민해 보신 후 해설을 다시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어렵더라도 깊게 생각하는 연습까지 행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전지의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여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최대 충전 시간 방식**에서는, 충전이 시작된 후 완전 방전에서 만충전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전류 적산 방식**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충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각각의 값에 측정 시간 간격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한 값이 충전지의 충전 용량에 이르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서는 충전지의 단자 전압과 충전지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만충전 여부를 판정한다. ①충전지에 충전 전류가 유입되면 충전이 시작되어 단자 전압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다. ②충전 양이 만충전 용량의 약 80%에 이르면 발열량이 많아져 단자 전압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③만충전 상태에 가까워지면 단자 전압이 다소 감소하는데 ④일정 수준으로 감소한 시점을 만충전에 도달했다고 추정하여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니켈카드뮴 충전지**의 경우는 단자 전압의 강하를 검출할 수 있으나 **다른 충전지들**의 경우는 이러한 전압 강하가 검출이 가능한 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 단자 전압, 최대 온도, 온도 상승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측정된 값이 그 기준들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과충전을 방지한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느낌을 받을 때는, 항상 '내가 뭘 읽게 될 것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게 될 거예요. '만충전'은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제시되었기에, 이 상태를 추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이 방법들 중 첫 번째는 '최대 충전 시간 방식'입니다. '완전 방전~만충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이용하여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고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이네요. '전류 적산 방식' 역시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충전 전류의 세기'라는 것을 이용하여 '만충전 상태'를 추정한다는 것만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문제에서 물어볼 때 확인하면 되니까요.

다음으로 '충전 상태 검출 방식'은 '단자 전압'과 '표면 온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4단계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쁘게 번호 매겨주면서, 이 과정은 충전이 진행될 때 '전압, 온도'의 변화 과정이라는 것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특히 충전이 시작되면 '단자 전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앞에서 비례/증감 관계로 체크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런 '전압, 온도'의 변화는 결국 '만충전 상태'의 추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확실하게 체크해야겠죠? 내가 읽고 있는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뒤엔 또 '니켈카드뮴 충전지'의 '단자 전압 강하 검출 가능'이라는 '예외'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충전지는 '메모리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예외도 있었죠? 거의 외우다시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켈카드뮴 충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충전지들은 저 '단자 전압 강하'를 검출할 수 없기에 특정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과충전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과충전을 방지'한다는 것은 '만충전 상태 추정'과 같은 말이겠죠?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는 이유가 곧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니까요.

크게 '전류 및 전압의 제어', '가장 효율적인 만충전'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사실 두 포인트도 거의 같은 말이죠.) 전개된 지문이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여기에 모아주면서 정보량을 줄였다면, 꽤나 수월

하게 읽을 수 있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4%	68%	11%	10%	7%

① ‘만충전’이 아닌 ‘과충전’과 ‘과방전’은 모두 충전지의 수명을 깎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쉽게 지울 수 있네요.

② 조금 복잡합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부터 천천히 생각해봅시다. 일단 ‘방전’ 시의 상황입니다. 방전이 진행되는 경우, ‘단자 전압’이 점점 감소한다고 했어요. 1문단에서 비례/증감 관계로 메모해두었죠? 그럼 완전히 방전이 된 경우에는 이 ‘단자 전압’이 아주 낮아진 상태일 텐데, 선지에서 이를 ‘공칭 전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칭 전압’의 정의는 ‘단자 전압의 평균값’이에요. 즉, 원래 높았던 ‘단자 전압’이 방전이 진행되면서 점점 낮아지는데, 그 평균이 ‘공칭 전압’이라는 것이죠. 그럼 방전되었을 때의 ‘단자 전압’은 가장 낮은 상태이므로, 평균인 ‘공칭 전압’보다는 당연히 낮을 수 있겠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과 함께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였네요. 나머지 선지가 다소 쉽게 출제되어 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지만, 완벽하게 지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확실하게 점검하도록 합시다.

③ ‘정전압 회로’는 입력되는 ‘전압’이 변하더라도 출력되는, 즉 충전지에 공급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출력 전압이 변하면 안 되겠죠.

④ 충전지의 ‘평균’적인 단자 전압! ‘공칭 전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2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의를 한 번 더 체크했으니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이 ‘공칭 전압’은 ‘고정값’으로, 변하지 않는 값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고정값’에 ‘전극의 물질 변화’라는 ‘예외’도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선지에서 묻는 대로 ‘전극의 물질’이 바뀌는 경우에는 ‘공칭 전압’이 변할 수 있으니 틀린 선지로 판단해야겠네요.

⑤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두 가지 ‘예외’를 가진 것이었는데, 그 중 하나는 ‘메모리 효과’였어요.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2.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4%	63%	8%	8%	7%

- 2020학년도 수능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을 묻는 유형입니다. 대놓고 ‘알 수 없음’을 고르라고 하는 것인데,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문을 완벽하게 읽었다는 전제 하에 정말로 본 적이 없는 정보를 고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거법입니다. 실전에서는 내가 정말로 본 적이 없는 정보인지 아니면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인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선지를 제외하고 답을 고르는 것이 우월전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능이라면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도 대놓고 ‘알 수 없음’보다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히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정보, 혹은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정보를 답으로 제시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① 조금은 검토가 미흡했던 선지입니다. ‘충전지에 표시된 전압’이 무엇인지 지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고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충전지에 표시된 전압’이라고 한다면 그 충전지의 ‘일반적인 전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평균값인 공칭 전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3문단에서 ‘원원 전압’은 ‘공칭 전압’보다 높은 것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공칭 전압’에 대한 설명만 조금 더 자세했다면 지문에서 확실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네요.

② ‘충전지의 수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충전지의 수명’은 ‘과충전/과방전’ 시에 줄어든다고는 했지만, 그 외에 이것이 줄어드는 경우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충전 허용 전류’보다 충전 전류의 세기가 강하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구요. 사실 이런 문제의 정답 선지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2020학년도 수능 16번)로 출제되거나 ‘화제와 아무 관련 없음’(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인 경우로 제시되었는데, 여기 나온 ‘전류’의 경우 화제와 직결되고, 지문에서 반대되는 말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선지긴 합니다.

③ ‘온도’는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만약 충전지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한다면 이는 ‘과충전’ 상태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경우 폭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 전에 꼭 충전을 중지해야겠죠. 지문의 다양한 부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④ 첫 문장부터 제시한 ‘충전지’의 정의입니다. 수시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어요.

⑤ ‘과방전’은 충전지의 수명을 깎아 먹는다고 했죠?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네요.

3.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6%	68%	10%	4%	12%

- 신유형입니다. 하지만 묻는 건 다르지 않아요.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처럼 접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만충전 상태 추정’에 대해 묻고 있어요. 각 부원의 의견을 체크한다는 생각보다는 각 선지의 내용일치 여부를 따진다는 생각으로 풀어봅시다.

①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은 ‘완전 방전’ 상태에서 ‘만충전’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방전이 아닌 상태에서

시작할 경우 '과충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생각해서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20%에서 충전을 시작한다면 120% 정도의 충전이 되어야야 충전이 중단될 테니까요.

② '전류 적산 방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에서의 '충전 전류의 세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 간격마다 '충전 전류'가 일정하다면 매 시간 간격마다 똑같은 전류의 세기를 이용할 것이므로 실제 충전 양과 추정된 충전 양이 같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 간격마다 '충전 전류'가 일정하지 않다면, 시간 간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그 값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첫 10초 동안은 초당 10mA의 전류가 흐르고 그 이후 10초 동안은 초당 20mA의 전류가, 다음 10초 동안은 초당 30mA의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시간 간격을 '6초 단위'로 끊는다면 각 구간마다 '10mA', '20mA', '20mA', '30mA', '30mA'의 전류가 측정될 것이고, 이를 '전류 적산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6*110mA=660mA'가 될 것입니다. (시간 간격인 '6초'에 각각의 측정 전류를 곱한 뒤 모두 더한 값) 하지만 실제 충전 전류는 '10*10mA+10*20mA+10*30mA=600mA'가 됩니다. 앞에서 계산한 것과는 차이가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추론이기에, 현실적으로는 나머지 선지를 모두 지운 뒤 소거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겠습니다.

③ '전압 강하를 검출'하는 것은 '니켈카드뮴 충전지'가 가지고 있는 '예외'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충전지를 두루 사용하려면 이 방식보다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기준'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④ '온도'를 통해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주변이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라면 당연히 정확한 추정이 어렵겠죠?

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문단의 정보들은 '만충전 상태'를 추정된 뒤 '충전 중단'을 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충전 중단' 수단이 없다면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겠네요. 계속해서 충전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정보의 역할'을 집요하게 묻고 있네요.

계속해서 정답 선지는 굉장히 어렵게 주지만 나머지 선지들은 쉽게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실전에서는 '소거법'도 아주 훌륭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4.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3%	17%	38%	22%	10%

-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x축과 y축을 자동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시간'에 따른 '전압'과 '전류'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에 해당하는 정보죠? 나아가 이 그래프는 '충전지를 충전할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열심히 체크한 과정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이를 이용해서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의 '단자 전압'은 0.8인 상태입니다. 이는 '공칭 전압', 즉 '단자 전압의 평균값'보다는 낮겠죠. 평균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0.8이 가장 작은 값이기에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② ㉡는 한창 충전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충전이 진행될 때는 '단자 전압'과 '온도'가 모두 상승한다는 비례/증감 관계 및 과정을 체크해두었죠? 그래프에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정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기만 하면 돼요.

③ ㉢에서 '단자 전압'이 최대에 이른 것은 맞지만, 이게 '만충전' 상태는 아니죠?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한 과정에 따르면 '만충전'이 되기 직전에 '단자 전압'이 약간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단자 전압'이 최대치에 이른 뒤 조금 감소해야 '만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는 '만충전 직전'의 상태이지 '만충전' 상태는 아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은 정말 집요하게 문제화시키는 모습이에요. 잘 처리할 수 있죠?

④ ㉣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던 '충전 전류'가 0이 된 모습입니다. 이는 '단자 전압'이 일정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판단하여 '만충전' 상태로 추정했고, 이에 충전 전원을 차단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 문단의 과정과 그래프를 엮어서 판단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⑤ ㉤에서는 그래프만 봐도 '충전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고, '충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충전 전원을 차단했다'는 것이니 충전이 되지 않고 '방전'이 되는 상태겠죠. (정확히는 방전이 진행되는 동안 전압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에서 물어보는 개념과 연결된 개념을 바탕으로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과정 체크!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5.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	3%	14%	4%	78%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주차 DAY 2 [6~11]

2022.09 [4~9] 사회(경제) '광고의 경제적 효과' ☆☆

(가)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에 대한 지문입니다. '광고'의 어떤 이야기를 하려나 했더니,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네요. 일단 '독점적/경쟁/시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경쟁'하긴 하지만 '독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라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네요.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왜 '독점적/경쟁/시장'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납득하고 가셔야 합니다. 초반부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의 정의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주시야 하니까요! 아무튼 생각해보십시오. 먼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독점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적이라는 건 그 차별성이 통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한다는 점에서는 '경쟁 시장'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독점적/경쟁/시장'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납득한 채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각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기 위해 '광고'를 사용한다고 해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을 체크하면서도, '광고'라는 화제를 잊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판매자들은 이렇게 '차별적 인지와 선호'를 만들려고 하고, 이를 통해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납득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부분이지요? 자신의 제품이 '차별적'이라는 걸 구매자들이 인식해야만 '독점적'이라는 성질을 잘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를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가)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정의 제시 ☆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광고’와 ‘독점적 경쟁 시장’의 관계라는 화제를 제시하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장들입니다. ‘독점적/경쟁/시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진술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앞 문장의 재진술입니다.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적용되는 양상인데, ‘독점적 경쟁 시장’의 정의만으로도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가)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계속해서 강조하는 ‘독점적 지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에 대한 힘이 있다는 게 그 정의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독점’을 하고 있다면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 그대로 팔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겁니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판매자들은 ‘가격 결정권’을 위해 ‘광고’라는 수단을 활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지문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셔야 해요!) 분명히 ‘광고’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매자의 눈치는 왜 봐야 하는 걸까요? 궁금해하면서 읽어봅시다.

먼저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격 결정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렇게 가격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더 읽어보니, 만약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신규 판매자’들이 ‘약간 다른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이는 기존에 ‘이윤’을 보던 판매자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돈을 잘 버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선구자를 따라 많은 판매자들이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는 기존 판매자의 이윤 감소를 낳으므로,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미묘하게 변하는 구매자들의 수요를 최대한 끌어 오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네요. 그래야 최대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결국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각 판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 문단이었습니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정말 없죠?

새끼 문제 해설

Q1. (가)의 2문단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약간 다른 상품’과 같은 말을 1문단에서 찾아보자.

정답 :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

간단한 문제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 속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시장의 정의는 잊지 않고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약간 다르다’와 ‘유사하지만 차별적이다’는 사실상 같은 말이죠?

생각 심화

이러한 독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광고’라는 화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이 내용은 결국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자의 수요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고 싶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 지문의 화제인 ‘광고’를 생각하면 ‘독점적 지위 강화’라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가 되겠죠? ‘화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태도! 확실하게 갖춰주도록 합시다.

(가) 2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카테고리 제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지문의 흐름이 바뀌는 문장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다가, ‘사실은 구매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재진술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재진술 #정보의 역할 ☆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지문의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었음을 알려 주는 문장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 준다는 것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 3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역시 '독점적 지위', 즉 '차별적 인지·선호'를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광고'를 통해 '차별성'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해요!

어쨌든, '광고'를 통해 '차별성'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 전달'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요. 이걸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이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많은 비용'을 쓴 것만으로도 차별적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문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광고했다면 경쟁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식된 정의를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변화에 따른 상품 수요량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낸다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훨씬 쉽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구매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특정 상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은 것이라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고 볼 수 있겠지요. 이들을 모두 같은 말로 처리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납득'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 합니다. 특히 이렇게 쉬운 지문일수록 말이에요.

새끼 문제 해설

Q2. (가)의 3문단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제시된 것일까?

모범 답안 : '독점적 지위=차별성'을 재진술하기 위해.

모든 정보는 결국 '화제'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정보 역시 '광고'가 독점적 지위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화제를 설명한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구매자의 '충성도'라는 개념을 이끌어내면서, 이것이 결국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와 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같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통해 지문의 흐름을 화제 중심으로 모아주는 독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쉬운 지문으로 느껴지더라도 말이에요!

(가) 3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카테고리 제시 #재진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정의 제시(수식된 정의)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재진술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①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정의 이후로 전부 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광고는 독점적 지위 강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나)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와 (나)는 한 지문처럼 읽어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에서는 '광고'가 '독점적 지위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했는데, (나)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6월 모의평가부터 '카테고리 나누기'가 핵심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광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경우는 '판매자 간 경쟁 촉진'입니다. (가)에서는 광고가 '한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나)에서는 광고가 '여러 판매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효과는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꾸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떠올라야겠죠? 앞 문단에 제시된 개념을 다음 문단으로 끌고 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튼, 구매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판매자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크게 변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기 위한 판매자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 이니까요.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의 진입 정도에 의해서 촉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광고'가 '경쟁'을 촉진하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갖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음으로 '신규 판매자의 진입 정도'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신규 판매자가 많아져서 시장에 경쟁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촉진'되는 것이고, 이는 구매자에게 '낮은 가격'이라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광고는 (가)에서 이야기하듯이 경쟁을 '제한'하기도 하고,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는 것이네요.

(나)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광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화제'이자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지문 독해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카테고리 나누기 ☆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가)와 (나)로 카테고리를 나눈 데 이어서, (나) 속의 카테고리들로 다시 한번 나누는 모습입니다. '광고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중에서도 '판매자 간 경쟁 촉진'이라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재진술 ☆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문장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재진술하면서, (가)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나)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다시 한번 카테고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는 광고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 중 '경쟁 촉진'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문단에선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서의 영향', 2문단에선 '독점적 경쟁 시장 외에서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정보를 카테고리화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 영향은 바로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밑줄 친 내용 위주로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광고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잘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를 위해 '고용·투자'를 늘리게 되며, 늘어난 '고용·투

자가 다시 구매자들의 소득을 높여 주고, 이는 또 다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생산 활동'이 자극받고, '고용·투자가' 증가하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겠죠?

이런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납득'하며 읽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많이 사 주니까 더 많이 팔려고 하고, 더 많이 생산하려면 더 많은 직원을 써야 하고, 더 많은 직원이 월급 올라 더 많이 사 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 역시 맥락과 연결지어 가볍게 납득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로 수식되어 정의되어 있는데, 이 값은 양(+)의 값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소비 증가→생산 증가→고용·투자 증가→소득 증가'까지만 제시되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소득 증가→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순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보의 필연적인 역할이 딱 잡히시죠?

(나) 2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카테고리 나누기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재진술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재진술 ☆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결국 '선순환'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보충 설명하는 재진술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한 '정리'가 아닌, 너무나 당연한 말임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 제시(수식된 정의) #재진술 ☆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결국 '선순환'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재진술하는 데 지나지 않는 문장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3문단

① 문단 독해 사고과정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약간 좀 뜬금없는데, 이러한 '소비 촉진 효과', 즉 광고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순환'은 '환경 오염'이라는 비판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이라는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내용을 납득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3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카테고리 나누기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재진술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걸 생각하면 간단하게 정보량을 줄일 수 있는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해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럼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③ 문제풀이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결국, 화제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가)는 '광고가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는 '광고가 시장 및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①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개념 정의, 위상 모두 헛소리지.
해설	애초에 이 지문은 '광고' 자체가 아닌, '독점적 지위'를 만드는 광고의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고'가 무엇인지, 그 위상은 어떠한지 등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죠.

②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선택률	85%
명시적 근거	(가)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의 화제네.
해설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 효과 모두 '독점적 지위 확보'라는 화제와 관련된 것이죠?

③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다양한 견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각각의 한계점을 지적한 것도 아니지.
해설	역지로 맞다고 하자면 끼워 맞출 수도 있는 선지입니다. 다양한 견해(광고의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카테고리)와 한계점(환경 오염 유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깐요. 하지만 최소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쟁 촉진'에 대한 한계점은 제시되지 않았을뿐더러, 더욱 중요한 건 이 지문의 '화제'와 무관한 내용이죠? 평가원은 언제나 우리가 '화제'에 집중했는지 물어봅니다. 지엽적인 내용에 매몰되지 맙시다!

④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해설	1번 선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지문은 '광고'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광고'가 낳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지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빠진 상태면 절대 답으로 골라줄 수가 없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택률	1%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광고가 주인공이 아닌데?
해설	역시 주인공은 광고가 아닙니다! '제도 마련'과 같은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죠.

7.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격 결정권', '충성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낮음' 등으로 재진술되었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독점적 지위 누리면 그거 노리고 다른 신규 판매자가 진입할 수 있겠지.
해설	애초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서의이므로, 신규 판매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독점'이 아닌 '경쟁' 시장이니까요.

②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격 결정권이랑 똑같은 말이었지.
해설	재진술을 인식했더니 선지 하나가 공짜로 해결되는 모습입니다. '독점적 지위'의 정의이기도 했죠?

③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선택률	90%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구매자 수요 고려해야지.
해설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곧 '구매자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라고 해도,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므로 틀린 선지가 되겠죠. 지문에선 판매자가 이렇게 '구매자의 수요'를 덜 고려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④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서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했던 거지.
해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싼 가격을 책정하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볼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가격으로 어필하는 신규 판매자가 들어오면 결국 이윤이 줄어들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판매자라도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던 것이구요.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광고 등을 통해 '차별적 인지·선호'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곧 '충성도'로 이어지고, 이는 '독점적 지위의 강화'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납득했던 내용들이죠?

8.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에 대한 내용일지 문제입니다. '광고가 시장 및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화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①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광고가 소비 촉진하지.
해설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하고, '소비 촉진'이라는 '순순환'의 시작점을 묻는 선지기도 하죠? 가볍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② 광고가 경제 전반에 순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선택률	89%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일곱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의 순순환도 더 잘 일어나겠지.
해설	2문단의 핵심은 '순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은 그러한 '순환'을 만들어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어요. 연결고리인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게 되면 '소비 증가'의 정도도 훨씬 커질 것이고, 이는 '순순환'의 강화를 낳겠죠. 눈알을 굴려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납득'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③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고용·투자 증가 → 소득 증가'라는 순환의 과정을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가볍게 지울 수 있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이번엔 '생산 증가 → 고용·투자 증가'라는 순환의 과정을 그대로 묻고 있네요.

⑤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광고가 소비를 촉진하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으니,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9.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

- '광고'는 경쟁을 '제한'하여 어떤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영향에 대한 내용이네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선택률	81%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다섯 번째 문장 / (가) 3문단 네 번째 문장+(나) 1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충성도 높으면 경쟁 제한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지면 가격에 예민한 거니까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겠네.
해설	'충성도'는 곧 '독점적 지위'와 연결되었고, 이것이 강화되면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은 지겹도록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한편 ㉡과 관련된 내용은 아주 약간 까다로웠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는 곧 '가격에 예민해질 때'를 의미하고, 이때는 예민한 구매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판매자들 간의 경쟁이 '촉진'된다고 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정보는 (가)에만 제시된 것인데, 이를 (나)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독해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② ㉠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
㉡의 결과로 구매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첫 번째 문장 + (가) 3문단 다섯 번째 문장 / (나) 1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쟁이 제한되는데 왜 가격을 못 올리며, 경쟁이 촉진되는데 구매자가 왜 비싼 가격을 감수하냐.
해설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은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 가 강화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가격 결정 권'이 강력해진다는 말이죠. 따라서 상품 가격을 조금 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경쟁이 '촉진'되 면 판매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판매하려 고 할 것이니 구매자들은 다소 싼 가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③ ㉠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여섯 번째 문장 / (나) 1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쟁이 촉진되는데 시장 진입이 왜 어렵냐.
해설	경쟁이 '제한'되면 신규 판매자 수가 진입하기 어 렵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못 박기는 어렵죠? 이 부분은 애매했어도, 경 쟁이 '촉진'되면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고 봐야겠죠.

④ ㉠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선택률	5%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네 번째 문장 / (나) 1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차별성을 알렸으니까 경쟁이 제한되겠지.
해설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여 '독점적 지 위'를 얻었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는 것이죠? 한 편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하면, 경쟁 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판매자의 진입'은 '경쟁 촉진'의 두 번째 원인이었으니까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하고, ㉡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
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

선택률	7%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네 번째 문장 / (나) 1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쟁이 촉진되면 가격 경쟁으로 이어진다면.
해설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 즉 '수 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면 경쟁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맞는 말인데,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 된다는 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었다는 뜻이죠? 이는 경쟁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제한'시 킨다고 볼 수 있으니, ㉡에 대한 설명은 틀렸네요.

10.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광고 기획안입니다. 이번에도 '윗글'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이 주목
할 만한 포인트네요. (가)와 (나)는 한 지문입니다! 아무튼, 이 기획안
을 정리하다보면 출제 포인트가 잡힐 것 같습니다. 정리부터 해봅시다.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

- 대상: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 기획 근거: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에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 한다.
- 광고 개요: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

-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갑' 기업이
새로 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신규 판매자' 입장이므로,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다는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필요하겠네요.
현재 기존 판매자인 '을' 기업은 많은 돈을 들이는 방식으로 차별성을
알리고 있는데, 신규 판매자인 '갑' 기업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상황입니다.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말이죠!

이 광고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보다는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갑' 기업은 자신들의 '독점
적 지위'를 강화시킬 때가 아니라, 일단 '을' 기업과의 경쟁 구도를 만드
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 경우 '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는 약
화되면서, 여드름 억제 비누의 전반적인 가격이 저렴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광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소비 촉진'으로 시작되는 '선순환'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신다면 완벽하겠네요. 전반적으로 (가)보다는 (나) 쪽에서 선지가 많이 출제될 것 같아요. 경쟁 '제한'보다는 '촉진'이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지문의 내용과 연결지어 <보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지 판단해봅시다.

- ①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리한 내용 그대로네.
해설	<보기> 정리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미리 정리한 내용 그대로죠?

- ②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어.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순환!
해설	역시 미리 정리한 내용 그대로죠? '선순환'이라는 광고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③ 이 광고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어.

선택률	74%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다섯 번째~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단기적으로 이윤 보면 따라 오는 신규 판매자가 많아진다고 했잖아.
해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선지네요. 지문 내에 입각해서 설명하면, 광고를 통해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갑' 기업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켰듯이, '갑'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또 다른 신규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 강화'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④ 이 광고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선택률	7%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첫 번째 문장 + 광고 기획 초안 '기획 근거' 2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역시 정리한 내용 그대로죠? '정보 전달'의 방법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갑' 기업입니다.

- 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격에 예민해지면 경쟁 촉진되지.
해설	이 광고를 통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경쟁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11. 문맥상 ㉠와 바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 들어가므로,

- 이때의 '들어가다'는 '어떤 일에 돈,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 ① 반입(搬入)되므로
- ② 삽입(挿入)되므로
- ③ 영입(迎入)되므로
- ④ 주입(注入)되므로
- ⑤ 투입(投入)되므로

- 이와 바뀌 쓸 수 있는 말은 '투입되다'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4%	3%	3%	3%	87%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가)(나)형 지문이 더 이상 인문 지문의 전유물이 아님을 선포함과 동시에, 사회 지문으로 변별하려는 의지가 많이 낮아졌음을 알려 주는 지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시문항부터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보이는 일관된 기조는 '인문 지문의 킬러화'예요. 인문 지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지문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이번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단어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인식' 등의 태도가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6주차 DAY 2 [12~15]

2018.09 [23~26] 극문학 '불모지' ☆☆

늘 하던 대로, <보기>를 먼저 확인하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한 <보기>가 아니라 '발견'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보기>네요. 굳이 먼저 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로 지문 읽으면서 이해해봅시다.

최 노인 :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 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깡깡대고 웃는다.**

경재 : 원 아버지두……

최 노인 :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재 :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짐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웅변 연사의 흉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설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뻐!

'최 노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멧없는 것'이라는 게 햇볕을 가려서 고추가 자라질 않는다며 불평하네요. 그 말을 들은 아들 '경재'는 웃으며 아버지를 놀립니다. 왜? 옛날에 사는 아버지가 우스우니까요. 경재는 제복을 차려 입고 책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인물 관계, 인물의 심리의 근거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경수 :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끼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구!

경수 :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애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 여보 김 참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린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깐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 음 이놈이 한낱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 김 침치! 글썽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 그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서야! 음!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 글썽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예잇.

최 노인 : 아 김 침치!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어머니 :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 :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뭣이 된단 말이야! 뭣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뽀아 헤친다.)

어머니 : (땀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썩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경수'라는 인물이 '복덕방'이라는 인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긴 '종로 한복판'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공간'은 종로 한복판이네요. 체크하고 계시죠? 아무튼 경수는 공동묘지 애길 꺼내면서 이백오십만 환에는 집을 팔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버릇없는 드림에 화난 '복덕방'은 경수에게 계속 욕을 하고, 어머니와 최 노인이 말려 보지만 결국 '복덕방'은 나가버리네요. 이 작품은 어째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 같아요... 중요한 건 복덕방이 화난 이유 등 '심리의 근거'를 잡아주시는 것이겠죠?

최 노인이 돌아오며 화난 말투로 경수에게 뭐라뭐라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백오십만 환에 집을 팔려던 것이 아니라, 6개월동안 전세를 내놓으려던 것이네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와 '경운'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봅니다. 응??? 이런 거죠. (심리의 근거 생각) 참고로 '경수'와 '경운'이는 다른 사람이네요. 많이들 놓쳤는데, 인물 체크에 집중해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아니면 껍질이나'라는 부장님 개그를 날리고 계시네요. '안'이 아니면 '껍질(바깥)'이냐? 라는 건데.. 거참.. 아무튼 이런 언어유희는 무언가 '특이한 부분'에 해당하니, 보았다면 체크하도록 합시다.

이때 최 노인 쉼겨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 이놈아!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뭣 하러 복덕방은……

최 노인 :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뭣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훔아 네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애집니까?

최 노인 : 네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 예? 전세라구요?
(어머니와 경운은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 프나?

경수 :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예요! 저는……

최 노인 : **아니면 껍질이나?**

어머니 :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

최 노인 : 글썽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드라 '샤플이플'이라든가……

경운 : '샤플이플' 말씀이예요?

최 노인 : 그래 '샤플이플'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이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썽 다 되어 간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 뭐가 괜히야?

경운 :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 흥! 너희들은 모두 한숨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아무튼 샤플이플이라는 걸 하기 위해 집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경수가 버릇없는 드림을 치는 바람에 망해버린 것이었네요. 결국 최 노인은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씩씩거리며 '화초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화초를 다 뽑아버리고 있네요. 정성들인 일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며 말이죠.

전체적으로 집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인물의 심리나 공간 등 체크할 것도 많았어요!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12.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3%	17%	4%	13%	53%

① 언어유희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언어유희가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나요? 오히려 언어유희는 긴장감 해소에 더 도움을 주죠. 실제로 '아니면 껍질이나?' 이것 때문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지도 않구요. 허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애초에 언어유희 자체가 긴장 고조의 역할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알아둡시다.

② '장면의 전환'은 영화에서 '씬이 변하는 느낌'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문에서 '화초밭'으로 간 게 '장면의 전환' 아니냐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화초밭으로 가는 게 그 전 상황이란 다른 장면은 아니죠! 최 노인이랑 가족들이랑 말싸움하던 공간(최 노인의 집으로 추정되죠?)에서 밖으로 나왔을 뿐이잖아요. 장면의 전환을 정확히 알았다면 뉘여서 는 안 되는 선지겠네요.

FAQ

Q : (중략) 전후를 장면의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A : (중략)은 출제자가 임의로 장면을 바꿔놓은, 혹은 끊어놓은 부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장면이 전환된다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결국 '윗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 출제자의 주관이 아닌 '작품 그 자체'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③ 경재의 제복이 나오긴 했는데, 그걸 통해서 뽐내거나 하는 심리는 나오지 않았죠? 허용하기 힘드네요.

④ 인물의 '성격 변화'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 노인의 '심리' 변화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격 변화는 답이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도 사람의 성격이 변하기 어려운데, 소설이라고 오죽할까요. 성격 변화가 드러나는 작품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허용하기 힘듭니다. 이런 선지는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어야해요! 이런 것도 문학 실력의 일환입니다.

⑤ '종로 한복판'이라는 실제 지명 노출됐으니 사실감 부여는 당연하겠죠. 이게 답이네요. "종로 한복판"을 어떻게 찾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공간 체크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못 찾으셨다면 반성하시고 복습하세요. 문제 풀 때 이 선지를 보자마자 고르셨어야 합니다.

13.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5%	3%	88%	2%

① '말세' 정도면 충분히 부정적 인식의 근거로 사용할 만하죠? 허용 가능합니다.

② 웅변 연사처럼 멋지게 말을 하는데 충분히 주목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③ '김 첨지', '김 선생'으로 호칭 달리하고 있고, '복덕방'이 떠나려는 것을 막고 있으니 허용이 가능하겠네요.

④ 이 지문에서 인물 관계를 바탕으로 팀을 나누자면 최 노인이 왕따고, 경수-경운-어머니는 모두 한 팀이죠? 경운, 어머니와 경수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허용이 안 되겠네요.

⑤ 맨발로 뛰어나간다는 근거가 있으니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죠.

1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3%	5%	87%	3%

① ④를 통해 경재는 최 노인이 옛날을 중시하고, 현실을 '말세'라 부르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웅변 연사를 흉내내면서 현재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구요.

② 패드립 치는데 당연히 무시하는 것 맞죠. 흥정도 중지하게 되었고요.

③ 경수는 집을 싸게 파는 줄 알고 패드립까지 치며 상대를 조롱했는데, 알고 보니 집을 파는 게 아니었죠. 이걸로 오해가 풀린다고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싸움이 끝나야 오해가 풀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집을 팔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았으니 '허용할 수' 있겠죠.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④ 최 노인은 어머니가 자신의 계획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계획을 바꾸지는 않았죠. '알겠어 집 팔게!' 이런 말처럼 계획을 바꾼다는 걸 허용할 만한 '근거'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이거 허용이 힘들겠어요.

⑤ ⑤에서 경운이는 최 노인이 집을 팔 줄 몰랐다고 말했고, 최 노인은 뒤에서 불만을 토로하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딱히 발견 같은 걸 찾지 못했어도 선지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15.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2%	3%	2%	90%

① 경제적 안정을 바란다는 가족들의 희망은 진짜 관대하게 해서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팔라고 하겠죠.) 그게 화초밭에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죠? '화초밭'은 최 노인이 화를 푸는 장소예요.

② 꿈을 포기하는 건 나온 적이 없으니 2번 선지도 허용이 힘들겠네요.

③④ 갈등 해소 및 자책도 없으니 3번, 4번 선지도 허용하기 힘들구요.

⑤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다는 최 노인의 대사를 통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네요. 이 정도는 쉽죠?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문학 개념어 : 결국, '문학'과 관련된 '어휘력'입니다. '장면의 전환'과 같이 애매한 부분만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기준을 정립해 나가면 됩니다.

③ 소설(극문학)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6주차 DAY 2 [16~20]

2022예시문항 [11~15] 고전소설 '박씨전 / 조보' ☆☆

<보기> 먼저 확인해 봅시다!

< 보 기 >

한글 고소설 「박씨전」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제의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식자층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씨'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고, '그녀'도 탁월한 혜안을 지녔지만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두 작품은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씨전」은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 「조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제한에 치중했다. 두 작품은 서로 주목하는 바를 달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 준다.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 보완성'은 잘 모르겠어도, 「박씨전」과 「조보」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을 등장시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와 「그녀」 모두 당시 사회가 부여한 여성의 역할에 만족했다는 점은 파악할 수 있겠네요.

(가)

일일은 **박씨**가 계화를 불러 왈, "**대감**께 여쭙 말이 있으니 아뢰거라."
하니, 계화 명을 받아 공께 아뢰니, 공이 즉시 **내당**에 들어가 묻기를, "무슨 말인지 듣고자 하노라."
박씨 아뢰기를, "명일 종로에 각처 사람들이 말을 팔려고 모였을 것이니, 노복에게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 모양이 볼 것 없는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게 하소서."
공이 들음에 허황하나 **자부가 범인과 다름을 알고** 즉시 허락하며 근심한 노복들에게 분부 왈, "명일 종로에 가면 말 장사들이 있을 것이니,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 하나를 삼백 냥을 주고 사 오라."
하며 돈을 주니,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나와 서로 이르되, "대감께서 **무슨 연고로**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이나 주고 사 오라 하시뇨?"
하고 **서로 의혹해 하며**, 이튿날 삼백 냥을 가지고 **종로**에 나가 본즉 과연 여러 말이 있더라.

<보기>에서 '박씨'는 뭔가 신이한 능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런 그녀가 '대감'에게 '여쭙 말'을 전합니다. 노복을 시켜 종로에서 가장 볼품이 없는 말 한 마리를 삼백 냥(대략 비싼 값이라고 생각하세요)을 주고 사오라는 것이죠. 당연히 말도 안되는 얘기라 '들음에 허황'한데, 대감은 박씨가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대로 노복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기서 '자부'는 아들의 아내를 뜻하는 말인데, 이 단어를 몰랐어도 문맥 상 '박씨'를 가리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노복들도 일단 대감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비싼 값을 주고 사라는 얘기에 의아해하는 모습이죠. 여러 등장인물 중 '박씨'만 그 말을 사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고, 여기서부터 박씨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암시가 나오네요!

그중에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골라 임자를 찾아 값을 물으니 임자가 말하기를, "그 말 값은 닷 냥이오. 좋은 말이 많거늘 어찌 저런 용렬한 것을 사려 하시오?"

노복이 대왈, "우리 대감의 분부가 그러하오."
하니 장사 왈, "그러면 닷 냥만 내고 가져가시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우리 대감께서 삼백 냥을 내고 사 오라 하시니 삼백 냥을 받고 주시오."
한데, 장사 왈, "본값이 닷 냥인데 어찌 비싼 값을 받으리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대감 분부대로 주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받으시오."
하며 주거늘 장사가 사양하고 받지 않거늘 노복이 마지못해 억지로 백 냥을 주고 이백 냥은 감추고 돌아오더라.

노복이 대감에게 말을 사 왔다 아뢰니, 공은 즉시 자부를 부르니, **박씨** 노복에게 말을 가져오라 하며 말을 한참 보다가 말하기를, "말 값이 삼백 냥을 주어야 쓸 데 있거늘 무지한 노복이 말 장사에게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도로 주거라 하옵소서."

공이 이 말을 듣고 **박씨의 신명함을 탄복**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노복들을 불러 꾸짖기를, "너희들이 말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백 냥만 주고 왔으니 상전을 기망한 죄는 나중에 중치하려니와 감춘 돈은 말 주인에게 주고 오라. 만일 지체하면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하니 **노복들이 사죄** 왈, "이같이 명백하시니 어찌 기망하오리까? 과연 대감 분부대로 말 장사에게 삼백 냥을 준즉 말 값이 닷 냥이라 하고 받지 아니하옵기로 억지로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이렇듯 신명하옵시면 소인들의 죄는 만사무석 이로서이다."

하고 즉시 종로에 나가 말 장사를 찾아 돈 이백 냥을 주며 왈, "이 사람아, 주는 돈을 고집하고 받지 아니하더니 우리 등이 상전에게 죄를 당하게 되니 어찌 통분치 아니리오?"
하며 이백 냥을 억지로 맡기고 돌아오더라.

'노복'은 대감이 시킨 대로, 박씨의 말대로 가장 비루한 말을 찾아 종로에 갔습니다. '말 임자'조차도 왜 그런 '용렬한 것'을 사려고 하느냐 묻고, 닷 냥만 달라고 하죠. 노복은 명령받은 대로 삼백 냥을 주고 사려 하는데 말 주인이 자꾸 사양을 해서 결국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을 뺀 채서 말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박씨'는 말을 보자마자 노복이 이백 냥을 감추고 돌아왔음을 알아채죠. 여기서 박씨의 신명함이 드러나고, '대감'은 이에 놀라워하면서 노복을 혼냅니다. 노복도 당연히 안 들길 줄 알았는데 들켰으니 놀라워하겠죠. 이후엔 노복이 다시 말 장사한테 가서 '당신이 처음에 돈을 안 받아서 내가 혼나지 않았느냐며 이백 냥을 마저 주는 모습입니다.

박씨 **말을 기른 지 삼년**에 준충(駿聰)이 되어 걸음은 비호(飛虎) 같은지라. 박씨가 공께 왈, "모월 모일에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니, 그 말을 가져다 사신 오는 길에 놓으면 사신이 사려 할 것이며, 값은 삼만 냥이라 하고 팔아 오라 하소서."

공이 듣고 자부 말대로 노복을 불러 분부한 후 사신 오기를 기다리더라.

과연 그날 사신 나오니, 사신이 말을 보고 파는가 묻거늘 노복 왈, "파는 말입니다."

사신이 또 묻기를, "값을 얼마나 받으려 하느냐?"
노복이 답 왈, "값은 삼만 냥이로소이다."

사신이 **대희**하여 삼만 냥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가더라.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돌아와 공개 말 팔던 사연을 낱낱이 아뢰고, 공은 삼만 금을 연유에 가산이 부요하니 박씨에게 물어 왓, “삼만 냥을 받았으나 이지 못케라. 어떤 연고인고?”

박씨 아뢰기를, “그 말은 곧 천리 준총마로 조선은 작고 조만간 쓸 곳이 없으나, 사신은 준마를 알아보고 삼만 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갈 것이니 그런 고로 사신에게 팔았나이다.”

공이 듣고 왓, “너는 여자이나 명견만리하니 진실로 아깝도다. 만일 남자였던들 보국 충신이 될 것을 여자임이 한이로다.”

하며 **탄식**하더라. 박씨 무릎을 꿇고 왓, “소부의 원하는 바는 가군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뵈옵고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충성으로 돕고, 소부는 다만 유자유손하고 만수무강하오면 죽어도 무한이로소이다.”

하거늘 공이 그 말을 들음에 못내 **탄복**하더라.

박씨가 신명하다는 얘기가 완결성을 지니려면, 왜 그 말을 사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야겠죠? 그 말을 산지 삼년이 지난 어느날, 박씨가 다시 대감한테 그 말을 사신 오는 길에 놓아서 삼만 냥에 팔게 시키라고 합니다. 사신은 진짜 박씨가 말한 시간, 장소에 그곳에 와서 그 말을 삼만 냥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지요. 심지어 대희, 크게 기뻐하면서요! 박씨는 내담에 앉아서도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대감은 이에 감탄하고, 또 박씨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아쉬워하나, 박씨는 자기는 그냥 남편이 성공하고, 자기는 애만 잘 기르면 만족합니다. <보기>에 나왔듯,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드러나네요.

(나)

그녀는 늘 우하형에게 비변사 서리를 통하여 조보(朝報)*를 구입해 오게 하여 보는데, 대개 열흘 만에 도착했다. 그녀는 조보를 통해서 조정 일을 헤아리고 전관(銓官)*이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맞히는데 귀신같이 열에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하형으로 하여금 다음 전관이 될 사람에게 미리 손을 써 평안도 물화를 끌어모아 정성으로 바치니, 그 효험이 십분 나타나게 되었다. ... (중략) ... 봉급이 점차 불어서 위로 삼김도 더욱 풍부하여 앞길이 날로 양양해졌다. 그리고 순차로 승진하여 마침내 절도사에 이르렀다.

(나)의 '그녀'는 '조보'를 구해서 조정의 일을 알아내고, 다음 전관이 될 사람들에게 뇌물을 써서 효험을 얻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내조 덕분에 남편인 '우하형'은 점점 승진하여 절도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박씨전」에 비하면 현실적이면서도, 조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안다는 점에서 '그녀'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우하형은 나이 칠십이 되어 집에서 삶을 마쳤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로하며,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으로 지위가 절도사에 이르렀고 고회 가까이 사셨으니, 당신이 보아도 유감이 없을 것이요, 자식들은 과히 애통할 것이 없소. 나의 일을 두고 말하더라도 여자가 지아비를 섬김에 자기 공치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지위에 이르시도록 했으니, 내 소임 역시 다한 셈이라 또 무엇을 슬퍼하겠소.”

우하형은 칠십까지 산 후에 삶을 마쳤는데,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이 부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또 자신의 소임을 다 했으며 크게 슬퍼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하고 겨우 장례 기간이 지나자 그녀는, “영감이 살아 계실 때에는 내가 집안을 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뒤에는 큰며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하오. 나는 한 서모(庶母)에 불과하니 가정을 큰며느리에게 맡기겠소.”

하고는 창고에 저장하고 농 속에 담아둔 재물을 기록하여 열쇠와 함께 내주었다.

큰며느리가 울며 사양하기를, “서모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는지요. 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셨으니 저희는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모님을 의지하겠어요. 집안일 모두를 예전같이 하고 싶은데, 서모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러나 그녀는 큰며느리에게 기어이 집안을 맡겼다.

집안을 위해 큰 일을 했음에도, '그녀'는 장례가 끝나고 큰며느리에게 집의 주인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사리사욕이 거의 없는 모습이지요. 큰며느리는 울면서 사양하는데, '그녀'는 결국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집안의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역시 <보기>와 엮어 읽으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길이기도 길지 않네요. 문제로 갑시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16. 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5%	8%	11%	5%	71%

- ① '계화'는 단순히 박씨의 말을 대감에게 전할 뿐, 전혀 '짐작' 같은 것을 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네요. 공에게 계화가 전달한 내용도, 그냥 박씨가 뭔가 말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 ② 공의 '한탄' 같은 반응은 없습니다. 의아해하긴 하지만, 박씨가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박씨를 믿고 그녀의 말대로 따르죠.
- ③ '무슨 연고로'라는 대사, '의혹해 하며'라는 반응에 체크했다면 '의심 없이'가 허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 ④ 박씨 스스로의 안목에 대한 불만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노복이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점만 알아차렸죠.
- ⑤ '박씨'의 신명함에 의해서 노복들이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이 얘기를 박씨에게 들은 대감은 노복들을 꾸짖습니다. 노복들은 즉시 종로로 가서 '너가 고집을 부려서 돈을 안 받아가지고 우리가 혼났잖아'라고 화내며 남은 이백 냥을 마저 주고 오죠. 충분히 '책임'을 전가했다는 선지를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17.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8%	8%	71%	6%	7%

① '내당'에서 박씨는 삼백 냥을 주고 말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노복들이 '중로'에서 그 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외당'에서 노복의 사죄로 인해 확인됩니다. 박씨가 '어? 애네 제 말 제대로 안 들었는데요?'라고 대감한테 말한 것은 외당이 아니지만, 대감이 그 말을 FACT로 확인하게 된 것은 노복의 사죄를 받는 내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② '내당'에서 대감은 '허황'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비범함을 믿기 때문에 노복들한테 말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나중에 '사신 오는 길'에서 사신이 삼만 냥을 주고 그 말을 사감으로써 그 믿음이 타당한 것이었음이 확인되네요!

③ 우선, '내당'에서 노복들은 대감에게 신뢰를 보였다고 하기 힘들어요. '의혹해'한다는 반응이 지문에 직접적으로 나왔으니까요(16번 문제의 3번 선지와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당'에서 꾸짖음을 당하면서 그러한 신뢰가 동요되었다는 얘기도 개소리가 되겠네요.

④ 노복이 ㉠'중로'에서 한 거래는 뭔가요? 삼백 냥을 주고 사 와야 하는데, 백 냥만 주고 말을 사 온 것이죠. 그래서 노복은 대감에게 혼나게 되고, ㉡'중로'에서 다시 남은 이백 냥을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⑤ '중로'에서 노복이 이백 냥을 덜 준 사건을 박씨가 문제 삼은 이유는, '말 값이 삼백 냥을 주어야 쓸데 있기' 때문이랍니다. 정확한 인과 관계는 짐작할 수 없어도(박씨만 알겠죠?) 제 값을 주고 사오지 않았더라면 삼만 냥에 말을 사신에게 팔 수 없었으리라는 점을 박씨의 대사에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지문에 나온 장소를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일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지문의 흐름만 놓치지 않고 따라왔다면 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18.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68%	10%	8%	4%	10%

① 첫 선지부터 바로 정답이네요. 말이 삼만 냥에 팔리기 전까지, 말의 진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직 박씨 뿐이었습니다. 만약 '임자가 그 말의 가치를 알았다더라면 왜 그런 말을 사려고 하나, 닷 냥만 주고 가져가라는 말을 했을까요? 다들 비루한 말을 사오라는 얘기에 의아했었고, 사신이 그 말을 사가고 난 뒤에야 박씨의 설명으로 인해 '공(대감)'이 말의 진가를 알게 된 것이죠.

② [A]의 노복은 대감이 시켜서 산다고 했지만, [B]의 사신은 말을 사가는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죠. 이후에 박씨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녀의 신묘한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③ 반대로 뒤집혔네요! 특별히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④ [B]의 사신은 말을 팔고 있는 상대인 '노복'의 의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설마 말을 파냐고 물은 것이 '의혹'이라고 생각했다면... 반성하세요!). [A]의 노복 역시 말을 사오라는 명령에 의혹을 느꼈다면 모를까, 임자에 대한 의혹은 드러나지 않구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A]에서는 임자가 받으려는 값(닷 냥)과 명령 받은 값(삼백 냥) 사이에 있는 백 냥에 가격을 정했고, [B]에서는 박씨가 시킨대로 삼만 냥에 팔자 사신이 네고 없이 바로 사가네요.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19.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5%	9%	6%	6%	74%

① '조보'를 통해 정보를 얻고, 다음 전관을 예측했으니 별 무리 없이 지워낼 수 있습니다.

② 아래 문제의 <보기>에서는 강조되지 않지만, 사실 조정의 정보를 담은 '조보'를 통해 뇌물을 줄 사람을 정하고, 남편이 승진하기 위해 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녀'는 공격 가치를 훼손하고 집안의 사익을 증진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문의 맥락을 읽었다면 충분히 허용 가능해보입니다.

③ 위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뇌물을 써서 남편을 승진시켰으니, 사실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죠 ㅎㅎ;

④ 당연히 지식들의 귀감이 되고 있고, 이는 '큰머느리'의 반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다? 전혀 틀립니다. 사회에서 주어진 여성의 역할에 만족하고자 했고, 남편 사후에는 집안일의 전권을 큰머느리에게 물려주죠. 무조건 정답인 선지네요. 참고로, <보기>문제는 20번이지만, 이 19번 문제의 정답 선지는 아래의 <보기>를 먼저 읽었더라면 훨씬 쉽게 골라냈을 것 같아요.

20.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6%	5%	4%	78%	7%

<보기>의 내용은 앞서 지문 해설에서 우리가 연결시켜 이해했으니, 바로 정답 선지로 가봅시다!

④ '박씨'가 신이한 능력을 지닌 것도 맞고, '그녀'가 남다른 수완을 지닌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통해서 여성/남성 독자의 현실 인식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요?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보기>를 기반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억지인 내용입니다.

①②③⑤ <보기>를 근거로 본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네요.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이 지문 독해에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합시다! 이 두 지문의 경우, <보기>를 먼저 읽고 안 읽고가 지문 이해에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6주차 DAY 2 [21~23]

2015.09B [31~33] 현대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 고고' ☆☆

<보 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작품은 모두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에 대해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밑줄 친 부분들 위주로 빠르게 읽어주시면, (가)와 (나)를 각각 '정서'와 '묘사'에 집중해서 읽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고집어낼 수 있겠죠? 바로 지문 읽어봅시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실전 독해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봄'이 없는 동안은 '서럽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봄'과 '모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기다림'과 '서러움'이라는 반응만 잡아두고 넘어갑시다.

사후적 독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모란'이라는 대상을 '봄'과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자에게 '봄'을 기다리는 것은 곧 '모란'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모란'이 떨어지는 것은 곧 '봄'이 여윈 것이네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이 되면, 천지에 '모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화자는 자신의 보람이 모두 '서운케' 무너졌다고 할 정도로 아쉬워하는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모란'이 지고 나면 '내 한 해'가 다 끝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화자에게 '모란'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수미상관 구조로 끝내고 있는데요. 그리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죠?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흰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래도 흰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실전 독해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고고한 높이'로 표현되는 대상에 대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가)와 마찬가지로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사후적 독해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흰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북한산’이 회복할 ‘높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그냥 높기만 한 거 아닌가 했는데, 화자는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겨울’은 어떤 때일까요? ‘높은 봉우리’만이 가볍게 ‘눈’을 쓰고, 나머지는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 그 ‘다음 겨울’에 해당하겠네요. 화자는 단순히 높기만 해서 안 되고, ‘겨울’ 중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진정한 ‘높이’가 회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이번에도 똑같은 말이죠? ‘신록’, ‘단풍’, ‘안개’, ‘적설’, ‘햇살’ 등으로는 그 ‘높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백운대’,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살짝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 되어야만 드러나네요. 화자는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21.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6%	5%	3%	2%

- 공통점 문제입니다. 답의 후보부터 정해놓고 갑시다. ‘시상 전개’와 ‘주제 강조’라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1, 2번 선지부터 확인하면 될 것 같죠?

① 고..공간의 이동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② 수미상관이 허용되려면 처음과 끝이 ‘비슷’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와 (나) 모두 처음과 끝이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 각각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정도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으니 답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를 강조’한다는 내용은 ‘시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말’이구요.

답은 골랐지만, 나머지 선지도 확인은 해봅시다. ‘답의 후보’가 될 수 없는, 미시적인 선지들도 많이 봐주셔야 해요. 그렇게 기준을 갖고 닦아

야 ‘답의 후보’들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③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순의 도치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긴박감’이라는 상황을 허용하기는 어렵죠? (나)에는 아예 어순의 도치가 나타나지 않구요.

④ (가)에서는 도저히 흑백의 대비를 찾을 수 없죠? 그나마 (나)에서는 ‘눈’의 이미지 덕에 흑백 대비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⑤ ‘봄’이 오거나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 것을 역지로 ‘가상의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자기반성의 태도’라는 반응은 허용하기가 너무 어렵죠?

22.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5%	67%	21%	2%

① ‘나’라는 주체를 직접 드러내고 있죠? 쉽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② ‘오월 어느 날’이 되면 ‘모란’은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를 근거로 하면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한다는 속성’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데도 오랜 시간(삼백예순 날)을 기다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속성 때문에 아름다움이 강화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정된 시간이 아닌 ‘언제나’ 존재하는 대상이라면, 그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③ ‘높이’ 외에도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고’, ‘신록, 단풍, 안개, 적설로는 드러나지도 않고’,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성질들이 모두 ‘고고한 높이’가 드러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라 했습니다. 높이가 유일한 조건이라는 건 절대 허용할 수가 없겠네요.

④ 위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이 바로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허용할 수 있어요!

⑤ 각각 ‘봄’,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네요.

23.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0%	4%	8%	2%	6%

① ‘설움’이라는 반응은 그냥 ‘봄’이 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② ‘봄’이 가서 ‘모란’이 지면 1년이 다 간 느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③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찬란한 슬픔’이라는 반응은 ‘봄’에 느낀다는 뜻이죠? 충분히 허용할 수 있네요.

④ 설명이 필요 없죠? 이때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다고 했어요.

⑤ 22번 문제의 3번 선지 해설과 같은 맥락이네요. 쉽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되지만, 실전에서 이러한 독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후적 독해'를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1~3] : 인문 '사회적 차원의 독서' ☆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어떠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방법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는 '지식 습득'과 '비판적·종합적 탐구'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쉬운 지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생각은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독서는 '글의 전체 구조 파악 →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 선별'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의 <> 부분이에요. 여기서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지식 습득', '글 이면의 내용 추론·비판, 여러 관점 비교·종합=비판적·종합적 탐구'라는 재진술을 잡아낼 수 있겠죠? 어찌 되었든 인문 지문이기에, 결국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문단에서 제시한 정보는 결국 '지식 습득/비판적·종합적 탐구'를 바탕으로 '선별한 내용'을 읽는 것이 주요한 독서법이라는 것이네요.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주제 탐구형 독서'라는 화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지식 습득'과 '비판적·종합적 탐구'라는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아무리 쉬운 지문이라도, 첫 문단의 첫 문장은 꼼꼼하게 읽으며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화제 제시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주제 탐구형 독서'의 시작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확장시키는 느낌이 강한 문장이죠? '전체 구조 파악 → 내용 선별'이라는 것까지 '주제 탐구형 독서' 방법의 하나로 끌어들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진술 ☆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모조리 앞에서 제시된 내용들과 같은 말입니다. 인문 지문의 핵심은 재진술이예요. 최대한 같은 말로 붙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 탐구형 독서'의 '의미 구성'을 위해서는, 독자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롭게 습득한 지식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쉽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나의 지식이 개입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가요.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 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의미 구성'이라는 내용에 대해 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의 통합'을 통해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뀌거나 구체화되는 것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에 글쓴이는 '주제 탐구형 독서'의 의미 구성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개인적 차원'에서 의미 구성이 일어나는 건 기본 전제라는 것이죠. 억지로 조사의 의미를 살리면서 읽는 것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조사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식으로 독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지문의 화제는 '사회적 차원의 독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볼까요?

2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재진술 #카테고리 제시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과 새롭게 습득한 지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합'이라는 포인트 체크하면서, '의미 구성'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독서법'이 아닌, '의미 구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구체화된 것이예요.

#화제 제시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의미 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꼭 끌고 가면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으로 화제를 구체화시키는 문장입니다. 더 이상 독서는 개인적 체험이 아닌 거예요!

#재진술 ☆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라는 표지를 이용한 재진술입니다. ‘의미 구성’이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네요. 문단 독해 사고과정에서도 언급했지만, ‘뿐’, ‘도’와 같은 보조사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살리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왔을 때, 선지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분명히 낯익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3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를 종합하면, ‘주제 탐구형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합니다. ‘기록’이라는 새로운 개념에만 주목하며 ‘사회적 차원’이라는 큰 화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망각 방지’(개인적 차원)와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되려면 말이죠! 나아가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 역시 ‘사회적 차원’과 같은 말이라는 걸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주제 탐구형 독서’는 ‘토론’이나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는 점! 이렇게 읽어냈다면 정말 훌륭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네요.

3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카테고리 제시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기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문단의 ‘의미 구성’처럼 어떤 걸 읽게 될지 알려주는 표지 역할을 하죠? 우리는 이제 3문단의 정보를 ‘기록’이라는 개념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 차원’이라는 화제는 잊으면 안 되겠지만요.

#재진술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망각 방지’, ‘비판과 토론의 자료’, ‘공동체의 지식 축적’은 모두 같은 카테고리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록의 장점’이라는 점이지! 하지만 ‘망각 방지’의 경우, 엄밀하게 보면 ‘개인적 차원’의 의미 구성과 관련된다는 점이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과 관련된 나머지 두 내용과 다르기는 합니다. 2문단에서 ‘의미 구성’이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재진술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진술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토론’,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 역시 ‘기록’과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이라는 카테고리 속의 정보들이죠? 다 같은 말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문제풀이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방법이 아닌 것은?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 화법과 작문 35번 문제 유형과 비슷하네요. 우리는 다 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 파악 → 내용 선별’을 시작으로, ‘지식 습득’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 됩니다. ‘의미 구성’이 나 ‘사회적 차원’의 내용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정보이니, ‘독서법’을 묻는 이 문제에선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겠죠?

①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1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꼼꼼하게 읽어야 지식을 습득하지.
해설	우리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지식 습득’이라는 재진술을 미리 잡아두었죠? ‘주제 탐구형 독서’에서 당연히 중시되는 내용이겠습니다.

②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선택률	1%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체 구조 파악 ○○
해설	‘전체 구조 파악 → 내용 선별’을 시작으로 ‘주제 탐구형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③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1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비판적 읽기 ○○
해설	'비판적 탐구'는 ①을 구성하는 중요한 카테고리 중 하나였어요. 당연히 ①의 방법으로 뽑을 수 있겠죠.

④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별 ○○
해설	'전체 구조 파악 → 내용 선별'을 시작으로 '주제 탐구형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

선택률	89%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 '탐구'형 독서인데 정서적 반응은 너무 뜬금없네.
해설	이 지문의 화제는 '주제 탐구형 독서'입니다. 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는 게 이 독서의 목적이었어요! 화제를 거스르는 선지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전형적인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태도 갖추고 있겠죠?

— <보 기> —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변론」 -

- <보기>의 글쓴이는 '연속적 공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을 '강론', 즉 '토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는 지문의 3문단에서 말한 '기록'과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우리는 '기록=토론'으로 잡아두었으니까요.

- 나아가 '퇴계'가 '기록'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읽은 '기록'과 연결해서 읽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는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 즉 '사회적 차원'에 해당하죠? 아하 지문에서 '기록'은 '개인적 차원'에 관련된 것(망각 방지)과 '사회적 차원'에 관련된 것(비판과 토론의 자료) 모두의 효과가 있었는데, '퇴계'는 '사회적 차원'의 효과에 주목한 것이네요. 이 정도로 <보기>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해 냈다면, 바로 답을 고르러 가 봅시다.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선택률	48%
명시적 근거	3문단 두 번째 문장 <보기>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망각 방지가 애초에 <보기>에 없는데?
해설	일단 <보기>의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연속적 공부'와 관련된 것으로, '토론'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글쓴이의 관점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록'은 그 '토론'을 돕기 위한, 즉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각 방지'는 우리가 '개인적 차원'의 카테고리로 잡아 둔 것이죠? 그럼 <보기>에서 '기록'의 궁극적 목적을 '망각 방지'로 봤다는 건 틀린 말이 되겠네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눌 것을 요구하는 선지였네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②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깊은 뜻=깊이 있게 탐구 ㅇㅋ
해설	선지 그대로 맞는 말이죠?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태도와 연결될 겁니다.

③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선택률	8%
명시적 근거	2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얼굴을 마주하고 토론하면 그게 상호 작용이지 뭐.
해설	'토론'은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에 해당한다는 것,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내용이지요?

④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선택률	23%
명시적 근거	3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강론', '기록을 통한 공유' =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맞지 뭐.
해설	'강론'과 '기록을 통한 공유'는 모두 우리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묶어 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선지를 쉽게 지울 수 있어야 진짜 실력자입니다! 결국 '화제'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묻는 선지였어요.

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선택률	18%
명시적 근거	3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것도 미리 잡아 둔 내용이네.
해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과 직결되는 정보이고, 이는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와 연결되는 내용이지요? 계속해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잘 잡았는지 물어보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과 5번 선지의 선택률이 높습니다. 말뚝 그대로 지울 수 있는 2번, 3번 선지와 달리 '사회적 차원'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잘 해결할 수 있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번 문제보다도 더욱 화법과 작문 같은 문제입니다. 학생의 반응부터 분석하고 시작해봅시다.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 학교에서 친구들과 '강론'하는 형태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식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다.' 정도의 선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①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신의 경험'이라는 말이 없네.
해설	우리가 찾는 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깨달음 실천'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죠?

②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전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성은 언제 했냐...
해설	이번에도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반성'했다는 것도 완전 헛소리죠?

③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선택률	87%
명시적 근거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학습 경험', '독서 활동 의미'. 오케이 정답이네.
해설	학습 '경험'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이를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 즉 '독서 활동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모습이니 정답으로 골라주기에 충분하겠습니다.

④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선택률	1%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계획을 언제 세웠냐...
해설	'경험'이라는 말도 없고, '계획'을 세운 적도 없죠?

⑤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선택률	8%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험은 경험인데, '독서 경험'이 아니었지.
해설	'경험'이라는 말만 보고 신나서 답으로 고르면 안 되겠죠? 이 학생은 '토론'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 '독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 역시 이 학생이 한 말이 아니구요.

어휘 정리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이면 ㉠ :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예 그 웃음의 이면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정보량 줄이기 :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은 말은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정보량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④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어렵지 않았지만, '신유형이다!'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사회적 차원'이라는 화제를 차분하게 잡아내지 못했다면 2번 문제에서 상당히 당황할 수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출제되더라도 결국 묻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인문 지문은 '결국 다 같은 말'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나아가, 이 지문은 결국 평가원이 이야기하는 '독서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챙겨갈 수 있겠죠? 지문 내용을 잘 정리해두고 평소 공부할 때 써먹어봅시다.

[4~9] : 인문 '서양과 동양의 인과 관계' ☆☆☆☆

(가)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가)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흄이 지적했듯이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면의 과정 이론**이다.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이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크게 두 부분에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학적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이전과는 달리'입니다. 이런 문장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대 이후' 진행된 '변화양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학적 세계관'은 서양 철학자들로 하여금 '인과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 이론적 토대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과 관계=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라는 패러다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지문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물리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한 번 줄여나가는 식으로 독해를 진행했다면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전과는 달리'라는 말에 주목하여, 그 전에는 '인과 관계가 물리적 작용' 외에 다른 것들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면에 감춰진 정보도 들추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바로 앞 지문의 1문단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ㅎㅎ 첫 문단의 첫 문장이나만큼 생각할 게 많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인과 관계 그 자체는 관찰할 수 없고,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위/강물' 예시를 통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좀 더 쉽게 우리의 말로 바꿔 이해하면, 'A→B'라는 인과에서 A와 B는 관찰할 수 있지만, '→'는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네요.

이로 인해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싹뚝고, 그 의심을 방어하기 위해 '새면'이 나서는 모습입니다. '새면의 과정 이론'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즉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지어 설명하려는 것이예요. 새면은 어떻게 '인과 관계'를 다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왔을까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가)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재진술 #변화 양상 ☆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과학적 세계관'이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재진술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인과 관계'라는 화제를 잡아주세요 합니다. '인과 관계'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주시야겠지요?

#문제점 제시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문제는 흄이 지적했듯이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흄'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바탕으로 '인과 관계'를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의 원인과 결과는 '관찰할 수 있지만, 그 관계 자체는 '관찰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예요. 추위/강물 사례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 '인과'가 정말로 '과학적' 개념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적 세계관' 속 '인과 관계'라는 화제가 위기를 맞았네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요?

새끼 문제 해설

Q1. (가)의 1문단에서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가?

'과학'은 곧 '관찰'과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지문 속에서도 '인과는 관찰 안 됨 → 따라서 인과는 과학 아님'이라는 맥락이 제시되고 있죠? 이에 따르면 인과가 '과학'의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관찰'이 가능한 속성을 이용해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새면의 '과정 이론'이 '관찰 가능'한 성질을 바탕으로 '인과'를 설명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과학=관찰'이라는 건 2013학년도 수능, 2017학년도 수능 등에서 반복해서 등장한 내용이니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화제 제시 #정의 제시 #재진술 ☆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면의 과정 이론이다.

앞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면'이 나서는 모습입니다.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곧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짓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걸 잡을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인과 관계'라는 개념이 '물리', '과학'과 같은 말과 연결되어 제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뜬금없이 '야구공' 예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 > 부분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야구공이 날아가면 공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고, 공 그림자가 움직인 이유는 야구공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 예시가 결국 새먼의 '과정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나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과정 이론'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확인하고, '야구공' 예시와 일대일로 대응시켜 이해해봅시다.

먼저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카테고리리를 제시하는 문장 이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차이'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여기서의 '이 차이'란, '공 움직임 → 공 그림자 움직임'과 '공 그림자 움직임 → 그림자 위치 변화' 사이의 차이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먼저 '과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의 정의는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과정'이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입니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시간과 공간의 궤적을 모두 그리고 있으니 '과정'이라는 걸 쉽게 납득할 수 있는데,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과정'이라고 합니다. '멈추어 있는데 왜 과정이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시간의 궤적'이 있기 때문에, '과정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인과'를 보자마자 긴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화제'니까요! 그럼 어떤 것이 '인과적 과정'인 것일까요?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를 '교차'라고 하는데,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해요.

???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야구공' 예시가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이해하고 있는 '과정 이론'은 '야구공' 예시의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먼저 '공 움직임 → 공 그림자 움직임'부터 생각해봅시다. 공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음...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애초에 '야구공' 예시에서 '과정들끼리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면 분명히 이해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봅시다. 바로 다음 문단에 '가령'이라는 한 줄기 빛도 보이니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과정 이론'에 대해서 읽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정 이론'에 따르면 '인과적 과정'이란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체크해야겠죠? 아주 어려운 정의이지만, 다음 문단에 제시된 사례('가령'을 통해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시켜줄 것이니까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하고, '수식된 정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어렵고 불친절한 지문을 뚫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생각 심화

'표지'와 '인과적 과정'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정의들이 '과학=물리'와 연관된다는 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새먼'의 주장이 나온 맥락이기도 하고, '표지'의 정의에도 '물리'라는 '관찰 가능한' 개념이 대놓고 등장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정'의 정의인 '시공간적 궤적'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내용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가) 2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사례-원리 연결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인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사례로 시작하는 특이한 문단입니다. '과정 이론'이라는 중요 원리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테고리 제시 #정보의 역할 ☆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 이론'은 '야구공' 예시와 '이 차이'라는 내용을 매개로 만납니다. '과정 이론'이 위에 제시된 사례의 '이 차이', 즉 '공 움직임 → 공 그림자 움직임'과 '공 그림자 움직임 → 그림자 위치 변화'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기대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정의 제시 #재진술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먼저 '과정 이론'의 핵심 개념인 '과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적 궤적'이라는 정의에 맞춰, 야구공이 날아가는 것과 땅에 멈추어 있는 것이 모두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것이다'를 통해 한 번 더 재진술하고 있죠?

#카테고리 제시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인과적 과정'이라는 카테고리로 흐름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화제'인 '인과 관계'를 떠올릴 것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자연스럽게 무엇이 '인과적 과정'인지 궁금해져야겠죠?

#정의 제시 ☆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교차’, ‘표지’, ‘인과적 과정’이라는 정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차’와 ‘표지’의 정의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인과적 과정’이 된다는 걸 꼭! 생각해주세요야 합니다. 뒤에서 사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례와 연결할 ‘원리’에 해당하니까요.

(가) 3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와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이번엔 ‘바나나’ 예시입니다. ‘야구공’ 예시와 엮어서, ‘인과적 과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하고 천천히 읽어봅시다.

먼저 ‘과정 1’입니다. 이는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즉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것이 ‘과정 2’라고 합니다. 이 역시 ‘베어 낸다’라는 ‘시공간적 궤적’에 해당하니,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과정 2’는 ‘과정 1’과 ‘교차’했다고 합니다. ‘과정 2’의 시공간적 궤적에서 ‘과정 1’과 만난 것이죠. 이 교차로 인해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이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나나가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것’이라는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겠네요. 이렇게 ‘표지’가 도입되면, 이 표지 그대로 b까지 전달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바나나가 가다가 중간에 잘리면 잘린 채로 끝까지 이동할 테니까요. 이를 ‘즉’을 이용한 재진술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어쨌든, 이로 인해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인과적 과정’의 원리와 일대일 대응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인과적 과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적 과정 :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될 때,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

이를 ‘과정 1’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죠.

과정 1 : 과정 2와의 교차를 통해 베어 낸 만큼이 없어졌을 때, b까지 남은 모든 지점에서 베어 내어진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는 과정

이렇게 보니, ‘인과적 과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정과의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가 자기 과정의 완결까지 이어지는 경우인 거네요! 이 경우 ‘인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나나의 이동’은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 즉 ‘과정 1의 완결’에 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다른 과정과의 교차를 통해 도입된 표지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가지는 ‘인과적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것이 ‘과정 3’인데,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하는 순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그림자가 변하는 것은 ‘과정 3’이 개입하지 않은,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때문이죠? 여기에 만약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와 교차하더라도 ‘일그러짐’이라는 표지, 즉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는 순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과정 1’과 달리 표지를 과정 끝까지 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구요.

정리하자면, ‘과정 3’은 다른 과정과 ‘교차’하지 않고도 ‘표지’(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바나나의 그림자가 발생)가 도입되고, 다른 과정과 ‘교차’하더라도 거기에 도입된 ‘표지’를 과정 끝까지 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정 1’과 확실히 구분되죠? ‘과정 1’은 ‘과정 2’와 ‘교차’해서 ‘표지’를 도입시켰고, 그것을 과정 끝까지 전달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지만,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례를 통해 ‘인과적 과정’이라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새먼’은 ‘인과 관계’에 ‘표지’라는 ‘물리=과학’적 내용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인과 관계’를 다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네요. 이렇게 ‘사례-원리 연결’과 ‘화제로의 귀환’을 통해 정보를 정리하시면 훌륭하게 독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끼 문제 해설

Q2. (가)의 ‘야구공’ 예시와 ‘바나나’ 예시를 연결해보자.

‘야구공’ 예시와 ‘바나나’ 예시는 모두 ‘과정 이론’과 ‘인과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나온 것들입니다. 이 예시들은 당연히 연결이 될 거예요. 정리해보면,

야구공 : 날아감 → 땅 위의 그림자 변화
바나나 : 이동 → 스크린의 그림자 변화

로 똑같은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때 ‘날아가는 야구공’이나 ‘이동하는 바나나’의 경우 중간에 다른 과정과 교차하면 어떤 ‘표지’가 도입되고, 이 표지를 과정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나나 예시의 경우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를 생각하면 되고, 야구공 예시의 경우 날아가던 야구공이 충돌 맞아 공의 절반이 잘린 상황 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야구공은 잘린 상태 그대로 ‘야구공이 날아간다’라는 과정을 완결시킬 테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공 움직임 → 공 그림자 움직임’은 곧 ‘과정 1 → 과정 3’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 그림자 움직임 → 그림자 위치 변화’라고 한다면, 즉 ‘공의 그림자가 움직이

는 것이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이는 '과정 3'이 바나나의 그림자를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정 3'은 '원인'을 가지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틀린 설명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결국 '과정 이론'이 설명하는 '이 차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과적 과정인지의 여부)였던 것입니다.

위의 '야구공이 날아가다 총을 맞았다'라는 가정 속에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때 야구공이 날아가는 과정과 총을 맞는 과정이 교차하면, 야구공의 그림자에도 잘린 공의 그림자라는 '표지'가 도입됩니다. '과정 3'과 마찬가지로, 다른 과정과 교차하지 않고도 '표지'가 도입되어 버린 거죠!

한편 만약 그 그림자 위를 어떤 강아지가 지나가는 경우, 즉 강아지가 지나간다는 과정과 그림자의 이동이라는 과정이 '교차'하는 경우 그림자의 모양이 변한다는 '표지'가 도입됩니다. 마치 '과정 3'이 '과정 4'와 교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지만 강아지가 지나가고 나면 이 표지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죠? 결국 '공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은 '과정 3'과 마찬가지로 도입된 표지를 과정의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즉 '인과적 과정'이 아닌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이해하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머리 터지게 고민해서 꼭 본인 것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가) 3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사례-원리 연결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가령'을 보자마자, 앞에서 읽었던 '인과적 과정'이라는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시켜주는 사례가 제시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단 독해 사고과정에서 살폈듯이, '과정 1'은 2문단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인과적 과정'의 정의와 완전히 똑같아요. 사례와 원리의 대응! 최근 평가원이 정말 어렵게 출제하는 부분이니 많이 연습하도록 합시다.

#재진술 ☆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것이다'를 바탕으로 이를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이 지문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문장의 내용을 위의 사례를 읽으면서 미리 생각한 다음 이 문장을 통해 확인받는다느 느낌이 들어야 해요.

#사례-원리 연결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

림자 역시 변한다.

다음은 '바나나의 그림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여기서 '그림자'를 보자마자 '야구공의 그림자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과정 3'은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하면 표지가 도입되는 부수적인 현상인 거예요.

#사례-원리 연결

그런데 a' 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계속해서 사례와 원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해도, '과정 3'은 거기서 도입된 표지를 과정 끝까지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즉, '인과적 과정'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사례와 연결지며 '인과적 과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재진술 ☆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역시 미리 생각한 내용을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핵심은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를 잡아내는 것이죠? 이 지문의 화제 자체가 '인과 관계'이므로, '인과'라는 말에 주목하며 정보를 정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 4문단

① 문단 독해 사고과정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 이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새먼이 '인과 관계'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오기 위해 주장한 것이기에 그 논의는 '물리적 세계' 안에서만 전개되고,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쉽게 납득할 수 있죠?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의 인과 관계가 그 예시입니다. '사회 규범을 어긴 것'은 '관찰'할 수 있는 물리(과학)적 세계가 아닌데, 이에 대해서도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그리 어렵지 않네요.

(가) 4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문제점 제시 #재진술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실상 '과정 이론'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만 논의된다는 말을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네요.

#사례-원리 연결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위에 제시된 원리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같은 내용이 곧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에 해당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찰'이 불가능한니까요!

(나)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가)에서 서양 이야기를 했으니, (나)에선 동양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동아시아에선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인과 관계'라는 화제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를 '재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이라는 이론이 '재이론'을 체계화했다고 하네요. 그냥 이제부터 '재이론'과 '천견설', '천인감응론'은 사실상 같은 말로 봐 주셔도 무방합니다. 정리하자면,

재이론 :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
천견설 : 군주가 덕을 잃음 → 하늘이 재이를 내려 견책함
천인감응론 : 인간과 하늘이 음양의 기를 통해 서로 감응함

이 세 개념을 종합하면, '군주가 덕을 잃으면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이 감응하고, 재이를 내려 군주를 견책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사'가 원인이 되어 '자연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타난다는 방식으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재이론'이네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 다음 문장들에 그대로 제시되고 있죠? 새로운 정보가 아닌, 다 같은 말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고 합니다. 군주가 잘못하면 하늘이 벌한다는 것은, 군주가 하늘과 아주 긴밀한 사이라는 뜻이니 군주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재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군주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방식으로 군주에게 위협이 되었겠네요. 충분히 한 문장 한 문장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 심화

사실 이 지문은 (가)의 마지막 문단과 꼭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연 현상'과 달리 '군주의 실정'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에 해당하는데,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에도 인과 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교 포인트를 스무스하게 잡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정의 제시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재이론'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체크하면서, '인과 관계'라는 화제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정의 제시 #재진술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의 정의를 잡고, 이 개념들의 정의가 결국 '재이론'의 재진술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인간사→자연 현상'이라는 인과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구요.

#재진술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앞 문장을 통해 이미 생각한 내용이었어야 합니다. '인간사→자연 현상'이라는 인과 관계는 놓치지 마세요!

#재진술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이러한 '인과 관계'는 '군주권'을 강화하기도, 약화하기도 하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니, '음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며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새끼 문제 해설

Q3. (나)의 2문단 첫 줄에 제시된 재이론의 '양면적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 문제부터 미리 해결합니다. '양면적 성격'이라는 말을 보면서,

왜 '양면적'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바로 앞 문단에서 '군주권'을 강화하기도, 약화하기도 하는 것이 '재이론'이라고 했으니까요. 군주 입장에서 좋으면서 안 좋은 양면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재이론'입니다.

이처럼 '양면적'인 재이론은 신하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에게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니까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개별적 대응 방식'은 역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역지기는 아니니까요. 심지어 이 방식은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인간사 → 재이'의 인과 관계가 뒤집혀 '재이 → 인간사'라는 인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재이가 발생하면 인간사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는 '경향'이 생긴 거죠. 이전에는 인간사를 벌하기 위해 재이가 발생한다며 사후적인 측면에서 재이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재이를 일종의 '예언'으로 보는 거죠.

이 경우 신하의 직언이 소용 없었죠? 군주가 잘못해서 재이가 발생하게 아니라, 군주가 잘못된 건 재이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니까요. 그래서 '재이론'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직언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이론'이 가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나) 2문단

㉠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재진술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군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약화하기도 했는데, 이 '약화'하기도 하는 성질을 통해 신하들이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앞에서 했던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한 수준밖에 되지 않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진술 #문제점 제시 #정의 제시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는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역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개별적 대응 방식'은 앞에서 이야기하던 '재이론'과 똑같은 말이고, '예언화 경향'은 기존의 인과 관계가 뒤집힌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존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독해하는 습관이 들어야 해요! 어쨌든, '예언화 경향' 및 '신하 탄압'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3문단

㉠ 문단 독해 사고과정

이후 재이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응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그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을 받았고, '천인감응론' 역시 부정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점을 왜 도려내지 않는 건지 궁금해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주희'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희'는 '재이를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지문에 제시됐던 '재이'들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이치'는 '천견설', '천인감응론' 등 앞에서 제시된 이론들이겠죠? '주희'는 '재이가 더 이상 '재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이론'을 나쁜 것으로만 보고 폐지하려 하면, 신하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이론'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덮으려고 하는 것이었네요. 그래도 '주희'는 '전반적 대응설'을 통해 '개별적 대응 방식'이라는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를 꾀하기는 했습니다. 핵심은 '재이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면서, 신하들의 정치적 입지는 유지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겠죠?

(나) 3문단

㉠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재진술

이후 재이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응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예언적 해석'과 '천인감응론'이라는, 문제점이 내재된 기존의 경향이 부정되었다는 문장입니다. 사실 앞 문단에서 계속 했던 말에 해당하기에, 어렵지 않게 재진술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 제시

하지만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주셔야 합니다.

#주장 제시 #재진술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뜬금없이 '주희'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이 문장이 결국 첫 문장에 대한 재진술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이론'의 힘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여 주는 거예요!

#주장 제시 #재진술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이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의 재진술이네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재이론'이지만, 신하의 정치적 입지라는 현실적 이유로 인해 정치 현장에서 사라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재이' 개념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주희도 '재이론'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고수했을까요?

#주장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그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앞서 나왔던 '개별적 대응 방식'과의 비교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앞 문장과 재진술로, '재이론'이 고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3 문제풀이

4.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독특한 문제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우주론' 관련 지문 27번 문항,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예술' 관련 지문 16번 문항 등과 닮아 있습니다. 평범한 내용 전개 방식 문제도 쉽게 주지 않겠다는 평가원의 의지가 엿보이네요.

학습 항목	학습 내용	
	(가)	(나)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ㄱ	ㄴ
⋮	⋮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ㄷ	ㄹ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ㅁ	

- 별거 없습니다. 표에 제시된 대로 선지를 판단해보면 되겠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① ㄱ: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 제시하였음.

선택률	5%
명시적 근거	(가)의 1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의 1문단에서 '과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과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나왔었지.
해설	ㄱ은 (가)의 1문단에 대해 묻는 부분입니다.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즉 '과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된 즈음, '홍'의 반박이 나타난 즈음 등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었죠. 1문단을 잘 읽었다면 1초만에 지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② ㄴ: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을 제시하였음.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나)의 1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의 1문단에서 '재이론' 사상과 중심 내용 나왔지.
해설	ㄴ은 (나)의 1문단에 대해 묻는 부분입니다.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 즉 '재이론'의 배경 사상인 '천견설/천인감응론' 등이 제시되었고, 그 정도도 이쁘게 나왔었죠? 물론 우리는 '재이론'과 같은 말로 처리했었지만요.

③ ㄷ: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하였음.

선택률	57%
명시적 근거	(가)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망을 언제 제시했냐.
해설	ㄷ은 (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에서는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즉 '과정 이론'을 정의하고, '야구공/바나나' 예시와 관련지어 설명한 뒤 '한계'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전망'을 제시한 적은 없죠? (가)의 흐름을 잘 탔다면 쉽게 지을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④ ㄹ: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였음.

선택률	16%
명시적 근거	(나)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특정 이론... 시대의 흐름... 오케이
해설	ㄹ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에서는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 즉 '재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변용되는 양상(문제점 드러남 → 절충안으로 수용함)이 시대의 흐름(동중서 이후 송대)에 따라 제시되었네요. 특히 '시대의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ㄹ: '인과'와 관련하여 동서양의 특정 이론들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음

선택률	16%
명시적 근거	(가), (나)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과' 관련 비교가 이 지문의 핵심이었지.
해설	ㄹ은 (가)와 (나)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인과 관계'를 서양과 동양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루는 지문이었죠? 하나의 화제를 중심으로 엮어 있는 '하나의 지문'이었습니다. 이를 생각했다면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선지였네요.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형적인 일치 문제의 발문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걸 담고 있습니다. 바로 '윗글'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과 같은 방식으로 (가)와 (나)를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예 (가)와 (나)는 한 지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은 발문이에요. 힘들더라도, (가)와 (나)를 한 지문으로 보고 엮어서 독해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①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가)의 1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제일 중요한 말이네.
해설	'과정 이론'의 역할을 묻는 선지입니다. '과정 이론'은 '인과'를 다시 '과학'의 영역, 즉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로 끌어오기 위한 새면의 시도였어요. 화제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으니,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두실 필요가 있었겠죠?

②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선택률	7%
명시적 근거	(가)의 2~3문단 전체 / 4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게 과정 이론의 한계였지.
해설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인데, 이들이 구성하는 인과 관계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세계관'에 갇힌 '과정 이론'의 한계였습니다. '표지의 전달'을 보고 바로 '과정 이론'이 떠올라야 해요!

③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선택률	20%
명시적 근거	(가)의 1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흠 이후에 그랬겠지.
해설	흠이 '과학적 세계관' 속의 '인과 관계'가 가진 문제를 언급한 후에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는 '과학적 세계관'이 도입된 근대 이후의 일이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④ 현대의 재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선택률	51%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두 번째 문장 /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음양 변화에 감응해서 재이라는 경고를 내리는 거지.
해설	동중서가 활약한 현대의 재이론은 '군주의 실정 → 음양의 기 변화 → 이에 반응한 하늘이 내리는 재'와 같은 인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재'를 내리는 존재라는 점에서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⑤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선택률	16%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희'는 '일월식'은 '재'로 간주하지 않았지.
해설	'천문학의 발달', '일월식', '송대'와 같은 키워드를 보자마자 '주희'의 주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사람의 주장은 언제나 중요하게 다뤄지니까요! 이 선지는 '주희'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주고 있죠?

6.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열심히 이해했던 '바나나' 예시에 대한 문제네요. 정말 열심히 이해했으니, 그 보상을 받으러 가봅시다.

①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가)의 2문단 네 번째 문장 / 3문단 첫 번째 문장 / 여덟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른 과정이니까 시공간적 궤적도 다르겠지.
해설	'바나나의 이동'은 '과정 1'로 명명했고, '바나나 그림자의 이동'은 '과정 3'으로 명명했습니다. 즉, 둘은 서로 다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정'의 정의는 곧 '시공간적 궤적'이므로, '바나나의 이동'과 '바나나 그림자의 이동'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릴 것입니다.

②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가)의 2문단 마지막 문장 / 3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교차하면서 표지 도입되었으니 물리적 속성 다르겠지.
해설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는 순간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다는 '표지'가 도입됩니다. '표지'의 정의는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므로 교차 전후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이 다르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③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선택률	17%
명시적 근거	(가)의 3문단 다섯 번째 문장 / 3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어떻게 보면 [A]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표지의 전달 가능 여부'라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지만, 결론 자체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④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넣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선택률	32%
명시적 근거	(가)의 3문단 아홉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림자 모양은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할 때 도입된 표지.
해설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면서 도입된 표지입니다. '과정 3'은 '과정 2'와 교차할 수 없어요. '과정 3'은 '과정 1'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는 부수적인 과정일 뿐이니까요.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할 때 도입된 표지(베어 낸 만큼이 없어지는 것)에 따라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이 변하는 표지가 도입되는 것일 뿐, '과정 3'이 주체가 되어 '과정 2'와 교차한다는 것은 절대 맞는 말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는 중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선지였네요.

⑤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선택률	21%
명시적 근거	(가)의 3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어디로도 전달되지 않지.
해설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그 어디로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죠?

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방식은 오히려 ㉠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 '재이론'의 병폐를 드러낸 '예언화 경향'과 그에 대한 절충안으로 제시된 '전반적 대응설'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인과관계'의 방향이에요. '예언화 경향'은 '재이 → 인간사'라는 인과 관계를 상정하고, '전반적 대응설'은 '인간사 전만 → 변칙적인 재이'라는 인과 관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적'으로 볼 것이냐 '전반적'으로 볼 것이냐이기도 하죠? 이 정도 잡아놓고 바로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재이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다.

선택률	13%
명시적 근거	(나)의 2문단 첫 번째 문장 /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일반적인 재이론 이야기지.
해설	'예언화 경향'은 이전의 '재이론'과 인과 관계의 방향이 반대인, 다른 개념입니다.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하는 건 이전의 '재이론'이었죠? 오히려 '예언화 경향'은 군주가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와 관련되기도 했어요.

② ㉠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재이의 인과 관계를 역전시켜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데 활용되었다.

선택률	56%
명시적 근거	(나)의 2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재이 → 인간사'로 인과 관계 역전됐으니 맞네.
해설	'예언화 경향'은 '재이 → 인간사'라는 인과 관계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이'가 원인이고 '인간사가 결과'라는 뜻이므로,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았다는 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③ ㉠은 개별적인 재이 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재이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선택률	10%
명시적 근거	(나)의 3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물리적으로 보고, 정치와 무관하다니 완전 헛소리네.
해설	완전 헛소리죠? '주희'는 '물리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정치를 완전 의식해서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④ ㉠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재이 현상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선택률	16%
명시적 근거	(나)의 3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반적 대응설'은 신하 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군주 권력 강화는 헛소리네.
해설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이유는 신하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군주의 권력을 약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주 권력 강화'는 이 정보의 역할을 무시하는 내용이죠.

⑤ ㉠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나)의 3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반적 대응설'은 재이론 유지하는 거지.
해설	일단 (나)에서 '과학적 인식'을 찾는 것이 어려죠? '전반적 대응설'이 제시된 것은 신하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이유였으니까요. 나아가 '전반적 대응설'은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유관'하다는 인식, 즉 '재이론'을 유지하는 기초로 활용되었어요. 무조건 틀린 선지네요.

8.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이 제시될 겁니다. <보기>를 보고 지문의 어떤 주장과 맞닿아 있는지 미리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 <보 기> —

㉡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 (가)의 내용과 맞닿아 있죠? '인과 개념'을 '과학'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 역시 (가)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는 '물리적 성질'에서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 덕이 잘 담긴 치세에서는 재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번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나)의 '재이론' 그 자체죠?

㉤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 하류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실정을 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청렴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나)의 '재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① 흠의 문제 제기와 ㉒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군.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가)의 1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과정 이론'의 역할을 또 물어보는 지겨운 선지입니다. 이젠 딱히 설명도 필요없죠?

②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국한하는 ㉔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재이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겠군.

선택률	40%
명시적 근거	(나)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동중서의 '재이론'이 '물리적 상호 작용' 관련 입장과 부합한다고? 완전 헛소리네.
해설	동중서의 '재이론'은 '물리적' 대상이 아닌 '군주의 실정' 등을 다루는 것입니다. 인과를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㉔의 입장과 부합할 리가 없겠죠.

③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㉕에 대해 동중서와 주희는 모두 재이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하겠군.

선택률	28%
명시적 근거	(나)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동중서든 주희든 모두 '재이론'을 받아들여긴 했으니 맞는 선지네.
해설	㉕는 '재이론'과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중서'와 '주희' 모두 '재이론'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니, 이를 수용할 수 있겠네요.

FAQ

Q : '주희'는 '재이론'을 나쁘게 본 것 아닌가요?

A : '주희'는 '재이론'이 가진 논리적 결함 등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에서 '재이론'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 대응'도 결국 '재이론'의 일종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㉖는 새면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기 어렵겠군.

선택률	18%
명시적 근거	(가)의 마지막 문단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재이론'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이야기니까, 새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겠어.
해설	㉖는 '재이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생각했듯이, '재이론'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인과 관계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이는 철저히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인과 관계를 다루려는 새면의 이론으로 다루기엔 적합하지 않겠네요.

⑤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새면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㉗에 동의하겠군.

선택률	10%
명시적 근거	(가)의 2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원인 아니라고 하겠지.
해설	새면은 '인과적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표지의 과정 끝으로의 전달'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과적 과정'이 아니므로, '원인'이 될 수도 없겠네요.

9. ㉘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㉘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을 밝히려려고 한다는 뉘앙스네요.

①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을 찾으려 머리를 맞대었다.

-애가 답이네요.

②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확인해라.

③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④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건강을 찾는 중이다.

⑤ 선생은 독립을 다시 찾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겼다.

어휘 정리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

감응 ㉸ :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예 그는 아무 감응도 없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직언 ㉸ :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함.

예 그는 직원의 직언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미혹 ㉸ :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예 삼촌은 그 사기꾼의 화려한 언변에 완벽하게 미혹되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지식 정리

1. 과학적 지식

- 서양 철학사에서, '과학적 지식'은 '관찰,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관찰'이 불가능한 것은 곧 '과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바꿔 읽어 주시면, 과학철학과 관련된 지문을 조금 더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수능) 2013학년도 수능 [21~24]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수능) 2017학년도 수능 [16~20]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2. 과학적 세계관

- 인과 관계는 '물리적 세계' 내에서만 다뤄야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정보가 아닙니다. '심신 문제'와 관련된 개념 중 '평행론', '부수 현상론', '동일론' 등은 모두 '물리적 세계'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아래의 기출 지문에서는 이를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알아두도록 합시다.

(수능) 2014학년도 수능 B형 [19~21]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독해 속도를 늦추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 갑시다.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시간순 서술 :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점, 즉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여기로 모일 거예요.

⑤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데 반해 문제가 다소 쉽게 출제되어 아쉬움을 남긴 지문입니다. 평가원이 최근 '사례-원리 연결'을 정말 어렵게 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가 설명하는 원리와 일대일로 대응시키며 완벽하게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우, 전형적인 '재진술'로 도배된 인문 지문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최대한 같은 말로 봐 주시면서 독해하는 게 중요했을 거예요.

나아가, (가)와 (나)가 마치 한 지문처럼 출제된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할 수 있는 지구력을 기르도록 합시다.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베카리아의 '형벌'에 대한 지문입니다. '베카리아'는 당시의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했다고 합니다. 이 지문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은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사람은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굳이 '내' 자유를 내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익을 저울질 하는 존재이므로,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해요. 대신 전쟁과 같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서로의 이익을 따지다보니, 서로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신 남은 자유라도 평온하게 누리자고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양보한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나는 것이겠습니다. 이 물음을 가진 채로 계속 읽어봅시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즉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해 만든 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바로 '형벌'이구요. 이 '형벌'은 바로 '전체 복리'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무언가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 것 같은데,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지문의 대전제인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하여 행동하는 존재이다.'로 모두 모이는 정보들이예요.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거나, 자유의 일부만을 평온하게 누리도록 '합의'했다거나,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위반한 자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합의)들이죠. 이렇게 정보량을 확 줄인 상태로 읽어야 합니다.

한편,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고 해요. 생각을 좀 해 봐야 합니다. 일단 이 지문의 화제는 베카리아가 말한 '형벌권의 행사 범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도의 범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애초에 인간들은 무엇을 '양도'했나요?

그렇죠! 바로 '자유'의 일부입니다. 중간 즈음에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주었다고, 즉 양보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양보한 자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법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받겠다는, 즉 자신의 '자유'를 박탈 당하겠다는 데 '합의'하고 자신의 자유를 양도한 것이예요. 따라서 베카리아가 보기엔, 사람들이 기꺼이 '양도'한 자신의 자유 이상으로 벌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포인트에 맞춰서 글을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정의 제시 #재진술 #주장 제시 ☆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첫 두 문장은 사실 그리 대단한 문장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형벌'이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계몽주의 사조'의 정의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이 개념이 '베카리아'의 주장으로 재진술되고 있음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지문의 대전제인 '인간=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를 탄탄하게 잡아놓을 수 있겠습니다.

#재진술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이제부터 계속 같은 말입니다. 인간은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름의 '합의'를 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합의'의 내용은 서로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나머지 자유를 평온하게 누리기 위한 방향이구요. 여기서 '포기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진술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번에도 같은 말이죠? '법'과 '형벌'은 결국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들의 '합의'가 만든 결과예요.

#화제 제시 #재진술 ☆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이 지문의 진짜 화제는 베카리아가 말한 '형벌권 행사의 범위'라는 것을 알려 주는 문장입니다. 이걸 잡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도의 범위'가 앞에서 말한 '포기한 자유'의 재진술임을 체크할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한 독해가 가능하겠죠?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베카리아가 말한 ‘형벌권 행사의 범위’라는 화제를 잊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은 ‘억제·예방’입니다. 그리고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고 보네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속도를 늦춰서 이해해야겠지요? ‘범죄로 얻을 이득’은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로 재진술되어 있습니다. ‘범죄로 얻을 이득’이라고 한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그 공동체가 범죄 행위로 인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득(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더 커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자 역시 계몽주의가 말하는 ‘이성적인 인간’, 즉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할 줄 아는 존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보다 형벌로 인해 얻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베카리아는 이 조건이 조금이라도 만족되기만 하면 ‘억제·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문법’의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네요. 당연한 말이지요? 베카리아는 이처럼 ‘형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처벌의 정도는 공익을 훼손한 정도, 즉 ‘범죄로 얻을 이득=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에 비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불필요한 ‘폭압’이 된다고 해요. 이 내용들은 첫 문단에서부터 베카리아가 강조하던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정보들이 전개되면서, 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범죄로 얻을 이득 < 형벌이 가하는 손해’, ‘성문법’, ‘집행의 확실성’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듯하더니, 마지막엔 다시 ‘형벌권 행사의 범위’라는 화제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주실 수 있어야 해요!

새끼 문제 해설

Q1. 2문단의 네 번째 문장, <이는 범죄로 얻을 ~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와 똑같은 말을 1문단에서 찾아보자.
정답 :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 인간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재진술된 문장이 2문단의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나아가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로 얻을 이득’과 ‘형벌이 가하는 손해’를 계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있는 문장이기도 해요.

2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주장 제시 #카테고리 제시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형벌의 목적’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는 문장들입니다. 가볍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진술 #불친절한 서술 #카테고리 제시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재진술하며,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조건’이 정확한 카테고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읽게 될 거예요.

나아가, 이 문장은 ‘범죄로 얻을 이득’ 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친절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맥락 및 상식을 동원해서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화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성문법’, ‘집행의 확실성’이라는 정보는 가볍게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보량이 줄었네요.

#재진술 #화제 ☆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무수한 재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화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권 행사의 범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이 '양도한 자유만큼'이라는 걸 알고 있구요.

3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라 잡아주시면서 읽어주면 되는데, 결국 '가장 잔혹한 형벌'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귀결되네요. 인간은 '감각적'인데, 이 감각은 금방 무디어지기에 가장 강하지 않은 형벌이 '지속'되는 것이 더 큰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 장면의 목적'은 '사형'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은 '감옥살이'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이 '형벌'이니,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형'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는 것을 파악했으니, 여기서도 '사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은 곧 생명의 박탈, 즉 '사형'을 의미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평온한 자유'를 의미하겠죠. 이 지문의 핵심은 '평온한 일부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희생'한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희생'이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의 박탈'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카리아는 과한 형벌은 안 된다고 보았다.'라는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사형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해 너무나 과한 '폭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의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 '일반 예방주의' 같은 정보도 전부 같은 말로 처리할 수 있겠죠? 핵심은 '적당한 형벌'이었습니다.

3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주장 제시 #카테고리 제시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모습 외에, '감각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모습을 바탕으로 지문이 전개될 것임을 알려 주는 문장입니다. 이 카테고리리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겠죠?

#주장 제시 #재진술 #카테고리화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전부 '감각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 말들이네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핵심은 여기서 '사형'에 대한 반대를 잡아내는 것이예요. '죽는 장면의 목적'이 가진 효과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장 제시 #재진술 ☆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더욱 중요한 것=평온한 자유', '희생한 자유=죄를 지으면 벌을 받겠다는 약속',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사형의 대상'으로 재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것이 명쾌하게 뚫렸다는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재진술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 '일반 예방주의'는 모두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카리아의 주장과 직결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모두 '형벌권의 행사 범위'라는 화제로 모이는 정보였습니다.

3 문제풀이

10. 밑줄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이 지문의 화제인 '베카리아'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요?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1문단 일곱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이 사회 형성·지속에 중요하다고 했지.
해설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법의' 존재 이유는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이익'을 저울질하는 인간들이 서로의 자유를 양보하는 '합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합의'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법'이 필요하겠죠.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선택률	13%
명시적 근거	1문단 세 번째 문장 / 3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성적, 타산적, 감각적 모두 베카리아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이지.
해설	'타산'이라는 어휘를 모르는 학생들은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 선지였네요. '수지타산', '이해타산'과 같은 단어들을 바탕으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람이 '이성적', '타산적'이라는 건 1문단에서부터 잡아 둔 대전제였고, '감각적'이라는 3문단에서 새롭게 제시한 카테고리였습니다. 맞는 선지네요.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선택률	66%
명시적 근거	1문단 여섯 번째 줄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국민이 형벌을 왜 시행해. 말도 안 되지.
해설	일단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아닌 지문 속에서 근거를 잡아야 해요! 개개인의 국민이 양보한 자유의 총합이 모여 '주권'이 되고, 이를 '주권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 시행과 같은 주권의 행사는 그 주권을 위탁받은 '주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네요.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선택률	7%
명시적 근거	3문단 두 번째 줄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3문단의 '감각적인 존재'라는 카테고리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사형)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이 그에 무감각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공포의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네요. 우리는 '감각적인 존재'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둔 정보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선택률	10%
명시적 근거	1문단 마지막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게 이 지문의 화제지.
해설	이 지문의 화제입니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 즉 '양도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 '울타리'는 곧 '형벌'을 의미합니다. 베카리아가 이야기하는 '형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봅시다.

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2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범죄자의 억제가 목적이었지.
해설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은 '억제·예방'이었습니다. '재범 방지'는 이 중에서 '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②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문법으로 하라고 했지.
해설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 카테고리에 속하는 정보 중 하나는 '성문법'이었습니다.

③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2문단 일곱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범죄의 강도에 따라 형벌의 정도를 달리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지.
해설	베카리아가 이야기하는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불필요한 '폭압'이 된다고 했어요.

④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선택률	23%
명시적 근거	2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익을 저울질하는 게 대전제였으니 당연하지.
해설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범죄로 얻은 이득'과 '형벌이 가하는 손해'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한다면, 쉽게 맞는 선지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선택률	64%
명시적 근거	2문단 네 번째 문장 / 3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키려는 공익보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 그건 폭압이라고 했지.
해설	지키려는 공익(범죄로 인해 얻게 될 손실)보다 형벌의 강도가 더 높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더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이 지문의 핵심은 '베카리아가 형벌의 정도를 범죄 정도에 비례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형벌의 정도를 무조건 강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문의 화제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선지였네요.

12.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또 베카리아의 주장을 묻고 있네요. 가볍게 답 골라봅시다.

①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선택률	11%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리주의가 언제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했냐.
해설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의 입장인 것은 맞지만, 공리주의가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본다는 건 헛소리죠. 지문에서는 분명히 '공리주의'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정의했으니까요. 개념의 정의, 정말 중요하죠?

②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률	33%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형에 반대하는 이유는 양보한 희생에 목숨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해설	다 좋은데, 베카리아가 사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양보한 희생'에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즉, 사형을 시켜도 된다고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를 '범죄 예방의 효과와 결부짓는 건 옳지 않겠습니다.'

FAQ

Q : 3문단에선 분명히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면 그에 무디어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즉, 사형이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A : 말씀하신 대로 '큰 효과'가 없는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베카리아는 그 효과는 폭압과 같은 너무나 과한 형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는 베카리아의 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선택률	10%
명시적 근거	3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형 같은 충격적인 경험의 기억은 일시적이라고 했지.
해설	사형은 기억에 일시적으로 남는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베카리아의 주장이었어요. 이 선지는 베카리아의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④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선택률	42%
명시적 근거	3문단 다섯 번째 줄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장 큰 가치', 즉 '목숨'을 내어주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베카리아의 주장이지.
해설	사람들의 '합의'는 '자유'의 양보인데,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이 양보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가장 큰 가치)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베카리아는 이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⑤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럼 사형은 찬성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네.
해설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은 베카리아로 인해 탈피하게 된 '응보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면 사형이 존재하는 걸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베카리아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1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향유(享有)하기로
- ② ㉡ : 단절(斷絶)하는
- ③ ㉢ : 둔감(鈍感)해져
- ④ ㉣ : 지대(至大)한
- ⑤ ㉤ : 수립(樹立)하였다는

어휘 정리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할애 ㉠ : 소중한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뜻 내어 줌.
예 올해는 교육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할애**가 될 것이다.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성문법 ㉡ :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예 영국의 헌법은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인데도 큰 문제가 없다.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았는가.
억지력 ㉢ : 상대방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예 국방에 대한 투자는 전쟁 **억지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지식 정리

1. 과잉 금지의 원칙 (비례 원칙)

- 잘못된 만큼만 벌을 받고,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잘못이나 피해에 '비례'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져야 하고, 잘못이나 피해에 비해 '과잉' 처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체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 알아두도록 합니다.

(평가원)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B형공통 [27~30]

헌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진제 : 중복 제재는 과잉 제재가 되므로 문제가 된다.**)

(평가원)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26]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③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법 지문인 척했던 인문 지문이었습니다. 인문 지문에 약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시험이네요. 하지만 결국 포인트는 '재진술' 하나였습니다. 인문 지문은 언제나 '화제'와 그를 뒷받침하는 '재진술'이 포인트가 되니,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4~17] : 기술 'PCR' ☆☆☆☆☆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라는 개념이 등장하네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다고 합니다. PCR라는 기술의 '목적'이 되겠네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LFIA 키트' 지문에서 어떻게 '검사'하는지 궁금했던 것처럼, 이 지문 역시 'PCR를 통해 어떻게 DNA를 증폭시킬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네요.

이후 PCR의 사용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는데, 정보량이 많아서 부담스럽더라도 최대한 기억하려고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2, 3문단에서 이 구성요소들을 사용할 때 엮어가며 이해해줄 수 있어요. 어쨌든 각 구성요소를 하나씩 체크해봅시다.

주형 DNA는 말 그대로 '주형/DNA'입니다.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DNA이니까 '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중' 가닥이라고 합니다. 가닥을 두 개 가지나 보네요. 여기서 우리가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즉, 증폭을 목표로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합니다. 이 역시 어휘를 살려서 이해해줍시다. 증폭의 '표적'이 되는 'DNA'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네요. 한편, '표적 DNA'는 '단일' 가닥이네요? 차이점을 인지해줍시다.

그리고 '프라이머'의 정의가 나오네요. 특이한 점은 '프라이머'와 '표적 DNA'의 일부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표적 DNA'와 일부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합니다. '프라이머'의 활용이 '표적 DNA'의 증폭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의를 챙겨놔야 나중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표적 DNA'의 '증폭'에 대해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DNA를 복제한다는 것은 '증폭'한다는 말의 재진술입니다. 즉, 기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DNA 중합 효소에 대한 설명을 독해할 때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 효소는 '단일' 가닥 DNA의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구성요소 중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사용한다는 점은 체크할 수 있겠네요. '단일' 가닥에 '결합'시키니까 '이중' 가닥 DNA가

되나 봅니다.

문단에 정보량이 엄청 많지만, 기술 지문이 흔히 그랬듯 이 정보들을 챙기지 않으면 뒤에 가서 힘들어집니다. 실전에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각 구성요소의 어휘를 살려서 이해하는 것, '단일' 가닥과 '이중' 가닥의 미묘한 차이 체크를 해냈어야 하고, '표적 DNA'를 '증폭'하는 것이 이 기술의 목적, 즉 우리의 독해 목표라는 점을 생각해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각 정보를 완전히 외우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새끼 문제 해설

Q1. PCR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답 : DNA 중합 효소

- 기술 지문 독해의 핵심은 '목적'의 파악입니다. PCR라는 기술의 목적이 'DNA 증폭'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어떤 요소가 DNA를 증폭시키는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읽으셨어야 합니다. LFIA 키트에서 '반응막'의 '검사선'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라는 화제를 제시하며 기술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지문 초반에 나오는 '기술의 목적(화제겠죠?)'을 중심으로 지문을 독해해줘야 합니다.

#구성요소 제시 ☆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네 가지 구성요소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지문의 1, 2문단에는 수많은 구성요소가 나오곤 합니다. 정보량에 대한 압박이 있겠지만, 기술 지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속도를 늦춰서 이 정보들의 정의를 최대한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독해 태도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정의 제시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앞 문장에 제시된 구성요소들의 정의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표적 DNA의 증폭'이라는 '화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요소를 체크해주는 것과 어휘를 중심으로 각 구성요소의 정의를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주'가 되는 'DNA', 증폭의 '표적'이 되는 'DNA',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여획을 살려서 이해하기 힘들죠?), '단일 DNA' 두 가지를 '중합'해주는 '효소' 즉, '복제'해주는 '효소'라고 정의를 이해해주는 거죠. 여기서 DNA를 '복제'해준다는 부분에 집중해줘야겠죠?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앞 문단에서 나온 구성요소들의 정의를 최대한 엮어주며 독해해주도록 합니다. PCR 과정의 첫 시작은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분리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네요. 이때 분리된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다고 합니다. '프라이머'의 정의를 다시 확인합니다. '표적' 가닥의 시작과 끝에 결합하는 '단일' 가닥 DNA네요. 이렇게 정의를 살려서 지문을 독해해줍니다.

처음에 열을 가해서 '이중' 가닥을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했죠? 여기서 '이중 가닥 DNA'는 맥락상 '주형 DNA'여야 합니다. 앞 문단에 등장한 '이중 가닥 DNA'는 '주형 DNA'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1문단의 정보를 끌고 오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눠진 각각의 단일 가닥은 '주형 DNA'가 나눠진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단일 가닥의 일부에 '표적 DNA'가 존재하겠죠? '표적 DNA'는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이중 가닥 DNA의 일부(= 표적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프라이머'의 정의가 '표적 DNA'와 결합하는 DNA니까요. 정의를 계속 끌어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된다고 합니다. 'DNA 중합 효소'의 정의를 살려야겠죠? '단일' 가닥에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서 '이중 가닥 DNA'를 만드는 구성요소가 'DNA 중합 효소'였습니다. 지금 현재 각각의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된 상태입니다. '단일 가닥'의 시작과 끝에 프라이머가 결합되어 있으니 아직은 '단일 가닥' 상태죠? 이 두 개의 '단일 가닥'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각각 복제되어 '이중 가닥 DNA'가 되는 겁니다. 정의를 붙여서 이해해보면 어렵지 않죠?

이렇게 결국 '이중 가닥 DNA'가 두 개 생겼네요. 여기서 저 '이중 가닥 DNA'는 둘 다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겠죠? 애초에 '주형 DNA'에 '표적 DNA'가 포함되어 있고, 그 '표적 DNA'에 '프라이머'가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를 'DNA 중합 효소'가 '복제'했으니 '표적 DNA'를 포함한 '이중 가닥 DNA'가 두 개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표적 DNA'가 '증폭'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 끝나면 '표적 DNA'의 양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앞에서 이미 이해한 정보입니다. '재진술'에 해당하네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진행하다 보면 '표적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DNA가 '증폭'된 것입니다. 이제 이 '증폭 여부'를 '형광 물질의 발색'을 통해 확인한다고 합니다. 기술 공부가 잘 됐다면 바로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LFIA 키트'의 '표지 물질'을 떠올려야 합니다. 표지 물질도 '형광 물질'이나 '금 나노 입자'를 사용하니까요 ㅎㅎ 그런데 이때 '전통적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뭔가 '전통적인 PCR'과 '현대적인 PCR'을 비교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건, 무언가 오래된 것이라는 뜻이니까요!

새끼 문제 해설

Q2. PCR 과정에서 한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이 2배씩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간단합니다. 원래 이중 가닥 DNA였던 '주형 DNA'는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고, 이 단일 가닥 하나가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매 사이클마다 하나의 단일 가닥이 이중 가닥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등비수열처럼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PCR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새끼 문제였습니다.

2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과정 제시 ☆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PCR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 문단에서 읽었던 구성요소의 정의를 끌어와야 합니다. 구성요소의 정의를 하나하나 끌어오고, '단일 가닥 DNA'와 '이중 가닥 DNA'의 차이를 인지하며 독해해줬으면 각각의 문장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지문 해설처럼 하나하나의 정의를 모두 사용해서 최대한 이해해주도록 합니다.

#재진술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앞 문장 마지막 부분의 재진술입니다.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는 것이 결국 '표적 DNA'가 '복제'되었다는 것이므로, 2배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의 이중 가닥 DNA가 2개로 변했으니 표적 DNA의 양이 2배가 된 거죠? 조금만 천천히, 꼼꼼히 읽어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진술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증폭이 완료됐다'는 것의 재진술입니다.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하며 '표적 DNA'의 양을 2배씩 늘려온 거니까요. '표적 DNA의 증폭'이라는 지문의 '화제'를 계속해서 끌고오도록 합니다.

#비교/대조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전통적인’이라는 워딩을 통해 ‘비교/대조’를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에 따르면 전통적인 것에는 항상 ‘현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편, ‘발색을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기껏 증폭해놨더니 확인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증폭했으면 얼마나 증폭했는지 확인해야죠! 발색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처음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증폭됐는지) 확인할 수 없을 거니까요.

3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역시 ‘실시간 PCR’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PCR’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PCR’는 ‘시료’의 표적 DNA의 양을 알 수 없나 보네요. 앞 문단이란 이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PCR’는 PCR에 사용되는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 양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PCR의 ‘최종 산물’에 존재하는 ‘표적 DNA’를 알아내는 거니까요.

다음 문장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PCR 과정 자체는 ‘동일’하지만, ‘실시간 PCR’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이클이 일어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PCR 과정(= 증폭)’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동일하다는 점은 ‘공통점’,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실시간 감지를 위해 ‘실시간 PCR’에는 추가적인 발색 물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종 단계에서만 발색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무언가 추가로 발색 물질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상식적으로 납득해 주도록 합시다. 이때 사용되는 발색 물질은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 표식 탐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인 발색 물질’이라는 상위개념에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 표식 탐침’이라는 하위개념이 존재하니, 이 둘 간의 차이점을 정확히 체크해야겠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발색 물질’, ‘실시

간 PCR에 사용하는 발색 물질’이라는 ‘공통점’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부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 그대로 ‘이중 가닥 DNA’에 ‘특이’하게 반응해서 ‘결합’하는 염료네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중 가닥’이니까 ‘결합’할 수 있겠다는 판단과, 이 ‘이중 가닥’이 한 사이클 후 ‘증폭’된 DNA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 문단에서 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이중 가닥’이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에 의해 발색되면 ‘새로운 이중 가닥’이 생겨났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네요.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말 그대로 ‘이중 가닥’에 결합하는 염료라서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 가닥에도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라이머의 정의가 기억나지 않으면 올라가서 확인하고 와야겠죠?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 DNA’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이중 가닥 DNA’가 되겠죠. ‘이중 가닥 DNA 염료’가 이 이중 가닥에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생긴 ‘이중 가닥 DNA’는 증폭되어 생성된 DNA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의도치 않은 발색’이라고 서술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3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비교/대조 ☆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 문단에서 예측했던 대로 ‘전통적인 PCR’와 ‘실시간 PCR’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실시간’이라는 어휘를 살려서 두 PCR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 체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과정’이 같다는 것, ‘차이점’은 ‘발색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되겠네요.

#카테고리 제시 #비교/대조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실시간 PCR에 사용되는 발색 물질’이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 표식 탐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나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비교/대조’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 개념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정의 제시 #재진술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의 ‘정의’가 제시됩니다. 어휘를 살려서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중 가닥’에 결합하니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또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

는 서술을 통해 '그러니까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겠구나!'하고 재진술해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됐다는 게 결국 '증폭'되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재진술 #문제점 제시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우선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의 정의를 살려서 이 염료가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한다는 서술을 재진술로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프라이머'의 정의를 살려서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면 '이중 가닥'이 된다는 사실 역시 재진술로 이해할 수 있네요. 그런데 프라이머끼리의 결합이 '증폭'되어 생겨난 '이중 가닥 DNA'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정의를 활용한 '재진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지문의 내용을 납득하고, '이게 문제점 이구나!'하고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를 엮어서 이해하고, 재진술을 최대한 잡아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4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이제 '형광 표식 탐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 해야 하는지 아시죠? '비교/대조' 바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집중하며 읽어봅시다. 우선 '형광 표식 탐침'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이는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라고 하네요. 우선, '형광 표식 탐침'이니까 당연히 '형광 물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광 물질'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광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하며 계속 독해해봅시다. 한편, 어찌됐든 '형광 표식 탐침'이 '단일 가닥 DNA'라는 점은 잊지 맙시다.

이 탐침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가 어디인지 아셔야 합니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하죠?' 그러면 '형광 표식 탐침'은 시작과 끝의 중간 부분에 붙겠네요. 이 정도는 쉽게 상상해줄 수 있죠? 앞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정보량이 많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이해한 후에는 '결합 부위'에 대해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비교/대조'해야 합니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고,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가 결합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하지 않는 '표적 DNA'에 결합하네요. 결국 둘 다 '표적 DNA'에 결합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자는 '이중 가닥'에 결합하고, 후자는 '표적 DNA'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후 다시 PCR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문단에 설명된 PCR 과정의 내용을 엮어서 이해해줘야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에는 '이중 가닥 DNA'를 '단일 가닥'으로 쪼갭니다. 이후에 '형광 표식 탐침'이 '표적 DNA'에 결합하네요. '표적 DNA'에 결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 결합 시점에 대한 정보만 체크하면 됩니다. 단일 가닥으로 쪼갠 '후' 결합한다는 시점 말이죠.

여기서 조금 잘 읽는 학생은 전자는 한 사이클이 끝난 후 '새로 생성된' 표적 DNA에 결합하는 반면, 후자는 아직 '증폭'이 이루어지기 전의 '표적 DNA'에 결합한다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겠네요. 둘 다 '표적 DNA'에 결합하긴 하지만, 다른 시점에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이상적으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독해력' 자체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후 'DNA 중합 효소'가 '이중 가닥 DNA'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탐침이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DNA 중합 효소가 이중 가닥 DNA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는 2문단에서 이미 이해한 상태여야 합니다. 'DNA 중합 효소가 DNA를 복제하는 개념'이라는 것, 두 개의 단일 가닥에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 두 개를 만들어 증폭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탐침은 자신이 결합하고 있던 '표적 DNA'와의 결합을 유지하지 못하네요. 이렇게 탐침이 분해되면서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소광 물질'이 더 이상 형광 물질의 발색을 억제하지 못하니 '발색'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복제'가 발생할 때 표적 DNA와 분리되고, 형광 표식 탐침의 '분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분리가 되어 발색 반응이 나타나면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부가적인 정보로 '형광 표식 탐침'의 장점과 문제점이 나오네요. 우리는 여기서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비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 DNA'에 결합하니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처럼 증폭되지도 않은 이중 가닥에 결합되어 발색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네요. 순수하게 '증폭'된 상황에만 발색하는 발색 물질이라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네요. 역시 좋은 건 가격이 비싼가 봅니다.

4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비교/대조 #재진술 ☆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형광 표식 탐침'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이해해주는 동시에,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와 '비교/대조'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독해 과정에서 해야 할 '태도'를 생각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프라이머'의 정의를 끌고 와서 형광 표식 탐침이 어디에 결합하는지 생각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일정의 '정의를 통한 재진술'입니다.

#재진술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형광 표식 탐침이 PCR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표적 DNA'와 결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PCR 과정은 2문단에서 읽었던 정보를 통해 납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진술 ☆

이후 DNA 증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형광 표식 탐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광 표식 탐침'의 '분리' 후 '발색'이 왜 표적 DNA의 '증폭'을 나타내는지 재진술을 통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을 '증폭되는 과정'으로 재진술할 수 있으면, 그 시점에 '분리되어 발색'되는 게 왜 '증폭' 여부를 알려주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비교/대조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에 결합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형광 표식 탐침'은 증폭되는 '표적 DNA'에 결합하기 때문에 '이합체' 같은 증폭과 상관없는 요소에 결합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비싸다는 단점은 간단히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5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_t 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_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_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발색도'라는 새로운 정의가 등장했네요. '발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인가 봅니다. 이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발색'이 결국 '증폭'을 확인하기 위한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증폭된 DNA가 많을수록 발색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례 관계로 치부해서 화살표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나타났을 때, 즉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이 진행될 때까지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이클'이 진행되면 표적 DNA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사실과, '초기 표적 DNA의 양'을 엮어서 이 문장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초기 표적 DNA의 양이 적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을 때는 두 배가 되더라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표적 DNA의 개수가 1개일 때는 사이클마다 2개, 4개, 8개... 로 늘어나겠지만, 초기 표적 DNA의 개수가 100개라면 200개, 400개, 800개... 로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증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더욱 빠르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초기 표적 DNA의 양이 많으면 '조금의 사이클'만으로도 원하는 만큼의 표적 DNA의 양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발색도는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는 '실시간 PCR'의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PCR'은 증폭이 일어날 때마다 발색 정도가 커집니다. '연속적'으로 바뀐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발색도가 연속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때 증폭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한 시점의 '사이클 소요 횟수'를 C_t 값이라고 하며, C_t 값을 정의해줍니다. 항상 새롭게 등장한 정의는 유심히 체크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는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니까 '미지' 시료라고 어휘의 의미를 살려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휘 의미 살리는 독해는 정보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습관화하세요. 어쨌든, '미지 시료'와 '표준 시료'를 비교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시료'는 초기 농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C_t 값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시료 증폭의 시작 시점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개수를 알고 있으므로, 몇 사이클이 지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증폭이 이루어지는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지 시료도 C_t 값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이클을 진행하고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표적 DNA'가 생겨날 거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이 많으면 C_t 값이 작고, 양이 적으면 C_t 값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표준 시료의 C_t 값에 비해 미지 시료의 C_t 값이 얼마나 크냐 혹은 작냐를 비교하여, 표준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개수를 기준으로 미지 시료에 표적 DNA가 얼마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 DNA의 개수가 20개라고 해봅시다. 표준 시료에 10개가 있으면, 표준 시료의 C_t 값은 1이 됩니다. 사이클이 한 번만 돌아도 표적 DNA 개수가 '10 → 20'개가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미지 시료의 C_t 값이 2이라면, 표준 시료에 비해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지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개수가 5개여야 사이클을 두 번 거친 후에 '5 → 10 → 20'개가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미지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개수가 5개라는 사실을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예시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최소한 C_t 값을 비교해서 초기 표적 DNA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이는 문단의 앞 부분에 등장하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문장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실전에서 자신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엮어서 독해했는지 성찰해봅시다.

5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비례 관계 #재진술 ☆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발색도’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이를 재진술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발색’은 ‘증폭’을 확인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니까요. 이를 통해 비례 관계도 아주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폭이 많이 될수록 발색도 많이 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문을 잘 읽어왔다면 당연한 정보니까요. 또한 사이클 한 번에 표적 DNA가 2배가 된다는 정보를 이끌어와서 DNA 초기 양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과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이 진행’이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정의 제시 #재진술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우선 Ct값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 문장에 등장한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입니다. 새로 등장한 정의이긴 하지만, 재진술일 뿐이죠. ‘연속적인 선’이라는 말은 문단 해설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시간 PCR’의 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정의를 이끌어와야 합니다. 절대 정보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정의 제시 #재진술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우선 ‘표적 DNA의 농도’가 표적 DNA의 개수를 뜻한다는 점을 재진술해야 합니다. 농도라고 했지만, 결국 표적 DNA가 얼마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 후 Ct값의 정의와 앞 문장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왜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의 초기 표적 DNA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한 이해는 앞에 ‘문단 독해 사고과정’을 참고합니다!

6문단

11 문단 독해 사고과정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PCR의 장점을 나열하며 지문을 마무리하네요. 정말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지문에 등장하는 여러 정의들을 완벽하게 재진술하고, 엮어가며 독해해야 지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들의 ‘비교/대조’, ‘정의 체크’만 잘 했으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지문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런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실력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실력이 성장해야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읽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제 풀 정도’까지라도 독해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할 수 없다고, 공부할 때도 하지 않는 것은 실력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꼭! 공부할 때는 A to Z 까지 이해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3 문제풀이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선택률	37%
명시적 근거	1문단 네 번째 문장, 1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똑같은지까 주형 DNA와도 똑같은 부분이 있지.
해설	‘프라이머’의 정의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죠. 즉, ‘표적 DNA’가 갖고 있는 염기 서열의 일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 DNA’는 ‘주형 DNA’ 중 우리가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에 해당합니다. 즉, 이 역시 ‘주형 DNA’의 일부인 것이죠. 순서대로 하면, ‘표적 DNA’는 ‘주형 DNA’의 일부이고,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와 같으므로, ‘프라이머’가 ‘주형 DNA’에 존재하는 염기 서열의 일부와 같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선지에서 묻는 것으로부터 알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사고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 선지 판단의 기본입니다. 항상 이런 ‘필연적 문제풀이’를 신경 쓰며 풀어주세요.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선택률	12%
명시적 근거	2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처음의 2배가 되나, 4배에서 8배가 되나 둘 다 2배가 되는 거네? 한 사이클이면 되겠다.
해설	우선 선지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습니다. ‘처음의 2배’와 ‘4배에서 8배’ 모두 2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후 2배라는 정보를 통해 ‘사이클’을 이끌어내야겠죠. 한 사이클이 지날 때 ‘표적 DNA 양’이 2배가 되므로, 선지의 두 경우 모두 ‘한 사이클’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선택률	20%
명시적 근거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3문단 두 번째 문장, 5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알려면, C _t 값을 알아야 하는데, 전통적인 PCR는 과정 중간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해설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미지 시료의 C _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 _t 값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의 경우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만 조건을 충족했을 뿐, 미지 시료와 표준 시료의 C _t 값을 알 수 없죠. 또한 '전통적인 PCR'는 애초에 과정 중에는 증폭과 관련되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C _t 값은 기대할 수도 없겠네요.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선택률	23%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3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이나 '실시간'이나 PCR 과정은 같아?
해설	PCR는 DNA의 양을 증폭시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PCR를 사용하면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시간 PCR'도 '전통적인 PCR'와 같이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판단해야겠네요. 그런데 '전통적인 PCR'와 '실시간 PCR'는 PCR 과정이 같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PCR' 역시 이중 가닥 DNA에 열을 가하는 PCR의 첫 번째 과정을 거쳐야 하겠네요.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선택률	23%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3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이나 '실시간'이나 PCR 과정은 같아?
해설	4번 선지와 같은 것을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PCR 과정에는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PCR'와 '실시간 PCR'의 과정이 같으므로 당연히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도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하겠네요.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

- ㉠과 ㉡은 '실시간 PCR'에서 '표적 DNA'가 증폭되는 것을 알려 주는 '발색 물질'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차이점은 완벽하게 정리해두었죠?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선택률	20%
명시적 근거	3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합체는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건데? ㉠은 프라이머가 아니잖아?
해설	이합체의 정의는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 발색 물질이지 '프라이머'가 아니라서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도 마찬가지죠?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선택률	35%
명시적 근거	3문단 네 번째 문장, 4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고 ㉡은 결합이 끊어진 뒤에 발색하네.
해설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과 ㉡으로 돌아가서 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선지가 묻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돌아가야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지만, ㉡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 후에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난 후에 '발색'됩니다. 즉, ㉡은 표적 DNA와 떨어진 상태로 발색하는 것이죠.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선택률	14%
명시적 근거	4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형광 물질은 ㉠의 구성요소일 뿐인데? 결합을 왜 해.
해설	㉠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한다고 하네요. 애초에 형광 물질은 'DNA'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 가닥 DNA의 단편인 ㉠과 형광 물질이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이합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역시 그냥 형광 물질일 뿐이기에,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합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죠.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2문단 첫 번째 문장, 3문단 네 번째 문장, 4문단 세 번째 문장, 4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될 때 발색하니까 사이클의 끝 부분이네.
해설	사이클의 '시작 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지점'은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지점'이네요. 그런데 ㉠은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 발색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증폭' 과정에서 발색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시작 지점'이 아니라 '끝 지점'에서 발색이 나타난다고 판단해야겠네요. ㉡도 마찬가지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끝 지점'에서 발색이 나타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선택률	16%
명시적 근거	3문단 네 번째 문장, 4문단 첫 번째 문장 4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와 결합하는 게 맞는데, ㉡은 단일 가닥에 있는 표적 DNA에 결합하네.
해설	㉠은 이름 그대로 '이중 가닥 표적 DNA'랑 결합하지만, ㉡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하니, 가운데 부분에 ㉠이 결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의 '표적 DNA'는 이중 가닥일 때가 아니라,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이 되었을 때의 '표적 DNA'입니다. 따라서 ㉡은 '단일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16.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 지문에 나온 두 가지 PCR에 대해 물어보겠죠. 우리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잡아놓고 있으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선택률	16%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6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적은 양을 감지하려고 '증폭'했던거 아닌가?
해설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더라도, PCR 기술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양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면 감염 초기일지라도,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겠네요.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선택률	17%
명시적 근거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 PCR도 발색 물질 사용하는데?
해설	전통적인 PCR도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색 물질'이 필요하죠? 애초에 '발색 물질'이라는 정보의 역할은 '증폭 여부 확인'이었고, 이는 전통이든 실시간이든 꼭 필요한 과정이니깐요.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6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진단이 빠르겠지.
해설	'실시간 PCR'의 장점이 '실시간'으로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에서는 '전통적인 PCR'이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진단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 인과가 맞지 않네요. 또한 애초에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선택률	31%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4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표적 DNA를 증폭해야 하는데, 표적 DNA가 뭔지 알아야 증폭하지.
해설	PCR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여러 구성요소가 필요하죠? 그 중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입니다. 만약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모르면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도 없겠네요. 그리고 애초에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알아야 '주형 DNA'에서 '표적 DNA'에 해당하는 부위를 특정할 수 있겠죠?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선택률	21%
명시적 근거	3문단 두 번째 문장, 6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감염 여부를 PCR 중간에 확인하려고 '실시간 PCR'를 이용하겠지. PCR이 끝나고 알 수 있으면 '전통적인 PCR'를 사용하지 굳이 '실시간'을 왜 써?
해설	PCR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표적 DNA'를 증폭해서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실시간 PCR'는 증폭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니까 PCR가 끝나기 전에 시료에 '표적 DNA'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감염 여부도 PCR 중간에 알 수 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17.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1%	16%	30%	14%	19%

— <보기 1> —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 지문에서도 등장한 내용입니다. '미지 시료'와 '표준 시료' 둘 다 '동일한 표적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애초에 동일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동일한 표적 DNA가 아닐 때 무언가를 구해내는 방법을 읽은 적은 없으니까요. [A] 부분에 대한 문제이므로 C_t값과 엮어서 문제가 나오겠다는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기 2> —

만약 ㉠이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이 (㉠) .

↓

실시간 PCR의 C_t값에서의 발색도는 ㉠이 (㉡) .

↓

따라서 실시간 PCR의 C_t값은 ㉠이 (㉢) .

먼저 <보기 2>의 전제를 보니, ㉠이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지문에서는 미지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_t값과 미지 시료의 C_t값을 통해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농도'를 알고 있는 상태네요. 자연스럽게 C_t값을 물어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네요.

그리고 지문 독해를 잘 했다면, ㉠이 ㉡보다 우리가 원하는 증폭 수준에 빠르게 도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초기 값이 많으므로, 2배씩 증가할 때 더 빠르게 증폭될 거니까요.

- ㉠ -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 ㉡보다 초기 농도가 높으므로, 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증가하는 표적 DNA의 양도 많겠죠? 1에서 2, 4로 늘어나는 것보다 2에서 4, 8로 늘어날 때 증가량이 훨씬 많으니까요.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니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을 '한 사이클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이라고 해석해서 풀면 더 엄밀하게 풀 수 있네요.
- ㉡ - 'C_t값에서의 발색도'를 묻고 있습니다. C_t값의 정의를 정확히 체크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었어요. C_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입니다. 즉, C_t값에서의 발색도는 증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일종의 '기준'인 거죠. 따라서 ㉠과 ㉡의 C_t값은 서로 다르겠지만, C_t값에서의 '발색도'는 같습니다.

㉔ - 이번엔 C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보기 2>의 전제를 보고 미리 해석했듯이, ㉔가 ㉒보다 초기 농도가 높으므로 원하는 증폭 정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을 거예요. 증가량이 크니까요. 자연스럽게 C값도 ㉔가 ㉒보다 작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사 이클을 덜 돌아도 우리가 원하는 발색도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았지만, 결국 '선지에서 묻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할 생각을 차분히 전개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최근 평가원의 <보기> 문제는 결코 과하지 않아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겁 먹지 말고 덤비시기 바랍니다!

- | | | |
|------------|----------|----------|
| ㉒ | ㉔ | ㉕ |
| ① ㉒보다 많겠군. | ㉒보다 높겠군. | ㉒보다 크겠군. |
| ② ㉒보다 많겠군. | ㉒와 같겠군. | ㉒보다 작겠군. |
| ③ ㉒와 같겠군. | ㉒보다 높겠군. | ㉒보다 작겠군. |
| ④ ㉒와 같겠군. | ㉒와 같겠군. | ㉒보다 작겠군. |
| ⑤ ㉒와 같겠군. | ㉒보다 높겠군. | ㉒보다 크겠군.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지식 정리

2. 주제

- 우선 PCR 기술의 목적은 '표적 DNA'를 '증폭'해서 '검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용 키트'와 그 용도가 비슷합니다. 또한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 '실시간 PCR'을 사용하는 것처럼, 키트도 더 높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기술을 통해 살펴봅시다.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35~38]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주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더 높은 효율성 추구)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이 지문은 PCR을 주제로 '전통적인 PCR'과 '실시간 PCR'을 비교합니다. 최근 기술 지문에서는 이렇게 두 핵심 개념을 비교하는 지문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25~28] - 영상 안정화 기술

OIS 기술이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21학년도 수능 [34~37] - 모델링과 렌더링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2. 발색 물질

지문에 등장한 두 종류의 발색 물질이 각각 이중 가닥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사실 '항원-항체 반응'과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항체가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결합하는 것처럼, 발색 물질이 '이중 가닥'이나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결합하는 것이죠. 기술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35~38]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 B형 [25~26]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베바시주맵이 개발되었다.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베바시주맵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정보량 줄이기 :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은 말은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정보량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 ④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⑤ 비교/대조 : 두 대상 이상이 나오는 경우 의식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며 비교/대조 해줘야 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정보량이 아주 많아 보이는 지문입니다. 하지만 표적 DNA의 '증폭'이라는 화제를 중심으로 지문을 읽어나갔다면 정보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문은 지문 앞 부분에 등장하는 여러 개념들의 정의를 끝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앞에서 읽은 개념으로 설명 가능한지 항상 생각하며 독해해야 하는 것이죠. 개념의 정의를 엮어서 이해한다는 기본적인 태도만 잘 갖춰져 있으면, 정보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설을 보고 공부한 후에 다시 스스로 독해하며 정보량을 즐겨봅시다.

[18~21] : 현대소설 '무사와 약사' ☆☆

1 <보기> 확인

— <보 기> —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약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동일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사와 약사」의 줄거리를 모르는 학생이라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먼저 독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연 '동일시'입니다. '기범'이라는 인물은 '일규'를 동일시하려고 했는데, '일규'의 외면 또는 부재로 인해 '기행과 궤변'을 일삼겠네요. '기범'이 '일규'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부분, 부정 또는 합리화의 과정인 '기행과 궤변'에 주의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2 지문 독해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허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걸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앞부분의 줄거리]는 출제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 직접 작성해 준 것이라고 했어요. 외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기범'은 현재 시점에서 죽어 있고, '일규의 장례식'에서 '기범'을 만났으니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일규의 죽음 → 기범과 나의 대화 → 기범의 죽음 → 임씨와 나의 대화'가 됩니다.** 지금 (중략) 이전 회상의 시점은 일규의 죽음과 기범의 죽음 사이고요.

회상 속에서 ‘나’는 ‘기범’에게 ‘네까지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범은 미친 듯이 웃더니, 자기가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기는 하지만 자기가 일규를 사랑했다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보기>에 나온 ‘동일시’겠네요. 기범은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앞에서 이러면 여러분도 당황하겠죠? 지문의 ‘나’ 역시 기범의 웃음을 보고 놀랐다가, 눈물을 보고 긴장합니다.

<보기>를 조금 더 사용해서 독해하면,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동일시의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기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라는 대사에서 동일시의 상대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21번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문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기>와 연결지어 읽어야 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피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কে번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케번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렵듯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나’는 현재 ‘임 씨’라는 인물과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략) 이후의 상황을 보니 ‘나’는 ‘저’를 만나 기범이 깊은 산골에 들어가 살던 시기의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저’가 곧 ‘임 씨’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겠죠? [앞부분의 줄거리]가 가지는 위력입니다!

‘임 씨’, 즉 ‘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기범이 도시를 떠나 산골로 들어간 이유는 ‘나’와 ‘저’ 모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기범이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껴서 산골로 온 것이라 추측하고 있고, 기범의 ‘묘한 철학’, ‘부정의 미학’이 그의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끼는데, 이 진동은 바로 기범의 ‘묘한 철학’을 통해 기범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어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다.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때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허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혹시나 해서 적는데, ‘당산’이 눈 앞에 있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닌건 아시죠...? 여기서 ‘당산’은 지문의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로, 기범을 가리킵니다.

이제 기범이 ‘산속’에 박혀 살게 된 이유가 드러나는 듯합니다. ‘친구(일규)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기범은 ‘세상 살 재미’를 잃었고, 그로 인해 세상을 등지고 산골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기범은 산속에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네요. 과거와 다르게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범 스스로는 ‘미련한 삶’이라고 칭했고요.

아까 기범의 ‘묘한 철학’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나’가 ‘저 시끄럽던 요설들’을 갑자기 떠올립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규의 죽음, 그리고 ‘묘한 철학’, ‘시끄럽던 요설들’이 기범이 산속으로 오게 된 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한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A]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혔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이제 '나'는 기범이 장례식에서 얘기했던 '과거의 요설들'을 떠올리면서 그에 대해 생각합니다. 18번 문제에서 해설하겠지만, 이런 식의 서술을 보통 '관념적 서술'이라고 일컫습니다. 추상성이 두드러지고 개인의 내면과 깊게 결부될수록 관념성은 커지죠. 이런 부분들은 대개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념적이고 어려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대강 쪽 읽으시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3 문제풀이

1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나'라는 1인칭 시점, '과거의 요설들'을 떠올리는 회상, '어쩌면', '~같다', '알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추측,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들이 눈에 띄네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들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학생 스스로도 읽으면서 파악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선택률	1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1인칭 시점이니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는 맞는데,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해설	지금 서술자인 '나'는 작품의 이야기 내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범'의 행동을 추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굉장히 주관적이네요.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선택률	7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기범'이라는 인물 평가하는 거 맞네. 관념적? 음,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추상성이 두드러지니까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
해설	고르지 못했다면 아마 '관념적'이라는 어휘를 잘 몰라서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념적'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만홍」, 2014학년도 9월 B형 「광장」에서 정답 선지로 나온 바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나'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니까 ③, ④, ⑤는 읽을 필요도 없네.
해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도 아니고,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나'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니까 ③, ④, ⑤는 읽을 필요도 없네.
해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요설들'은 회상 속의 내용이겠지만 [A]는 '나'의 추측과 평가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나'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니까 ③, ④, ⑤는 읽을 필요도 없네.
해설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는 것은 맞지만 ③, ④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아니라 틀립니다.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죠. '기범'은 이미 죽었는걸요.

19.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 더구나 이러루 들 어오시자 머리를 쥐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 모두 썩 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찌먼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 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 <보기>에 기반하여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선지로 가봅시다.

① ㉠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범이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인 거 맞고, 그 눈물 때문에 긴장했다는 거니까 충분히 맞네.
해설	지문을 해설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울려고 하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겠죠? '이러다 무슨 짓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긴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가 왜 긴장을 했는지 '공감'했다면 쉽게 지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② ㉡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자'가 '기범'의 신원을 미심쩍어한 거 맞고, '더구나'라니까 머리를 쥐고 수염을 기른 외모가 의심을 가중한 것도 맞겠네.
해설	도시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깊은 산골에 들어오고, 생긴 것도 특이하니까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위에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판단하셨으면 쉽게 지워냈을 것 같네요.

③ ㉢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범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상한' 눈이라고 표현했으니,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 맞네.
해설	해당 부분은 기범의 '묘한 철학'에 대한 '저'의 평가입니다. '저'는 기범이 하던 얘기를 '나'에게 전하면서 나름의 추측과 평가를 곁들이고 있죠. '저'는 그러면서도 이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상한 눈'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④ ㉣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선택률	77%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약속한 적 없잖아?
해설	'일규'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은 누구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결심이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의 '놀라움'이라는 감정 역시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⑤ ㉤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범은 자기가 미련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저'는 기범이 미련하게 산다는 뜻이 착하게 산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니까, 우호적인 해석 맞네.
해설	'미련'의 표면적인 뜻은 어리석고 멍청한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기범이 말한 미련한 삶은 남들을 위해 사는 착한 삶이었다고 '저'는 말합니다.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다른 숨은 뜻도 파악했고, 기범에 대해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2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কে번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묘한 철학을 지나구 계셨습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꼈었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한다.

- ‘묘한 철학’과 ‘요설들’은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둘의 시점이 다릅니다. ㉠은 산골에 온 후에 기범이 ‘자’에게 한 얘기고, ㉡는 일규의 장례식에서 기범이 ‘나’에게 한 얘깁니다. 실제 문제는 이 둘의 내용적인 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① ㉠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선택률	5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범의 ‘묘한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뭔가 기범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지.
해설	‘자’가 설명하는 기범의 ‘묘한 철학’을 듣고, ‘나’는 가슴에 무언가 진동을 느끼며,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기범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묘한 철학’에 대한 얘기가 열쇠가 되어 이후에는 기범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허용 가능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의 [A] 부분이 바로 이 대화를 통해 기범에 대해 ‘나’가 이해한 내용이고요. ‘나’가 느낀 ‘가슴의 진동’에 공감하여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알려주는 선지네요.

② ㉡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자’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가 먼저 ‘묘한 철학’ 얘기를 꺼냈고,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닌가? 오해도 딱히 안 보이고..
해설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범을 이해하기 위해 ‘묘한 철학’ 얘기를 묻습니다. ‘자’가 기범에 대해 무언가 오해를 하는 장면도 없고, ‘나’의 의도도 오해를 풀려는 것이 아니니 바로 지우면 되겠습니다.

③ ‘자’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선택률	13%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가 ‘나의 생각을 눈치채는 장면은 없는 것 같은데?’
해설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요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요설들’은 기범이 일규의 장례식에서 했던 얘기들이고, ‘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④ ‘자’가 ㉠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선택률	26%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는 딱히 기범을 오해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해설	‘묘한 철학’은 ‘자’가 기범을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한편 ‘나’는 과거의 ‘요설들’을 ‘묘한 철학’ 얘기를 전해 들은 것과 더불어서 기범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뒷부분은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자’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에서 ㉠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는 애초에 ‘요설들’의 내용을 모르잖아.
해설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에서 ㉠로 변화된 과정과 비슷하다는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합니다만, 이 과정을 ‘자’가 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자’는 기범이 산골에 내려온 뒤의 일만 아니까요. 애초에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습니다”라는 대사가 명시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에 대한 해설은 지문 해설에 앞서 했으니, 바로 선지로 가겠습니다. 지문을 제대로 독해하셨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범이 일규를 동일시하려고 했다는 건 맞고, 일규가 죽었으니 부재한 것도 맞고, 거기서 충격을 받았단니가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도 맞네.
해설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보지 않아도, 선지만 보고 지워내야 하는 선지입니다. 일규의 죽음이라는 중심적인 사건이 기범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기범이 산골로 내려가 '미련하게' 사는 원인이 된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면서 읽어야하겠죠.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를 발길로 걷어찬 사람이 자기랑 서로 사랑했다고...? 그냥 외면당한 기범이 자기를 합리화하는거네.
해설	<보기>에서는 동일시의 상대방부터 외면을 받으면 자기가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발길로 걷어차였다는 것을 '외면'으로, 일규가 자기를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지네요. 2021학년도 수능의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도 그랬지만, 현대소설 <보기> 문제는 <보기>의 워딩과 대응되는 지문의 내용을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문의 '재미와 기쁨'은 <보기>의 '심리적 위안'을 말하는 것 같네.
해설	기범은 일규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심리적 위안을 얻은 것이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동일시하려던 일규가 죽었으니 슬펐을 거고, 산골로 간 것도 일규의 부재로 인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네.
해설	<보기>에 따르면 자신이 동일시하는 대상으로부터 외면받거나, 그 대상이 부재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그 대상을 부정하거나, 자신이 외면당한 게 아니라고 정신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돌려서 아예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기범이 산골로 온 이유는 '나와 '저' 모두 정확히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어찌 되었든 일규의 죽음이 원인임은 허용해야 합니다. <보기>에 근거하여 읽는다는 원칙을 따라도 그렇고, 지문 내에서 인물들의 추측을 따라도 그렇죠. 일규의 죽음 때문에 '깊은 산골'에 정착했음을 허용한다면 그 내용을 <보기>와 연결지어 선지를 소거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하겠군.

선택률	7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존경심...?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은 딱히 일규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지 않나? 성취감은 더욱 허용이 힘들겠는데?
해설	우선, 기범이 '나'에게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존경심의 표현인지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원이 '라면'으로 선지 속에서 가정하는 내용을 틀리게 한 적은 거의 없으니, 뒷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뒷부분의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의 내용을 보면,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는데, 이 건 일반적인 인간 전체에 대한 얘기지 딱히 동일시의 대상인 일규에 대한 얘기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일규와의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더욱 허용할 수 없겠구요.

어휘 정리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도회지 :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
‘도회’, ‘도시’와 비슷한 뜻.

예 도회지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그와 맞지 않았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 괜히.

예 그는 공연히 고집을 부린 과거의 모습을 반성했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구책 :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

예 요컨대 그가 넘치는 열등감 속에서 책을 펼친 것은 하나의 자구책이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각 인물에게 ‘공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③ <보기> 독해 : 2021학년도 수능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도 그랬지만, 최근 현대소설은 <보기>를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기>에서 나온 단어는 <보기>에서 나온 의미로만 생각하면서 비문학 풀 듯 지문의 내용과 연결시켜 읽어야 합니다.

④ 대사 독해 :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내용이해의 기본입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중략) 이후의 대사를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지만, 늘 하던 대로 포인트만 챙겨서 독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2~27] : 고전시가&수필 '유객 / 울리유곡 / 조어삼매' ☆☆☆

1 <보기> 확인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공간'에 대한 내용인데, 작품 내용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선지를 고를 때 봐도 되겠네요.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이런 <보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체크하면서 읽어야겠죠?

2 문제 검토 → 풀이 순서 결정

문제	특징	순서
22번 문제	적절+전체 (가)(나)	6
23번 문제	적절x+부분 (가)	1
24번 문제	적절x+부분 (다)	3
25번 문제	적절+부분 (나)(다)	5
26번 문제	적절+부분 (다)	4
27번 문제	적절x+부분 (가)(나)(다)	2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풀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문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특정 맥락만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22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적절x 먼저', '(가) 먼저'의 원칙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실천적 지문 독해

(가)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불 산 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세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오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벚꽃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蕪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u>나의</u>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봄의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즐기는 모습입니다. 자연에서의 풍류를 말하는 전형적인 작품이네요.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타나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냐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환들 이 강산과 바꿀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 흔들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꺾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최 행수 쑥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달뽕 계뽕 올버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욱, 「울리유곡(栗里遺曲)」 -

* 수졸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이 작품 역시 (가)와 마찬가지로 강호에 대한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독해를 좀 한다면, 화자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서 읽어야겠죠? '수졸전원', '청흥' 등이 화자가 자연에 사는 삶을 나타내는 시어고, '삼공', '만호후'는 속세의 가치를 나타내는 시어,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는 속세의 부정적인 속성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어로 쭉서 쉽기도 했고, 그냥 쓱 읽어도 되는 지문이에요.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시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어졌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폐막에 오지 않는지라, 팔힘 자라는 대로 낚시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저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떨어 들어간다.

'웁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어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히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

나 보다.

[B]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봉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체 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 뒤승승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戯)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나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욱을 한 적도 있었으나,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수필은 처음 읽을 때 전체적인 흐름만 쫓 읽고, 선지에서 상세한 내용 일치 여부를 물을 때는 그 부분만 찾아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전체적인 내용만 훑어봅시다.

화자는 '추풍강산'으로 가서 낚시나 하면서 살고자 하여, '풍진 세상'을 등지고 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A]와 [B]를 보면 낚시도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고기는 안 잡히고 방게나 개구리만 잡혀서, 화자는 기분이 매우 나빠집니다. [B] 이후에는 서재에만 있는 것도 잘 안되고, 거리로 나가서 서성이는 것도 싫고, 다시 서재로 오면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오는... 자신의 복합적인 심경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산벽촌(자연)에 살던 '고인(옛 사람들)'들에 대한 공감을 보여 주며 끝나네요. 요 정도 읽으면 문제 푸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4 실전 문제풀이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이 순서 : 6)

- 표현법을 중심으로 두 시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는 낼 수 있는 선지가 제한적입니다. 기출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다 어디선가 본 느낌일 거예요! 실전에선 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시적'인 선지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선택률	26%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거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교훈...?
해설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말할 뿐 특별히 '교훈'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자연물'만 보고 신나서 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교훈'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 오셔야 해요!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거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없는데?
해설	(가)에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은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는 맞으나 설의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는 정말 많네요. 설의법이 쓰인 부분들 모두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즉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제시하고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선택률	10%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미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어... 못 찾겠는데... 다른 선지들 먼저 보자.
해설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 '원경에서 근경' 류의 선지는 옳은 선지로 나온 적도 드물고, 찾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나중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찾아봐도 (가)와 (나) 모두 보이지 않네요. 또, 두 시 모두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시이고 심리의 변화는 체크한 적이 없으니, '심리의 변화'를 근거로 지우셨어도 좋습니다.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미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적 갈등 없었잖아?
해설	(가)와 (나) 모두,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과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선택률	4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거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에 대한 작품들이나 자연의 모습은 당연히 있겠지? 대강 계절하고도 부합하는 것 같네.
해설	고전시가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는 처음 읽을 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봄 산'이 나왔고, 뒤에 산새의 모습이나, 내에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 등을 그러한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어요. (나)에서는 '살구꽃'을 보면 계절과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구체적인 꽃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는 보통 계절까지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풀이 순서 : 1)

- 작품을 처음 볼 때 대략적인 느낌을 파악했다면, 세세한 내용을 묻는 선지는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돌아갈 '부분'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타나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지고 돌아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 수출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선택률	1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초장과 중장이 뭐 애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밤 마을 옛 이름'이라니까 지명은 맞는 거 같고, '수출전원'은 화자의 지향 맞으니까 패스!
해설	'도연명'은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유원십이곡」에 나왔는데... 사실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도연명'의 이름과 '연명'이라는 지명('옛마을'이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했죠?)이 같다는 얘기라는 것만 파악하셨으면요! '수출전원'이라는 '자연'이 화자의 지향을 드러낸다는 건 당연한 말이구요.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돌아갈 '부분'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 훔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의 가치는 당연히 부각할 거고, '청흥' 있으니 흥취도 허용!
해설	'삼공'과 '만호후' 같은 속세의 가치와 대비하여 자연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자기가 조각배에 타서 낚시대를 던지는 '청흥'은 속세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좋다는 얘기죠.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돌아갈 '부분'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제10곡>
--

선택률	68%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연물에 대한 연민...? 그런 강한 정서적 반응이 있었으면 내가 체크했겠지?
해설	'이대도록 시원하랴'의 부분을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자연물에 대한 연민과 같은 큰 반응은 없죠? 굳이 해당 부분으로 안 돌아가도, 이 선지만큼은 보자마자 골라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돌아갈 '부분'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선택률	7%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가 연속적으로 행위하고 있고, 따라서 생활의 일면은 당연히 제시되었겠지?
해설	가지를 꺾고, 낚은 고기를 꿰어 들고, 다리도 건너는 거 보니 다양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거 맞네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화자의 생활상을 보여 주기도 하고요.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돌아갈 '부분'

최 행수 썩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달짬 게짬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선택률	1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초장 보니까 청자 호명 있고, 뭐 재밌는 거 하려는 것 같으니 즐거움 함께하려는 것도 맞네.
해설	'최 행수', '조 동갑'이라는 청자들을 부르면서 '썩달임'과 '꽃달임'을 하자고 하네요. '달짬', '게짬' 같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겁게 놀고자 합니다. 종장에서는 뽀로로처럼 매일 이렇게 놀면서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풀이 순서 : 3)

- 수필 문제에서, 특정 부분을 찾아서 푸는 문제는 처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고, 나중에 선지를 판단하면서 앞뒤 맥락을 확인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돌아갈 '부분'

㉡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본의 아닌 생활'을 그만두고 '강상의 어객'이 되겠다니까 허용할 수 있겠네.
해설	'궁핍을 면할 양은, 굶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속세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본의 아닌 생활'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게 '속사'이기도 하고요. 화자는 이런 속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강상'으로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고 합니다. 뒤의 내용까지 읽으셨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네요.

㉢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돌아갈 '부분'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선택률	7%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찌'랑 '나'의 관계가 있고, 낚시를 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허용할 수 있겠네.
해설	'찌'라는 낚시 도구를 '객'으로, 글쓴이 스스로를 '주인'으로 설정하여, 속세를 등지고 서로 우정을 나눈다고 비유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③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돌아갈 '부분'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열심히 낚시하고 있다가 뭔가 걸렸으니까, 기다렸던 것도 맞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맞네.
해설	글쓴이는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엄청 집중해서 찌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찌가 딱 흔들리는 순간에 큰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 뒷부분을 보면 실제로 걸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방계랑 개구리였지만, 저 시점에서는 '찌가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기대에 부응한 것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죠.

④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돌아갈 '부분'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선택률	7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재에 있다가 율화가 터져 나온단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은 말도 안되네.
해설	낚시가 잘 안되니까 ㉡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장이 포함된 문단을 보면, 결국 효과가 없었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줬다는 이야기는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독해력'이에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돌아갈 '부분'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옛날에는 욕하다가 이제는 동감하게 됐다고 하니, 마음가짐 달라진 것도 맞고 자기 심경을 드러낸 것도 맞네.
해설	글쓴이는 속세의 일을 등지고 낚시나 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막상 낚시도 잘 안됐죠? 「조어삼매」의 자연은 마냥 행복한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 (나)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글쓴이는 당연히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고, 예전에는 욕하던 '그네의 심경'을 이제는 공감하게 됩니다. 그들, 고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우한 심정'이었겠거니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이 순서 : 5)

-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면 (나)를 읽고 선지의 (나)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다)를 읽고 (다) 부분 체크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지만,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니 급급적 둘 다 읽고 선지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빨랐을 것 같습니다.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돌아갈 '부분'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타나 밤따울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 수출전원 :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돌아갈 '부분'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공평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선택률	5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서는 '그와 내가 다르랴'라고 물었으니 자기 '도연명'하고 같다고 말한 것 같고, (다)의 글쓴이는 '판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사니까 둘 다 행적을 따르려고 하는 거 맞네.
해설	(나)는 '도연명'이라는 과거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출전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편 (다)는 '판교'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면서 것처럼 '추풍강상'에 가서 살겠다고 하니 이 역시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돌아갈 '부분'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매에 달을 싣고 낚시대 훑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돌아갈 '부분'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틀리는 소식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선택률	2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격 파산자'가 높은 지위는 아니지 않나?
해설	'삼공'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만흥」에도 나오는 관직의 이름이고, 세속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에서는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의 '성격 파산자'는 괜히 거리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에서는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돌아갈 '부분'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께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돌아갈 '부분'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화자와 글쓴이가 스스로와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
해설	'세버들 가지'는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는 맞지만, 화자가 스스로와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수한 한 폭 대'는 어떻게 허용하려면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부분에 확실한 답의 근거가 있다면 애매한 부분으로 고민 하진 맙시다!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돌아갈 '부분'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은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돌아갈 '부분'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꼭 엉겼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시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의 화자는 그냥 자연에서 고기 낚고 즐겁게 지내는 거 같은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했다니... 허용하기 힘들겠네.
해설	(나)의 '고기'는 자연에서의 화자의 자족감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절대 선지의 내용을 허용할 수 없죠. 한편 (다)의 글쓴이는 낚시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송사리 떼'밖에' 안 온다고 말하고 있으니,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비유했다고 생각하면 허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돌아갈 '부분'

최 행수 축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달뽕 게짬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오라 <제17곡>

돌아갈 '부분'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억압하는 존재 같은 거 안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애초에 (다)의 '욕'은 글쓴이가 옛날 사람들에게 했던 건데?
해설	(나)의 화자는 자연에서 살면서 '시름'이 없다는 것이 요지죠? '시름'을 야기하는 '억압하는 존재'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의 '욕'은 심지어 글쓴이가 '고인'에게 했던 건데, 이게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내용은 더욱더 허용할 수 없겠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이 순서 : 4)

- 어떤 상황인지,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화자가 어떤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지만 체크하면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가 낙관적이라기에는 글쓴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해설	'경이감'은 뭔가 놀랍고 신기한 거, 그중에서도 기분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A]에서 그런 걸 찾아보기는 어렵죠? [B]는 딱 봐도 불만이 많아 보이고, 비관적인 느낌이 드네요.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력감은 있어도 딱히 해소된 느낌은 없지 않나?
해설	[A]에서는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이' 잘 안 되고 있으니 무력감을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선택률	8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에서 낚시 잘 안돼서 실망하고, [B]에서 한탄하고 있으니 맞네!
해설	[A]에서 제대로 된 고기를 못 낚아서 실망한 화자는 [B]에서 고기들이 자기 체면을 안 살려준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새로운 이상'...은 없잖아?
해설	[A]에서 낚시를 사실상 실패했으니 상실감은 있겠지만, [B]에 새로운 이상 같은 건 없죠? 앞선 선지들 해설에서 말했듯 굉장히 비관적이고 한탄하는 태도예요.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혐오감은 잘 모르겠고, '겸손한 반성'은 확실히 없네.
해설	[A]에서 '방계'나 '개구리', 또는 낚시를 실패한 글쓴이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억지로 허용해 볼 여지는 있었으나, [B]에 뭔가 반성이나 겸손한 태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네요.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풀이 순서 : 2)

- <보기>의 내용 대부분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의미심장하네요.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간을 추론하라는 얘기고, 즉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에 대한 추론은 아예 얼토당토않은 것만 아니면 가급적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선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① (가)의 '신선 골짜'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돌아갈 '부분'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신선 골짜'이 지향하는 공간인 것은 당연하고, '백 년 근심'이 있다가 사라진 거니까 그걸 유발한 공간도 존재하겠네.
해설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운 공간인 '신선 골짜'으로 들어가고, '신선 골짜'이라는 공간이 화자의 '백 년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백년 근심'을 야기했던 공간도 있었으리라 전제할 수 있고, 아마 속세의 공간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나)의 '낮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돌아갈 '부분'

세버들 가지 꺾어 낮은 고기 꺾어 들고 주가(酒家) 를 찾으려 낮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 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

선택률	56%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가'는 화자가 찾는 공간이니까 좋은 거고, '온 골'은 살구꽃이 저서 좋은 공간인데... 둘이 대비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설	일단, '주가'와 '온 골'이 대비된다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공간이 다른 공간이긴 하지만, 둘 다 화자가 좋아하는 공간이잖아요. 또, '낮은 다리'가 둘 사이의 '경계'라는 표현도 이상해요. '주가'는 낮은 다리 너머에 있는 것이고, '온 골'도 낮은 다리를 건너서 본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둘 다 낮은 다리 건너편에 있는 것이니 '경계'를 근거로 답을 골라낼 수도 있겠네요.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돌아갈 '부분'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제10곡>
--

선택률	1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가 있는 곳은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의 공간일 것이고, '이대도록 시원하랴'는 자연에 온 것에 대한 반응이니까 맞네.
해설	(나)의 화자는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를 내던지고 자연으로 돌아옵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가 있는 곳은 당연히 속세일 테고요, 이런 자연에 온 자기 기분이 매여있던 새가 날아가는 것보다도 시원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대도록 시원하랴'는 설의법을 통해 자연에 온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읽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히 자연이라는 공간이 이런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이겠죠.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돌아갈 '부분'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기를 낚는 취미가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한 뒤 '못가'로 갔으니 '삼매경'에 빠지는 것을 기대했다고 허용할 수 있겠고, 이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니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해설	(다)의 글쓴이는 '판교'처럼 자연에서 고기를 낚으며 '삼매경'에 몰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결과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로 향한 것이죠. '삼매경'은 자연에서의 몰아일체, 즉 글쓴이 스스로의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못가'는 그와 직결된 공간임을 쉽게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돌아갈 '부분'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선택률	2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 서재'를 고른 이유가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해서인 건 맞고, '내 서재'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새로운 공간을 원할 수도 있겠네.
해설	화자가 서재로 향한 이유는, 밖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심사 틀리는 소식'밖에 없었기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서재에 있는 것도 마냥 좋지만은 않고,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는 반응을 야기하게 되죠. 글쓴이가 원하는 새로운 공간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도(글쓴이 스스로도 모를 겁니다), 심사 틀리는 소식도 없고, 율화 터질 일도 없는 어떤 새로운 공간을 지향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휘 정리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삼매경 :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

예 애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 **삼매경**이야.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벽촌 : 구석진 곳에 있는 마을.

예 그는 **벽촌**에 처박혀 책 쓰는 일에 몰두했다.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표상하다 :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낸다.

예 그의 그림은 자신의 외로움을 **표상**한 것이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자연 vs 속세 : 고전시가에서 가장 빈번하고, 따라서 가장 만만한 주제입니다. 보통 자연은 좋고 속세는 피곤하다는 식으로 독해하면 되지만, 「조어삼매」나 「누항사」같은 일부 문학 작품들은 자연이 마냥 좋지만은 않고, 나름의 힘듦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크게 파격적이지 않은 구성이었습니다. 각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잘 체크하면서 읽으셨으면 무난하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8~31] : 고전소설 '채봉감별곡' ☆☆

① <보기> 확인

— <보 기> —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능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시간 표지'에 대한 내용인데, '또한' 이후의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내용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산문을 읽을 때 원래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니 바로 지문 읽어봅시다.

② 지문 독해

[**앞부분의 줄거리**] **김 진사**의 딸 **채뫼**은 선비 **필성**과 정혼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김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전년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하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고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에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뫼를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헌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칭찬하며 왈,

"가위 여옥기인(如玉其人)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접하(承上接下)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민원(民怨)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필성이 국공수명(鞠躬受命)*하고 차후로 공사 문첩(文牒)*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어찌 알리오.

차시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하루는**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예를 드나드나.'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갈리었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압암**이 기꺼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 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이미 **반년**이라.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 국공수명 :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이며 분부를 받음.

* 공사 문첩 :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

이번에도 [앞부분의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먼저 '채뫼'와 '필성'이 이별한 상황을 알 수 있고, '송이'는 곧 '채뫼'와 같은 인물임을 미리 체크할 수 있네요. '필성'과 이별한 '송이'의 적절한 사랑 이야기가 제시되었죠? 읽어봅시다.

'송이'가 '부모'와 '필성'을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네요. 이를 알게 된 '필성'은 '채뫼'가 '감사'의 눈에 들어 별당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고, '송이'와 재회하기 위해 공청에 이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공사 문첩을 쓰기 시작하는데, '송이'는 그 글씨체를 보고 '필성'이 공청에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지요. 그런데 '감사'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서, '필성'과 '송이'는 반년 동안이나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실제로 재회하지는 못해요. 예상한 대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셰처럼 익숙한 내용으로 보여야 해요. 전형적인 '애정 소설'이니까요.

이때는 **추구월(秋九月) 보름** 때라. 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공중에 외기러기 웅웅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붙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A]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는고.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튼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낙천(萬古文章白樂天)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흙 썬 갈고 청황모 무심필을 덩벽 풀어 백룡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장우단탄(長吁短歎)에 맥맥히 앓았다가 고개를 돌리어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두견이 슬피 울어 붙여귀를 화답한다는 부분은 2020학년도 6월 모의 고사 '조웅전'에서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붙여귀를 일삼았다'라는 부분과 유사합니다. 자연물이 '슬피' 운다고 표현하는 점, '~ 오죽할까'라는 추측을 보면 서술자의 개입도 찾아볼 수 있고요. [A]에서 서술자의 서술 부분은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했더라도, 자연물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심화시킨다는 느낌만 파악하셨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송이’는 이내 달에게 말을 걸면서 ‘임(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여기서 달은 인격화된 대상이면서 송이의 외로움을 드러내게끔 돕는 소재죠. 그러다가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고 말하며 종이에다가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글로 풀어내고, 그 제목을 ‘추풍감별곡’이라 짓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과도 연결되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떨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몽(晝思夜夢) 꿈이 되어 장주(莊周)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 좇아 중천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적막 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答詩)를 내놓고 보며 울고 울고 보며 진진반축 누웠거늘,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다.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물론(上下勿論)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이때 이 감사는 연광도 팔십여 세뿐 아니라, 일도방백(一道方伯)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은(國恩)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더니, 홀연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가 나이 십팔 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하 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우어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거늘, 마음에 괴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본즉 ‘추풍감별곡’이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채봉은 추풍감별곡을 쓰다가 잠에 듭니다. 그리고 꿈에서 필성을 만나서 마주 울고, 잠꼬대로 울음 소리를 내죠. 이때 나이가 들어서 밤잠이 없는 감사는 송이(채봉)의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들어가서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채봉이 쓰던 ‘추풍감별곡’을 읽게 되죠. 아마 뒷부분에서는 감사가 이를 통해 채봉과 필성의 사연을 알고 돌을 돕는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감사’는 밤새 나랏일을 걱정하는 착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3 문제풀이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이니, 처음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며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①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다.

선택률	6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모 생각이 아니라, 필성 생각을 하다가 꿈에서 울어서 감사가 걱정할 거 아닌가?
해설	감사가 송이(채봉)의 사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송이의 ‘흐느껴 우는 소리’ 때문이고, 송이가 흐느껴 운 이유는 필성을 그리워하다가 꿈에서 그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송이는 필성과 재회하고 싶어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 것이지, 부모의 소식이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네요. 애초에 ‘송이’가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연인과 이별이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1초만에 답을 고를 수 있었겠네요.

②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글씨를 보고 눈치를 챘다가 감사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받았지? 근거가 있으니 확실히 허용할 수 있네.
해설	송이는 ‘공사 문첩’을 보고 글씨체가 필성의 것임을 알아차리고, 감사에게 혹시 이방이 바뀌었냐고 물어 봅니다. 감사는 장필성이란 사람이 이방이 되었다고 말하며 송이의 생각이 맞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근거가 있으니 충분히 쉽게 허용할 수 있겠죠?

③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선택률	1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글 잘 쓴다고 칭찬한 부분이 있었으니 맞겠지.
해설	감사는 ‘대회하여’ 필성을 칭찬하고, 그를 ‘여욕기인’이라고 추켜세웁니다. 또 송이한테도 필성이 글씨를 잘 쓴다는 점을 언급하는 점에서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기대를 건다는 선지를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선택률	1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꿈에서 필성 만났었지.
해설	송이는 꿈에서 나비같이 날아다니다가 필성을 보고 달려듭니다.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 것이 맞죠. 고전 소설에서, 꿈 속의 일은 문제로 거의 반드시 출제되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처음에 소설을 읽을 때부터 주의하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⑤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선택률	1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숨기고 있으니까 서로 못 만나는 거 아니야?
해설	필성과 송이는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 올지 몰라' 두려워서 만나려는 시도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년 넘게 서로를 그리워하죠. 감사는 이들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니 허용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2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차지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서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하루는 ㉠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어를 드나드나.'

'지금 송이가 나이 십팔 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하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우어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거늘, 마음에 괴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 두루마리를 펼치고 본즉 '추풍 감별곡'이라.

- ㉠는 송이가 필성이 공청에 왔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소재였고, ㉡는 송이가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로서 감사가 송이의 사연을 알아차리게 하는 소재였죠. 처음 읽을 때 이 정도만 파악했다면 문제도 쉽게 풀렸을 것 같네요.

① ㉠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된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감사가 뭐가 눈치채고 그런 장면은 없었잖아?
해설	㉠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감사는 송이에게 필성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뿐, 스스로가 뭐가를 눈치채지는 못합니다.

② ㉠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를 통해 필성에게 뭐가를 알리는 장면은 없는데?
해설	㉠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는 것은 표현이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필성과 글씨체가 같은 사람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고 보면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는 그냥 송이가 달을 보다 마음이 답답해서 적은 것이지, 누군가에게 뭐가 알려려고 적은 것은 아니었으니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③ ㉠를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에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선택률	7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어... 맞네.
해설	앞에서 정리한 내용 그대로네요. 사실 선지를 안 보고도 학생 스스로 ㉢번 선지처럼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지문을 제대로 읽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④ ㉠를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필성이 ㉠를 전달받았다고...? 그리고 ㉡는 필성이 아니라 송이가 쓴 거잖아.
해설	㉠는 필성이 써서 송이가 본 것이고, ㉡는 송이가 쓴 것입니다. 각 문서를 쓴 주체를 완전 뒤집어놨네요.

- ⑤ ㉔를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㉕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㉔에서 특별히 '의지'는 못 찾겠는데...?
해설	㉔를 보고 필성의 존재를 알아차리긴 했지만, 그가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애매하네요. ㉕는 송이가 자신의 마음을 적은 글이긴 하지만 '의지'라기보단 '그리움'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애초에 송이는 필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30. [A]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송이가 사람에게 말을 걸듯 '달'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는 점,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달을 보며 표현했다는 점을 확인하셨나요? 그럼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 ①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선택률	55%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음... 필성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해설	필성을 보고 싶어한다는 내용은 많지만, 그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허용할 수 없겠네요.

- ②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외기러기 소리, 두견이 우는 소리 등 소리도 있고, 달과 함께 뭔가 외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
해설	외기러기 소리, 두견이 슬피 우는 소리 등을 듣고 송이는 '있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집니다. 자연물의 소리가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것 맞고, 달빛을 보고 탄식하며 고조된 감정을 토로하고 있으니 달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 ③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상태이다.

선택률	1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달한테 자기 얘기하니까 허용 가능.
해설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쉽게 허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달이라는 무정물에 감정을 토로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아닌 것에 인격화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④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선택률	1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뜯던 여인'의 이야기랑 자기를 대조시켜서 자기 연민을 드러내는 거 맞네.
해설	송이는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뜯던 여인'은 '백낙천'이라는 임을 만나서 하고 싶던 말을 다 했지만, 자기는 그러지 못한다고 말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사를 통해 자신의 비극적인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이죠. 고전 소설은 아닙니다만, 고전시가 「규원가」 같은 경우에도 <천상의 견우적녀 은하수 막혀서도 칠월 칠석 일 년에 한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건만, 우리님 가신 후에 무슨 약수가 가리고 있기에 오고 가는 소식조차 그쳤는가?>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의 표현법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 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작년 이때'의 추억을 떠올리고, 만나지 못하는 처지를 부각하니 허용할 수 있겠네.
해설	송이는 달에게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에 필성을 만났던 추억을 얘기하다가, 임을 볼 수 없는 자신을 가련하다며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한탄하고 있어요.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평소에도 피렘 문학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선지를 고르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보기>이니, 헛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잘 공부해봅시다.

㉠ ㉠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헌신하니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여러 가지로 주선했다니까 애쓴 거 맞고, 그 시기에 이방 선발이 있었으니 맞는 것 같네.’
해설	감사가 이방을 구하는 사건은 우연적일 수 있지만, 필성이 감사 근처의 관속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건과 ‘이때 마침’ 맞물리면서 개연성을 부여한다... <보기>에 근거해서 보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죠? 이런 문학 <보기> 문제에서는 <보기> 자체의 내용이 가장 큰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보기>에 나타난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선지는 좀 더 관용적으로 해석하셔도 좋아요.

㉡ ㉡은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

차지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하루는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전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어를 드나드나.’

선택률	1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서 필성이 공청에 들어왔다는 중요한 정보가 드러났고, 송이가 필성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뒤에서 더 커지니까 허용할 수 있겠군.
해설	㉡의 ‘하루’는 송이가 ‘공사 문첩’을 보고 필성이 공청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사건과, 감사와의 대화를 통해 그러한 가능성이 확신으로 바뀐 사건이 발생한 시간입니다. 이 두 사건 이후에 송이는 필성을 더욱 보고 싶어 하며 ‘상사방’에 걸릴 지경이 되죠.

FAQ

Q : 서사적 ‘전환’이라고 했는데, ‘전환’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A : 결국 <보기>가 핵심입니다. <보기>에선 ‘서사적 정보’가 ‘장면의 전환’에 관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서사적 전환’이라는 말은 곧 ‘장면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을 기점으로 ‘송이의 평범한 일상’에서 ‘필성의 공청 입성’을 알게 되는 날이라는 장면으로 바뀌었으니, ‘전환’을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기>가 준 정보는 절대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 ㉢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낸다.

“㉢ 요사이 공사 들은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으니 이방이 갈리었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선택률	6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요사이’는 공사 문첩의 글씨가 달라진 시기인데,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
해설	지문에 나타난 타임라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이(채봉)와 필성 이별 2.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공청의 일을 돕게 함 3. 필성이 이방으로 들어옴 4. 송이가 필성의 존재를 알아차림 5. ‘추풍감별곡’ 작성 지문의 ‘요사이’는 3번 사건과 4번 사건 사이의 일이고, 선지의 ‘과정’은 1번 사건과 2번 사건 사이의 일이지요. 막 어렵지는 않으나, 독서처럼 객관적 표지에 집중하여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④ ㉔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면서,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꺼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㉔이미 반년이라.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선택률	7%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이 공청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만나지 못한 게 반년이나 지났다고 하고, 뭐 그럼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했다는 것도 허용 가능하겠지?
해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속으로 어떻게 볼지를 궁리하나, 결국 송이와 필성은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 시간은 '상사병이 될 지경'의 그리움을 함축한 서사적 정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⑤ ㉔은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 짓게 하는 한편,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지한다.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물론(上下勿論)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㉔이때 이 감사는 연광도 팔십여 세뿐 아니라, 일도방백(一道方伯)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은(國恩)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더니, 홀연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선택률	1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감사가 ㉔의 시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나왔고, 잠이 안 와서 백성과 국가를 생각했다니까 사람됨과 관련지는 거 맞고, 흐느껴 우는 송이를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도 맞으니... 맞네!
해설	바로 위에 쓴 내용 외에 더 덧붙일 것이 없네요. 체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은 귀찮은 선지지만, 바로바로 찾는 것에 큰 불편함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어휘 정리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꺼하며,

기겁다 :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다.

㉔ 그는 기꺼워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일을 도왔다.

나는 어찌 박명하역 명량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박명하다 : 복이 없다. 수명이 짧다.

㉔ 동양에 미인은 박명하라는 말이 있다면, 서양에는 27 Club이 있다.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거행하다 : 명령을 따르다.

㉔ 그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거행하는 일종의 비서관 역할을 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 합니다.

② 고전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고전소설에선 특히 '누가'에 주목합니다. 새로운 호칭이 나오면, 정말로 새로운 인물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③ 핵심적 소재 : '공사 문첩'을 통해 송이가 필성이 이방으로 있음을 알게 되는 것, '달'을 통해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핵심적 소재는 소설의 서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꼭 문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체크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최고운전」에 나온 '거울'도 그런 예시가 되겠네요.

④ 시간적 표지 : 소설을 읽을 때는 각 사건이 일어난 순서와 흐름을 반드시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통해 독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지문 내용 총정리

요즘 수능 소설은 결국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독해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로 정답이 갈립니다! 피렘 문학에서 강조하는 '문학의 독서화' 경향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32~34] : 현대시 '연륜 / 대장간의 유혹' ☆☆☆

1 <보기> 확인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연륜」의 인생 경험에서 발견된 결핍, 「대장간의 유혹」에서 말하는 결핍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의식하면서 읽고, 이들이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의지하는 표현이 어디인지 체크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2 문제 검토 → 풀이 순서 결정

문제	특징	순서
32번 문제	적절+전체 (가)(나)	3
33번 문제	적절x+부분 (가)(나)	1
34번 문제	적절x+부분 (가)(나)	2

전형적인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33번, 34번 문제를 풀면서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32번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3 실전적 지문 독해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굵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설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저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자신의 삶을 '연륜'으로 표현하면서 돌아보고, 마지막엔 어떤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의하면 이는 '결핍'으로부터의 극복 의지를 의미하겠죠? 자신의 삶 속 '결핍'을 발견하고 의지를 다지는 작품입니다. 자세한 건 선지에서 알려주겠죠?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낮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털보네 대장간」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대상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작품이네요.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 아끼던 대상의 결핍'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현대시는 그렇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극단적으로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예요. 시도 결국 '글'이기에, 하나의 주제로만 이어질 것이고 선지에서 자세한 해석을 해 줄 것이니까요. 그럼 실전적인 문제풀이를 확인하러 가 볼까요?

4 실전 문제풀이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이 순서 : 3)

- 구체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풀어야 하는 문제니까, 다른 문제들을 먼저 풀고 나중에 푸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2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낼 수 있는 선지, 답이 되는 선지가 정해져 있으니 기술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선택률	7%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미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가 막 급박하진 않은데?
해설	(가)의 시적 분위기를 대강이나마 파악을 한다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마지막 연을 보면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은 드러내고 있다.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미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어... 없는 거 같은데?
해설	(나)에서, 화자의 '움직임' 자체를 자연물에 빗대어 드러낸 표현은 없습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선택률	1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미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비취빛!!
해설	(가)에는 '비취빛'이라는 색채어가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나)에서는 찾아볼 수 없네요.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선택률	6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거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너지는' 꽃 이파리,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 하강의 이미지 담겨 있고, 이런 문학 문제에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냥 판단하지 않아도 되겠지?
해설	(가)는 자신의 '서른 나문 해가 꽃 이파리처럼 무너져 내린다고 말하며, 자신의 연륜의 덧없음과 인생 경험에서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똥덩이 같다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삶 속에서의 결핍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화자의 인식'은 무조건 맞는 '거시적'인 선지이기 때문에, '하강의 이미지'만 찾았다면 바로 허용해주시면 됩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거시적>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는 좀 애매한데 (나)는 확실히 없네.
해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너무나 거시적인 선지가 나와서 집중했는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좀 그렇죠? (가)에서 '서른 나문 해야를 의인화된 청자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억지일 것 같은데, (나)에서는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네요.

3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풀이 순서 : 1)

- 선지에서 묻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빠르게 맥락을 '독해'하며 선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돌아갈 '부분'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열렬히' 산다니까... 적극적이네.
해설	(가)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육지에서의 삶과 대비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열렬히' 살겠다고 선언하며 화자는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돌아갈 '부분'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짜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선택률	1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호미'는 하나씩 만드니까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고, 한꺼번에 쓰는 '플라스틱 물건'은 그와 대조되겠네.
해설	'한꺼번에'와 '하나씩'이 대조된다는 것은 혼자 시를 읽으면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선지에서 이렇게 주었다면 쉽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물건과 대조되는 '꼬부랑 호미'는 현대인이 결핍한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지닌 대상이고, 이러한 대조가 그 가치를 더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돌아갈 '부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퐁덩이처럼 느껴질 때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 인생이 '온통 부끄럽다'니까 성찰도, '자신의 삶 전반'도 허용되네.
해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럽다고 했으니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쉽게 허용할 수 있겠죠? 나아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성찰'의 근거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돌아갈 '부분'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선택률	1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에서는 자기 뜻이 '날로' 굳는다니까 뜻을 결핍한 상황이 점점 심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에서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당면한 상황을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벗어나고자 하니까 절박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
해설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날로' 굳는 것은, 연륜이 쌓이며 화자가 무언가 지향하던 바를 '점점' 결핍하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나)에서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겠다는 표현은 충분히 절박한 것으로 허용할 수 있겠죠?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돌아갈 '부분'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선택률	6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서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은 '플라스틱 물건'인데, 자기가 이 물건이랑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차별성이 아니라 '동질성'을 부각시키는 거네.
해설	(가)에서는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라는 표현을 통해 '불꽃'을 긍정적 대상으로 보고, 자신이 그와 동질성을 지닐 것을 의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 자신이 대상인 플라스틱 물건 '처럼' 느껴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아니라 '동질성'을 부각시키네요.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풀이 순서 : 2)

- 3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선지에서 묻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근거'를 잡으며 해결하면 됩니다.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돌아갈 '부분'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선택률	1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른 나문 해'가 화자가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걸 초라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변변치 않다고 말한 거 맞네.
해설	(가)에서 '서른 나문 해'는 '초라한 경력', '연륜'을 쌓아 온 과정입니다. 화자는 이런 자신의 인생이 무언가 결핍했다고 느끼고, 연륜을 버리고 육지를 떠나 섬으로 향하려 하고 있어요.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꿀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돌아갈 '부분'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선택률	3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름 잡히는 연륜'은 부정적인 대상이니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는 게 아니라 '연륜' 자체를 끊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해설	(가)의 불꽃은 33번 문제의 ⑤번 선지 해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이 맞는데, 불꽃처럼 살며 화자가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연륜'이지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화자는 '연륜'을 쌓아온 과정'이 뭔가를 결핍한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육지에서의 경력이나 연륜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연륜'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이고 그 '연륜'에 '결핍'된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대상일 것인데, '불꽃'이라는 긍정적 대상이 그러한 긍정적 대상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불꽃'은 어떠한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는 점을 들어 해결해서도 좋습니다. 맥락을 '독해'해보면, '불꽃'은 화자가 동일시하려는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수단'으로 격하하는 건 허용하기 어렵겠죠.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돌아갈 '부분'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뭐 그렇지.
해설	(나)의 화자의 일상은 현대인의 삶에서 마치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언가를 결핍한 것이고, 이런 결핍을 해소하고 싶은 화자는 '털보네 대장간'을 떠올립니다. '털보네 대장간'은 그러한 결핍이 없는 공간이겠죠?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솔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돌아갈 '부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선택률	1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쇠 낫', '꼬부랑 호미'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이 맞고, 그 상태가 되고 싶다는 것은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겠네.
해설	결핍을 나타내는 시어는 '플라스틱 물건'이고, 그와 대비되는 '무쇠 낫', '꼬부랑 호미'로 걸려 있고 싶다는 표현은 당연히 그러한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돌아갈 '부분'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선택률	3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의 화자는 '섬으로 가자!'고 말했으니, '섬'과 대비되는 '육지'는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 맞겠지? '버스'는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과 비슷하다고 느껴 당장 뛰어내리고 싶은 감정을 느끼는 공간이니 당연히 결핍을 허용할 수 있을 거고.
해설	이 선지의 선택률이 32%라는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선지의 '지나간 시간'은 당연히 화자가 그동안 쌓아 온 '초라한 경력'을 말할 것이고, 화자는 그런 육지에서의 연륜에 결핍을 느끼고 섬으로 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육지'는 곧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에서 화자가 버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보기>에 근거하면 무언가 결핍을 느꼈음을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고요. 핵심은 '독해'입니다. 시도 결국 '글'이기에,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5 지문 독해 연습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서른 나문 해’가 발 아래에 깔린다고 합니다. ‘서른 나문 해’는 화자가 살아온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굵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화자는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있었는데, 이 뜻은 날로 굳어 갔다고 합니다. ‘연륜’ 역시 화자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죠? 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결국 시도 ‘글’이기에, 이런 ‘재진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이러한 화자는 ‘섬’으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섬’에는 그동안의 아쉬운 삶을 만회할 기회가 있나 봐요. 그곳은 정말로 아름다운데, 화자는 ‘육지’에 그동안의 ‘초라한 경력’을 모두 막아 두고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렇죠. 당연히 ‘섬’에서죠!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짜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화자는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버스’에 뛰어내리고 싶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물건’과 ‘버스’ 모두 현대 문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자는 이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현대시는 정말 많이 출제되었으니 이런 식의 독해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이럴 때마다 화자는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어해요. ‘대장간’이라는 말에서 현대 문명과 거리가 먼 곳이라는 느낌이 오죠? 화자의 지향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냇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그 ‘대장간’을 찾아가서 뭐하려고 하나 했더니, 화자 자신이 ‘시퍼런 무쇠 냇’, ‘꼬부랑 호미’가 되어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사실상 앞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같은 말’로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휘 정리

직지사 해우소

해우소 : 절의 변소.

예 요즘 템플 스테이를 위한 절의 해우소도 예전 같지는 않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구심점 :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

예 그가 우리 프로젝트의 구심점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되지만, 실전에서 이러한 '부분적'인 독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 시 전체에 대한 독해가 가능하도록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틀'에서의 독해 역시 34번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빠르게 해내야 합니다.

③ 문학의 독서화 :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독서 문제를 풀 때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독해해서 의미 추출하기' 등의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최근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에요.

지문 내용 총정리

엄청 난해한 시는 아니었던 만큼, 문제에서도 내용적인 이해를 좀 더 깊게 물어본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현대시를 정확히 독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의 시에는 익숙해집시다.

[1~3] : 작문 『서양 미술사』 독서 일지 ☆

시작하기 전에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보여 준 ‘독서’ 관련 지문들의 경우, 크게 ‘독서 전 - 독서 중 - 독서 후’의 순서로 나누어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에 맞추어 정보를 정리하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폼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글쓴이는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읽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고려한 것은 바로 ‘자신의 배경지식’이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서’ 제재 관련 지문들은 ‘독서 전 - 독서 중 - 독서 후’의 순서로 나누어 정보가 제시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독서 전’ 단계와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지식수준을 고려했다!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화제 제시 ☆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폼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첫 문단에서는 그냥 담백하게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라는 책은 어떤 책이고, 글쓴이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나아가 ‘미술’ 그 자체가 아니라, ‘미술가’ 및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는 책이라고 하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일단 이 지문의 발문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가 아닌, ‘다음은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때는 글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험의 1번, 2번 문제를 보면 지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거나 그로부터 답을 내야 하는 형태의 문제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독서 일지’라는 것은 글의 ‘내용’이 아닌 글을 읽고 난 후의 ‘감상’이 훨씬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이 무엇이나보다는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수용’했느냐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책의 ‘내용’은 저러한데, 글쓴이는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며 읽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서 중’ 단계와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수용’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2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주장 제시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화제 관련 정보 제시 ☆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독서 일지’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하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자신의 지식수준을 고려해서 책을 골랐으며 (독서 전), 책의 여러 부분을 비교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독서 중)

3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이번에도 몇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읽었느냐예요. 이 학생은 ‘독서 전’ 단계에서 ‘목차 검토’를 했고, ‘독서 중’ 단계에서는 ‘관심 있는 것부터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독서 일지’라는 화제에 대한 체크가 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3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관련 정보 제시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목차 검토’를 통해 ‘독서’하고 있음이 중요합니다. 책의 내용에 매몰되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재진술 #화제 관련 정보 제시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이 부분은 또 다시 중요한 정보죠? 책의 내용이 반대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부터 읽어나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납득해주셔야 해요.

4문단

① 문단 독해 사고과정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이번에도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주시면 됩니다. 먼저 ‘독서 후’에 생각을 해 보니, 저자의 관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독서 전’에 세웠던 독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관련 정보 제시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화제 관련 정보 제시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 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결국 포인트는 ‘독서 일지’인만큼 ‘어떻게 수용하느냐’였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보를 정리했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③ 문제풀이

1.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즉, ‘독서 전’ 단계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죠. 주요 포인트에 주목하여 잘 읽어봤다면 주관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식수준’ 고려입니다. 물론 ‘목차 검토’, ‘독서 계획 수립’ 같은 ‘독서 전’ 단계의 행동들도 많이 제시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책을 선정한 이후의 행동들이죠? 책을 고르기 전에는 ‘지식수준 고려’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① 자신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선택률	96%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식수준!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어야 해요! 가볍게 답으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②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책인가?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받은 책인가?

④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⑤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믿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선택률	1% / 1% / 1% / 1%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런 말이 언제 나왔냐
해설	애초에 지문에 제시되지도 않은 내용들이죠? 바로 지워낼 수 있어야 해요.

2.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서 일지'에 걸맞는 문항입니다.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어떻게 일어나갔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해봅시다.

①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2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비교했었지.
해설	27장과 서론의 내용을 비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 니다.

②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선택률	1%
명시적 근거	3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목차 검토했었지.
해설	'독서 전' 단계에서, 목차를 검토했다는 것 역시 머 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③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읽는다.

선택률	93%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안 했잖아?
해설	애초에 '경험'을 고려한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분명히 기억이 났을 겁니다.

④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선택률	1%
명시적 근거	4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하루하루 분량 계획 세웠다고 했지.
해설	'독서 전' 단계에서, 하루의 독서 분량을 계획했 다는 것 역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3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관심 있는 부분 먼저 읽었지.
해설	'독서 중' 단계에서, 관심을 두고 있던 르네상스 관 련 부분부터 읽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 역시 머릿속 에 생생하게 남아있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3. 윗글을 쓴 학생에게 ㉠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연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
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
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 정말 화법과 작문 같은 문제입니다. ㉠은 글쓰기가 저자의 관점을 그
대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조연하자면 당연히 '여러 관
점을 살펴야 해.'가 되겠죠? 너무나 허무하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기>부터 확인해볼까요?

<보 기>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
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과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여러 해설을 고려하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당연한 내용이네요. <보기>와 같은 말을 하는 선지가 정
답입니다.

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 여기 있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	2%	1%	1%	95%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발문 독해 : 발문이 특이한 경우, 발문을 통해 '독서 일지'와
같은 주요 정보를 체크한 뒤 그에 맞춰 독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문 내용 총정리

굉장히 쉬웠던 지문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작스러
웠던 지문이었는데, 6월 모의평가에 이어 두 번 연속 출제된 만
큼 수능에서도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6월 모의평가에서
는 '카테고리화'가 핵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발문 독해'가 핵심이
었습니다. 수능 때는 이들을 활용할수도 있고, 아예 색다른 방
향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떻게 나오든 더 효율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능
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4~9] : 사회(경제) '광고의 경제적 효과' ☆☆

(가)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에 대한 지문입니다. '광고'의 어떤 이야기를 하려나 했더니,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독점적/경쟁/시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경쟁'하긴 하지만 '독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라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왜 '독점적/경쟁/시장'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납득하고 가야 합니다. 초반부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의 정의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주시어야 하니까요! 아무튼 생각해봅시다. 먼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독점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적이라는 건 그 차별성이 통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한다는 점에서는 '경쟁 시장'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독점적/경쟁/시장'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납득한 채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각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기 위해 '광고'를 사용한다고 해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을 체크하면서도, '광고'라는 화제를 잊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판매자들은 이렇게 '차별적 인지와 선호'를 만들려고 하고, 이를 통해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납득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신의 제품이 '차별적'이라는 걸 구매자들이 인식해야만 '독점적'이라는 성질을 잘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를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었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가)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정의 제시 ☆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광고'와 '독점적 경쟁 시장'의 관계라는 화제를 제시하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장들입니다. '독점적/경쟁/시

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진술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앞 문장의 재진술입니다.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적용되는 양상인데, '독점적 경쟁 시장'의 정의만으로도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가)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계속해서 강조하는 '독점적 지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에 대한 힘이 있다는 게 그 정의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독점'을 하고 있다면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 그대로 팔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겁니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판매자들은 '가격 결정권'을 위해 '광고'라는 수단을 활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지문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셔야 해요!) 분명히 '광고'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매자의 눈치는 왜 봐야 하는 걸까요? 궁금해하면서 읽어봅시다.

먼저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격 결정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렇게 가격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더 읽어보니, 만약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신규 판매자'들이 '약간 다른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이는 기존에 '이윤'을 보던 판매자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선구자를 따라 많은 판매자들이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는 기존 판매자의 이윤 감소를 낳으므로,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미묘하게 변하는 구매자들의 수요를 최대한 끌어 오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네요. 그래야 최대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결국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각 판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 문단이었습니다.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정말 없죠?

새끼 문제 해설

Q1. (가)의 2문단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약간 다른 상품'과 같은 말을 1문단에서 찾아보자.

정답 :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

간단한 문제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 속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시장의 정의는 잊지 않고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약간 다르다'와 '유사하지만 차별적이다'는 사실상 같은 말이죠?

생각 심화

이러한 독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광고'라는 화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이 내용은 결국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자의 수요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고 싶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 지문의 화제인 '광고'를 생각하면 '독점적 지위 강화'라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가 되겠죠? '화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태도! 확실하게 갖춰주도록 합시다.

(가) 2문단

㉑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카테고리 제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지문의 흐름이 바뀌는 문장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다가, '사실은 구매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재진술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므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재진술 #정보의 역할 ☆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지문의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었음을 알려 주는 문장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 준다는 것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 3문단

㉒ 문단 독해 사고과정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역시 '독점적 지위', 즉 '차별적 인지 · 선호'를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광고'를 통해 '차별성'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해요!

어쨌든, '광고'를 통해 '차별성'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 전달'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이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많은 비용'을 쓴 것만으로도 차별적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문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광고했다면 경쟁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식된 정의를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변화에 따른 상품 수요량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낸다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훨씬 쉽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구매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특정 상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은 것이라

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을 모두 같은 말로 처리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납득'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 합니다. 특히 이렇게 쉬운 지문일수록 말이에요.

새끼 문제 해설

Q2. (가)의 3문단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제시된 것일까?

모범 답안 : '독점적 지위=차별성'을 재진술하기 위해.

모든 정보는 결국 '화제'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정보 역시 '광고가 독점적 지위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화제를 설명한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구매자의 '충성도'라는 개념을 이끌어내면서, 이것이 결국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와 같은 말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같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통해 지문의 흐름을 화제 중심으로 모아주는 독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쉬운 지문으로 느껴지더라도 말이에요!

(가) 3문단

㉑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카테고리 제시 #재진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정의 제시(수식된 정의)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재진술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㉑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정의 이후로 전부 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광고는 독점적 지위 강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나) 1문단

㉒ 문단 독해 사고과정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와 (나)는 한 지문처럼 읽어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에서는 '광고'가 '독점적 지위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했는데, (나)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6월 모의평가부터 '카테고리 나누기'가 핵심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깐요.

아무튼 광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경우는 '판매자 간 경쟁 촉진'입니다. (가)에서는 광고가 '한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나)에서는 광고가 '여러 판매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효과는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꾸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떠올라야겠죠? 앞 문단에 제시된 개념을 다음 문단으로 끌고 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튼, 구매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판매자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크게 변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기 위한 판매자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니까요.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의 진입 정도에 의해서 촉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광고'가 '경쟁'을 촉진하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갖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음으로 '신규 판매자의 진입 정도'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신규 판매자가 많아져서 시장에 경쟁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촉진'되는 것이고, 이는 구매자에게 '낮은 가격'이라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광고는 (가)에서 이야기하듯이 경쟁을 '제한'하기도 하고,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는 것이네요.

(나) 1문단

㉒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광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화제'이자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지문 독해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카테고리 나누기 ☆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가)와 (나)로 카테고리를 나눈 데 이어서, (나) 속의 카테고리로 다시 한번 나뉘는 모습입니다. ‘광고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중에서도 ‘판매자 간 경쟁 촉진’이라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재진술 ☆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문장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재진술하면서, (가)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나) 2문단

㉠ 문단 독해 사고과정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다시 한번 카테고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는 광고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 중 ‘경쟁 촉진’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문단에선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서의 영향을, 2문단에선 ‘독점적 경쟁 시장 외’에서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정보를 카테고리화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 영향은 바로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밑줄 친 내용 위주로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광고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잘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를 위해 ‘고용·투자’를 늘리게 되며, 늘어난 ‘고용·투

상성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자가 다시 구매자들의 소득을 높여 주고, 이는 또 다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생산 활동’이 자극받고, ‘고용·투자’가 증가하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겠죠?

이런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납득’하며 읽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많이 사 주니까 더 많이 팔려고 하고, 더 많이 생산하려면 더 많은 직원을 써야 하고, 더 많은 직원이 월급 올라 더 많이 사 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 역시 맥락과 연결지어 가볍게 납득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로 수식되어 정의되어 있는데, 이 값은 양(+)의 값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소비 증가→생산 증가→고용·투자 증가→소득 증가’까지만 제시되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소득 증가→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순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보의 필연적인 역할이 딱 잡히시죠?

(나) 2문단

㉡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카테고리 나누기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재진술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재진술 ☆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결국 ‘선순환’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보충 설명하는 재진술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한 ‘정리’가 아닌, 너무나 당연한 말임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 제시(수식된 정의) #재진술 ☆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결국 ‘선순환’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재진술하는 데 지나지 않는 문장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3문단

① 문단 독해 사고과정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약간 좀 뜬금없는데, 이러한 '소비 촉진 효과', 즉 광고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순환'은 '환경 오염'이라는 비판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이라는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내용을 납득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3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카테고리 나누기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재진술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걸 생각하면 간단하게 정보량을 줄일 수 있는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해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럼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③ 문제풀이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결국, 화제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가)는 '광고가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 강화에 미치는 영향', (나)는 '광고가 시장 및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①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개념 정의, 위상 모두 헛소리지.
해설	애초에 이 지문은 '광고' 자체가 아닌, '독점적 지위'를 만드는 광고의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고'가 무엇인지, 그 위상은 어떠한지 등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선택률	85%
명시적 근거	(가)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의 화제네.
해설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 효과 모두 '독점적 지위 확보'라는 화제와 관련된 것이죠?

③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다양한 견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각각의 한계점을 지적한 것도 아니지.
해설	억지로 맞다고 하자면 끼워 맞출 수도 있는 선지입니다. 다양한 견해(광고의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카테고리)와 한계점(환경 오염 유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쟁 촉진'에 대한 한계점은 제시되지 않았을뿐더러, 더욱 중요한 건 이 지문의 '화제'와 무관한 내용이죠? 평가원은 언제나 우리가 '화제'에 집중했는지 물어봅니다. 지역적인 내용에 매몰되지 맙시다!

④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해설	1번 선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지문은 '광고'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광고'가 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지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빠진 상태면 절대 답으로 골라줄 수가 없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택률	1%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광고가 주인공이 아닌데?
해설	역시 주인공은 광고가 아닙니다! '제도 마련'과 같은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죠.

5.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격 결정권', '총성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낮음' 등으로 재진술되었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독점적 지위 누리면 그거 노리고 다른 신규 판매자가 진입할 수 있겠지.
해설	애초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서이므로, 신규 판매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독점'이 아닌 '경쟁' 시장이니까요.

- ②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격 결정권이랑 똑같은 말이었지.
해설	재진술을 인식했더니 선지 하나가 공짜로 해결되는 모습입니다. '독점적 지위'의 정의이기도 했죠?

- ③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선택률	90%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구매자 수요 고려해야지.
해설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곧 '구매자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라고 해도,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므로 틀린 선지가 되겠죠. 지문에선 판매자가 이렇게 '구매자의 수요'를 덜 고려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 ④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서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했던 거지.
해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싼 가격을 책정하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볼 수 있지만 구매자에게 가격으로 어필하는 신규 판매자가 들어오면 결국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판매자라도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던 것이구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광고 등을 통해 '차별적 인지 · 선호'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곧 '총성도'로 이어지고, 이는 '독점적 지위의 강화'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납득했던 내용들이죠?

6.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광고가 시장 및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화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 ①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광고가 소비 촉진하지.
해설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하고, '소비 촉진'이라는 '순순환'의 시작점을 묻는 선지기도 하죠? 가볍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 ② 광고가 경제 전반에 순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선택률	89%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일곱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의 순순환도 더 잘 일어나겠지.
해설	2문단의 핵심은 '순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은 그러한 '순환'을 만들어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어요. 연결고리인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게 되면 '소비 증가'의 정도도 훨씬 커질 것이고, 이는 '순순환'의 강화를 낳겠죠. 눈알을 굴려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납득'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③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고용 · 투자 증가 → 소득 증가'라는 순환의 과정을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가볍게 지울 수 있겠죠?

④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이번엔 '생산 증가 → 고용 · 투자 증가'라는 순환의 과정을 그대로 묻고 있네요.

⑤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나) 3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광고가 소비를 촉진하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으니,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7.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 '광고'는 경쟁을 '제한'하여 어떤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영향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선택률	81%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다섯 번째 문장 / (가) 3문단 네 번째 문장+(나) 1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충성도 높으면 경쟁 제한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지면 가격에 예민한 거니까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겠네.
해설	'충성도'는 곧 '독점적 지위'와 연결되었고, 이것이 강화되면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은 지겹도록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한편 ㉡과 관련된 내용은 아주 약간 까다로웠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는 곧 '가격에 예민해질 때'를 의미하고, 이때는 예민한 구매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판매자들 간의 경쟁이 '촉진'된다고 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정보는 (가)에만 제시된 것인데, 이를 (나)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독해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게 되고,
㉡의 결과로 구매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첫 번째 문장 + (가) 3문단 다섯 번째 문장 / (나) 1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쟁이 제한되는데 왜 가격을 못 올리며, 경쟁이 촉진되는데 구매자가 왜 비싼 가격을 감수하냐.
해설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은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가격 결정권'이 강력해진다는 말이죠. 따라서 상품 가격을 조금 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경쟁이 '촉진'되면 판매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판매하려고 할 것이니 구매자들은 다소 싼 가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③ ㉠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여섯 번째 문장 / (나) 1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쟁이 촉진되는데 시장 진입이 왜 어렵냐.
해설	경쟁이 '제한'되면 신규 판매자 수가 진입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기는 어렵죠? 이 부분은 애매했어도, 경쟁이 '촉진'되면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고 봐야겠죠.

④ ㉠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선택률	5%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네 번째 문장 / (나) 1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차별성을 알렸으니까 경쟁이 제한되겠지.
해설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여 '독점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는 것이죠? 한편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하면, 경쟁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판매자의 진입'은 '경쟁 촉진'의 두 번째 원인이었으니까요.

⑤ ㉠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하고, ㉡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

선택률	7%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네 번째 문장 / (나) 1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쟁이 촉진되면 가격 경쟁으로 이어진다면.
해설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면 경쟁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맞는 말인데,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된다는 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었다는 뜻이죠? 이는 경쟁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제한'시킨다고 볼 수 있으니, ㉡에 대한 설명은 틀렸네요.

8.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광고 기획안입니다. 이번에도 '윗글'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네요. (가)와 (나)는 한 지문입니다! 아무튼, 이 기획안을 정리하다보면 출제 포인트가 잡힐 것 같습니다. 정리부터 해봅시다.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

- 대상: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 기획 근거: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에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 한다.
- 광고 개요: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

-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갑' 기업이 새로 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신규 판매자' 입장이므로,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다는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필요하겠네요. 현재 기존 판매자인 '을' 기업은 많은 돈을 들이는 방식으로 차별성을 알리고 있는데, 신규 판매자인 '갑' 기업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상황입니다.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말이죠!

이 광고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보다는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갑' 기업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킬 때가 아니라, 일단 '을' 기업과의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니깐요. 이 경우 '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면서, 여드름 억제 비누의 전반적인 가격이 저렴해질 것입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나아가 광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소비 촉진'으로 시작되는 '선순환'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신다면 완벽하겠네요. 전반적으로 (가)보다는 (나) 쪽에서 선지가 많이 출제될 것 같아요. 경쟁 '제한'보다는 '촉진'이 중요한 상황이니깐요.

이런 방식으로, 지문의 내용과 연결지어 <보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리한 내용 그대로네.
해설	<보기> 정리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미리 정리한 내용 그대로죠?

②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어.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순환!
해설	역시 미리 정리한 내용 그대로죠? '선순환'이라는 광고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③ 이 광고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어.

선택률	74%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다섯 번째~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단기적으로 이윤 보면 따라 오는 신규 판매자가 많아진다고 했잖아.
해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선지네요. 지문 내에 입각해서 설명하면, 광고를 통해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갑' 기업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켰듯이, '갑'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또 다른 신규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 강화'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④ 이 광고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선택률	7%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첫 번째 문장 + 광고 기획 초안 '기획 근거' 2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역시 정리한 내용 그대로죠? '정보 전달'의 방법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갑' 기업입니다.

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격에 예민해지면 경쟁 촉진되지.
해설	이 광고를 통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경쟁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9. 문맥상 ㉠와 바뀌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 들어가므로,

- 이때의 '들어가다'는 '어떤 일에 돈,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 ① 반입(搬入)되므로
- ② 삽입(挿入)되므로
- ③ 영입(迎入)되므로
- ④ 주입(注入)되므로
- ⑤ 투입(投入)되므로

- 이와 바뀌 쓸 수 있는 말은 '투입되다'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4%	3%	3%	3%	87%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가)(나)형 지문이 더 이상 인문 지문의 전유물이 아님을 선포함과 동시에, 사회 지문으로 변별하려는 의지가 많이 낮아졌음을 알려 주는 지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시문항부터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보이는 일관된 기조는 '인문 지문의 킬러화'예요. 인문 지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지문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이번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단어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인식' 등의 태도가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10~13] : 인문 ‘반자유의지 논증 비판’ ☆☆☆

1문단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에 관한 두 관점을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문단의 첫 문장입니다. 이 지문의 ‘화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보를 읽게 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에 주목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종교적 인간관’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것이겠죠? 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 같은 것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아무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은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의 원천’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재진술이니까요. 즉, ‘종교적 인간관’은 ‘영혼을 이야기한 인간관이 아니라, ‘영혼’을 ‘인간의 본성’의 원천으로 보는 인간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요!

다음은 ‘유물론적 인간관’입니다. 참고로 ‘유물론(唯物論)’은 ‘오직 유 / 물건 / 논 / 논’의 구성으로, 오로지 ‘물질’만이 존재하고 ‘마음 · 정신’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설에 해당합니다.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온 개념이니, 이제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영혼’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의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내용은? 인간의 ‘결정’, 즉 ‘본성’을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겠죠. ‘종교적 인간관’과의 확실한 비교 포인트가 제시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화제의 주체를, ‘종교적 인간관’에서는 ‘영혼’으로,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뇌’로 상정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대조할 수 있겠죠?

한편 이 지문에서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세 가지의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포인트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자유의지’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냉장고에서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해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선택’을 주관하는 곳은 ‘뇌’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신경 사건’이 과연 ‘자유의지’로 인해 일어나는 것인지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화제 확실하게 구체화시켰죠? 인간의 ‘본성’, 즉 ‘선택’이라는 행위가 ‘자유의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화제 잊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지문의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에 주목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정의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결정의 원천’이라는,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체크하고, ‘결정’이라는 포인트에 맞추어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화제 제시 #사례-원리 연결 ☆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유물론적 인간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물음’의 형태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했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첫 문단의 농도가 상당히 진했네요.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반자유의지 논증'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어부터가 '반/자유의지/논증'인데, 아니나다를까 그 정의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림'으로 제시되어 있네요. 왜 그렇게 보는지 자세하게 설명되겠죠?

이들의 논의는 '선결정'과 '무작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택', 즉 '본성'적인 행동은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선결정 가정'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친절하게도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감이 딸기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감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본성'에 앞서 '선/결정'되었으니, 나의 '자유'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무작위 가정'입니다. 이때도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인데, 그 근거로 또 사례가 제시되고 있네요. 포인트는 딸기 우유 선택이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네요.

'반자유의지 논증'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인간의 선택이 '자유의지'의 산물로 보기는 어려우니,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인문 지문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왠지 이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예측이 옳을지 생각하면서 다음 문단 가봅시다.

2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주장 제시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감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주장 제시 #정의 제시 ☆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무작위 가정'은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무작위' 자체가 '결정'되지 않고 랜덤으로 일어난다는 뜻이니까요. 나아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근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주장 제시 #사례-원리 연결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감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감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감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주장 제시 #사례-원리 연결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감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감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첫 번째 논증과 두 번째 논증 모두 결국 '자유의지는 없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걸 확실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3문단

① 문단 독해 사고과정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너무나 친절한 문단입니다. 지문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상 없어도 되는 문단이에요. 뒷 문단 해설에서도 언급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이 문단의 결론, '선결정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이고, 무작위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단이 없었더라도 말이예요! 그냥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반자유주의 논증'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선결정 가정 결론 받아들이고, 무작위 가정 결론 받아들이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납득하려 가봅시다.

3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카테고리 나누기 ☆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미리 예상한 문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는 '반자유주의 논증'에 대한 비판을 읽게 될 것입니다.

#주장 제시 #재진술

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4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우리는 이제부터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유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야겠죠. 지문에 따르면,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유지'라는 말을 쓰려면, 그 선택의 '주체'가 나와야 할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자유지 논증'의 주장에서도 살폈듯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자유지'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자유지 논증'의 가정 중 '선결정 가정'에 따르면,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둘째 조건은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인데, '선결정 가정'은 '선결정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에 따르면 '자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3문단에서 이야기했듯이 '선결정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욕구 충족적 자유지'라는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한 정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가볍게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욕구/충족적/자유지'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자유지'는 단순히 '욕구 충족', 즉 '원했던 것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어쨌든 딸기 우유를 먹는 순간에는 '원하는 것'을 하는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때의 행동은 '자유지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염두에 두는 '자유지'는 이러한 자유지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아래의 새끼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새끼 문제 해설

Q1. ㉔와 ㉕는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모범 답안 : ㉔는 단순히 '언제든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만, ㉕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순간'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㉔는 단순히 내가 하고자 '원했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선결정이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딸기 우유를 먹는 '원하는' 행위를 했으니 그것은 나의 '욕구'를 '충족'했고, 따라서 '자유지'에 따른 행동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한편 ㉕의 경우에는,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언제든 원했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자유의지가 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유지'라는 개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둘째 조건', 즉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없다고 보는 입장이 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㉕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훨씬 단순하게 출제되었지만, 이 정도까지도 미리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선결정 가정'에 따른 논증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위 가정'에 따른 논증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4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주장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주장 제시 #재진술 ☆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앞 문단에서 이야기한, '선결정 가정'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진술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대조 ☆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㉕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비교/대조되는 경우에는, 그 '비교 포인트'를 아주 첨예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모두 '첫째 조건'의 만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둘째 조건'의 만족을 필요로 하느냐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문단

① 문단 독해 사고과정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다음은 '무작위 가정'의 결론에 대한 비판을 진행해봅시다. 이 비판의 핵심은, 무작위로 선택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라는 점입니다. 일단 '무작위 가정'을 하는 순간, 앞 문단에서 제시했던 '두 번째 조건'은 자연스럽게 만족을 하게 됩니다. '무작위'의 정의가 곧 '선결정되지 않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 즉 '선택의 주체가 나여야 한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무작위 가정'의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여기서는 '첫 번째 조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유물론적 인간관'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다들 잊지 않으셨겠지만, 이 지문은 '유물론적 인간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선결정'되지 않은 사건, 즉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으로 가정해 보자는 것이네요.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아무튼 '무작위 가정' 아래에서,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따르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결국 '반자유주의 논증에 대한 비판'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새끼 문제 해설

Q2. ㉠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보자.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모범 답안 : '무작위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딸기 우유를 선택하는 행위의 '주체'가 '갑'이기 때문이다.

인문 지문의 포인트는 '결국 다 같은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해도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의 말로 이어질 거예요. 이에 따르면, '무작위 가정'을 했을 때 딸기 우유를 선택하는 행위의 '주체'는 무조건 '갑'입니다. '갑'의 '뇌'가 '신경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갑'이 어떤 선택의 '주체'가 되었고, 그것은 '무작위'로 일어나 '선결정'되지도 않았으니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키게 된 것이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그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의 핵심인 거예요.

결국 다 같은 말이다! 잊지 맙시다.

5문단

②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주장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진술'의 해시태그를 달아봤어요. 앞 문단에 제시된 '두 가지 조건'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의 제시 #재진술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장 제시 #재진술 ☆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첫 문장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갑이 선택의 주체'이므로, '무작위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③ 문제풀이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선택률	2%
명시적 근거	1문단 다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에게 '물리적 몸'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리가 없죠.

-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선택률	8%
명시적 근거	1문단 네 번째~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에게 '물리적 몸'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선택, 즉 '본성'은 '신경 사건'이라는 '물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선택률	7%
명시적 근거	1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혼은 결정의 원천이라고 했지.
해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선택', 즉 '본성'은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⑤ 반자유주의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선택률	79%
명시적 근거	2문단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무슨 헛소리야.
해설	'선결정 가정'은 '반자유주의 논증'의 주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리가 없죠.

11.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 새끼 문제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했던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자유 의지'라는 개념을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 즉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느냐예요.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4문단 일곱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해서 하면 욕구를 충족한 거잖아.
해설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정의는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입니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선택률	12%
명시적 근거	4문단 일곱 번째~여덟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해서 했고 선결정이 안 되었다면 ㉡가 있을 수도 있지.
해설	물론 어떤 선택을 위해서 했더라도 그 선택이 '선결정'된 것이라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선지에서 '선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해서 했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③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4문단 일곱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결정되어도 상관없지.
해설	㉠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결정'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행동을 하기만 했다면, ㉠는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선택률	66%
명시적 근거	4문단 일곱 번째~여덟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결정되면 두 번째 조건 만족을 못하지.
해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는 순간, ㉡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니까요. 가볍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네요.

⑤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와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4문단 일곱 번째~여덟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했으면 ㉠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선결정까지 안 되었으면 ㉡가 있겠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입니다.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선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되면 ㉡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그 답을 주관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선결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행동의 '주체'가 '갑'이기 때문에 '무작위 가정'에서의 행동은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찾아봅시다.

①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률	5%
명시적 근거	1문단 세 번째 문장 / 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혼이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해설	애초에 이 모든 논의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언급하는 것은 '종교적 인간관'이기에,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택률	12%
명시적 근거	5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금 '무작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해설	5문단의 카테고리는 '무작위 가정' 비판입니다. 여기서 '무작위'가 아니라고 해 버리면 문단의 내용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선택률	20%
명시적 근거	4문단 여덟 번째 문장 + 5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결정도,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도 아니라며.
해설	다시 말하지만, 5문단의 카테고리는 '무작위 가정' 비판입니다. 이는 '선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비판이에요. 따라서 '선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 틀렸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역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니 총체적으로 헛소리인 선지입니다. 선택률이 당황스럽네요.

④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률	17%
명시적 근거	5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금 '무작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해설	다시 말하지만, 5문단의 카테고리는 '무작위 가정' 비판입니다.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률	46%
명시적 근거	5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기다렸던 내용이네.
해설	발문을 보고, 주관식으로 생각했던 내용 그대로죠? '선결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행동의 '주체'가 '갑'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무작위 가정'에서의 행동은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되는 거예요.

13. 윗글의 ㉠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

- 발문 체크는 기본입니다. 포인트는 '㉠에 입각하여' 탐구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실험의 목적이 바로 '선결정 가정은 인정, 무작위 가정은 no인정'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실험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위의 주장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보 기>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 H의 가설을 보면,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다른 신경 사건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문에 입각하면, 이는 '선결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H의 가설은 '인간의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험 역시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H는 발문의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은 H의 가설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항상 발문을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학생은 ㉠에 입각하여 탐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의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의 주장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먼저 가설이 실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인간의 선택은 '매번', 즉 '언제나' 선결정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작위 가정'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이때는 ㉠에 입각하여 '선결정 가정'을 고려한 결론, 즉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한편 가설이 실험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결정된 선택'이 매번 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무작위 가정'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 경우에는 ㉠의 입장 따라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즉, 실험의 입증 여부가 아닌 '어떻게 ㉠의 주장을 합리화하는가'가 <보기> 정리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발문과 <보기>를 잘 읽고, '해야 할 생각'을 제대로 했다면 이 부분에 주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생각없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었다면, 저 실험에만 매몰되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해야 할 생각'을 제대로 해 내는 것. 수능 국어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선택률	11%
명시적 근거	3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결정 가정의 결론은 받아들인다며.
해설	이 가설이 입증되면, '선결정된 선택'이라는 것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선택이 언제나 존재한다면 자유의지의 존재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죠. 물론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애초에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지우는 게 더 좋은 풀이로 보이긴 합니다.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선택률	13%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입증되면 선결정된다는 건데, 그러면 '무작위'가 있을 수가 없지.
해설	선지에서 묻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1번, 4번, 5번 선지는 모두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2번, 3번 선지는 모두 '가정' 자체를 묻고 있어요. 둘은 확실하게 다르죠? 이 가설이 입증되었다면, '선결정된 선택'이라는 것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가 없는 것이네요. 선지에서 묻는 것을 엄밀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쉽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선택률	15%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입증 안 되면 선결정된 선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해설	2번 선지와 정확히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입증되지 않았다면, '선결정된 선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결정 가정'이라는 것이 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률	55%
명시적 근거	3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입증 안 되었으면 선결정된 선택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무작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경우의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
해설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결정된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선결정되지 않은 선택', 즉 '무작위'로 일어난 선택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니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반자유주의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3문단 세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왜 받아들여.
해설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의 입장은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입증 여부'가 아니라 ㉠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예요!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지금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정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주세요. 물론,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문장들에도 주목해주세요야 합니다.
- ⑤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독서 파트가 평이하게 출제되었던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 봤자 평이한 수준이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평가원이 '인문 지문'을 킬러 지문으로 출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계속해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례-원리 연결', '같은 말 찾기', '상호 간의 비판' 등 기출된 인문 지문들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체화시키도록 합시다.

[14~17] : 기술 '메타버스' ☆☆☆

1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한 지문입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는 분야인데, 친절하게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정의도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선 어떠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처음으로 제시된 장치는 '감각 전달 장치'네요. 이는 '아바타'가 '감각'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감각/전달/장치'네요. 어렵지 않죠?

사용자는 '감각 전달 장치'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바타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다면, 당연히 '현실감'이 생기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메타버스'는 어떠한 '기술'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의 '목적'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 기술의 목적은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시키는 것이네요. 이를 통해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1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화제 제시 #정의 제시 ☆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지문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의'를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죠?

#정의 제시 #기술의 목적 ☆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

'감각 전달 장치'의 정의를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납득해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여러 기술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해야 할 생각을 정확하게 해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2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이 있다.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가상 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 * HMD : 머리에 쓰는 3D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
- * 시차 : 한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먼저 'HMD'라는 장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는 '시각 전달'인데, 이걸 보자마자 '감각 전달 장치'라는 말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바타의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감각 전달 장치'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제공하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단안 단서' 관련 지문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입체감'을 느끼게 되면, 사용자는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겠죠? 기술의 목적이 잘 달성되는 순간이네요.

다음은 '가상 현실 장갑'이라는 장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감각 반응'을 전달하는, '감각 전달 장치'의 일부입니다. 이 장갑을 이용하면 아바타가 느끼는 '크기, 형태, 온도' 등의 '감각'을 사용자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기술의 목적이 더 잘 달성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가상 현실 장갑의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것이네요. 지금까지는 아바타가 느끼는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카테고리의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감각'은 '아바타 to 사용자'였는데, '움직임'은 '사용자 to 아바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것을 아바타가 느끼게 할 이유가 없고, 아바타의 움직임을 사용자가 따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최대한 '납득'하면서 정보를 처리해주는 게 중요해요!

2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카테고리화 #기술의 목적 ☆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 HMD : 머리에 쓰는 3D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

HMD의 정의를 읽으면서 '감각 전달 장치'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하고, 또 그 정의를 바탕으로 '기술의 목적'이 잘 달성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들이에요!

#정의 제시 #카테고리화 #기술의 목적 ☆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이 있다.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찬가지죠?

#카테고리 나누기 #비교/대조 ☆

이 외에도 가상 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카테고리가 나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감각 전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문장에서는 '손의 움직임 전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달되는 경로도 바뀌었죠? 감각은 '아바타to사용자'였는데, 손의 움직임은 '사용자to아바타'입니다. 왜 그러한지까지 완벽하게 납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다.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가상 현실 장갑'에서 이야기하던 '움직임' 카테고리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가상 현실 장갑'은 '장갑'이니만큼 '손의 움직임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상 현실 트레드밀' 같은 '공간 이동 장치'는 '몸 전체의 움직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간/이동/장치', '가상/현실/트레드밀(treadmill)'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이것도 결국 '기술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잡아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니다.

3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카테고리화 #기술의 목적 ☆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다.

'움직임'이라는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끌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술의 목적'과 연결된다는 것까지 생각해주시어야겠지요.

#정의 제시 #기술의 목적 ☆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마찬가지죠?

4문단

1 문단 독해 사고과정

[A]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는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움직임’ 카테고리과 관련된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용자 to 아바타의 기술로,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움직이는 ‘시스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 기술은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기술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구조네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먼저 ‘동작/추적/센서’입니다. 당연히 사용자의 ‘동작’을 ‘추적’하는 센서겠죠? 정의도 그러하네요. 다음은 ‘관성/측정/센서’입니다. ‘관성’을 측정하는 센서인데, 그 방법은 바로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네요. 속도와 함께 그 ‘변화율’을 측정한다면, ‘관성’을 측정할 수 있겠죠. 다음은 ‘압력/센서’입니다.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네요. 이때 ‘압력 센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압력 센서’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압력’을 측정하니 당연히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최대한 납득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동작 정보’를 얻고, 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가 ‘가상 현실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동기화하는 것이네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밖에 없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또 다른 카테고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의 상태가 변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중요한 건, ‘감각 반응’과 같이 ‘아바타 to 사용자’가 아니라 ‘가상 공간 환경 to 사용자’의 구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도 납득할 수 있겠죠? 가상 환경에 몰입하게 하려면, 즉 기술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려면 가상 공간의 환경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가상 공간의 변화가 동기화되면,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술의 목적’ 중심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모습이네요. 나아가 이 말도 너무나 당연하죠?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현실감’을 느낄 테니까요!

4문단

2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기

#정의 제시 #카테고리화 #기술의 구성 요소 ☆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움직임’이라는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끌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술 지문의 기본 구조인 ‘구성 요소 나열’도 처리할 준비를 해야겠죠.

#정의 제시 #카테고리화 #기술의 목적 ☆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②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단어의 의미를 살려 정의를 납득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들이 모두 ‘움직임 동기화’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술의 목적’을 잊지 않고 정리해줬다면 최고겠죠? 이런 생각들이 이어졌다면 마지막 문장도 당연하게 납득이 되었을 것이구요.

#카테고리 나누기 #기술의 목적 ☆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는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상 공간 환경 to 사용자’로 카테고리가 나뉘었다는 점을 파악하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왜 ‘사용자의 움직임’과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를 따로 서술했는지 납득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메타버스’를 현실감 있게 체험하기 위한 것이었어!

3 문제풀이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선택률	3%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술의 목적이지.
해설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 모두 그 역할이 조금 다를 뿐, 공통적으로 '메타버스를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한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 것입니다.

- ②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의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선택률	13%
명시적 근거	3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공간 이동 장치'는 '움직임' 카테고리에 속한 정보였는데, '움직임'은 '사용자 to 아바타'였습니다. 가 법계 지을 수 있는 선지네요.

- ③ HMD는 사용자가 시각을 통해 메타버스의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선택률	9%
명시적 근거	2문단 첫 번째~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HMD는 '시각'이라는 감각을 아바타로부터 사용자로 전달하는 장치였고, 이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하기에 사용자는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④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선택률	10%
명시적 근거	1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감각/전달/장치'는 '감각 반응'을 '아바타 to 사용자'로 전달하는 장치였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⑤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선택률	65%
명시적 근거	1문단,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감각 반응은 사용자 to 아바타지.
해설	'감각 반응'은 '감각 전달 장치'들을 통해 '아바타 to 사용자'로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 to 아바타'가 되려면 '움직임' 카테고리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감각 반응'을 '상호 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한 건 틀린 내용이죠.

1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모션 트래킹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완벽하게 납득한, '움직임' 카테고리의 정보들이었죠? 가볍게 선지 판단해봅시다.

-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

선택률	4%
명시적 근거	4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뛰는 힘을 측정하려면 압력을 측정해야지.
해설	'관성/측정/센서'는 '속도'와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는 센서였습니다. 따라서 '뛰는 힘'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뛰는 힘'은 '압력'과 관련되어 있기에, '압력 센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념의 정의를 잘 납득하셨다면, 이런 선지를 아주 빠르게 지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 ②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의 변경에 따라 HMD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한다.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HMD가 트레드밀 제어를 어떻게 하나.
해설	일단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하는 것은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HMD는 일종의 '안경'이기에, 트레드밀 제어 같은 일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선지가 틀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선지의 '따라'가 틀린 내용이에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해야 '가상 공간 장면'이 변하는 것이지, 장면이 변한 뒤에 트레드밀을 제어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이렇게 '인과 관계'를 뒤집은 선지들은 언제나 어려운 선지가 되니, '따라'와 같은 '인과'를 나타내는 내용이 선지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③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선택률	75%
명시적 근거	4문단 여섯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상 공간의 환경이 변하면 트레드밀에 반영된다고 했다.
해설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동기화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역으로 '가상 현실 환경 to 사용자'의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기능이었어요. 가볍게 납득하고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선택률	9%
명시적 근거	4문단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움직임은 사용자 to 아바타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입니다. 이걸 기억하려고 해서 억지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해주시면 됩니다.

⑤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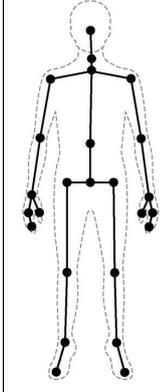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움직임은 사용자 to 아바타지.
해설	4번 선지와 동일한 내용이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늘 강조하지만, <보기> 문제 해결의 시작은 <보기> 정리입니다!

— <보 기> —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인 **키넥트 센서**는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적외선 카메라**는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제공한다. 반면 **RGB 카메라**는 피사체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다. 키넥트 센서는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검출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림>

- '키넥트 센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라고 하네요. 이런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동작을 추적 하나 했더니, 먼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측정해서 뭘 하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거리'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거리=속력×시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속력으로 광원을 발사했을 때, 더 빠르게 되돌아오면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평가원이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기는 했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는 'RGB 카메라'를 이용해서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25개의 연결점을 이어 3D 골격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동작'을 추적하는 것이네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에 '동작'을 추적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해요! '키넥트 센서'는 곧 '동작 추적 센서'니까요.

①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다.

선택률	48%
명시적 근거	<보기>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지.
해설	키넥트 센서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동작 추적'이라는 '키넥트 센서'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다른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할 이유는 없겠죠.

②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선택률	6%
명시적 근거	4문단 전체 + <보기> 첫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동작 추적 센서를 이용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지.
해설	계속 강조하지만,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춤추는 '움직임'을 파악하여 아바타에게 동기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③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파악할 수 있다.

선택률	13%
명시적 근거	4문단 두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동작 추적 센서로 자세를, 관성 측정 센서로 이동 속도 변화율을 측정하면 되겠네요.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입니다. '키넥트 센서'가 곧 '동작 추적 센서'라는 점과 함께, '관성 측정 센서'의 정의를 잘 파악하셨다면 바로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네요.

④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사용자의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선택률	23%
명시적 근거	<보기> 네 번째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얼굴에 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해설	얼굴에는 연결점이 하나밖에 찍혀 있지 않습니다. 점 하나를 가지고 얼굴 표정 변화를 전달하는 건 무리가 있겠죠.

⑤ 적외선 카메라의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의 컬러 이미지 정보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선택률	10%
명시적 근거	<보기>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니까 당연하지.
해설	'키넥트 센서'가 '동작 추적 센서'임을 파악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적외선 카메라'의 이미지나 'RGB 카메라'의 이미지 모두 당연히 '동작'을 파악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17.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 이때의 '맞추다'는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그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정확히 맞추어 쳤다.

- 이와 가장 가까운 말은 여기에서의 '맞추다'겠죠.

② 아내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을 조화롭게 맞추었다.

③ 우리는 다음 주까지 손발을 맞추어 작업을 마치고로 했다.

④ 그 동아리는 신입 회원을 한 명 더 뽑아 인원을 맞추었다.

⑤ 동생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70%	5%	21%	2%	2%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카테고리 나누기 : '지금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정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주세요. 물론, 카테고리를 나누주는 문장들에도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④ 기술의 목적 : 모든 기술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추어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역시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술 지문들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카테고리를 아주 은밀하게 (?) 나누고 있고, '아바타 to 사용자', '사용자 to 아바타' 등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각잡고 어렵게 냈다면 정말 힘들었을 지문입니다. 스스로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어려워졌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전반적으로 위의 '핵심 point'들을 연습하기 좋게 출제되었으니, 어려웠던 학생들은 짚어누르는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해서 분석하도록 합시다.

11 <보기> 확인

— <보 기> —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향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설명하는 <보기>는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배비장전'의 21번 문제 <보기>는 내용을 딱 압축적으로 요약해주었을 뿐 아니라, 19번 문제를 푸는 것에도 큰 힌트가 되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작품을 읽으면서, 배 비장의 '변화'를 찾는 것이 핵심일 것 같네요. '배 비장이 어떻게 우월감을 버리는지'에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12 지문 독해

[앞부분의 줄거리] 제주도에 간 **배 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물었다.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무슨 말이람나?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 바빠 가지라구!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 비장도 궤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배 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자 말로 자탄을 하겠다.

“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았더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예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

'배 비장'은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배'를 찾기 위해 '계집'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죠. 그런데 '배 비장'이 '여보게' 하면서 딱 품을 잡고 말을 거니까 '계집'이 '배 비장'을 무시합니다. '배 비장'은 분한 마음에 왜 대답이 없냐 따지지만 '계집'은 '배 비장'에게 말들을 쏘아붙이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계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 앞의 '배 비장'이 '배 비장'인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배 비장' 앞에서 '배 비장도 궤 속 귀신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건방진 양반이 자기한테 말을 거는 줄 아는 거죠. '계집'은 양반답지 못한 양반에 대해 비난을 하다가, 초면에 반말을 하는 '배 비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기 남편이 오기 전에 썩 꺼지라고 합니다. '배 비장'은 이런 반응을 마주하니 당연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 마는,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환경도 문자로 '물은 데 불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고, 이곳 풍속을 모르고.”

“실수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 내가 이곳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

“그러하면 가이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까.”

“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

“참 딱한 일이올시다.”

하더니,

“울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 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배 비장'은 앞선 '계집'의 말 때문에 화는 나지만('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이런 마음이겠죠? 심리의 근거를 계속해서 생각해주셔야 해요!) 날이 점점 저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계집'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떠나는 배를 구하려 하죠. '배 비장'이 겸손하게 말을 하니 '계집'도 친절하게 대꾸해줍니다. '배 비장'은 자기가 '배 비장'인 것을 들기기는 싫으니까(아마 앞서 애랑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 때문이겠죠), 이름과 사연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그저 부모님이 아파서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집'은 한 부인이 해남에 있는 친정집에 급하게 떠난다는 정보를 주고, '저편 언덕 밑'으로 가볼 것을 권합니다. '배 비장'이 한 번 태도를 겸손하게 바꾸자 일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어이, 배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은 왜 찾아?”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더니 제 모양 보고 받음는지 몰라,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이 쉬며,
 “허!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볼게,
 “어보시오, 노형이 이 배 입자시오?”
 사공은 묵낭청*의 혼이 썩었던지 그대로 좇아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배 입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옵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싣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조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신이오?”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지게 하오리다.”
 * 묵낭청 :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계집’의 도움을 받아서 ‘사공’을 찾았지만,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나요? ‘배 비장’은 또 ‘어이’하면서 반말로 사공을 부릅니다. ‘사공’도 반말을 들으니 비위가 틀려서 통명스럽게 답을 하죠. 그 반응을 보고, ‘배 비장’은 자신이 ‘춘몽을 못 깨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합니다(‘춘몽’은 달콤한 꿈을 말하고, ‘춘몽을 깨다’는 희망적인 상상이 깨졌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지금 자기가 그럴 처지가 아닌데도,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을 못 버린 것을 자책하는 것이죠.

다시 존댓말로 ‘사공’을 대하자 꽤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배 비장’은 이 어 배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는데, ‘사공’은 이미 손님이 있는 배에 ‘배 비장’을 태우기는 곤란하다고 말하죠. ‘배 비장’은 다시 ‘부모 병환’ 핑계를 대는데, 이에 측은지심을 느낀 ‘사공’은 ‘해 진 후’에 ‘배 비장’을 ‘부인’ 몰래 태워줄 것을 약속해주네요.

‘배 비장’이라는 인물의 ‘변화’에 따라 주변 인물들의 반응도 ‘변화’하는 독특한 지문이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바탕으로 심리의 근거를 납득하면서 읽어냈다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 풀어봅시다.

3 문제풀이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습니다. 지문을 처음 읽을 때 흐름을 파악하며 읽었다면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듯인데, 만약 애매해보이는 선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풀어야겠지요.

- ① ‘계집’은 ‘배 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배 비장이 양반답지 않으니까 비판적으로 대한 거지.
해설	‘계집’은 눈 앞의 남자가 ‘배 비장’인 줄은 모르지만, ‘배 비장’의 일을 언급하면서 양반답지 못한 양반은 양반 대접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② ‘배 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선택률	1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계집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 안하면서 자기가 배 비장이라는 거 숨기려고 했었지.
해설	‘계집’이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라고 묻자, 자기 정체를 들리기 싫은 ‘배 비장’은 “성명은 차차 아시지 오마는~”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즉답을 피한 것도,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도 맞네요.

- ③ ‘계집’은 ‘배 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겸손하게 물어보니까 원하는 정보를 주었지.
해설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를 통해, ‘배편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서울로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이 궁금해했던 정보도 맞죠.

④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책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선택률	71%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공이 거절한 건 부인과의 약속 때문일 뿐, 배 비장을 경계해서가 아니지.
해설	'사공'은 어법을 고친 '배 비장'에게 제법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배 비장'이 '좀 타고 가옵시다'하고 부탁을 하자, '좋은 말씀이옵시다마는~'이라 말하며 '부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맘대로 태워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태워줄 수 없다고 말한 발화의 '근거'는 그저 부인과의 약속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이지, '배 비장'과 같은 낯선 이를 경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죠. 심리/발화/행동의 근거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다면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⑤ '사공'은 '배 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부모 병환 이야기를 하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줬지.
해설	'배 비장'은 앞서 '사공'이 자신을 태워주기 곤란하다고 말하자 '부모 병환' 얘기를 하며 태워줄 것을 사정합니다. 이는 '다급한 상황'이죠. 그러자 '사공'은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라며 연민의 감정도 보이고, 해 진 뒤에 오면 몰래 태워주겠다고 해결책도 알려주죠. 근거가 딱딱 잡히죠?

19. ㉠~㉣ 중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 “㉡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 “㉢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이곳 풍속을 모르고.”
- “㉣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
- “여보시오, ㉤ 노현이 이 배 입자시오?”

-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지문 내에서 '배 비장'이 상대의 비위를 맞추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없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내신 느낌의 쉬운(그리고 성의없는) 문제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④ ㉢, ㉤

선택률	9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에서는 싸가지 없게 물어보다가 '계집'한테 혼났고, ㉡는 딱 봐도 기분 나빠 보이잖아? ㉢, ㉤가 답이겠네 그럼.
해설	㉠에서 '여보게'라고 하자 '계집'이 무시했고, ㉤는 '배 비장'이 '계집'이 자기 말을 무시해서 분한 마음에 한 말이었습니다. '배 비장'이 ㉡에서 '어이'라고 '춘몽을 못 깨고' 말하자 '사공'은 비위가 상했죠. 발문은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을 묻는 것인데, 이 세 표현은 그 전에 기분이 상하게 한 표현이었죠. 한편 ㉢와 ㉤는 각각 '계집'과 '사공'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배 비장'이 의도적으로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어법을 고쳐' 한 말이었습니다.

20.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문제를 보기 전에 이미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소재인지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이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찾던 수단입니다. 바로 선지 보시죠.

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진짜로 부모님이 아픈 거 아니잖아.
해설	'부모의 병환'을 듣게 되는 장면 자체가 지문에 없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를 알기도 전에 이미 '부모 병환' 얘기는 '배 비장' 스스로 했죠.

②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었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인공을 위해서 준비된 배가 아니잖아?
해설	'부인'이 해남에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된 배이므로, 주인공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선택률	9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너무 쉽잖아 뭐야..
해설	창피를 당한 주인공이 한시바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배이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④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제적 보상 얘기 없잖아?
해설	급하게 타고 싶어하는 배는 맞는데, '경제적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 한다.

선택률	1%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행객들 얘기 없는데?
해설	주人公이 혼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배이고, '행객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 앞서 같이 보았던 '배 비장'이 양반으로서의 우월감을 버리는 것에 대한 <보기>입니다.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었다면, 지문 독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지들이 해결되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 비장의 행위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택률	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양반인 자기가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어서 화가 난 거고, 그럼 자기 신분에 대해 우월감 가진 것 맞네.
해설	대답이 없는 '계집'에게 말을 하면서 '양반이 물어면~'이라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자기 신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도 허용할 수 있네요.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 비장의 태도에서,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방 사람한테 반말하고 있으니 맞지.
해설	하대를 한 이유가 '지방이라'는 점 자체가 제주도 사람을 얕보는 것이 맞고, 양반으로서의 자부심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 나온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이란 표현과도 대응됩니다.

③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 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군.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분 나빠했다가 제주도 떠나고 싶어서 '계집'한테 태도를 바꿔서 물어보니까, 맞네.
해설	19번 문제의 요지와도 이어집니다. 자기 말을 무시했던 '계집'에게 화는 나지만, 시간은 점점 흐르고 도움 받을 사람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계집'에게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죠.

④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택률	90%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빨리 제주도 떠나고 싶어하는 거 아냐?
해설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데, 서울로 가는 배가 다 떠나고 4~5일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아이고 그럼 어떡해ㅠㅠ' 느낌으로 말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여요.

- ⑤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 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하는 부분은 배 비장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는 부분이니까 옳은 선지네.
해설	아직 서울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는 배 비장은, 아예 공손하게 말하기는 스스로가 초라해보이고 너무 하대하면 부탁을 안 들어줄 것 같은 마음에 '어정쩡하게' 상대를 대합니다. 그런데 '사공'이 자신의 말에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며 배비장은 스스로 춘몽을 못 깨었다고 자책하죠.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든 대접을 받을 줄 알았던 것이 아마 그의 '춘몽'이었겠죠.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p>*핵심 point*</p> <p>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p> <p>② 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각 인물에게 '공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p> <p>③ <보기> 독해 : 최근 산문들과는 달리 <보기>가 난해한 내용이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친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기>가 친절한 경우에는 좋은 힌트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어려운 경우에는 선지 판단과 연결된 경우가 많으니 비문학(독서)처럼 독해하셔야 합니다.</p>
--

<p>지문 내용 총정리</p> <p>말도 쉽고, 내용도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이 지문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옛 문학 기출부터 시작하여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p>
--

[22~27] : 현대소설/극문학 '갯마을' ☆

1 <보기> 확인

— <보 기> —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짧은 <보기>네요. '삶의 터전'에서 연속되는 '시련',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삶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와 희망' 정도를 확인하면서 읽어봅시다.

2 지문 독해

(가)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뱃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이 썰물에 조개나 켈 뿐 한가하다.

사흘 째 되던 날,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 박 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 윤 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

"저 구름발 좀 보라니?" / "음!"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 오르고 있었다.

윤 노인이 또,

"하하하 저 물빛 봐!"

박 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과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이번에는 박 노인이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때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 왔다.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결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사내들이 대부분 고기를 잡으러 떠난 갯마을에서, 그들이 떠난지 사흘 째 되던 날 '윤 노인'과 '박 노인'은 뭔가 '수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상함의 근거는 '구름발', '물빛', '매운 갯냄새' 등이죠.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 고기를 잡으러 떠난 사내들이 뭔가 잘못되었을 것 같다는 '변의 징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인들의 '경험'에 따르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확실해보여요. 여러분은 전지적 작가의 관점에서, 앞으로 지문의 내용이 암울하게 흘러갈 것임을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캄캄한 칠야,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물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 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러한 동안에 날이 섰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 가고 파도도 낮아 갔다. 섰 날에 보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A] 이날 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윤 노인이었다.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 돌각 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측담 밑까지 들이밀자 윤 노인은 며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 밖까지 나오다가 무슨 일로선지 며느리는 먼저 가라고 하고 윤 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별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B]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이틀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었다.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들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 설마 죽었을라고. —

[B]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해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살아야 했다. 해순이도 물웃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아련한 듯매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멀치 철이건만 후리도 없었다. 후리막은 집 뚜껑을 송두리째 날려 버린 그대로 손불 엄두를 내지 않았다.

— 오영수, 『갯마을』 —

노인들의 불길한 예감대로,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물을 피해서 높은 곳에 있는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듭니다. [A]에서는 윤 노인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며느리의 진술이 드러나 있네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사내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 사실이 '신문'의 기사를 통해 확실시되자 마을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르면 그 다음의 내용이 더 중요해보여요.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먹고살기 위해서 다시 바다로 가서 일을 합니다. '뚝배' 하나만 지나가도 혹시 사내들이 돌아왔나 가슴이 두근대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리는 없죠. <보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시련'은 자연재해와 사내들의 행방불명이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삶을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은 '울음에도 지쳤다~' 이후의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

S#14. 축항

시멘트로 만든 축항./윤 노인과 **딱 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윤 노인 거 왜 을축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용왕님만 노하시면 속절없는 거야.

박 노인 암 여부가 없지... (수평선을 보며)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윤 노인 (침통하게) 음...

박 노인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저 물빛도 좀 보라니까... 바람이 점점 세어진다.

S#15. 노목

성황당 뒤에 서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몸시 흔들린다.

S#16. 바위

점점 커 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진다.

S#17. 축항

밀려온 파도는 축항을 뒤엎을 듯이 노한다.

S#18. 몽타주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들.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낙들.

S#19. 하늘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번쩍이는 번개./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S#20. 들판

폭우에 휩쓸리는 나무./무서운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벼락이 떨어지며 고목 하나에 불이 붙는다./쏟아지는 비! 비!/몰아치는 바람.

S#21. 길(밤)

돌각 담으로 된 골목길을 달리는 **해준**.

숨은 하늘에 치달고/웃은 비에 젖어 나신이나 다름없고.../넘어지며 달린다./번개! 천둥...

S#22. **성황당(밤-비)**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당목 앞에 꿇어앉으며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해순 서낭님에... 서낭님에...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잠시 후 **해준**이가 올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

S#23. 하늘(밤-비)

먹장 같은 구름에 뒤덮여 검기만 하다./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뿐이다./크게 번개가 친다.

(가)와 같은 부분을 각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두 노인이 불길한 예감을 공유하던 장면은 S#14에서 보다 직접적인 대사들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S#14에서 점점 세어지는 바람이 S#15~S#17의 재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네요. 이렇게 기상이 악화되자 S#18에서 마을 사람들은 막 분주히 움직이고, S#22의 해순이는 (가)에서는 '언덕배기 당집'이었던 '성황당'으로 올라와서 '서낭님'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가)와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네요. 대략적인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읽으면, 디테일한 사항들은 문제를 풀 때 찾아서 풀더라도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S#24. 노한 밤바다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처절한 성구의 얼굴./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칠./분주한 선원들의 모습./더욱더 거센 파도./흔들리
는 뱃사람들.../파도에 쓰러지고/흔들림에 넘어지고.../이윽고
배는 나뭇잎처럼 덜렁 들렸다가 넘어간다.

S#25. 성황당(밤-비)

해순이와 순임이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였다./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아낙들.

S#26. 윤 노인의 집 앞(밤-비)

윤 노인이 나온다./순임이 따라 나오며
순임 아버지예. 이 빗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김니꺼...
윤 노인 마 퍼뜩 다녀올 까다...
순임 내일 아침에 가지면 안 될까요...
상수 (가며) 양이다. 거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
나간다.

S#27. 축항(밤-비)

파도가 휘몰아치는 축항을 위험스럽게 걸어온다./빈 배에 걸려
있는 그물을 벗기려는 순간 윤 노인은 파도에 빨려 축항 밖으로
떨어진다./잠깐 허우적거리는 듯하더니 노도에 휩쓸려 버린다.

S#28. 성황당(밤-비)

더욱더 거센 비바람./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당목. 가지가 꺾
어진다./O.L.

S#29. 아침 바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바다는 잔잔하
다./모래밭을 적시는 잔잔한 파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

S#24는 (가)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사
내들'의 모습이네요. 배가 뒤집히기까지의 모습을 격정적으로 보여줍
니다. S#26~S#27에는 [A]에서 머느리의 진술로 대체되었던 '윤 노인'
이 사라지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S#28에서 인물들이 절을 하
던 '당목'이 꺾이는 것을 통해 지금 상황의 심각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
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충분히 공감하신 채로,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③ 문제풀이

22.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출에 계속 나오는 개념어들을 사용
해서 선지를 구성할 거예요. 이렇게 자잘한 요소를 가지고 답을 내는
유형은 수능에는 어렵게 나오지 않지만, 나오더라도 기출 공부를 토대
로 빠르게 풀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①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선택률	9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머느리 말에 의하면~'이러니까 간접 인용 맞네.
해설	'간접 인용'은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찍지 않고, 극 안에서의 화자(여기선 '머느리')의 관점과 말투를 살려서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윤 노 인'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으니 맞네요.

②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면 진술 없는데?
해설	머느리의 사건 진술과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만 있지, 내부 인물이 스스로의 내면을 진술하는 것은 없습니다.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물 간의 갈등?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 없는데?
해설	'과거 회상'도 다소 애매하게 느껴지지만, '인물 간 의 갈등을 심화가 확실히 틀렸으니 앞 부분은 판단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개성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외양 묘사 없는데?
해설	[A]에는 외양 묘사를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개성 적 면모를 부각'은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서술자 안 바뀌는데...?
해설	전체적으로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이 진행되며, [A] 부분에서도 '머느리'의 말에 대한 간 접 인용이 사용되었을 뿐, 서술자가 달라지지는 않 았습니다.

2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 아까 지문을 읽으며 파악했듯, 여러 징조들을 통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직감한 노인들의 근거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앞 부분의 맥락만 잘 파악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①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험 자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설	'윤 노인'이 '박 노인'을 찾아갔는데, '박 노인'이 '막' 물가로 나오던 참에 만났기에 우연히 만난 것은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경험'에 대한 대화는 없었죠? 그저 대화의 내용이 '그들의 경험'에 기반한 것뿐입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② '두 노인'은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을 확신한다.

선택률	8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뭐.
해설	'구름발', '물빛', '매운 갯냄새' 등의 자연 현상은 '그들의 경험'을 환기하고, 이에 따라 '변의 징조'를 깨닫게 됩니다.

③ '두 노인'은 ㉠으로 인해 서로 다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처 방안 자체가 없지 않나?
해설	'서로 다른'처럼 두 노인 사이의 의견 차이가 벌어지지도 않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예감했을 뿐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④ '두 노인'은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예측 빗나가지 않았잖아?
해설	두 노인의 불길한 예측은 적중했고,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 회의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⑤ '두 노인'은 ㉠으로 인해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행선지 물어봤는데?
해설	뭔가 날씨가 안 좋아질 것을 느끼자, 고깃배의 행선지(대마도~울릉도)를 언급하며 그들을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무관심'이라는 태도 역시 어울리지 않기에, 선지의 뒷 부분만 보고도 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을 듯합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 나가는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보기>는 '시련'→'극복 시도'라는 이 작품의 구조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죠? 잘 독해했다면 굳이 [B]로 돌아가지 않고도 선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①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하는군.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내들'이 못 돌아왔으니까 힘든 시련 맞지.
해설	'사내들'이 탄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기고, 이는 따라서 충분히 시련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매개물이군.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신문'을 보고 '수라장'이 되었다니까, 맞겠네.
해설	원래 사내들의 행방에 대해서 설마설마하던 주민들도, 신문을 보고 비탄에 잠기게 되었으니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한 매개물이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바다'는 아낙네들에게 시련을 주지만 생활의 방편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군.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를 보면 맞는 것 같네.
해설	그들이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인 '고등어 배'의 실종도 바다 때문이고, '해조'와 '조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다 덕분이라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이군.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새 식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물옷'을 입은 거니까, 맞네.
해설	시련에 빠진 가운데에서도 바다로 나가 일을 하는 것을 '삶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⑤ '돛배'는 아낙네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이군.

선택률	88%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희망이 실현될 것이란 '확신'은 없지 않나?
해설	아낙네들은 '돛배'만 지나가도 혹시 사내들이 돌아온 것인가하고 두근거리지만, 그런 기대는 번번히 깨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희망이 실현되리란 확신을 얻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25.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물들의 행동과, 그 근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감정, 행동 등의 요소는 지문을 읽을 때 꼭 파악해주세요!

① S#21에서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 준다.

선택률	88%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현재 극한까지 치달은 자연 재해의 상황 속에서, '해순'은 다급한 마음에 성황당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S#22에서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을 나타낸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 같은 건 없는데...?
해설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맞으나, '당목'을 지켜야 한다는 정보도, 그에 대한 '의무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③ S#22에서 '순임'의 등장은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계속 기원하는데?
해설	'순임이가 올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는 묘사에서, '순임'이 등장한 이후에도 둘이 같이 기원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④ S#25에서 '해순'과 '순임'은 성황당에 모인 다른 아낙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갈등 관계 없는데?
해설	다같이 절을 할 뿐, 그들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⑤ S#26에서 '순임'은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한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순임'은 말렸는데?
해설	'윤 노인'이 집을 나간 이유는 따로 있고, '순임'은 그를 말렸을 뿐입니다. '순임'이 '윤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26. (나)의 S#18과 S#24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18. 몽타주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들.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낙들.

S#24. 노한 밤바다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치절한 성구의 얼굴./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찰./분주한 선원들의 모습./더욱더 거센 파도./흔들리
는 뱃사람들.../파도에 쓰러지고/흔들림에 넘어지고.../이윽고
배는 나뭇잎처럼 덜렁 들렸다가 넘어간다.

- 각각 자연재해를 마주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바다 위에서 비바람에 맞서
는 선원들의 모습이네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S#18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장면들을 연결하여,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오니 연결된 것도 허용할 수 있고, 마을이 어수선한 것도 맞지.
해설	심상치 않은 징조를 느낀 사람들이 기상 이변을 인 식하는 장면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② S#18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각각 보여 주어,
제시된 사건들이 갖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선택률	87%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반된 의미는 아니잖아?
해설	지금 여러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모두 주민 들이 자연 재해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닐 뿐, 상반된 의미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③ S#24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말소리 안 들린다고 했고, 음... 절박해보이네.
해설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성구의 얼굴 등의 정보를 통해 그의 절박한 상황도 부각됩니다.

④ S#24는 행위와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성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찰'을 보면 행위와 표 정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된 것 맞네.
해설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찰'의 구절은 비바람에 최대한 견뎌보려는 그의 감정과 행동을 한 장면으 로 보여줍니다.

⑤ S#24는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선원들이 각각 비바람을 이겨내려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 위태로운 모습의 반복 적 제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그들의 급박한 상 황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27.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 과제: (나)는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변형한 시나리오이
다. (가)의 ㉠~㉣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각색했
고 할 때, 그 결과를 탐구해 보자.

(가)	(나)	(가)에서 (나)로의 각색 방향
㉠ ⇒	S#14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 ⇒	S#15~ S#17	비유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 ⇒	S#22, S#25	하나의 사건을 여러 장면으로 제시하기
㉣ ⇒	S#28	사건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	S#28, S#29	하나의 상황을 O.L.(오버랩)을 활용 하여 제시하기

- 소설을 극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찾는 문제입니다. (가)
를 충실히 읽고 (나)를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발견한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㉓를 대화 상황에서의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라는 대사로 바꾸어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 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㉓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S#14. 축항

시멘트로 만든 축항./운 노인과 박 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운 노인 거 왜 을축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용왕님만 노
하시면 속절없는 거야.

박 노인 암 여부가 없지... (수평선을 보며)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운 노인 (침통하게) 음...

박 노인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저 물빛도 좀 보라니까...
바람이 점점 세어진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사가 아닌 부분이 대사로 바뀌었으니, 맞네
해설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면, 소설에서는 전지적 서술자의 서술로 표현된 부분이 인물의 직접적인 대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대사를 통해 인물의 위기감을 표현했습니다.

② ㉖를 갯마을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여 자연의 위력을 부각하고 있다.

울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껌껌한 칠
야, ㉖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하늘
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물을 마구 물어뜯는 것파도
같았다.

S#15. 노목

성황당 뒤에 서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몹시 흔들린다.

S#16. 바위

점점 커 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진다.

S#17. 축항

밀려온 파도는 축항을 뒤엎을 듯이 노한다.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갯마을/바다 맞고, 자연은 강하네.
해설	㉖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날씨가 매우 나쁨을 표현했다면, (나)에서는 각각 구체적 인 장소를 설정하여 ‘갯마을’과 ‘바다’에 미치는 자연의 위력을 부각했습니다.

③ ㉓에서 성황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등장인물의 수가 다른 장면들로 나누어 구현하고 있다.

㉓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러한
동안에 날이 섰다.

S#22. 성황당(밤-비)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당목 앞에 꿇어앉으며 원망스
러운 눈초리로

해순 서낭님에... 서낭님에...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잠
시 후 순임이가 올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

S#25. 성황당(밤-비)

해순이와 순임이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였다./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아낙들.

선택률	1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마을 사람들’이 두 명보다는 많겠지?
해설	(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나)에서는 해 순과 순임 단 두 명이라는 점에서 등장인물의 수가 다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㉓를 당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인물들 간의 믿음
이 무너진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는 동안에 날이 섰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 가고
파도도 낮아 갔다. 새 날에 보는 ㉓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었다.

S#28. 성황당(밤-비)

더욱더 거센 비바람./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당목. 가지가 꺾
어진다./O.L.

선택률	81%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물들 간의 믿음이 깨진 않았잖아?
해설	㉓를 당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한 것은 맞으나,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 다. 애초에 그런 걸 생각할 새도 없는 멘봉의 순간 이예요.

⑤ ㉔에 나타난, 폭풍우가 물러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바람이 거센 전날 밤과 파도가 잔잔해진 아침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㉔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든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별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S#28. 성황당(밤-비)

더욱더 거센 비바람./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당목. 가지가 꺾어진다./O.L.

S#29. 아침 바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바다는 잔잔하다./모래밭을 적시는 잔잔한 파도.

지문 내용 총정리

지문도 무난했으나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극 문학은 이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는 장르이니, 꼼꼼히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시가 유독 어려웠다면, 여러분이 시에 유독 약한 게 아니라 소설 파트가 너무나 쉽게 나온 것임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밤에서 아침으로 연결되니까 맞네.
해설	‘폭풍우가 물러간 상황’의 평온함을 강조하려는 것도 맞고, 이를 위해 밤과 아침을 대비되게 연결한 것도 맞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각 인물에게 ‘공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③ 각색 : 같은 작품의 두 버전을 주고 비교하는 유형은 ‘현대소설-극’, ‘고전소설-고전소설’, ‘고전시가-고전소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엮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통된 줄거리를 확실히 파악하고, 문제를 풀 때는 두 지문의 형식상 차이를 빠르게 골라내면 됩니다.

[28~31] : 현대시 '증가/노래와 이야기' ☆☆☆☆

1 <보기> 확인

— <보 기> —

(가)에서 화자는 '증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증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증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증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증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가)와 (나)의 주제를 제시하는 친절한 <보기>입니다. (가)는 '증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는 '시' 속에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2 문제 검토 → 풀이 순서 결정

문제	특징	순서
28번 문제	적절+부분 (가)	1
29번 문제	적절+부분 (나)	2
30번 문제	적절x+부분 (가)(나)	3
31번 문제	적절x+부분 (가)(나)	4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30번, 31번 문제를 먼저 해결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두 문제에서 묻는 '부분'이 지문에 굵은 글씨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분'을 묻는 문제의 느낌이 사라지게 되니, 물어보는 '부분'이 확실하게 표시된 28번, 29번 문제를 먼저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실천적 지문 독해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증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고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곱팡이가 나도록 알려어지는 않아도 증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쪼쟁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뒫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골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영기었다고. 지금도 증가 뒫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들들한 달갈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증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

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증가』 -

- * 지손 : 만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 * 뒫밥 :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골림 :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굵은 글씨를 다 삭제하기는 했지만, 실천적으로 독해할 때는 굵은 글씨 위주로 읽으면서 '증가'를 비판하고 있다는 걸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반어법'이 쓰인 작품이에요. 2018학년도 수능의 '묘비명'처럼, 반어법임을 알아차리면서 주제를 파악했다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친절하게 <보기>에서 주제까지 제시했으니까요!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병한 귀신을 쫓아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많은들 알고 계실 '처용가'의 이야기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네요. (어떤 작품인지 모르면 꼭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노래'와 '이야기'를 대비해가고 있는데, '이야기'로 시를 쓰면서 '뇌수'(이야기)와 '심장'(노래)이 긴밀히 '결합'되길 '바라는' 화자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결론만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 해석은 문제에서 해 줄 테니까요.

4 실전 문제풀이

28.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돌아갈 ‘부분’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층층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 지손 :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터지듯 흩어지는데 왜 번성이야.
해설	‘번성’과 ‘자부심’이라는 말을 허용하려고 해도,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모습은 ‘해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바로 뒤 맥락에서도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구요.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돌아갈 ‘부분’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선택률	8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일단 ‘날름히’와 같은 표현을 근거로 하면,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 선지는 <보기>에서도 언급한 이 지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선지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돌아갈 ‘부분’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 * 뒷밥 :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람들 괴롭힐 정도면 위세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시기심’을 어디서 허용하지?
해설	‘동네 백성들을 잡아서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은, 종가가 가진 ‘위세’를 허용하기에 충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시기’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죠? 물론 여기에 ‘비판적’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 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돌아갈 ‘부분’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누가 봐도 놀리는 건데 존중은 무슨.
해설	‘아-무런 재주도 없다는데, ‘존중’을 허용하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놀리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돌아갈 '부분'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 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누가 봐도 놀리는 건데 선망은 무슨.
해설	4번 선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누가 봐도 비꼬고 놀리는 것이지, '선망'이라는 심리를 허용하기는 어려워보여요. 이 지문의 주제와 정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하구요.

2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A]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B]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선택률	8%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기서의 가사는 '노래'가 떨어진 것이지.
해설	맥락을 독해해보면, '귀신을 끌어 엎드리게' 한 '노래'와는 달리,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는 '목청', 즉 '노래'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말을 허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결합 아니라니까.
해설	1번 선지 해설과 마찬가지로,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한 것이 아닌 분리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선택률	1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말에 노래를 골라 넣는 거지.
해설	첫 행에서부터 '노래=심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심장의 박동'이라고 하면 '이야기'보다는 '노래'를 떠올리는 게 더 자연스럽죠? [B]는 '말' 속에 '노래'를 골라 넣는 상황이므로, '말'에 '이야기'가 연결되었다는 3번 선지는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러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선택률	5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3번 선지 해설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지요? 나아가 '말'(이야기)와 '노래'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 이 지문의 주제임을 <보기>로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네요. 이처럼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의 정답 선지는 대부분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는 '이야기'를 도입한 게 아니라니까.
해설	1번, 2번 선지 해설에서 확인했듯이, [A]는 '이야기'를 도입한 상황이 아닌 '노래'와 분리된 '이야기'가 아무런 힘이 없음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도 하나의 글입니다. 독서 지문처럼 '독해'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는 앞 문제들을 통해 (가)와 (나)에 대한 독해를 한 번씩 진행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을 딱히 표시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선지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해봅시다!

- ① (가)는 '정정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돌아갈 '부분'

한참 **정정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밭*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님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끈질기게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엉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뺨들뺨들한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 정도면 종가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해설	'정정' 울리던 옛날의 위엄스러운 모습, '달걀귀신'이 돌아다니는 으스스한 현재의 모습 등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돌아갈 '부분'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선택률	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돌담으로 가려 놓고 검다고 했으면 분위기 허용되지.
해설	'돌담으로 가려 놓고, '검은' 느낌을 주는 '기와집'. 이 정도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기엔 충분하죠? 굳이 어떤 분위기인지 특정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를 드러낸다' 자체는 맞는 말이니깐요.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돌아갈 '부분'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놓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어 닳다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너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선택률	1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나' 뒤에 '노래'의 한계가 나오고 있으니 허용되네.
해설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했고, '노래'가 가진 한계를 제시하며 '이야기'로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근거라면 3번 선지를 허용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돌아갈 '부분'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엮드리게 했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선택률	1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래와 이야기의 결과가 다르네. 비교 허용.
해설	'처용'의 '노래'는 '귀신을 끌어 엮드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엮드리게 했고, 하나는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냈으니 '비교'를 허용하기에 충분하네요.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돌아갈 '부분'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뺨들뺨들한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선택률	67%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금도'는 몰라도, '이제는' '시'의 성질이 변했음을 강조하는 건데?
해설	'지금도'라는 표현 자체로 '불변성'을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는 건 '시'의 성질이 '변화'했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근거가 있는데, '영속성'을 허용하기는 어렵겠네요.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이미 다 읽은 내용이죠? 나머지 내용도 쉽게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독해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기>가 그렇다며.
해설	<보기>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고, 실제로 지문에서도 '-나'의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쉽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선택률	7%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동네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부정적 측면 허용되지.
해설	'동네 백성들은 '모말굴림'도 당하고, '주릿대'에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처'의 근거로 충분할 것이고, '종가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보기에 도 충분하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선택률	68%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처가 노래에 덧나는 건 이야기 속에 '심장의 박동'이 들어간 이후잖아.
해설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난다'고 말하는 시점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은' 이후입니다. 즉, '상처'가 '노래'에 덧나는 것은 시에 '노래'가 들어온 이후의 일인 것이죠. <보기>에서는 이를 '감정의 과잉'으로 인해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한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나는 것은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가 아니라, 노래의 성격이 '과하게' 들어간 결과인 것입니다. 마치 독서 지문의 문제를 풀 듯이, '객관적 독해'를 바탕으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선택률	1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뇌수가 곧 이야기지.
해설	첫 행에서 '노래=심장', '이야기=뇌수'로 지정해주었습니다.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는 건, '이야기'와 '노래'의 결합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시에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 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네.
해설	<보기>에서 제시한 각 작품의 주제를 언급하는 선지입니다. 가볍게 허용해주시면 되겠네요.

5 지문 독해 연습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얇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잡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림히 올라앉는다.

- * 지손 :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돌담’ 속에 ‘튼튼히’ 숨어 있는 ‘검은 기와집’은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은 첫째들로만 이어져 온 큰 집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손’들은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갔던 것이겠지요. 그러는 동안 이 집을 지키는 것은 ‘신주’들입니다. 아마 ‘종갓집’을 지키던 선조들을 의미하겠지요? 이 ‘신주’들은 ‘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상’ 위에 놓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조롱하는 느낌의 어투가 확 느껴지네요.

큰집에는 큰이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테 얼리어 Ning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종갓집’을 ‘큰집’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평소에는 첫째들만 살고 있다가 ‘제삿날’이 되면 온갖 친척들이 모여 바쁩니다. 그런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네요.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끈질기게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춧대를 엉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편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 달갈귀신이 웅웅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 못하는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찢찢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뒷밥 :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한참 잘 나갈 때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짓을 하기도 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재주’도 없이 ‘고리대금’이나 하며 살아 나간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종갓집’에 대한 비판 의식이 엄청난 작품이었네요.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노래’와 ‘이야기’를 대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심장’에 박히고,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고 해요. ‘노래=심장’, ‘이야기=뇌수’로 잡아 놓고 읽어볼까요? 마치 독서 지문을 읽는 것 같습니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처용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래=심장’은 ‘귀신’을 꿰게 할 만큼 강력하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합니다. ‘노래’가 ‘귀신’의 ‘심장’에 박혀 꿰게 만들었지만, 목청이 떨어진 ‘가사’, 즉 ‘이야기’는 ‘뇌수’에 박힐 뿐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노래’에 비해 그 힘이 약한 것이네요.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다시 ‘노래’라는, 즉 ‘심장’에 박힐 수 있는 것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노래→이야기→노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자, 이제 아무도 ‘시집’(이야기)에 ‘악보’(노래)를 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간보’, ‘오선지’가 무엇인지 몰라도, 문장 구조에 따라 각각 ‘이야기’, ‘노래’를 의미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이제는 ‘이야기=뇌수’만 남고 ‘노래=심장’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이야기)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 것이죠. 시 속에 ‘노래’가 사라진 모습이지만, 그 외중에도 ‘노래=심장’을 추구하는 시인들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인이 바로 화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이렇게 ‘노래’를 추구하지만, 화자가 가진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합니다. 아마 ‘노래’는 ‘심장’을 바로 직격하기에, 상처를 더 덧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따라서 화자는 이 상처를 다스리기 위해 ‘심장’이 아닌 ‘뇌수’와 연결된 ‘이야기’로 시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화자는 ‘뇌수=이야기’와 ‘심장=노래’가 긴밀히 결합되는 방식으로 시를 쓰고 싶다는 바람을 보이고 있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되지만, 실전에서 이러한 ‘부분적’인 독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 시 전체에 대한 독해가 가능하도록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 ③ 문학의 독서화: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독서 문제를 풀 때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독해해서 의미 추출하기’ 등의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최근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에요.

지문 내용 총정리

꽤나 난이도가 있는 세트였습니다. 작품의 독해도 어렵고, 선지 판단과 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해설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결국 ‘문학의 독서화’라는 큰 틀에서 출제가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주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28번, 29번 문제, ‘객관적 독해’를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한 30번, 31번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배울 것이 많았던 세트였습니다. 여러 번 복습하면서, ‘객관적 독해’를 통한 선지 판단의 태도를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32~34]: 고전시가 ‘규원가/재 위에 우뚝 선~’ ☆☆☆

1 <보기> 확인

— <보 기> —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우선, (가)와 (나) 둘 모두 ‘이별’에 대한 작품임을 전제하고 읽어야겠네요. 나아가 (가)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화자의 모습을’, (나)에서는 ‘우스운 외양’에 대한 표현을 찾으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나)가 슬픔과 거리를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나요? <보기>의 맥락상, 슬픈데도 그 감정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대신 주목하여 슬픔을 조금 멀리 두려는 시도를 뜻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품 독해해볼까요?

2 문제 검토 → 풀이 순서 결정

문제	특징	순서
32번 문제	적절x+부분 (가)(나)	1
33번 문제	적절+부분 (가)	3
34번 문제	적절x+부분 (가)(나)	2

모두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이니, ‘적절x’의 유형인 32번, 34번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굳이 순서를 엄밀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니까요.

3 지문 독해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화자는 ‘공후배필’까지는 몰라도 ‘군자호구’ 정도는 되는 남편을 원했습니다. 근데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이라는 운명으로 인해 ‘장안유협 경박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요. 제가 따옴표 친 단어들 뜻을 몰랐더라도, 뭔가 남편이 별로라는 느낌은 받으셔야겠어요. 어찌되었든, ‘경박자’인 남편을 맞이한 화자는 ‘살얼음 디디는 듯’한 심정을 느꼈어요.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구나
내 얼굴 내 보거나 어느 입이 날 쫓소나

[A]

‘삼오이팔(15~16세)’를 막 지나서 ‘천연여질(아름다운 모습)’이 된 화자는 남편과 ‘백년기약’을 맺어요. 그런데 시간은 금방 흘러가고, ‘설빈화안(=천연여질)’같은 자기 얼굴은 ‘면목가증’이 되어버렸습니다. ‘봄바

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은, '베울'과 '북'이라는 옷 짜는 도구를 가지고 세월의 빠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차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B]

(중략) 부분에서 아마 <보기>가 언급한 '이별'이 있었을 듯합니다. '매화'는 일 년에 한 번 피고 지는데, 이게 몇 번이나 피고 졌다는 것을 보니 남편은 떠난 지 이미 몇 년이나 된 것 같습니다. 겨울엔 차고 눈이 치고, 여름엔 길고 비만 오고... 각 계절의 자연현상들은 화자의 슬픈 심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같아요.

'삼춘화류'처럼 '춘(春)', '화(花)'가 들어간 단어는 대개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시어인데요, 입과 이별한 화자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삼춘화류'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슬픔을 부각한다고도 할 수 있죠.

가을이 되고 '실술(귀뚜라미)'이 우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동물이 '운다'고 운문에서 표현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투사한 **감정이입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화자가 슬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 '험'이 '생각'의 뜻을 가진다는 것을 몰랐다면, 고전시가 공부 꼭 다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요.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둘러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뗏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굵이굵이 꿇쳐어라

슬퍼하던 화자는 다시 생각해보니(=도로혀 풀쳐 헤니) 이렇게 슬퍼해 봐야 어찌겠냐(=이리하여 어이하리)?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기금(고전시가에 금(琴)이 나오면 악기입니다)'을 꺼내들고, 음악으로 이 슬픔을 좀 달래보려고 시도해요. 근데 자기 악기 솜씨가 '뗏소리 섯도는 듯'하기도 하고, '별학이 우니는 듯'하기도 한데, 정작 이런 훌륭한 연주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 소리 있다마는'에서 보조사 '만'이 갖는 의미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해석을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결국 '부용장'이 적막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 특히 임이 없다는 상황을 인식한 화자는 다시 슬픔을 느낍니다. 간장이 구곡이 되어 꿇어지는 슬픔을 말이에요.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일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슬픔을 달래지 못한 화자는 꿈에서라도 임을 보려 시도합니다. 그런데 '잎'과 '짐승' 때문에 잠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해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자연물을 닮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규원가'의 경우에는 필수 고전시가지기도 하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독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이별한 상황' 정도만 가볍게 잡고 바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더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쪽** 하나니

[C]

- 작자 미상 -

'소나무'와 '버들'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데, 자기 입과 코가 '후루룩 비쪽'하다며 스스로의 모습을 우습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런 사설 시조는 가볍게 읽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하다면 다시 읽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4 실전 문제풀이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A]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꽃은비는 무슨 일고 [B]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C]

- '표현상 특징'을 물어보는, 언뜻 문학 개념어를 묻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품을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선택률	13%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베오리에 북 지나'는 것으로 흘러가는 세월을 은유했으니 맞겠군.
해설	'베오리', '북'은 모두 여성이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고전시기에 자주 나오므로 필수고전시가 공부 잘 되었다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몰랐더라도, 맥락상 이 소재가 사계절의 흐름이 빠름을 비유하는 것은 확실하니,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군요.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선택률	1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차고 찬', '길고 길'은 계절의 특성도 맞고, 단어가 반복되는 것도 맞네.
해설	두 행 모두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이 있고, '차다와 길다'라는 각 계절의 특성은 화자가 주목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언급했겠죠? 따라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선택률	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흔덕흔덕', '흔들흔들'은 둘 다 의태어가 맞고, 발음도 비슷하네.
해설	'흔덕흔덕', '흔들흔들'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각각 소나무와 버들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두 자연물의 움직이는 모습이 유사하다는 것 역시 허용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네요.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선택률	61%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B]는 계절이 달라져도 그냥 화자가 계속 힘들다는 거 아니야?
해설	[A]의 경우, '설빈화안'에서 '면목가증'으로 화자의 모습이 바뀌었으니 화자의 처지가 달라진 것을 허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계절적 배경'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죠? '봄바람', '가을 물'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계절이 봄이거나 가을인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정확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한편 [B]에서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임이 없는 화자의 심정이 괴로울 뿐임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허용할 수 없겠어요.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선택률	10%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구법 사용되었고, 리듬감도 느껴지네.
해설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를 숙지하고 있다면, 두 부분이 대구법이 사용되었음은 쉽게 파악하셨을 겁니다. 또한, 대구법이 사용된다면 거의 무조건 리듬감 역시 형성되므로, 뒷 부분은 판단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율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은 화자가 기대와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 ㉡은 남편을 그리워하다 꿈에서라도 만나려 하는 장면입니다. 이 문항은 해당 부분의 맥락, 그리고 화자의 심정만 제대로 독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선택률	2%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흐릿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해설	바로 다음 행에서 '당시의 용심(마음 씬)'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화자가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화자가 흐릿한 기억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혼란을 느낀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선택률	7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실에서 임을 못 만나니까 꿈에서라도 만나려는 거잖아?
해설	현실에서 화자가 겪는 '문제'는 임과의 이별입니다. 그리고 임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자는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려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선지는 '임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챙겨가도록 합시다.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별을 망각했다고? 그럼 왜 슬픈데?
해설	㉠은 사실 원하던 남편감을 만나지 못해서 기대가 깨진 상황에 가깝고, ㉡은 화자가 임과의 이별에 너무 슬퍼서 시도한 일입니다.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꿈에서 볼지 못볼지 모르잖아?
해설	㉠의 경우에는 이미 일어난 남편과의 만남을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 경우, 곧 일어날 일을 단정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곧 일어났으면 좋겠을 일(=꿈에서 임을 만남)'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선택률	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재회의 필연성'이면 재회를 무조건 한다는 거잖아? 못하는데?
해설	㉠이 '인연의 우연성'을 의미한다는 것 자체는 허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반응을 허용할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죠? 나아가 ㉡이 '재회의 필연성'을 말한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죠. 재회를 못할 것 같으니 꿈에서라도 만나겠다는 것이에요. 나아가 '재회'는 화자 입장에서 하면 좋은 것이지, '우려'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이번 시험의 오답률 1위 문항입니다. 물론 다를 건 없어요. 어떻게 오답률 1위 문항을 해결하면 되는지 알아보려 갑시다.

① (가)에서 '실술이 상에 올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돌아갈 '부분'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숨과 눈물이 실술의 울음에 이입되고 있네.
해설	'실술(귀뚜라미)'이 우는 그 순간, 화자는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슬픔을 '실술'과 같은 주변의 울음소리와 연결지어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돌아갈 '부분'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선택률	34%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한다고? 그렇게 볼 근거가 없는데?
해설	화자는 '부용장이' '적막'해서 그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더욱 슬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특히, 임)와 교감할 수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고전시가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맥락을 '독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돌아갈 '부분'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선택률	6%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기>에서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했는데, 외부 대상은 '소나무'랑 '버들' 밖에 없었잖아? 맞겠네 그럼.
해설	사실 지문만 보고는 동질성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 외부 대상과의 동질성을 단정하였기에 빠르게 옳은 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돌아갈 '부분'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옮겨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쪽 하나니

선택률	45%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자의 기분은 더러운데 '삼춘화류'는 멋지니 외부와의 '단절감' 허용되었고, '버들'은 화자의 외양과 비슷한 것으로 표현되었으니 '단절감' 아니네.
해설	'삼춘화류'라는 단어 자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근처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바로 위 세 행에서는,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지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굶은비가 오는 '여름'이 지나도 '임'이 오지 않는 상황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의 내면은 당연히 우울할 텐데, '삼춘화류'는 '호시절의 경물'로 아름답지만 합니다. ('삼춘화류'가 무엇인지 몰라도, '봄 춘' 자와 '꽃 화' 자를 보고 화려한 느낌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화자의 내면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고,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외부와의 단절감'까지 허용시키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한편 (나)의 '버들'이 화자와 동질성이 있다는 것은 3번 선지에서 언급했듯이 <보기>에 드러나 있으므로, '버들과 달리'라는 말도 쉽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꽤나 어려웠지만, 결국 '맥락을 바탕으로 한 독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최근의 문학 문제네요.

- ⑤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돌아갈 '부분'

입 그려 우는 눈물은 옹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쭉** 하나니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선택률	9%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후루룩 비쭉' 정도면 우스운 외양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네.
해설	<보기>에서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고 해석을 단정하였으니 '후루룩 비쭉' 정도는 '우스운 외양'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긴 한숨 지는 눈물'은 정말로 슬픔 그 자체인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죠?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이별이라는 주제: 이별을 다루는 작품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봄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한 다든지, 임과 단절된 시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든지,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별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읽어보고 익숙해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③ 고전시가 독해: 이 세트가 어려웠다면 고전시가 자체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BS 연계도 좋지만, 모르는 단어가 절반 이상이었다면 필수고전시가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역시 난이도가 꽤 있는 고전시가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시 세트와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결국 '독해력'과 관련되어 있었죠? EBS에 매몰된 공부가 아닌, 근본적인 '독해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에서의 '독해력'을 키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1~4]

2021.12 [34~37] 기술 '3D 합성 영상' ☆☆☆☆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섬세한 입체 영상 구현'이라는 목적을 가진 '3D 애니메이션' 기술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연 영상'을 촬영하여 화면에 표시할 때와는 달리, 이런 '3D 합성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당연히 이 지문의 화제는 '3D 합성 영상 만들기'가 되겠죠? 이 기술의 목적이나가요. 이 '목적' 확실하게 잡아 두고, 이를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문장이네요. '모델링'과 '렌더링'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글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먼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고유의 값'을 설정·수정하는 단계예요. 일단 각 물체마다 '고유'의 값, 즉 '고정 값'을 설정한다는 것을 체크해주셔야 하고, '모양과 크기, 위치, 표면 특성' 등이 그 '고유'의 값'에 해당한다는 것도 인식해주셔야겠네요. 일종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문장'에 해당하니까요. 앞으로 '모양과 크기, 위치, 표면 특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 나올 것이 뻔하죠? 이를 미리 인식했다면 정보를 처리하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먼저 '모양과 크기'입니다. 이를 위해선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고 해요. 이 작은 삼각형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물체의 표면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를 이용하면 복잡한 굴곡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3D 영상을 만들려면 복잡한 굴곡을 처리하는 건 기본이겠죠? '모델링' 단계에서 그 작업이 수행되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그런데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이 곧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점'의 개수와 위치는 변하지 않는 '고정 값'이라고 해요. 확실하게 체크해야겠죠? 거의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 표시한 부분에선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읽고 카테고리를 정확히 잡았다면, 이게 각각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모양과 크기'는 '정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공간적인 위치'는 거기에 맞게 정점들을 이동시키면서 나타내는 것이네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얼마나 수월해지는지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물체 표면'입니다. 역시 첫 문장에서 제시한 '고유의 값'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정보죠? 이는 '삼각형 면'을 통해 구성하는 것으로,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day 1에서 봤던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영상 안정화 기술' 지문의 2문단 전개 방식과 상당히 유사해요.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보며, 모의평가와 수능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생각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과 관련된 고유값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힘들지라도, 다시 분석해볼 때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제시되는구나!'하고 평가원의 서술 방식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생각 심화

이 문단에 제시된 '삼각형의 꼭짓점', 즉 정점은 day 1에 수록된 지문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영상 안정화 기술' 지문의 '특징점'과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움직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니까요. 그해 모의평가가 수능과 강력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몇 년간의 수능에서 보이는 일관된 사실입니다. 스스로 day 1 영상 안정화 기술 지문으로 돌아가 특징점과 이 지문의 정점이 어떤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를 화면출력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이번엔 '렌더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는 곧 '모델링' 과정을 통해 만든 '고유의 값'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수식되어 제시되었으니, 한 번 더 인식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렌더링'은 전체 화면을 '화소'라는 것으로 잘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화소'의 개수도 고정값이예요! 고정값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개수의 화소별로 '밝기 ·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렌더링'에서는 '원근감'과 '입체감'도 구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입체감'을 구현하는 것은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 즉 '삼각형 면'을 바탕으로 구성된 '색과 질감'을 드러낸다는 걸 잡아주셔야 합니다. 앞 문단에서 '표면 특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예요! 이 '표면 특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이 지문의 이해도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렌더링'의 목표는 '2차원의 화면 생성'이예요. 그럼 '화소값'을 부여하는 행위가 곧 '2차원의 화면 생성'을 위한 것임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독해는 끊임없는 길찾기의 과정이예요. 길을 잃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되구요! '렌더링'의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이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앞 문단의 '삼각형 면', '색과 질감'이 떠올라야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는 습관이 잡혀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더 이상 평가원이 이런 연결고리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 프레임이 완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①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②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③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

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 정점 개수 ↑, 화소의 수 ↑(해상도 ↑) → 연산 시간 ↑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이 지문의 화제인 '3D 합성 영상'이 된다고 합니다. '동영상'이라는 말로 제시되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3D 합성 영상'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아무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 때는 '모델링', '렌더링'과 관련된 계산을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정점과 화소의 수가 많으면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비례/증감 관계로 보고 메모를 해도 되겠지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나아가 '정점'은 '모델링'과, '화소'는 '렌더링'과 관련된 정보라는 것까지 계속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정점, 화소 등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병목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 할 텐데, 그게 바로 'GPU'네요. '코어'를 엄청 많이 탑재한 'GPU'는 그래픽 연산만 가능하고 CPU의 코어에 비해 연산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쓰는건가했더니, '동일한 연산의 반복 수행'의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CPU와 구분되는 GPU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개별 코어의 연산 속도는 느리지만, 동일한 연산을 반복할 때는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래의 3단계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각 코어에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는 것이네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역학' 관련 지문에서의 '양자 컴퓨터'와 비슷한 내용이지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다면, 다시 멈춰서 생각해 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읽고 있죠? 그렇죠. '프레임 생성을 위한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읽고 있어요. 그럼 '프레임 생성'은 왜 하는데요? 이걸 순서대로 표시하여 지문의 화제인 '3D 합성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읽어낸 것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이라이트 문장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GPU가 등장하는 순간 CPU와의 차이점을 잡아야겠다는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GPU의 사용 이유에서 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동일한 연산의 반복 수행에 있어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연산 속도 자체는 느리고요. 이렇게 CPU, GPU 같이 비슷한 카테고리의 두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를 통해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합시다!

생각 심화

정점의 개수가 많고, 화소의 수가 많으면 연산량이 늘어나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 메커니즘은 너무나도 지겹게 기술에 출제됐던 요소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음성 인식 기술'에서도 그렇고,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영상 안정화 기술' 지문에서도 그렇고 문제로도 여러번 구현이 되었을 만큼 자주 등장하는 메커니즘이니 이제는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43%	26%	9%	11%

① '자연 영상'과 달리 '3D 합성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 '자연 영상'이라는 개념이 어디쯤 있을지 생각하고 지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② '표면 특성'은 '모델링' 단계에서 '삼각형의 면'에 '고유의 색과 질감이 지정됨으로써 결정됩니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이를 통해 '화소값'을 정해 줄 뿐이에요. '표면 특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확히 잡았는지 묻는 선지네요. 이렇게 불친절하게 제시하는 정보는 대부분 선지로 출제됩니다. '생각'을 선제적으로 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 수 있겠죠?

③ '원근감'과 '입체감'은 '렌더링' 단계에서 '화소값'을 통해 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의 정의는? '관찰 시점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 '렌더링'의 수식된 정의와 함께, '화소값'이라는 정보의 역할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아주 쉽게 지워낼 수 있었을 거예요.

④ 해상도가 높다는 건 화소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연산 시간을 늘린다는 건 가볍게 납득해 둔 정보죠?

⑤ '병목 현상'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병목 현상'은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리 능력을 초과한 양이 집중되었기에 몇몇 데이터들이 연산되지 못하고 차례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맞잡에 줄 서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2.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73%	9%	11%	3%

-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각 물체 '고유의 값'을 설정하는 '모델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문부터 정확하게 체크해야 해요.

① '모델링' 단계에서는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신경 써줘야 합니다. '모델링'은 물체의 '고유의 값'을 설정하는 단계이기에, '위치'라는 고유의 값 역시 무조건 계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 건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렌더링' 단계에서죠.

생각 심화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의 생성에 대한 얘기이고, '렌더링'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 화면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3차원' 공간 생성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위해서라면 삼각형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 해줘야 하는 것이죠. 만약 현재 화면에 보이는 지점이 아니라고 해서 삼각형 정점 위치를 지정해주지 않을 경우, 렌더링 시 관찰 시점을 바꾸어 화면 옆이나 뒤를 보게 될 경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 시 정면을 제외한 옆이나 뒤는 삼각형 정점 위치 및 표면 특성 등을 지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즉, 모델링에서 '3차원' 공간을 만들고 그걸 관찰 시점에 따라 '2차원' 화면에 옮기는 것이 3D 합성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네 그렇죠.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은 '3D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③ '표면 특성' 역시 '고유의 값' 중 하나였어요. '고유의 값'이라고 했고, 심지어 '하나씩' 지정된다고 이야기했으니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을 함께 부여할 리가 없겠죠.

④⑤ '2차원 화면', '관찰 시점'은 모두 '렌더링'과 관련된 정보들이죠?

3.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12%	17%	37%	27%

①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GPU'의 핵심입니다. 만약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한 번에 처리되어 연산 시간이 짧아지겠죠.

② GPU 기술의 핵심은 '하나의 연산 명령어'입니다. 이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바탕으로 '동일한 연산의 반복 수행'을 빠르게 해 낼 수 있는 것이 GPU의 장점이었어요.

③ GPU의 코어는 CPU의 코어보다 저속으로 연산한다고 했습니다. '저속으로 연산'이라는 건 단점이기 때문에, 해결책처럼 제시한 GPU를 읽으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정보였어요. 해결책이라면 좋아야 할 텐데, 단점이 제시되니까요! '능동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 이상함을 느꼈다면 너무나 쉽게 지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④ GPU의 핵심은 '동일 연산을 한 번에 수행'입니다. '한 번에 수행'이라는 메리트가 빠져 버리면, 코어가 몇 개든 연산 시간은 동일하겠죠. 3,000개의 코어가 있어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나머지 2,999개의 코어는 쉬고 있을 테니까요.

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GPU의 핵심은 '동일 연산을 한 번에 수행'입니다.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가 한 번에 처리하는 것과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가 한 번에 처리하는 것 모두 걸리는 연산 시간은 같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5번을 답으로 골랐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선지를 대충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문제풀이의 대원칙은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입니다. 나머지 선지들에서 '연산 시간'을 묻는 것과 달리, 5번 선지에선 '데이터 전송 시간'을 묻고 있어요. 즉, '한 번에 연산'이라는 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GPU와 관련된 과정으로 돌아가보니, '데이터 전송'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는 거죠. 10개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전송될 테니까요.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언제나 강조하던 내용인데, 생각보다 의식하기 쉽지 않죠?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4%	8%	11%	33%	24%

- 주어진 그림부터 분석해봅시다. '장면 1'에서 '장면 2'로 넘어가면서, 풍선의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을 이루는 삼각형의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 것으로 처리했겠죠?

나아가 '장면 3'에서는 네모가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모델링에 따르면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풍선의 크기를 유지한 채로 '이동'만 하고 있으니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은 크기가 달라지지 않고 '이동'만 했겠죠? 다음 단계인 렌더링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장면에 적절한 화숫값을 부여하여 원근감을 부여할 것입니다.

①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입니다. 이때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숫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죠. 7번 문제의 1번 선지를 판단하면서 생각했듯이,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렌더링'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에 굳이 화숫값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아가 '렌더링' 단계는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기에,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을 구현할 필요가 없겠죠. '렌더링'이 뭘 하는 단계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한 선지였습니다.

② '모델링' 단계에서 '정점의 개수'는 고정값이었습니다. 미리 체크했더니 편하죠?

③ 그림을 정리하며 미리 체크한 정보죠? '물체의 크기'라는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손쉽게 지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④ 미리 정리했듯이, 모델링 시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이동'만 하고 있으니,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은 그대로 이동만 할 뿐 크기가 변하진 않겠죠? 나아가 '장면 3'의 '원근감'은 '렌더링' 단계에서 구현됩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구현하는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삼각형의 크기를 줄일 이유가 없겠죠. '모델링'과 '렌더링'의 명확한 비교가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었어요.

⑤ '렌더링' 단계에서 '화소의 개수' 역시 고정값이었죠?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고정값 체크를 하지 못한 안타까운 학생들이 무려 20%가 넘는 모습이에요.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기술의 목적 : 기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반드시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생각하며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③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⑤ 고정값 : 고정된 값이 제시되면 확실하게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다른 개념들과 비교될 때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일단 문제에 나오니까요!
- ⑥ 과정과 비례/증감 관계 : 이해하지 못한다면, 핵심은 '시각화'입니다. 번호를 매기거나 메모하는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납득'하는 것입니다. 지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왜 그런 과정이나 비례/증감 관계가 나타나는지 '납득'하도록 합니다.
- ⑦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0]

2021.12 [16~21] 인문 '북학파와 청나라' ☆☆☆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파'들의 '북학론'에 대한 지문입니다.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것'이 '북학론'의 정의네요. 수식된 정의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북학파'들의 '북학론'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라는 것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다르게' 반영된 것이죠. '중화 관념'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북학론'에 차이가 생긴다는 식으로 재진술을 인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제가'와 '이덕무'의 '차이'에 대해 소개하겠지요? 이들의 '북학론'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둘 다 북학론을 지지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야 하고 '순서대로 전개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먼저 '박제가'의 북학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제가'는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박제가'에게 청의 현실은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청의 현실은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고,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중화 관념의 절대성'이라는 것도 인정하여, 조선 역시 '중화와 합치'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네요.

여기까지 제가 밑줄친 부분들(위에서 따옴표 친 부분들이)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건 인식할 수 있겠지요? '박제가'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한 '청의 현실'은 곧 '손상 없이 보존된 중화'였고, 이것은 '절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선이 '합치'되고,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말'을 인식하며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청'이라는 나라는 조선이 아버지로 모시던 '명'을 멸망시킨 나라이기에 그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 거예요. 이를 이용하면 '박제가'가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익'을 논했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사 필수 시대이 만큼, 이 정도로 독해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해당 문장을 읽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는 어쨌든 '박제가'가 반박하고 있으니, '박제가'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 '박제가'가 이 반론을 위해 '이익'을 이야기했다는 것까지도요!

'박제가'의 '이익' 이야기는 '주자학자들'과도 충돌했습니다. '주자학자들'의 정의가 수식되어 제시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체크하고 계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박제가'는 '중화'라는 것이 완벽하게 보존된 '청의 현실'을 조선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거네요. 무수한 재진술을 바탕으로, '박제가'의 북학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이라이트 문장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북학론에 대한 박제가의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문장입니다. 인문 지문은 사람의 주장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요? 명보다는 청이고, 청 문물제도로 인한 '이익'에 기대어 북학론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덕무는 『임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조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엔 ‘이덕무’라는 사람의 ‘북학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 그 어디에도 ‘북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화제를 잊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어야 해요!

아무튼 ‘이덕무’는 ‘박제가’와 달리 ‘청의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 등은 그 ‘예시’로 제시된 것이네요. 가볍게 인식할 수 있겠죠? 좋은 것만 ‘선택적’으로 기록했던 ‘박제가’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네요. 이게 바로 그들의 ‘차이’에 해당하나 봅니다. ‘북학론’이라는 큰 공통 범주 속에서, ‘청의 현실 인식 방식’이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제가’와의 ‘공통점’도 드러납니다. ‘청 문물의 효용’을 긍정적인 것이네요! 1문단에서부터 ‘박제가’와 ‘이덕무’의 ‘차이’를 화제로 잡았다면 이들이 비교/대조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공통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읽을 수 있었겠네요.

생각 심화

사실 이들이 ‘청의 문물’에 관심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낳은 공통 범주가 바로 ‘북학론’이었으니까요. 수식되어 제시되었던 ‘북학론’의 정의를 다시 한번 체크하신다면, 왜 이런 공통점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이덕무’는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죠. 이는 다음 문장에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로 두 번이나 재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평등견’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로부터 ‘평등/견’, 즉 ‘평등하게 보는 견해’니까요.

그런데 ‘이덕무’는 뜬금없이 ‘명에 대한 의리’를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이야기했지만,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박제가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만주족’은 청의 민족을 의미해요.)

‘북학론’이라는 공통점, ‘청의 현실 인식 방식’이라는 차이점 및 ‘평등견’이라는 추가적인 주장까지 이해하길 요구하는 지문이었습니. 재진술이 워낙 많았기에, 쉽게 해낼 수 있었으리라 믿어요.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변형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떠났던 18세기 후반의 ‘중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중국은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고 해요. 아래에 나오는 ‘시장, 국내 교역,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모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에 해당하죠? 모두 같은 말로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국내적 요인’ 외에도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국내’와 ‘외부’로 나누어 18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제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중국은 정말 가치 기준으로 삼을 만한 나라였나봐요. 이렇게 (가)와 연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한 지문이에요.

하이라이트 문장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다음의 문장들이 모두 경제 발전에 대한 재진술임을 잡아내려면,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이 문단의 카테고리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의 변형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 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변형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단순히 중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19세기에 접어들며 겪은 ‘내외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학파들의 연행’ 이야기를 살짝 하고 있어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잠시 잊었던 분들도, 여기서 (가)와의 연관성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등의 북학파들이 그렇게 동경했던 ‘청’이 사실은 뼈그덕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했더니,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라는 동안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고, 이 ‘결사 조직’은 ‘불법, 반란’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라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해요. 이 역시 ‘인구 증가’와 관련된 것인데, 인구가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결국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폐단이 나타난 것이네요. 여기서 이 모든 문제들이 ‘급격한 인구 증가’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까지

잡아주셨으면 정말 좋았겠네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정보를 카테고리화시키는 것, 정보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가)와 (나)를 연계하여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북학론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청'이 사실은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 위기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위기'였다는 것까지 큰 카테고리를 정확히 설정하시면 독해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통치자들도 변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치자들도 경제적인 변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 어떤 불안인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을 통해 대충이나마 알 수 있네요. 이는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 축소'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통치자들의 불안감이 잘 나가면 경제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앞 문단과 연계해서 이 정도 생각까지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만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족 같은 문장이네요. 전반적으로 '북학파'들이 본 청의 모습과는 달리 처했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가)와 자연스럽게 비교 포인트가 잡히죠? 지문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정부가 외국과의 접촉을 차단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다음 문장들을 읽어보면 모두 재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문 지문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재진술을 해가며 읽게 되면 시간 단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생각 심화

사실 (나)의 2문단, 3문단은 각각 청의 '내적 위기', '외적 위기'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2문단 첫 문장에서 청이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는데, 이에 맞춰 2문단에선 '내적 위기'를, 3문단에선 '외적 위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평가원이 '카테고리를 만드는 문장'을 얼마나 집요하게 활용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뒷 내용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문장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5.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7%	6%	8%	12%	7%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박제가', '이덕무'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북학론 +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 및 견해 간의 차이(청의 현실 인식 방식)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정답 선지네요.

② (가)에서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한 건 당연히 맞는데, '역사적 의의와 한계'요? 그런 건 나온 적이 없죠.

③ 다 좋은데, '시대별 기준'이 틀린 말이에요. 마지막 문단의 '생각 심화' 내용에 따르면, '내적/외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상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중국의 '사상적 변화'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의 화제를 완벽하게 잘못 잡은 선지네요.

⑤ (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는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6.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13%	16%	62%	6%

① '박제가'는 '청의 현실'을 선택적으로 다루면서, 이 현실이 곧 '중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곧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했겠죠.

② '박제가'는 '청의 현실'이 곧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진술된 '같은 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선택적'으로 다루었는데, 그 예시 중 하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한 것이었어요. '예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잡혀있었다면 너무나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였네요.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은 당연히 긍정했지만,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에게 '중화'의 중심은 '명'이었고,

이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본인의 주장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덕무’라는 사람의 주장을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체크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였네요.

⑤ ‘박제가’와 ‘이덕무’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중화 관념’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른 차이를 보였을 뿐이죠. ‘박제가’는 ‘청’으로, ‘이덕무’는 ‘명’으로!

7.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	53%	5%	33%

- ‘평등견’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무려 세 문장을 통해 재진술되었기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핵심은 ‘청’과 ‘조선’의 가치를 모두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①② 어느 한 나라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③ 무시무시한 선택률의 오답 선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선지를 대충 보고 있는지 보여 주고 있어요. 선지에서는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한다는 당연히 맞는 내용뿐만 아니라, ‘풍토로 인한 차이 해소’까지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견’의 핵심은 두 나라의 ‘차이’를 포함한 가치를 모두 인정하자는 것이지, ‘차이를 해소’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차이’를 그대로 둔 채 공존하자는 것이기에, ‘차이를 해소’하자는 이야기는 ‘평등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인 거죠! 이처럼 ‘재진술’을 여러 번 해 준 정보는 정말 디테일하게 묻겠다는 것이 평가원의 의지입니다. 지문 독해부터 선지 독해까지, 어느 하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④ 중국인의 ‘외양’에 대한 것은 ‘평등견’과는 다른, ‘이덕무’의 주장에서 살짝 벗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보의 역할을 디테일하게 체크할 것을 요구하고 있네요.

⑤ ‘배타적 태도 지양’, ‘조선의 독자성 유지!’ 이 말에는 ‘청과 조선의 가치 인정’이라는 ‘평등견’의 정신이 담겨있네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청을 배척하지 않고 인정하는 이야기니까요. 단순히 눈앞을 굴리는 것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지문과 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재구성 능력이 있어야 만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능동적인 생각’의 경험만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8.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3%	64%	5%	24%

- ①은 ‘인구 증가’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발생했던 중국의 ‘내적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문의 카테고리를 잘 캐치했다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①② 이들은 ‘경제 발전’이라는, ‘위기’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대한 내용 이죠? 이걸 고르셨으면 정말 크게 반성하셔야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③ ‘인구 증가’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결사 조직’의 성행으로 인한 ‘반란의 위험성 증가’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 완벽한 정답 선지입니다.

④ 이주, 농경 집약화 등은 ‘민간의 노력’에 해당하는 예시였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도, 지문으로 돌아가서 ‘민간의 노력’을 잡아냈어야 해요!

⑤ 아직도 이런 선지에 낫고 있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다른 맥락의 정보였죠. 물론 모두 ‘인구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각 ‘결사 조직의 성행’과 ‘경쟁의 심화’라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한 사람의 주장이라도, 그 주장이 제시되는 맥락이 다른 경우에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높은 오답률을 만들어 내는 요소이기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9.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0%	14%	63%	9%

- 발문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A]에 제시된 ‘박제가의 입장과 (나)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기>의 ‘북학의’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라고 하네요. ‘비판적 읽기’란 독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읽기 방법 중 하나로, ‘글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 효용성 등을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보기> 문제 자체가 ‘비판적 읽기’를 전제하고 출제하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보기> 정리부터 해봅시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신분에 상관없이 시장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모습, 은을 통한 교역 등을 바탕으로 발전한 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A]에 따르면 이는 ‘박제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훌륭하게 ‘선택된’ 청의 현실일 것이고 (나)에 의하면 당시 청의 경제 성장은 잘 반영했지만 그와 함께 나타났던 ‘내외의 위기’를 간과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 정리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죠.

①②③ <보기>에서 미리 정리한 내용이죠?

④ <보기>에서는 ‘은’을 아주 훌륭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것이랑요? <보기> 독해만으로도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⑤ (나)에서는 중국 관료의 부정부패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재상’이 시장에서 골동품을 산다는 것 정도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럼 지배층의 전체적인 면모(부정부패가 심했고, 변영 속에서도 불안함을 느꼈던)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0.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2%	91%	1%	4%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비교/대조 : 차이점은 반드시 '공통점'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 ④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⑤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15]

2021.12 [26~30] 사회(법) '예약' ☆☆☆☆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평가원 법 지문의 단골 손님, '채권'에 대한 지문입니다. '채권', '급부', '채무'라는 개념의 정의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곧 '급부 요구 권리'이고, '채무'라는 것은 곧 '급부 의무'이므로, '급부'를 이행하면 '채무'가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바탕으로 이해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급부'는 '서비스, 재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외의 내용'이 화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 지문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예외'이기도 하니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 문장 앞까지는 '채권', '급부', '채무'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 문장은 좀 결이 다릅니다. '급부'의 종류를 나뉘었니깐요. '서비스 제공'과 '그 외의 내용'으로요.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를 제시해주는 문장이니, 이런 부분도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심화에 들어가야 할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설을 보면서 연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이라이트 문장에 썼으니, 다음 문단과 비교하면서 '진짜 카테고리 제시하는 문장이네?'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심화

사실 '채권, 채무, 급부'라는 개념은 이미 알고 계셨어야 해요. 2019학년도 수능 '법률 효과' 지문 및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법' 지문에서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심지어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은 2019학년도 수능 '법률 효과' 지문에 나온 '변제' 개념이구요. 이처럼 기출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배경지식처럼 가지고 있으면 독해가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신경쓰면서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많은 정보들이 압축적으로 제시되는 문단입니다. 정신 제대로 차리고 읽어야 합니다. 최근 평가원의 길러 지문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밀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문장이 조금 튀기는 느낌이 들면 정신을 집중하고 천천히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채권’과 같은 ‘민법상의 권리’는 ‘계약’ 없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한 뒤 생긴 ‘급부’를 이행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나 보네요. ‘계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지문에선 ‘권리 발생’에 대한 합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 발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권리’를 발생시키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키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1문단 마지막 문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화제로 잡았던 ‘그 외의 내용’ 중 하나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시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될 겁니다.

이는 ‘예약’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고 하니, 그들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정확하게 체크해야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지불하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해요. ‘기차’ 예시는 ‘일상에서의 예약’에 해당하고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과는 구별될 텐데, 왜 그러한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잠시 멈춰 우리가 읽고 있는 ‘예약’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니, 이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기차’ 예시는 기차 탑승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차 탑승 계약 자체를 맺은 것이기에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다음 문장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납득이 됩니다. ‘법적 예약’이라는 것은 ‘본계약’이라는 다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요. 즉, ‘예약’을 하는 순간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지만, 이때의 ‘권리’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 요구권’이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본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거죠.

사실 이 문단까지 읽고서 ‘예약’이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차’ 예시를 바탕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예약’의 핵심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해요. 1문단의 ‘그 외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화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약’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약’이라고 하면 영화표를 예매하거나, 지문의 예시처럼 기차·버스 등을 예약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있는데, 법적 관점에서 예약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니까요. 예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의’가 중요한 건 계속 얘기했었죠?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점유·소유’ 지문에서도, 점유와 소유가 다른 정의를 가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체크했어야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서도 ‘예약’의 정의가 일상에서의 예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체크하겠다는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의 중요성! 잊지 맙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이번에도 해야 할 생각이 상당히 많은 문단입니다. 긴장하고 따라와봅시다. 다행히 꽤 친절하게 카테고리를 나눠 주고 있어요.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이 차이점을 만드는 ‘공통 범주’이고, 이에 따라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네요. 이런 문장들을 바탕으로 지문의 흐름을 예측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약상 권리자’라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번도 정의해주지 않은 개념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생각하길 요구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지문일수록, 이렇게 ‘의문’을 남기지 않으며 읽을 수 있어야 해요. 한 번 생각해봅시다. ‘예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마 ‘예약상 권리자’가 되겠죠. ‘예약’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니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사람이 가지는 ‘권리’, 즉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라 두 가지 ‘예약’의 유형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입니다.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네요. ‘채권’이라면 ‘급부’를 가지고 있겠죠? 이 ‘급부’의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급부’의 정의를 잊으신 분들은 없겠죠? 만약 잊었다면 다시 1문단으로 가서 확인하고 왔어야 해요.) 그러니까,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승낙 요구권’이라는 ‘채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네요.

혹시나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친절하게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급식 업체’와 ‘회사’ 간의 예약이 성립했을 때, ‘예약상 권리자’는 ‘급식 업체’에 해당하겠네요. 따라서 이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이라는 재화를 받는 걸 급부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낙’할 급부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급식 업체’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입니다.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예약 완결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네요. 이 경우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본계약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승낙 요구권'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그런 승낙도 필요없이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네요. (2019학년도 수능 '법률 효과' 지문의 '단독 행위'가 떠올랐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해볼까요?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상 권리자'가 될 것인데, 예약이 성립하면서 발생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식사 제공'을 급부로 하는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부터 '예약상 권리자'에게는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 문단에서 소개한 개념(채권, 채무, 급부, 예약)과 예시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예요. 이 해설에서 배경지식을 사용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문의 내용만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출제되고 있어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여러분은 또 수능에서 실패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런 해설이 당연하게 느껴지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백분위 99 이상의 초고득점이 나올 거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카테고리를 제시해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킬러 파트가 되는 매우 어려운 문단을 읽을 때 '내가 뭘 읽을지'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갖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파도에 휩쓸리듯이 이리저리 방향할 수 있습니다.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의식적으로 찾아가며 지문을 읽어줘야 합니다.

FAQ

Q : 2문단의 '기차' 예시와 여기서의 '식당' 예시가 뭐가 다른지 말 모르겠어요. 둘 다 채권의 행사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전자는 '예약이 아닌 계약'이고 후자는 '예약'인 건가요?

A : 사실 시험장에서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묻고 싶었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할 거예요.

그래도 조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기차' 예시의 경우, 돈을 먼저 지불합니다. 즉, '기차 제공 서비스'라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사면서 바로 계약을 맺은 것이죠. 하지만 '식당' 예시의 경우, 바로 계약을 맺지 않고 '예약'을 통해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두 예시 모두 본계약은 '기차/음식 요금과 서비스의 교환'인데, 전자의 경우 이 계약을 바로 맺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자는 '예약이 아닌 일반적인 계약'이지만, 후자의 경우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예약에서 이러한 '급부'들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약상의 급부'와 '본계약상의 급부'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겠죠?

먼저 '예약상의 급부'는 예약을 통해 발생한 권리, 즉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본계약 성립에 대한 승낙' 등이 될 것입니다. '본계약상의 급부'는 '급식 대금 지급, 식사 제공'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 될 것이구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죠? 이러한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달라지는 양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런데 예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 양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지만 일단 천천히 읽어봅시다.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급부 의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자신의 고의&과실에서 손해가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이런 '예외'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계시죠?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어떤 것인지 봤더니, '채무'의 내용이 '손해 배상 채무', 즉 '돈으로 손해를 물어야 하는' 채무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위에 나온 예시를 끌어올 수도 있겠죠? 회사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식당이 음식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급식 업체와 손님에게 '돈'으로 그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법 지문에서 '예외'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 등장하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가 됨을 인지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증명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카테고리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앞 문단에선 ‘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아 권리 실현을 방해한 경우라면, 이 문단에서는 계약과 관련없는 제3자의 방해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경우에도 ‘예약상 권리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타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급부 내용이 ‘돈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둘의 급부 내용이 동일하다는 걸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네요.

‘예약’이라는 생소한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요구한 지문이었습니 다. 나아가 최근 평가원이 출제하고 있는 고난도 독서 지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 지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눌러서 완벽하게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에서도 한 번 얘기했지만, 앞 문단과 카테고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타인’은 완벽히 다른 존재니까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1.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6%	13%	11%	59%

① ‘계약’이라는 것은 성립과 함께 쌍방의 합의에 따른 채권을 바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겠네요. 이 선지의 내용은 지문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이라는 주요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요.

② 이 선지를 보자마자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 지문의 화제점이요! 단순히 1문단에서 근거를 찾아 지우는 게 아니라, ‘예외’와 ‘화제’라는 중요한 포인트에 주목해서 바로 지워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③ ‘예약상 권리자’가 뜻하는 내용을 생각했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이 사람은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예요. 자신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④ 1문단에서 ‘채권’, ‘급부’, ‘채무’라는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납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2019학년도 수능 ‘법률 효과’ 지문에서도 제시된 ‘변제’ 개념이었습니 다.

⑤ 마지막 문단의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잡았다면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네요.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와 같은 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독해의 기본이예요.

12.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9%	35%	20%	27%

① ‘기차 탑승’ 자체가 채권은 아닙니다. ‘채권’의 정의는 ‘권리’예요. 따라서 ‘기차 탑승’ 자체가 아닌,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 되어야 해요. 이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도, ‘돈을 지불하는 행위’가 이 채권에 대한 급부라는 건 완전 헛소리죠. ‘기차 탑승’과 ‘돈을 지불하는 행위’의 주체가 같으니까요. ‘기차 탑승 요구권’을 가진 승객의 채권에 대한 ‘급부’는 상대방인 ‘기차 회사’의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겠죠.

② ‘기차 탑승 요구권’은 ‘채권’입니다. 만약 기차에 탑승하지 않는다면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에선 이에 대응하는 의무, 즉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틀린 선지입니다.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기차 탑승 계약’을 맺은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채권, 즉 ‘기차 탑승 요구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었을 뿐이죠.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순간에 ‘본계약을 성립시킨 것이므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예약’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 다.

이 선지의 내용 역시 지문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평가원이 ‘기차’ 예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④ 승차권 구입은 분명히 ‘계약’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건 절대 맞을 수가 없겠네요.

⑤ 이 ‘기차’ 예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선지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눈알 굴러보면 5번 선지의 내용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예약’에 대한 설명이기에, ‘기차’ 예시와 정반대의 상황이지요?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와 연결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태도만 갖춰져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13.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4%	22%	28%	9%	7%

- 발문부터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를 찾아야 해요.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본계약에 대한 채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ㄱ~ㄷ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ㄱ.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에서는 예약과 함께 '승낙 요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채권에서 요구하는 급부는 '승낙'이죠?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그저 승낙만 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급식 계약 승낙'이 되겠네요.

ㄱ과 ㄷ이 한 세트이므로, ㄷ부터 확인할까요?

ㄷ. 이렇게 '급식 계약'을 승낙하고 나면, '예약상 권리자'인 '급식 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급식 대금 지급'이 됩니다. 한편, 이 본계약에서 '급식 업체'의 채무는 '급식 제공'이 되겠죠.

ㄴ. 이번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여기서 '예약상 권리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상대의 승낙 등 급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존재하지 않네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계약을 성립시키면, 그때는 본계약상의 급부인 '식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 심화

이 문제까지 풀고 나면 4문단 첫 문장의 '발생 문제의 양상'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예약상의 급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예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에서만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차이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네요.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문제까지 잘 풀어 냈다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1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12%	22%	42%	13%

- 늘 했던 것처럼 <보기>부터 정리해봅시다. '갑'은 '을'과 '머리 손질'을 본계약상 급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제 '갑'에게는 '예약 완결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이 시간에 맞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려 했더니,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갑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것이니, 이 '병'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 '갑'에게 돈을 배상해야 하는 채무가 발생했겠네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한편 '병'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해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겠네요. 둘의 급부 내용은 동일하겠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책임을 지는 상황이네요. 4문단과 5문단의 카테고리르 정확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였습니다.

② 이번에도 '을'에게 잘못이 있는 상황입니다. '을'과 '병'은 모두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든 '병'이든 한 쪽이 배상을 하면 다른 쪽은 채무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③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증명을 해야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사라지기에, 이 경우에도 '을'의 '채무 불이행 책임'은 살아있겠네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나머지는 2번 선지와 같은 내용이죠? 둘의 급부 내용은 '돈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④ 이번에도 '을'과 '병' 모두 '손해 배상 채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구요? '병'은 '타인'이기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해 '손해 배상 채무'를 지는 것이었어요. 애가 정답이네요.

생각 심화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다른 것을 캐치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문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납득하는 연습을 해 주세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책임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불법적인 행위(고의나 과실로 다른 이의 권리 실현 방해)를 했기에 생긴 책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각 책임이 순서대로 '을'과 '병'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쉽게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⑤ 이번엔 '을'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때는 '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다만 '병'은 여전히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과 달리 '갑'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겠네요.

15.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82%	3%	2%	2%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비교/대조 : 차이점은 반드시 '공통점'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④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독해 속도를 늦추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⑤ 예외 인식 : 특히 법 지문의 경우, '예외'와 같은 특수한 상황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확실하게 인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⑥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18]

2021.12 [31~33] 고전소설 '최고운전' ☆☆☆

<보 기>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할, 기지, 당당함을 보인다. 또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한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하여 작품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최치원’이라는 실존 인물을 영웅처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영웅 소설이네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재예(才藝)가 당대에 빼어나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다. “거울이 이미 깨졌거늘 때려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 값을 갚게 해 주세요.”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께 아뢰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破鏡奴)라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말들은 저절로 살찌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호칭이 순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승상=나업’, ‘딸=소저’, ‘아이=장사=파경노’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죠? 항상 새로운 호칭이 나오면, 정말 새로운 인물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는 ‘소저’가 재예(재능과 기예)에 빼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거울을 일부러 깨뜨려 ‘승상’ 집에 취업을 합니다. 말 먹이는 일을 맡겼더니 말들이 저절로 살찌었다고 하네요. 신이한 능력을 가진 영웅의 어린 시절이 소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풀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 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탄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승상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분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가지에 깃들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뵈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뵈

지 못했으니, 노모를 뵈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승상은 닳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했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시를 지었다.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라고 시로 화답했다.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계속해서 ‘파경노’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자, ‘승상 부인’(새로운 호칭이 나와서 생각해보니 새로운 인물이죠? 정확하게 체크해야 해요!)은 ‘승상’에게 ‘파경노’가 다른 일을 하게끔 하자고 말합니다. 이 덕에 ‘파경노’는 동산의 꽃과 나무를 기르는 일을 맡게 되었네요. ‘파경노’는 엄청난 인물이기에, 당연히 이 꽃과 나무들은 잘 자라겠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런 시간의 변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죠? ‘파경노’는 ‘소저’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꾀를 부리고 있어요.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꼬이고 있죠? 영웅 소설의 클리셰를 잘 익히고 있다면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한다.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긴다.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 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묻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 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 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요.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부터 정확하게 읽어내야겠죠? ‘중국 황제’가 ‘신라 왕’에게 무언갈 시킨 모습입니다. ‘신라 왕’은 이걸 ‘나업’에게 넘긴 모습이에요. 그동안 고전소설을 풀면서 생긴 경험치가 조금 있다면, 여기서 ‘나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나업’은 영웅이 아닌 일반인이고, 우리의 ‘파경노’가 활약할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요.

아니나다를까 ‘나업’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웅 ‘파경노’는 ‘기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싸이코가 아니에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파경노’는 슬퍼하는 ‘소저’에게 눈치없이 ‘꽃’으로 장난이나 치면서, 자신이 근심을 없애주겠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파경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히 여겨** 승상께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神人)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백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 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다.
“비록 후한 상을 준다 한들 재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자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소저’는 이러한 ‘파경노’의 말을 ‘승상’에게 전하고, 설득합니다. ‘승상’은 ‘파경노’에게 한 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파경노’는 거절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소저’는 구슬리면 말 안듣는다며 겁박해보자고 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ㄷㄷ 아무튼 이 다음엔 정말로 ‘파경노’를 겁박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보여 주지 않지만, ‘파경노’라는 인물의 영웅적 기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간단한 작품이었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6.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11%	3%	83%	1%

① 오히려 ‘열흘’ 뒤, ‘얼마 뒤’처럼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구성되고 있었죠? 시간의 역전이 있었다면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서술자의 개입 역시 우리가 선제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있었다면 먼저 체크했겠죠. 단순히 서술자가 인물 및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술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나타나야 해요!

③ 언제요...?? 웃기게 표현된 인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④ ‘파경노’, ‘소저’, ‘승상’들의 대화를 통해 ‘석함’과 관련된 사건 해결의 방안(‘파경노’를 겁박해서 해결하게 만들기)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했다면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네요.

⑤ ‘꿈과 현실의 교차’는 대표적인 ‘시/공간의 변화’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이걸 놓쳤을 리가 없죠?

17.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51%	12%	7%	22%

① ‘소저’가 ‘유모’에게 ‘거울’을 주어 보내면서 몰래 따라 나간 덕에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 ‘계기를 만든다’는 내용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또 ‘소저’가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본 뒤 ‘파경노’의 모습을 확인했으니,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 역시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② 앞쪽은 선지 그 자체로 허용이 가능한데, ‘파경노’가 동산의 화초를 관리해서 ‘승상 부인’에게 인정받았다고요? ‘승상 부인’이 말 먹이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서 화초를 관리하게끔 한 것이죠? ‘승상 부인’이라는 새롭게 등장할 때 얼마나 잘 인지했는지, 나아가 사건의 흐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선지였습니다. 이런 선지에 강해져야 문학 고득점이 가능해요! 이런 선지에 강해지기 위해선 ‘내용이 해’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구요.

③ ‘소저’는 동산의 ‘꽃’을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를 ‘부끄러워’ 해서 보지 못했던 것이니 앞쪽 내용은 허용이 되겠죠? 한편 ‘파경노’가 들고 있던 ‘꽃’은 ‘그대를 위해’라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소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④ ‘시’를 통해 ‘화답’한다는 것 자체가 ‘교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기에 ‘승상’에게 저런 제안을 한 것이겠죠?

⑤ ‘나업’이 ‘통곡’하는 ‘이유’를 생각했다면 너무나 쉽게 지워낼 수 있습니다. ‘나업’은 석함의 ‘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통곡’했던 것이예요. ‘통곡’했다는데, ‘슬픔 유발’ 정도는 가볍게 허용할 수 있겠죠. ‘소저’가 ‘슬피’ 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웅 ‘파경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심리의 근거’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선지에 손이 갑니다. 언제나 생각합시다! ‘애가 왜 이리이지?’

18.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1%	4%	21%	60%

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기 위해 ‘헌 옷으로 바꾸어’ 입을 정도면 ‘치밀한 면모’라는 말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지요?

② ‘선관들’이 말머리를 ‘파경노’의 일인 ‘말머리’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설마 ‘선관’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건 아니겠지요?

③ 화초가 시들지 않고, 봉황이 날아들고 하는데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와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길래...!

④ ‘파경노’가 ‘노모’ 핑계를 대는 이유를 생각하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바로 ‘소저’를 화초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였죠? 자신이 원하는 바(‘소저’와의 만남)를 위해 ‘노모’ 핑계라는 기지를 발휘하고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네요.

⑤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과제 해결’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파경노’는 지금 온통 ‘소저’ 생각뿐이에요. 최소한 ‘파경노’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고전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고전소설에선 특히 ‘누가’에 주목합니다. 새로운 호칭이 나오면, 정말로 새로운 인물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19~21]

2021.12 [43~45] 현대시 ‘그리움 /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

이번에도 <보기>부터 확인합시다!

— <보 기> —

이용악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고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향’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버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실전 독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죠? ‘눈’ 내리는 겨울의 ‘고향’ 모습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읽어내시면 충분합니다.

사후적 독해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북쪽’에 눈이 오는지 묻고 있습니다. ‘북쪽’은 아마 화자의 고향을 가리키겠지요? 고향에 갈 수는 없으니 눈이 오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모습이네요.

힘한 버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협한 바람~작은 마을’은 ‘고향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겠죠? 화자는 고향에 누군가를 남기고 왔나봐요. 그리워할 만하네요.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용악, 「그리움」-

화자는 잉크병이 얼어들 정도로 추운 ‘겨울밤’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잠을 깬 정도로 말이죠!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이 심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왜 그곳이 자주 **안 잊히는지** 몰라

<가름쟁이 사래 낀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이센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처진.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수수알이 팡팡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아랫넷가 굽이치던 물길에 옆구리를 들이받아

별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허리 굽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넷가에 소고뼉을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좌르르 좌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치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아, 청청히 푸르던 하늘

갑자기 무섭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 오르면

들꽃 싸아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잔뜩에 호미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왜 그곳이 자주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실전 독해

이번에도 ‘그곳’으로 표현된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품입니다. <> 표시된 부분이 고향에서의 추억에 해당하겠죠? 나머지 내용도 다 같은 말을 할 테니, 나중에 선지 판단할 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사후적 독해

왜 그곳이 자주 안 잊히는지 몰라

가름쟁이 사래 낀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이센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처진.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수수알이 팡팡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화자는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중학생’ 시절 뛰어다니던 ‘콩밭’ 근처, ‘가을’과 ‘여름날’에 대한 회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풍경이 그려지면서 괜시리 우리가 다 그리워지는 느낌이 들죠?

아랫넷가 굽이치던 물길에 옆구리를 들이받아

별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허리 굽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넷가에 소고뼉을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좌르르 좌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치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아, 청청히 푸르던 하늘

계속해서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평화로운 분위기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확실하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갑자기 무섭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 오르면

들꽃 싸아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잔뜩에 호미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여러 소리, 냄새 등을 느낄 수 있는 ‘언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고향에 대한 묘사네요.

왜 그곳이 자주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화자는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고향 생각이 나면 무엇인가가 화자를 부르는 것 같아 오래 서 있곤 했대요. 고향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지문이 길지만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

을 거예요.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19.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3%	6%	5%	83%

- ① ‘오는가’라고 하는 것과, ‘쏟아져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 모두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저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부분인데, ‘거부감’이라니요! 허용할 수 없습니다.
- ② ‘돌아가’ 것은 ‘철길’이고, ‘달리는’ 것은 ‘화물차’입니다. 그저 ‘철길’ 위를 달리는 ‘화물차’일 뿐인데, 둘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있나요? 허용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 ③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초점이 이동한 건 맞지만, ‘정적인 이미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죠? ‘화물차’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동적인데요.
- ④ ‘잉크병’이 ‘얼어드는’ 것은 그만큼 춥다는 걸 의미할 뿐이죠? 화자의 현실(고향을 벗어나 있음)이 변화할 것이라는 건 허용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그리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반응을 근거로 하면, ‘애달픔’ 정도는 너무 쉽게 허용할 수 있겠죠?

20.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3%	64%	10%	6%	7%

- ① 수수알이 ‘꽝꽝’ 여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단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설마 ‘꽝꽝’만 보고 ‘겨울’을 떠올린 건 아니겠죠? 항상 근처 ‘맥락’을 보고 ‘독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② ‘샤르르 샤르르’ 흐르는 소리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화자를 부르는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건 읽어낼 수 있겠죠? 어떤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 ‘무엇이 물살을 헤치는 소리’ 같다고 했으니까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결국 또 ‘독해력’이 핵심이었네요.
- ③ 고개를 들었던 ‘하늘’이 ‘청청히’ 푸르렀다고 합니다. 고개를 든 ‘순간’에 ‘푸른 하늘’이라는 ‘감동’을 느끼게 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④ ‘까르르 까르르’라는 이웃들의 웃음을 듣는 곳이 ‘언덕’이죠? 당연히 그렇게 허용이 되네요.
- ⑤ ‘가을 들’이 ‘또랑또랑’ ‘익는’다고 합니다. ‘또랑또랑’ 정도면 ‘선명하게’ 인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21.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6%	5%	80%	4%

- ① ‘함박눈’을 통해 ‘겨울’의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것,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생명력’ 넘치는 여름의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것 모두 쉽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②③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할 수 있겠죠? 이런 선지에 해설을 바라면 안 돼요!
- ④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돌아갈 날’, ‘귀한’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가)의 화자가 ‘복된 눈’이 오는 날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 (나)의 화자가 고향으로 가겠다고 한 적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보기>를 봐도, (가)의 화자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고향을 바라보지만 (나)의 화자는 ‘기억 속’에서나 그려지는 공간으로 고향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도 (나)의 화자가 고향으로의 귀한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는 건 허용하기 어렵겠습니다.
- ⑤ 역시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해석이네요.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됩니다.
- ③ 문학의 독서화 :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독서 문제를 풀 때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독해해서 의미 추출하기’ 등의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최근 더욱 강화되는 경향 중 하나예요!

[22~25]

2021.12 [22~25] 현대소설 '사막을 건너는 법' ☆☆☆

<보기> 먼저 확인해볼까요?

<보 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 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변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두 지문에 적용하며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누군가의 '전쟁과 관련된 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점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만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쾌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앓아 갔던 아틀리에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머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시작부터 '나의 체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딘가로부터 (아마 전쟁터겠죠?) 집에 도착한 순간 주변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왜 이런 심리를 보이냐 했더니, 자신의 몸에 밴 '전쟁 냄새'와 다르게 밖은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이네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맥이 탁 풀리고', '권태스럽고 짜증스러운' 심리를 보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그러다 '나는 '머칠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시간이 변했다는 것도 확실하게 체크해야겠네요. 여기서 '나는 '나미'라는 인물에게 어떠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묵선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튀기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원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겉에 질린** 해쓱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힐끔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서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가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될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러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 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나가 '나미'에게 들려준 '얘기'는 전쟁터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T라는 곳에서 D 고지까지 '한병장'과 함께 급수차를 몰고 가는 상황의 긴장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표시한 배경 묘사 부분에서 여러분도 괜히 긴장되는 느낌을 느끼셨다면 정말 잘 읽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나'와 '한병장'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누가 어떤 대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장'과 '일병'이라는 계급을 생각하고, 반말과 존댓말을 쓰는 게 누구인지 체크하며 읽으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

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 보지 않으면 **못 전될 것 같은 심정**이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곁엔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케작·연탄불 따위들이 찻작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 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나’는 갑자기 어떤 ‘노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이 어떤 인물이길래 그러냐 했더니,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오늘도 그것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을 계속 찾으려 한다면 자신의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죠. ‘노인’이 물건을 찾는 것과 ‘나’의 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니 ‘나’에게 공감하면서 읽어봅시다.

드디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저것하다가, 갑자기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왜 놀라는 걸까요? 그렇죠. ‘노인’이 ‘물건’을 찾지 않을 줄 알았는데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인’ 때문에 ‘나’의 멘탈이 무너졌다는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럼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22.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80%	2%	10%	1%

① [A]에 회상 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맞고, [B]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인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건 지문의 내용에 완전히 어긋나죠? 이 작품은 ‘나’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을 전달하고 있어요.

② [A]는 애초에 ‘나’가 ‘나미’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어체를 사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당연하고, [B]에도 다양한 현재형 어미(-는다)를 활용하여 ‘노인’을 관찰하는 모습을 전달하고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③ ‘급수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A]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B]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겠죠? 나아가 두 장면 모두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B]의 경우 단순히 ‘나’가 괴로워하는 ‘내적 갈등’이 나타날 뿐, ‘외적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④ [A]에 대화가 삽입된 것은 맞습니다. 반면 [B]에는 ‘노인’의 행동이 드러날 뿐, ‘인물들의 반복적인 행동은 드러나지 않죠? 거기에 ‘갈등 해소 과정’이 드러난다는 것 역시 너무나 헛소리구요. 지금까지 많은 소설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 ‘갈등 해소 과정’이 맞는 선지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챙겨주세요!

⑤ [B]에는 ‘주변 인물의 말’도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건 더욱 아니죠?

23.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1%	4%	3%	7%	5%

① 바로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겠죠? ‘나’의 ‘권태롭고 짜증스러운 심리, ‘나미’와 만나 전쟁의 이야기를 전하는 상황 등을 이해했다면 너무나 쉬운 선지가 되겠네요.

② 음료수가 떨어진 건 D 고지의 병사들이고, ‘나’는 그곳으로 음료수를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디.

③ 동이 트자 적의 경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만 등장했죠. 실제로 공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④ 결혼 계획을 꿈꾸는 건 ‘한병장’이었습니디. 대화가 나오면, 누구의 대사인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⑤ ‘나’가 전장에서 귀환한 후 왜 ‘권태, 짜증’ 등을 느꼈는지, 그 ‘심리의 근거’를 이해했다면 너무나 쉽게 틀렸음을 알 수 있는 선지입니다.

24.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8%	3%	7%	12%	10%

① ‘나’가 ⑥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이걸 ‘노인’을 다시 만나기 전의 소망에 불과하죠. ‘노인’의 모습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닌 데다가 심지어 ‘노인’의 행동이 딱히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디. 찾던 걸 계속 찾고 있었으니까요. (중략) 이후 ‘나’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굉장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② 네 그랬죠. 기억이 안 났다면 ⑥ 근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쉽게 근거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③ 선지를 보고 그 자체로 허용할 수도 있고, 마지막 부분의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를 근거로 허용할 수도 있겠죠. 내용을 이해했다면 딱히 근거를 잡지 않고도 허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죠?

④ '나'는 자신이 '모든 사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알아 주는 이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내용이해를 기반으로 했다면 너무나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네요.

⑤ '나'가 ㉔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건 4번 선지와 같은 논리로 잡아낼 수 있고, '노인'이 ㉖를 상실한 상태라는 건 그것을 찾는 행동으로부터 쉽게 허용할 수 있죠.

25.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7%	6%	66%	16%

①②③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겠죠? 이런 선지들에 해설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④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은 그저 '나'의 감각이 아주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 '전쟁의 실상'이나 '체념적 현실 인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이를 허용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⑤ 설마 '번민'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 건 아니겠죠? '노인'의 행위를 보고 생긴 '번민'(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을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생각 심화

사실 이 문제는 <보기>와 지문의 정밀한 독해를 요구한, '문학의 독서화 경향'에 걸맞는 문제였어요. <보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각 감각에 따라 드러내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1) 청각 :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 (2번 선지)
- 2) 후각 : 과거 경험의 상징적 표현 (1번 선지)
- 3) 시각 :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표현 (3번 선지)

따라서 1~3번 선지 중, 지문의 내용과 들어맞다고 해도 '후각'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는 내용의 선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보기>와의 내용일치'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각'의 경우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까지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를 근거로 4번 선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선지 역시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니깐요.

하지만 <보기>를 조금만 더 '독해'해보면, 이렇게 생긴 '체념'은 어떠한 '사건'을 토대로 흔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고 했어요. 5번 선지의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다시, 만약 4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보았다는 '시각'을 통해 '나'의 '체념'이 드러난 것이라면, 이 '체념'은 '노인'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흔들려야만 합니다. <보기>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깐요!

하지만 지문에서 '노인'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흔들린 것은 '나'의 '안정'이었습니다. 이를 <보기>와 대응시키면, 여기서의 '안

정'이 바로 '나'가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체념' 역시 '모든 사물'과 같은 것들을 보는 '시각'을 통해 얻게 된 것이니깐요.

따라서 4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나방이 떼들' 이야기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 주는 것이지,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니깐요.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나방이 떼들' 이야기에서 '전쟁의 실상', '체념적 현실 인식'을 이끌어낼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평가원이 이렇게 문학에서도 '독해력'을 물어보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 ③ 문학의 독서화 :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독서 문제를 풀 때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독해해서 의미 추출하기' 등의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최근 더욱 강화되는 경향 중 하나예요!

[26~30]

2021.12 [38~42] 고전시가+수필 '사미인곡 / 창 밖의
워석버석~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두 가지 <보기>가 있네요. 모두 확인해보고 갑시다.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천상'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나고, 화자는 '지상의 시간'을 적절히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시간 표현'이 중요하게 다루어질것네요.

<보 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고요함'에 대한 <보기>입니다. (나)와 (다) 모두 '고요함'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선지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이 몸 태어날 때 님을 좇아 태어났으니
훈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 한생 연분임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접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 나 하나 짝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더 노여 없다
→ 이 마음과 이 사랑은 견줄 데가 전혀 없다
평생(平生)애 원(願)호더 허더 네자 호얏더니
→ 평생에 원하니 한 데 살자 했더니
늙거야 무슨 일로 외오 두고 그러는고
→ 늙고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러는가
엇그제 님을 피쳐 광한전(廣寒殿)의 올랐더니
→ **엇그제** 님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그 더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 그 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올 저피 비슨 머리 헛틀언디 삼 년일쇠
→ 올 때 빛은 머리 형클어진 지도 삼년이구나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 연지분 잇지만은 누굴 위해 곱게 할까
마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깃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 깃느니 한숨이고 디느니(?) 눈물이다
인성(人生)은 유한(有限)호더 시름도 그지업다

→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느고야
→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염냉(炎涼)이 썰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 염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 듣거니 보거니 느길 일도 많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쳐 내니
→ **동풍**이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窓) 밧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다
긷득 냉담(冷淡)호더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이나
황혼의 달이 조차 버마티 빗최니
→ 황혼의 달이 좇아와 버 말에 비치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어 님 겨신 디 보내오져
→ 저 매화 꺾어 내어 님 계신 데 보내고자 한다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 -

필수 고전시가 중의 하나인 '사미인곡'입니다. '삼기다', '괴다', '노여', '~할 제' 등의 어휘의 의미와 '동풍', '적설', '매화' 등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의 쓰임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읽어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님 보고싶어요!!!'라고 하는 작품이니까요.

생각 심화

사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사미인곡이 등장한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같은 작가(정철)의 '관동별곡'이 출제되었거든요. 한 해에 같은 작가가 두 번 이상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평가원은 이를 비웃듯이 바로 출제해버린 모습입니다. 사실 이는 2013학년도에도 벌어졌던 일이에요. 당시 6월 모의평가에 사미인곡, 수능 때 성산별곡이 나오면서 '정철'이라는 작가가 두 번이나 등장했었죠. (그리고보니 또 정철이네요.) 선부른 작품 예측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에 기대지 말고 본질적인 실력을 기르도록 합시다.

나아가, 2021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고전시가 세 가지 (관동별곡, 만흥, 사미인곡) 모두 '필수 고전시가'에서 출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심지어 '만흥'과 '사미인곡'은 각주도 주지 않고 출제했어요. 이처럼 평가원이 필수적인 고전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친절하게 출제할 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창 밖의 위석벽석 님이신가 너리 보니
→ 창 밖에 위석벽석 님이신거 일어나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무스 일고
→ 혜란 혜경에 낙엽은 무슨 일이나
어즈버 유한(有限) 혼 간장(肝腸)이 다 그츨가 흐노라
→ 유한한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 신희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도 출제되었던 '신희'의 '방옹시어' 중 일부입니다. 워낙 유명한 클리셰를 가진 작품이에요. '착각' 모티프에 해당하는데, '님'을 기다리다가 다른 물체를 님으로 착각했다는 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죠?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갯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갯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팔팔팔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굳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실전 독해

수필은 대충 읽자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었어요. 더 자세한 건 선지에서 확인해봅시다.

사후적 독해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갯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갯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 당호 : 집에 붙이는 이름.

화자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꽤나 소란스러웠지만 조용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더웠다고 해요. 그런데 화자는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말을 '당호'로 정해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더운 것보다 조용한 게 더 중요했나봐요.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화자는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 중 '마음의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외적 고요'보다는 '내적 고요'를 중시하는 모습이에요.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팔팔팔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다 이사했고, 몇 번 찾아가봤다고 합니다. 그 집의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네요.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 유중영의 옛일: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살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집'은 '그릇'에 가까우기 때문에 그리워한다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다는 반응만 정확하게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프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임원: 산림.

이 집에 살던 과거가 그림지만,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새 집에 같은 이름을 지어 '내적 고요'를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전반적으로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필이었습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26.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10%	6%	76%

- ① '노여'는 '전혀'라는 뜻이고, '다'는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맥락상 '원망'이라는 엄청난 반응을 허용할 근거가 없어요.
- ② '흐느고야'와 '흐노랏'는 모두 '~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의지'라는 반응을 허용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 ③ '매화'는 봄이 되자 피어난 것으로, 화자가 남에게 보내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화자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로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를 보고'라는 표현을 통해 의인화도 되어 있구요. 하지만 '혜경'은 화자의 착각을 유발한 '낙엽'이 있는 곳일 뿐입니다. 의인화가 쓰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화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시'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겠죠.
- ④ 애초에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남과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가움'을 허용할 수가 없겠죠. 두 '므스 일고'는 각각 '암향, 낙엽'이라는, 화자가 기다리지 않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 확실하게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 ⑤ '남이신가'라는 말 자체가 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니, '간절함'은 자동으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근처 맥락을 봐도 모두 화자가 남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구요.

27.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2%	10%	18%	54%

- ① 근처로 돌아가서 독해해보니, '연분'임을 '하늘'이 모르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를 따라가길 바란다는 건 허용이 되겠습니다. '연분'이 '사랑'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만 알아도 쉽게 허용할 수 있겠죠?
- ② 특이하게 1번 선지와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분명 화자는 남과의 '연분'이 '천상의 시간' 속에서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젊음'과 '늙음'이라는 '지상의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평가원만 낼 수 있는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처음 보자마자 해낼 수 있는 수준의 해석이 아니에요.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선지에 대한 판단'이 수능 문학의 핵심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 ③ '광한전'에 올라 남과의 사랑을 나누던 때를 '엇그제'라고 했는데, 그 아래에선 '올 때 빛은 머리 헝클어진 지도 삼년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엇그제'와 '삼년'은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데, '삼년'이라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는 '엇그제'라는 짧은 시간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네요.
- ④ 인생은 '유한'한데, 세월은 '무심'하게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남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불안한 마음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무심한 세월이 빠르게 흘러 가는 것이 '지상의 시간적 질서'라고 부르는 건 전혀 무리가 없구요.
- ⑤ 역시 '독해'가 핵심이었습니다. '염냥'은 '무심한 세월', '동풍'이 '적설'을 헤치는 것, '매화가 피는 것 등과 연관된 시어예요. 즉, 화자의 마음이 무색하게 흐르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염냥'이라는 단어가 '계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라는 표현과 함께 근처 시어들과의 관계를 '독해'했다면 '심리적 지연'은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명심하세요. 시도 결국 '글'입니다. 읽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28.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4%	6%	15%	17%	48%

- ① 창 안에서 '혜란 혜경'의 '낙엽' 소리가 들린다는 건, 주변이 아주 조용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는 '외적 고요'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 ②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겠죠?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남을 기다리느라 불안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겠죠.
- ③ 화자가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고 하는 '사물'은 맥락상 '옛집'의 물건들입니다. '옛집'의 물건이 닿을 때마다 슬프다는 건,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화자에게 '슬픔'이라는,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감정을 줬다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④ 마지막 문단의 표현들을 통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미 고요'한 임원의 새집에도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당호를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는 '군더더기'가 아니냐는 세간의 물음에 대해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으로) 고요한데 또 (당호로도)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내적) 고요함이라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보기>에서도, 우리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는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고요'한 임원의 새집에서 또 '고요함'을 추구한다는 건 곧 '내적 고요'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필'의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선지였네요.

생각 심화

이런 선지, 어디서 많이 봤죠?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40번 문제의 정답 선지를 만드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수필'을 마치 독서 지문처럼 보고 '주제'를 묻는 것! 이런 경향을 수능 때 다시 한번 활용한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문학의 독서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경향임을 깨달을 수 있겠죠?

⑥ 4번 선지를 잘 판단했다면 너무나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군더더기'라고 본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외적으로 고요한데, 왜 또 '고요함'이라는 당호를 붙이냐는 뜻이니까요. 화자는 이에 대해 '내적 고요'도 필요하다는 답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계속해서 '독해력'이 선지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29.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3%	61%	17%	13%

① (가)에서는 '올 때 빛은 머리'라는 외양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기 어렵죠?

② 완전 헛소리죠. 두 작품 모두 '과거 님과의 사랑', '과거의 집'이라는 '오래된 것'에 중요도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③ (가)의 화자는 '남'이라는 부재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고, (나)에서는 '옛집에 함께 살던 '선친, 형제들' 등을 떠올리고 있죠? 손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④ (가)에서는 '유한한 인생'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에 '순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한편 (다)에서는 '인생의 허무함도', '극복 의지' 같은 것도 찾아보기 어렵네요. 허용할 '근거'가 없어요!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남'이라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잘 드러나지만,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 자체가 나타나지 않죠? 화자가 '내적 고요'를 추구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0.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69%	18%	5%

① 여름에 더웠으나 그 더위보다 '고요함'을 더 중시하던 모습을 통해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② (중략) 바로 아래 문단을 통해 허용할 수 있겠죠? '유중영'이라는 과거 인물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만'은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라는 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③ 화자는 '옛집'을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④ '옛집'에 다시 가도 외양은 분명히 그대로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고, '임원'에 새로 집을 짓겠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중략) 아래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그대로 읊고 있는 수준이죠? 해당 내용을 근거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 심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교재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던 '수필은 대충'이라는 원칙대로 풀었을 때 조금은 당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굵은 글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의 내용에 있는 말을 굵은 글씨 처리해서 찾기 쉽게 해 줬다면, 아예 지문을 읽지 않고도 15번~17번 문제를 풀면서 (다)에 대한 독해를 쉽게 해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세트에선 굵은 글씨 처리를 아예 해 주지 않아, 선지에서 묻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찾기조차 힘들어 사실상 처음부터 다 읽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수능에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정말 제대로 읽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소강한 출제였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이야기하던 '수필은 대충'이라는 원칙은 폐기되어야 할까요? 만약 이번 세트에서 (다)와 관련된 문제에 상당히 고전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필은 이제 '독서' 지문의 일종으로 보고, '주제'에 주목하며 꼼꼼하게 읽은 뒤 문제를 푸는 태도를 세워 보는 것이죠. 15번~17번 문제가 아무리 그래도 독서 문제보다는 쉽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갖춘다면 선지 판단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수필은 대충'이라는 원칙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에 대한 단독 문제인 17번 문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문의 흐름에 맞춰 선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번 선지는 앞쪽, 2번 선지는 중간 즈음... 이런 느낌으로요. 따라서 지문을 대충 읽고 문제를 먼저 푸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굵은 글씨가 없어도 저 순서를 생각하면 선지에서 묻는 '부분'을 찾을 만 하니까요.

만약 이 원칙대로 해결을 했고, 이번 세트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더 빠르게 다 맞히기'니까요. 문학의 경우, 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

시기 바랍니다. '문학의 독서화'라는 경향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고전시가 독해 : 일단 겁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겁먹지 않고, 그 내용이 틀려도 괜찮으니깐 '현대어'처럼 읽은 뒤 '독해'하면 됩니다.
- ③ 필수 고전시가 : 필수적인 고전시가들은 내신처럼 꼼꼼하게 공부해두도록 합시다.
- ④ 수필 독해 : 어차피 다 똑같은 말만 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큰 틀'에서, 전반적인 '상황'과 '반응'만 잡는 겁니다! 그 뒤에 선지에서 묻는 '부분'으로 돌아가 맥락을 바탕으로 독해하면 됩니다.
- ⑤ 문학의 독서화 :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독서 문제를 풀 때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독해해서 의미 추출하기' 등의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최근 더욱 강화되는 경향 중 하나예요!